

ISSN 1226-1432

2018년 26권 1호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희경 · 김성훈 / 1
-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오혜림 · 이주영 / 23
-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중단 영향 아영아 · 김진영 / 47
-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성인초기 여성 정체성 연구 최사랑 / 67
-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안나 · 김미정 / 87
-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오은화 / 105
-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백승아 · 구분용 / 125
-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문은주 / 147
-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안현진 · 금명자 / 173
-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선혜민 · 조은희 · 박진희 · 양정하 · 최지이 · 신현주 · 천성문 / 189
-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 미 · 정익중 · 이태영 · 김지혜 · 윤민지 / 207
-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간의 관계 김동심 / 233
-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장지현 · 이정화 / 255
-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영애 / 277

-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황순길 · 이귀숙 · 이해정 / 29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승천 · 김동민 / 321
- 자기자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우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수민 · 양난미 / 343
-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
..... 송수진 · 홍정순 / 365
-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 신순정 · 김광수 / 387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 조규필 · 김기현 · 김수진 · 윤제현 / 413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희경 김성훈[†]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의 변인들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아동·청소년중단패널(KCYPS)』인 1차년(2010년)도 중1 학년과 중3 학년의 3차년(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78개의 학교에 2,225명이 내재된 구조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했다. 1수준 변인은 미시체계와 시간체계로, 2수준 변인은 중간체계로 설정하였다. 미시체계는 성별,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EB), 중3 학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으로 하였으며, 시간체계는 중학교라는 전환기적 환경 변화를 경험한 중1 학년의 학교적응, 그리고 중간체계는 학교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체계 변인인 중1 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중3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전반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중1 학년 때의 학습활동은 .167의 회귀계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특히 전환기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교 1학년 때의 긍정적 학교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생태학적체계이론,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 다층분석, 학교적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성훈,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학림관 512호, Tel: 02-2260-3382, E-mail: shkim1@dongguk.edu

서론

본 연구는 여러 수준의 환경 특성들이 중3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은 후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중요해지는 때이다. 상급 학교를 준비하는 학업 과정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 학교 질서와 문화의 이해 등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은 성인기의 성취와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정아, 2012). 때문에 적응적인 학교생활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기에서 중학생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며, 정체감 형성이 중요해지고, 다양한 학습과 체험적 경험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Thornberry, 1987)하였을 때, 중학교 1학년은 초기(11세~13세)에서 중기(15세~16세)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생태학적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3학년과의 차이를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체변화에 대한 자기 이해와 적응이 중요해지며, 중학교라는 학교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부모로부터의 거리 두기와 또래 관계, 또래문화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때문에 중1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정도는 발달 단계상 중요한 시기인 전환기의 성장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중3 학년은 후기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신체적 성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욱 구체적이게 되며, 학교생활의 적응이 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환경체계들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갈등과 부적응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조아라, 2001). 교육부 자료(2016)에 따르면 2015년도 중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이 재적 학생 대비 0.63%이며, 그 중 학업과 대인관계 등 학교 부적응이 이유가 되어 중단한 학생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그로인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는 다양한 환경체계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체계들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적응과 갈등이 나타나는 역동성이 강한 생태학적 삶의 현장이다. 이러한 역동적 학교 환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적응의 경험은 성인기 발달적 과업의 성취와 성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동시에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생태적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생태학적 사회 환경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환경체계 변인들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이란 체계적(System) 관점과 생태적(Ecology) 관점이 결합한 것으로 유

기체를 둘러싼 여러 겹의 자연적·사회적 환경 안에서 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과 발달을 설명하는 개념 체계이다(Bronfenbrenner, 1995).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는 학생의 개인 특성과 개인의 경험들이 학교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된다. 특히 중학교 과정은 사춘기의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으로 학생 개인의 역할 정의의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을 경험한다.

Bronfenbrenner(1995)는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확장된 환경의 여러 국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는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체계(chronosystem)를 거치면서 둘 이상의 체계를 경험하는 생태학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성장,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생태체계는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후기로 진입하는 생태학적 전환기인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각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별과 현재 학년(중3 학년)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중간체계는 학교 유형(별학, 남녀공학)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삼았으며, 시간 체계는 중1 학년 때의 학교생활 적응으로 하였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 학급, 동아리 등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며, 중간체계는 여러 미시체계의 간의 상호작용(집과 학교, 학교와 학원, 동아리 집단과 학급,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문화, 의사소통 등)들이 활발히 기능하는 환경이다. 시간 체계는 시간의 경과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누적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층분석으로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개인·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체성, 적응 유연성, 자아 탄력성, 스트레스 강도, 학업 동기, 학업 성취 등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은정, 2008; 박소윤, 2017; 소연희, 2007; 김명희, 차경희, 하정희, 2006), 관계적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애착, 리더십,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학교적응과의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이상희, 2011;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정예지, 2015).

위의 선행 연구들처럼 단층분석의 경우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하여 학교 고유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학생에 관한 특성은 학교 환경체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개인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종단연구는 여러 시점에서 얻어진 관찰 값들이 각 개인에 내재되어(강상진, 2016)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KCYPS)에

서 중1 패널의 1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들의 영향을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환경에서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환경에서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학교 간 차이는 어떠한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이론으로 개체의 발달과정을 환경과의 체계적 관계로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 이론은 인간을 독립적인 유기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인식하며, 인간의 발달이 사회·물리적 환경의 맥락 내(development-in-context)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인간에게 미치는 환경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층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을 둘러싼 역동적 생태학적 환경은 수준에 따라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와 시간체계(chronosystem)로 나뉜다. 한 체계 또는 둘 이상의 체계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시점을 생태학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이라고 하고,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미시체계는 개체로부터 가장 인접한 수준의 환경으로 친밀한 환경 안에서 직접 접촉하는 물리적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대인관계를 맺는 행위를 포함하며 개체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진다(Bronfenbrenner, 1993). 예를 들면 생애 초기에는 집과 가족에서 놀이터, 학교, 또래 친구로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는다(Bronfenbrenner, 1979).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가정에서보다 또래 관계에 대한 의존과 영향이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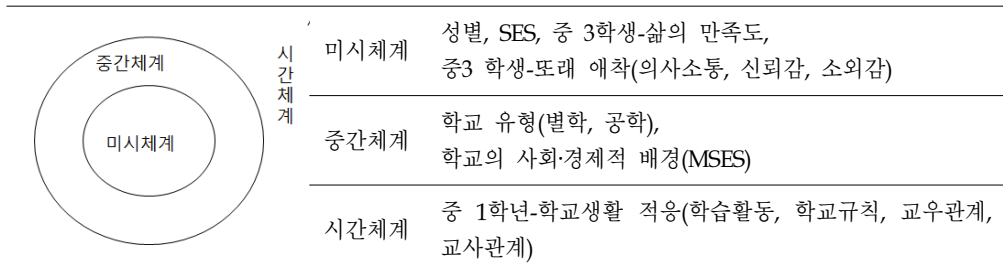
중간체계는 개체에게 존재하는 환경들이 다양하게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망으로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 등, 미시체계 특성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외체계는 중간체계의 확장으로 개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개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로, 부모의 직업 환경, 근무조건, 이웃, 정부 기관, 비형식적인 사회적 관계망,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기회 등은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사는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한다. 이 역시 개체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세대로 전수되는 행동유형, 신념, 관습, 가치관 등, 개체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시간체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하며, 생태학적 전환은 둘 이상의 체계가 주요한 전환을 겪는 시점으로 민감성과 불안이 크게 작동하여 개체의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 학교 중태, 새로운 친구집단 형성 등, 발달과정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건들로 인하여 새로운 중간체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성장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은 환경적 맥락 안에서 각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Lerner, 1991). 이러한 맥락 중심적인 생태환경 체계는 본 연구인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학교 환경 내에서의 영향을 보다 강조하여 알아보하고자 중간체계, 시간체계, 미시체계로의 생태환경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중 3학년의 생태환경체계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혜, 윤종희, 2013).

Spencer(1999)는 학교가 가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그 안에서 개인의 만족감이 충족되는 상태를 학교적응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과 요구 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인 가정 환경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정유진, 1999). 개인적인 변인은 인구학적 특성이며, 가정 환경적 변인은 가족의 형태와 부모의 학력, 경제 수준 등, 물리적 환경과 가족 상호 간의 정서적 관계인 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적 환경 안에는 부모의 심리·정서적인 부분과 부모의 행동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으로 안정된 가정환경과 친애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는 학업 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및 규칙의 준수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환경이 긍정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높은 경우에도 학교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강현미, 2008). 또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높고 수용적인 가정과 신뢰를 중요시한 가정일수록 학교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문선모, 윤기수, 1984).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부모의 사회적 능력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Becker(1993)의 연구에서 자녀의 학업·경제적 성공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 자연스럽게 그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학교 간의 차이를 가져오고 당연히 학생들의 학교적응에도 개인적 요인과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학교효과라고 하며 Raudenbush와 Willms(1995)는 학생 개인의 배경과 학교의 맥락적 요인, 학교의 정책적 실행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삶을 잘 수행해 왔다는 만족함(Fujita & Diener, 2005)을 일컫는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기 존중감, 또래 애착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이나 부모 양육 태도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생태학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며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활안정, 적응성, 자아인식, 정신 건강, 기쁨, 안녕, 복지 등의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Andrews & Withey, 1976).

청소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성별, 자아 존중감, 자아정체성 등이 있으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지원, 가족 구성원의 개방적 의사소통, 애정적인 자녀 양육 태도와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역시 생태학적 맥락의 미시체계로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고등학교보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김의철, 박영신 1999;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지표에 있어 일관성 있게 더 높게 연구되었다(김혜원, 홍미애, 2007). 낮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삶의 만족감을(구현영, 박원숙, 장은희, 2006) 나타냈으며, 최희철, 황매향과 김연진(2009)의 연구 외에 다수의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 학습적인 부분 등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작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주관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임영실, 2004; 허영선, 2009).

삶의 만족도는 현재까지의 개인의 다양한 체계 안에서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되는 것으로 입학 시기인 중 1학년 때와 졸업반인 중 3학년 때의 삶의 만족도는 미시체계의 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전환기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 관계

또래란 서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성숙한 정도의 수준이 비슷하여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Santrock, 1990), 또래 관계는 심리적 발달영역에 있어서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지각과 자기 개념형성, 정서 조절 능력, 언어적·사회적 상호작용, 인지 발달, 도덕적 추론 능력, 대인관계 지향 등을 포함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발달해 간다(Dunn & Slomkowski, 1992; Katz, Kramer, & Gottman, 1992). 또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며, 여러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도 가진다(Dubow & Tisak, 1989; Sullivan, 1953).

Sullivan(1953)의 연구에서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친구 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게 형성될수록 아동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발달에 더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하였으며, Coleman(1993)은 친한 친구의 수는 외로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학교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 친구 관계는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도구적 특성을 발달시키고, 또래에게서 오는 지지는 학교 참여와 성취에 정적인 상관이었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구자은, 2000).

그러나 또래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정서적, 인지적 등의 기능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기에 대립과 갈등, 처벌과 같은 부정적 상호교환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Cole & Cole, 1993; Parker & Asher, 1993).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또래 관계는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없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중단패널(KCYP

S)』로 2010년도 중1 학년의 1차 연도 데이터와 2012년도 중3 학년의 3차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결측치들을 제거하여 최종 78개의 학교와 2,225명의 학생으로 여학생은 1,099명(49.3%), 남학생은 1,127명(50.7%)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변인

종속변인 :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

아동·청소년 패널 설문지로 사용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미시체계, 시간체계, 중간체계로 구분하여 미시체계와 시간체계는 1수준의 학생 변인으로 중간체계는 2수준의 학교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성별과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의 최종 학력을 평균함), 중3 학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이며, 시간체계 변인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적응으로 설정하였다. 중간체계 변인은 학교 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을 학교특성 변인으로 하였다. 학업성취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과 학교 유형은 학교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이범수, 2006)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평균(Mean SES)하여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ean)을 추출하였다. 변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인설명

변인	종속변인 : 중3 학년 학교적응(각 하위변인의 평균값)	α
중3 학교 생활 적응	학습활동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744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중3 학교 생활 적응	학교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789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를 잘 지킨다.	
교우관계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539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친구가 교과서,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준다.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841
미시체계 : 중3 또래애착, 중3 삶의 만족도, 성별, 개인 SES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823
또래 애착	신뢰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 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787
	* 소의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765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813
성별	1. 여(1,099명, 49.3%) 0. 남(1,127명, 50.7%)	
SES	부-최중학력, 모-최중학력, 보호자최중학력의 평균	
시간체계 : 중1학년 학교적응(각 하위변인의 평균값)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본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723
중1 학교 생활 적응	학교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709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친구가 교과서,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말을 잘 따라준다.	.547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828

중간체계 : 학교유형(별학, 공학), 학교MSES

MSES	각 개인의 SES를 학교별 평균으로 산출함	
학교유형	1. 공학 (1,710명, 76.9%)	0. 남, 여 별학 (515명, 23.1%)

* 역코딩 함(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표 2> 연구모형

모형	수식
기초모형	학생수준: $Y_{ij} = \beta_{0j}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모형1 미시체계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개인SES}) + \beta_{3j}(\text{중3삶의만족도}) + \beta_{4j}(\text{중3의사소통}) + \beta_{5j}(\text{중3신뢰}) + \beta_{6j}(\text{중3소외})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 u_{1j}, \beta_{2j} = \gamma_{20} + u_{2j}, \beta_{3j} = \gamma_{30} + u_{3j}, \beta_{4j} = \gamma_{40} + u_{4j}, \beta_{5j} = \gamma_{50} + u_{5j}, \beta_{6j} = \gamma_{60} + u_{6j}$
모형2 시간체계 (미시+시간 체계)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개인SES}) + \beta_{3j}(\text{중3삶의만족도}) + \beta_{4j}(\text{중3의사소통}) + \beta_{5j}(\text{중3신뢰}) + \beta_{6j}(\text{중3소외}) + \beta_{7j}(\text{중1학습}) + \beta_{8j}(\text{중1규칙}) + \beta_{9j}(\text{중1교우}) + \beta_{10j}(\text{중1교사})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 u_{1j}, \beta_{2j} = \gamma_{20} + u_{2j}, \beta_{3j} = \gamma_{30} + u_{3j}, \beta_{4j} = \gamma_{40} + u_{4j}, \beta_{5j} = \gamma_{50} + u_{5j}, \beta_{6j} = \gamma_{60} + u_{6j}, \beta_{7j} = \gamma_{70} + u_{7j}, \beta_{8j} = \gamma_{80} + u_{8j}, \beta_{9j} = \gamma_{90} + u_{9j}, \beta_{10j} = \gamma_{100} + u_{10j}$
모형3 중간체계 (미시+시간 +중간체계)	학생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개인SES}) + \beta_{3j}(\text{중3삶의만족도}) + \beta_{4j}(\text{중3의사소통}) + \beta_{5j}(\text{중3신뢰}) + \beta_{6j}(\text{중3소외}) + \beta_{7j}(\text{중1학습}) + \beta_{8j}(\text{중1규칙}) + \beta_{9j}(\text{중1교우}) + \beta_{10j}(\text{중1교사}) + e_{ij}$
	학교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학교구분})_j + \gamma_{02}(MSES)_j + u_{0j}$ $\beta_{1j} = \gamma_{10} + u_{1j},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 u_{3j},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 u_{5j}$ $\beta_{6j} = \gamma_{60} + u_{6j}, \beta_{7j} = \gamma_{70} + u_{7j}, \beta_{8j} = \gamma_{80} + u_{8j}, \beta_{9j} = \gamma_{90} + u_{9j}, \beta_{10j} = \gamma_{100} + u_{10j}$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다층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1단계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SPSS for Window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

도, 침도,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 HLM 6.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이하 HL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표 2와 같다.

연구결과

1. 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에 대한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78개의 학교와 2,225명의 학생이 연구대상이었으며, 학생 성비는 남학생 50.7%, 여학생 49.3%로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다. 학교의 형태는 공학이 76.9%, 별학이 23.1%로 공학의 비율이 높게 표집 되었다.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기술통계 결과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침도	VIF
GENDER	2225	.49	.50	.03	-2.0	1.08
SES	2225	2.62	1.03	.23	-.76	1.22
중1학습활동	2225	2.73	.50	-.25	.48	1.62
중1학교규칙	2225	2.76	.48	-.13	.60	1.48
중1교우관계	2225	2.99	.40	-.16	.73	1.38
중1교사관계	2225	2.71	.67	-.15	-.13	1.33
중3삶-만족	2225	2.85	.67	-.03	-.19	1.22
중3의사소통	2225	3.06	.53	-.13	.99	2.41
중3신뢰	2225	3.16	.55	-.44	.91	2.48
중3소외	2225	2.91	.73	-.52	.13	1.05
학교유형	78	.78	.42	-1.27	-.38	1.01
MSES	78	2.61	.40	.751	.46	1.20
중3학교적응	2225	2.89	.39	.080	.58	

자료의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중 3학년 학교2,225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학생과 학교 수준의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팽창지수(VIF)는 2.5이하로 문제되지 않았으며, 다변량 정규성 검증의 기준인 왜도와

침도의 경우 왜도는 절댓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역시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아(Kline, 2011) 정규성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1차 연도인 중 1학년은 2,351명이었으며 중3학년이 되는 3차 연도에는 2,259로 3.9% 결측률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결측치 제거 후 최종 분석 대상은 2,225명이다.

2. 다층분석 결과

기초모형

기초모형은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중3 학년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평균과 학생, 학교의 전체변량을 알 수 있으며, 전체변량 중 학교수준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기초모형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 전체 평균값은 2.89이며, 95% 신뢰구간은 [2.87 - 2.92]를 가진다. 학생수준변량은 .146이며, 학교변량은 .008로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498로 전체변량 중 학교 간 변량이 5%의 학교 간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초모형 분석을 통한 변량분할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하여 95%를 차지하는 학생개인수준과 5%의 학교수준 변량을 나타내며, 이는 이후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이 모두 투입되었을 때 각 수준별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연구모형1 - 미시체계

미시체계모형은 기초모형을 통해 추정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분산이 각 수준에서 미시체계 변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모형의 학생수준변량(r_{ij})과 학교수준변량(u_{0j})은 미시체계모형에서 각 .114와 .002로 줄었다. 중3 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 개인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작용하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체계 변인으로는 설명력이 22%였다. 이는 학생을 둘러싼 밀접한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변인의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시체계 변인들의 구체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 전체평균은 2.89이고, 성별 회귀계수(γ_{10})=.04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41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SES) 회귀계수(γ_{20})=.035, 삶의 만족도(γ_{30})=.1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래에착과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의사소통의 회귀계수(γ_{40})=.170과 소외의 회귀계수(γ_{60})=.029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신뢰의 효과는 .039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1점 증가할수록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체계 환경에서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3 때의 또래 간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중3 때의 삶의 만족도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학교 생태체계 환경 변인이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4> 중3학생 학교생활적응의 다층모형 분석결과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독립변수: 고정효과								
중3-학교적응 전체평균(γ_{00})	2.891***	.013	2.891***	.010	2.895***	.009	2.893***	.009
미시체계변인								
성별(γ_{10})			.041*	.019	.040*	.018	.042*	.017
개인-SES(γ_{20})			.035***	.006	.005	.005	.002	.005
중3-삶만족(γ_{30})			.128***	.013	.090***	.011	.090***	.011
중3-의사소(γ_{40})			.170***	.019	.134***	.018	.133***	.018
중3-신뢰(γ_{50})			.039	.022	.030	.019	.030	.019
중3-소외(γ_{60})			.029*	.012	.024*	.012	.024*	.012
시간체계변인								
중1-학습(γ_{70})					.167***	.022	.167***	.022
중1-규칙(γ_{80})					.132***	.016	.130***	.017
중1-교우(γ_{90})					.073***	.023	.072**	.023
중1-교사(γ_{100})					.050***	.012	.052***	.012
중간체계변인								
학교유형(γ_{01})							.033	.023
학교-MSES(γ_{02})							.039*	.018
독립변수: 무선효과	분산	<i>p</i>	분산	<i>p</i>	분산	<i>p</i>	분산	<i>p</i>
학생수준(r_{ij})	.14626		.11390		.08527		.08533	
학교수준(u_{0j})	.00767	***	.00245	*	.00248	**	.00247	**
중3-신뢰(u_{5j})			.01023	*				
중1-학습(u_{7j})					.01786	*	.01761	*
전체분산	.15393							
집단내상관(ICC)	.04983							
누적된학생수 R^2			.22125		.41700		.41659	
누적된학교수준 R^2			.68057		.67666		.67797	

* $p < .05$, ** $p < .01$, *** $p < .001$

무선효과로서의 분산은 .05수준에서 유의한 추정치만 제시함.

연구모형2 - 시간체계

시간체계모형은 미시체계모형에 시간체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중 1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시간체계모형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간체계모형의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의 전체평균은 2.895이고, 학생수준변량(r_{ij})은 .085이고, 학교수준변량(u_{0j})은 .002로 여전히 학교생활 적응에 학생수준의 변량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수준이 차지하는 변량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체계 변인인 중 1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설명력(R^2)은 42%로 각 변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중 1학년 때의 학습활동의 회귀계수(γ_{70})=.167로 학습활동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중 3학년 학교생활 적응이 .167만큼 증가하였으며, 중 1학년 때의 학교규칙의 회귀계수(γ_{80})=.132로 학교규칙의 적응정도는 3학년 때의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우관계의 회귀계수(γ_{90})=.073이고 교사관계의 회귀계수(γ_{100})=.050로 두 변인 모두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시간체계 환경에서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1 때의 학업활동으로 학습활동이 좋을수록 중3 때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1 때 학교규칙에 잘 적응할수록 3학년 때 역시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한 생태학적 전환이 일어나는 중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이후의 상급 학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더 나아가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연구모형3 (조건모형) - 중간체계

중간체계 모형은 학교수준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준의 독립변인을 학교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으로 설정하여 시간체계 모형에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중간체계 모형은 시간체계 모형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학교수준 독립변인에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중 3학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은 이 전 단계와 같이 학교수준 변량의 3%를 설명한다. 이는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이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평균으로 산출된 값이기에 미시체계 모형에서 개인-사회적 배경(SES)으로 이미 설명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선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중 3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95%의 학생 개인수준과 5%의 학교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각 체계의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 비율이 학생수준에서는 42%, 학교수준에서는 3%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체계의 경우 학생 개인의

밀접한 환경에서 확대된 학교의 문화, 동아리 특성, 학교 학업성과 등 학교특성으로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생의 환경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각 체계적 환경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와 학생 수준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체계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시체계 변인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중3 학생의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은미(2012)의 연구와 같이 미시체계 변인인 친구의 지지와 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을 높인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뿐 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또래관계는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강하나, 용혜련, 황현석, 2016)와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중 친구관계를 강조한 김두환, 김지혜(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학교생활 적응에 친구의 지지를 강조하는 구자은(2000), 이수하(2005)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같은 고민과 갈등을 공유함으로써 죄책감과 긴장감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최지은, 신용주, 2003)는 본 연구의 또래 관계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난 것을 설명해준다. 의사소통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친구가 많고 친구를 필요로 하고 그 관계가 기능적일수록 유능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역시 청소년 시기의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형성의 발달과 확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반면, 이 시기에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외로움과 우울의 경험이 많으며,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이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기 힘들며 스트레스 환경에 취약한 상태로 심리적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Parker & Asher, 1987). 이는 또래관계가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대립과 갈등 등의 부정적인 역동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적, 역기능적 적응의 경험 역시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건강하고 기능적인 또래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하여 개인 내적으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미시체계의 정서적 안정과 지지의 기능이 중요하며, 중간체계에서는 학교 내의 소규모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또래 간 소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시간체계 변인은 전반적으로 다 유의한 효과를 가졌으며, 그 중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습활동이었다. 김대현과 김현

주(2003)의 질적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늘어난 수업시간을 비롯하여 담임교사와 교과 교사들과의 관계, 많아진 학습량, 성적에 대한 부담과 경쟁, 교우문제, 엄격한 생활규제와 압박감 등, 변화된 환경적응의 어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 시기의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학교 입학은 학생 개인에 따라 자기발전의 계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유순화, 2008) 하여 본 연구와 같이 중학교 1학년 때의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활동과의 관계는 성적과 학교적응의 정적관계인 연구와도 일치한다(곽수란, 2006). 때문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 개인의 성취감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학교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 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므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 높을수록 중3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학업적 관여가 높으며(신명호, 2010), 부모의 높은 교육 수준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인다는(이중섭, 이용교, 2009) 결과는 본 연구의 부모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적응과의 정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에서 오는 학교 간 차이는 지역 간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교육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몇 가지 한계와 후속적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중단패널(KCYPs)』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에 대한 각 체계의 환경변인을 설정하였기에 중 3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설정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스마트 중독, 게임 중독, 비행 등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와 가정 내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때문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체계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시간체계만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여전히 학군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가 속한 외체계인 지역사회의 특징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간체계 변인으로 설정한 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MSES)은 학생 개인의 부모·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므로 개인 특성과 많은 부분이 혼재된다. 때문에 학교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학교문화, 성과 등의 변인에 대한 추가적 탐색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미시체계 변인에서 학생 개인에게 가장 밀접한 부모와 가족에 대한 변인

설정이 미흡하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변인들의 추가적 탐색이 필요하다.

중학교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사춘기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생태적 전환기에 해당한다. 성장 급등기로 98%의 신체성장이 사춘기에 이루어지고(Tanner, 1978)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중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1학년에서 3학년이 될 때까지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 진다. 즉,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들 안에서 학생들은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취감과 자기표현에 대한 수용이 미시체계를 비롯한 각 환경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환경과의 소통을 통한 경험의 누적은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뿐 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강하나, 용혜련, 황현석 (2016). 청소년 시기의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학습태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7(10), 449-457.
- 강현미 (2008). 초등 영재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영, 박원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교육부 보도자료 (2016).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http://www.moe.go.kr>에서 검색.
- 김두환, 김지혜 (2011). 부모·친구·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한국사회학회, 45(4), 128-168.
- 김대현, 김현주 (2003). 입학 초기 중학생의 삶. 교육과정연구, 21(4), 1-24.
- 김명희, 차경희, 하정희 (2006). 중학생들의 학습동기, 다중지능, 학습양식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4(3), 57-79.
- 김은미 (2012).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문선모, 윤기수 (1984).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경상대학교논문집, 23(1), 295-30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소윤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2), 217-245.
- 소연희 (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4), 1007-1028.
- 유순화 (200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5(7), 157-180.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 이범수 (2006) PISA 2003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국제비교연구: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4(2), 523-547.
- 이상희 (2011). 아버지 애착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하 (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섭, 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6, 159-191.
- 임영실 (2004).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및 귀인성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정정책연구, 16(2), 61-94.
- 조아라 (2001). 중·고등학교 학업중퇴생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1.
- 조정아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1), 277-309.
- 정예지 (2015). 자기조절학습,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37-558.
- 허영선 (2009).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53.
- Becker, G. S.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3). The ecology of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model and fugitive finding. In R. H. Wozniak & K. W. Fisher (Eds.), *Development in context* (pp. 3 - 44). Hillsdale, NJ: Erlbaum.
- Bronfenbrenner, U.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Reflections of a participant observer. In P. Moen, G. H. Elder Jr., & K. Lü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 599 - 6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le, M., & Cole, S.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oleman, J. C. (1993). Understanding adolescence today: A review. *Children & Society*, 7(2), 137 - 147.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 Dunn, J., & Slomkowski, C.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70-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64.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122-1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e, R. B. (2011).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erner, J. (1991). Research perspective in social competence. *Meril-Palmer Quarterly*, 23.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audenbush, S., & Willms, D. (1995). The estimation of school effect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20(4), 307-335.
- Santrock, J. W. (1990). *Adolescence* (4th ed.). Dubuque, IA: William C.
-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anner, J. M. (1978). Interaction of hereditary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controlling growth. In J. M. Tanner (Ed.), *Education and physical growth* (2nd ed.) (pp. 90-114).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1.

Effect of the School Ecological System Variables on Ninth Graders' Adjustment

Kim, Hee-Kyung Kim, Sung-H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icrosystem, time system, and mesosystem variable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ninth graders in middle school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study conducted multilevel analysis of the data of seventh graders in Year 1 (2010) and their data as ninth graders in Year 3 (2012) including 2,225 students from 78 schools. The first level included microsystem and time system variables, and the second level measured mesosystem variables. The microsystem variables were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one's social and economic status (SES), the life satisfaction, and peer attachment of ninth graders. The time system variable was the school adjustment of seventh graders who experienced an environmental change to middle school. The mesosystem variables were the school type and the school's social and economic status (MS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chool adjustment sub-variable of seventh graders and the time system variabl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ninth graders. The learning activities of seventh graders, in particular, recorded the highest regression coefficient at .167.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ositive school adjustment in the seventh grade, which is a transition period, an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school adjustment of ninth graders.

Key words : ecological systems theory, microsystem, chronosystem, mesosystem, multilevel analysis, school adjustment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오혜림 이주영*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내면화 문제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6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시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내면화 문제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조절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을 지각할 때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요어 : 부부갈등, 내면화 문제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주영,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E-mail: jylee@dankook.ac.kr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인의 발달상태에는 못 미치고 성숙한 성인으로 행동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나 성인으로서의 발전을 보이는 연령층이다(오영재, 백경숙, 조선화, 2004; 정옥분, 2014). 이러한 시기는 여러 발달단계 중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의 지위변화와 같은 생활 변화와 더불어 사춘기의 급격한 생물학적 변화가 발생하기에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즉,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행동, 새로운 적응 반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안동현 외, 2007). 특히 현대의 청소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가치관 혼란을 조장할 수 있을 만한 사회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가족의 기능 상실 혹은 일반적이 지 않은 학교 교육 등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만연하게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표출하고 있다(한현아, 도현심, 2008).

또한, 청소년기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급격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들은 부모와 관련한 부정적 생활 사건들 예를 들어 부모의 불화, 사망, 이혼, 실직, 폭력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모태에서부터 긴밀하게 다양한 자원을 나누는 혈연적 관계이기 때문이다(최희옥, 문재우, 박재산, 2005). 청소년기의 부정적 가족생활 사건은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충격이 만성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요소이며, 다양한 행위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김동식, 2007).

정서·행동문제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사회적 규범들을 무시하는 비행,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problems)를 포함한다(Achenbach, 1991). 특히 내면화 문제행동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문제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도 지속되는 경향성을 보인다(Moffitt & Caspi, 2001).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65,528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29.7%, 스트레스 인지율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자살 시도율은 중학교 2학년이 2.7%로 가장 높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자살 시도율의 증가율은 0%이나,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약 6%이다(보건복지부, 2016). 이처럼 청소년들이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비하다(좌현숙, 2017).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이 포함된다. 개인적 요인은 자아존중감(남현미, 옥선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2001; 정재임, 2000; 지선례, 이숙, 2012), 가정적 요인은 부모 양육행동(Aunola & Nurmi, 2005; 권연희, 2003; 한세영, 2007), 부모 간의 갈등이나 폭력(Bandura, 1973;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하영희 & Carolyn, 2004), 부모의 관심, 가족유대감과 같은 가정의 심리적 요인 등(채유경, 2005)이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학교적응에 관한 것들이 있다(유성경, 2000). 이 중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정적인 요인을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관련된다고 밝혔다(김태욱, 2011; 송은하, 2005; 오영경, 이형실, 2010; 이민식, 1999; 장은옥, 2010; 한성애, 2004; Buehler & Gerard, 2002; Fincham, Grych & Osborne, 1994; Montemayor, 1983). 내면화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부부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Emery, 1982). 예를 들면 부부간 적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녀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정감을 더 강하게 자주 느끼고(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는 수치심, 책임감, 자책과 두려움을 더 느낀다(Buchanan, Maccoby & Dornbusch, 1991). 부부갈등 상황을 자주 경험한 자녀의 경우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상황들과 다양한 발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오경자, 2007).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심한 가족의 자녀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불안, 우울, 심리적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임을 입증하였다(Emery, Fincham & Cummings, 1992; Erel & Burman, 1995; Buehler, Krishnakumar, Anthony, Tittsworth, & Stone, 1994).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Krishnakumar와 그의 동료들(2003)이 유럽계 및 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Stadelmann과 그의 동료들(2010)은 부모의 이혼, 갈등, 부정적 표현이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되더라도 모든 청소년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Fincham과 Grych & Osborne(1994)은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에 대해 자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적인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부부갈등이 실제적인 양상보다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Lazarus와 Folkman(1984/1991)은 스트레스를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고,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라고 하였고 특정한 인간환경의 관계가 스트레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정 자극에 접촉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인지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에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은 스트레스적인 요구를 다스려나가는 노력을 포함하며,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그 대처방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적응적이다(Lazarus & Folkman, 1984/1991).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경험의 총체적인 합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보다 더 중요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적응적 행동을 더 잘 예측하는 설명요인임을 보여주었다(Carson, Swanson, Cooney, Gillum & Cunningham, 1992; 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Dubow & Tisak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가정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변인들은 앞서 설명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게 받는 지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등이 있다(서찬란, 2005; 안혜원, 2007; 장영애, 엄윤경, 2009; 민하영, 2006). 이러한 변인 중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의 관계를 친밀하게도 하고 감정의 고립을 가져오기도 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이지 못할수록 청소년은 우울감을 느끼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지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문제행동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가족원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중요하고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노정화, 2002). 부부갈등, 문제행동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모습이 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함을 밝혔다(김미자, 2010; 노윤옥, 전미경, 2006; 노정화, 2002; 민하영, 이윤주, 이영미, 2004). 이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특정 자극에 대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식이나 이에 대한 대처에도 영향을 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부모가 청소년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족이 있었고(하미애, 2013), 빈곤청소년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우울이 증가하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연, 2011).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손영미, 2009).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부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인식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줌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함에 있어 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환경 요인이나 개인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내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개인과 주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특히 청소년 상담의 주 의뢰자인 부모들이 노력하여 상대적으로 수정하기 용이한 변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인문계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 6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기에 문제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김성일, 2000;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와 ‘대학 입시’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입시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설문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의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고 이들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참여희망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에 한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설문을 실시하고 실시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604부 중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부수를 제외한 539부가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에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범주	빈도	백분율(%)
성별	여자	251	46.6
	남자	288	53.4
어머니 연령	30대	15	2.9
	40대	389	76.5
	50대	110	20.4
	60대	2	0.4
아버지 연령	40대	294	47.4
	50대	205	38.2
	60대	6	1.2

2. 측정도구

부부갈등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Grych와 Seid와 Fincham(1992)의 부부갈등 아동 지각 척도(CPIC)를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류승희(2001)가 청소년 시기의 자녀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형태를 띠며 해결이 어렵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44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 값이 .8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순으로 류승희(2001)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58~.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5, .81, .88, .84, .88, .79, .81, .72로 나타났다.

내면화 문제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과 홍강의(2001)가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대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32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부터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문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 값은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인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순으로 하은혜(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1~.85이고 본 연구에서는 .80, .82, .89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평가지(Coping Strategy Indicator)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K-C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처방식에 따라 문제 해결 중심,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 중심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11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 사회적지지 추구를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보았고, 회피 중심을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나누어 보았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하지 않았음(1점)부터 '많이 했음(3점)의 3점 Likert 척도로, 자신이 경험한 힘들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그에 대해 자신이 대처방식을 취했던 정도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따라 응답할 수 있다. 신혜진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4 이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대처는 .92, 부정적 대처는 .69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로 분류된 하위척도인 문제 해결 중심 사회적지지 추구는 .90, .88이고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인 회피중심의 경우 .67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9, .90, .69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에서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민하영(1991)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 문제형 의사소통 10문항인 두 개의 하위척도로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이 가능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면을 측정하는 문항인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하영과 이영미(2009)의 연구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 전체 Cronbach's α 값은 .87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부부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내면화 문제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각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4를 적용하여 병렬 다중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각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Model 1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각된 부부갈등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Model 7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내면화 문제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적상관($r=-.29, p<.01$), 부부갈등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정적상관($r=.19, p<.01$) 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정적상관($r=.32, p<.01$),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적상관($r=-.48, p<.01$)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갈등의 하위요인들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적상관($r=-.20\sim-.19, p<.01$),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는 정적상관($r=.11\sim.20, p<.05, p<.01$)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정적상관($r=.24\sim.18, p<.01$)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r=-.41\sim-.26, p<.01$)이 있었다.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부적상관($r=-.14\sim-.13, p<.01$),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내면화 문제행동은 정적상관($r=.40, p<.01$) 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병렬 다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Preacher와 Hayes(2004; 2008)가 제안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2, 표 3,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 부부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내면화 문제행동의 직접효과

		B	S.E	t	p
(독립)	(종속)				
부부갈등	내면화문제	.19	.02	7.82***	.00
(독립)	(매개)				
부부갈등	긍정적 대처	-.20	.03	-7.32***	.00
부부갈등	부정적 대처	.11	.03	4.40***	.00
(매개)	(종속)				
긍정적 대처	내면화문제	-.08	.04	-2.33**	.02
부정적 대처	내면화문제	.36	.04	9.21***	.00

** $p<.01$, *** $p<.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N=539)

	1	1-1	1-2	1-3	1-4	1-5	1-6	1-7	1-8	2	2-1	2-2	3	4	4-1	4-2	4-3
1. 부부갈등	-																
1-1. 빈도	.78**	-															
1-2. 강도	.81**	.73**	-														
1-3. 해결	.74**	.73**	.69**	-													
1-4. 내용	.66**	.35**	.34**	.26**	-												
1-5. 지각된 위협	.81**	.55**	.64**	.50**	.42**	-											
1-6. 대처효율성	.68**	.44**	.51**	.50**	.33**	.62**	-										
1-7. 자기비난	.65**	.35**	.36**	.27**	.78**	.42**	.31**	-									
1-8. 삼각관계	.75**	.44**	.49**	.43**	.47**	.66**	.43**	.41**	-								
2. 긍정 스트레스대처	-.29**	-.20**	-.22**	-.33**	-.14**	-.20**	-.32**	-.19**	-.19**	-							
2-1. 문제해결중심	-.30**	-.21**	-.23**	-.31**	-.17**	-.21**	-.31**	-.21**	-.17**	.87**	-						
2-2. 사회지지추구	-.22**	-.15**	-.16**	-.27**	-.08	-.15**	-.26**	-.14**	-.16**	.89**	.55**	-					
3. 부정 스트레스대처	.19**	.11*	.14**	.10*	.15**	.18**	.09*	.12**	.20**	.06	.05	.05	-				
4. 내면화 문제행동	.32**	.24**	.27**	.22**	.17**	.34**	.30**	.16**	.18**	-.14**	-.12**	-.13**	.40**	-			
4-1. 사회적 위축	.29**	.22**	.25**	.20**	.15**	.31**	.31**	.12**	.19**	-.24**	-.17**	-.25**	.37**	.89**	-		
4-2. 신체증상	.18**	.16**	.17**	.12**	.10*	.19**	.13**	.09*	.07	-.02	-.03	.00	.26**	.81**	.54**	-	
4-3. 우울불안	.36**	.26**	.30**	.25**	.21**	.38**	.36**	.20**	.21**	-.10*	-.10*	-.07	.40**	.90**	.77**	.59**	-
5. 부모-자녀 의사소통	-.48**	-.41**	-.45**	-.51**	-.21**	-.35**	-.49**	-.21**	-.26**	.45**	.39**	.41**	-.13**	-.26**	-.30**	-.1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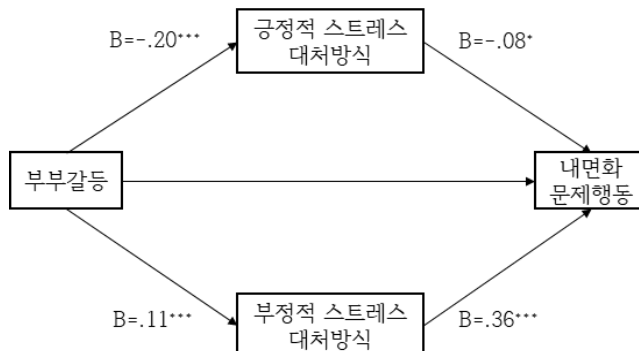
*p<.05, **p<.01

표 2와 그림 1에서와같이,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t=7.32, p<.001$)에,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는 내면화 문제행동($t=2.33,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t=4.40, p<.001$)에,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내면화 문제행동($t=9.2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5,000번 실시하였다.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과 같이 총 매개효과(total indirect effect)의 크기는 .06이며,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각각의 매개효과에 있어서, 부부갈등이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거쳐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B=.02$)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이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거쳐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B=.04$)에서도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병렬 다중 매개효과

매개경로	매개효과				R2	F
	B	S.E	LLCI ULCI	ULCI		
부부갈등 → 매개변인의 합 → 내면화 문제행동	.06	.01	.03	.08		
부부갈등 →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 내면화 문제행동	.02	.01	.00	.03	.10	61.17***
부부갈등 →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 내면화 문제행동	.04	.01	.02	.06		

*** $p<.001$



[그림 1] 병렬 다중 매개효과 검증 (* $p<.05$, *** $p<.001$)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원점수를 사용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그리고 이 둘의 곱으로 형성된 상호작용 변인을 동시에 회귀모형에 투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중심화 과정서영석, 2010)을 거쳤다. 그 결과, 표 5과 같이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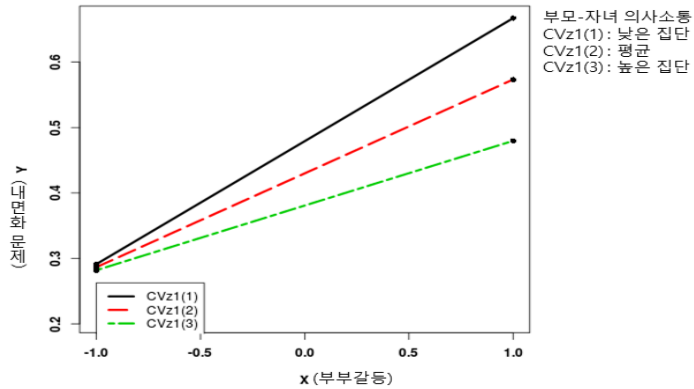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부부갈등)과 조절변인(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부부갈등×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9, p<.05$), 상호작용으로 인한 R2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R^2=.01, p<.05$).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B	S.E	β	t	R2	ΔR^2
1단계	부부갈등	.15	.03	.25	5.40***	.12	.12***
	부모-자녀 의사소통	-.08	.03	-.14	-3.04**		
2단계	부부갈등	.14	.03	.24	5.30***	.13	.01*
	부모-자녀 의사소통	-.08	.03	-.14	-3.03**		
	갈등×의사소통	-.07	.03	-.09	-2.14*		

* $p<.05$, ** $p<.01$, *** $p<.001$

또한, Rweb을 활용하여 회귀계수를 이용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데,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회귀선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그림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수준에 따른 지각된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

이러한 결과는 조절변인의 각 특정 값에서의 단순회귀선의 회귀계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SP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변인의 각 특정 값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Hayes & Matthes, 2009).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지각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순회귀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감소하고,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을수록 회귀계수의 절대값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B	S.E	t	LLCI	ULCI
부모-자녀 의사소통	낮은 집단	.19	.03	5.65***	.12	.25
	평균 집단	.14	.03	5.28***	.09	.20
	높은 집단	.10	.04	2.82**	.03	.17

** $p < .01$, *** $p < .001$

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검증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모형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모형을 통합한 조절된 매개모형,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매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모형과 조절모형이 유의한지를 분석하고 각 모형이 유의미하다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기에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7,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7, p < .05$), 조절효과에 따라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8, p < .001$). 그러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의해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조절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 8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9, p < .001$),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beta = .34, p < .001$). 그러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의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의해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조절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7>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종속변인: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종속변인: 내면화 문제행동		
	<i>b</i>	<i>S.E</i>	<i>t</i>	<i>b</i>	<i>S.E</i>	<i>t</i>
부부갈등(a1)	-.07	.03	-2.43*	.18	.03	7.12***
부모-자녀 의사소통(a2)	.25	.03	9.14***			
갈등x소통(a3)	-.02	.04	-.63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b)				-.04	.04	-1.14

* $p < .05$, *** $p < .001$

<표 8>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종속변인: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종속변인: 내면화 문제행동		
	<i>b</i>	<i>S.E</i>	<i>t</i>	<i>b</i>	<i>S.E</i>	<i>t</i>
부부갈등(a1)	.09	.03	3.16***	.150	.02	6.58***
부모-자녀 의사소통(a2)	-.03	.03	-1.16			
갈등x소통(a3)	-.04	.03	-1.12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b)				.34	.04	8.96***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내면화 문제행동,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면의 다양한 문제를 겪는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이를 건강하게 극복하여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소년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적 요인 역시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 간의 상관분석에서 부부갈등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적상관을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내면화 문제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부부갈등의 8개 하위요인은 긍정적/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과도 상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한 형태를 띠며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가 어렵고,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빈도를 높일 수 있음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장은옥, 2010; 조미정, 김민주, 2014; 하경은, 2014). 본 연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갈등과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된다는 것은 청소년기 내면화 문제행동을 호소하는 내담자 상담 시 호소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특히 부모 간 갈등 여부를 확인하고 호소문제와 부모 간 갈등의 관련성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병렬 다중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각각 개별매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중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1이 지지되었다.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부갈등과 같이 직접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 사이에서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내면화 문제를 더 높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회피 중심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방식이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박필남, 2016; 이선희, 2007; 조하나, 2006; 허정훈, 2001). 또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식의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이를 통해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부갈등을 덜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할 수 있으며, 부부갈등을 지각한 상황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긍정적 대처방식인 문제 해결 중심, 사회적지지 추구와 같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경우 내면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공수자, 이은희, 2006; 이은숙, 2017; 김정문, 2010; 이선희, 2007).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의 경험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유경, 2004; 이선미, 유성경, 2013). 본 연구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은 Lazarus와 Folkman(1984/1991)가 제안한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이에 대한 대처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결정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긍정적,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나누어 하나의 모형에서 확인함으로써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자녀의 대처방식에 따라 이들의 반응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두에 영향을 주며 이는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되는 존재이기는 하나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평가하고 대처하는 능동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상담시, 부부갈등의 상황에서 청소년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내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이는 연구문제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부부갈등을 지각함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불안 등의 경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미자(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부부간 소통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도 폐쇄적이 된다. 반면, 노윤옥과 전미경(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부 간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의 내용을 자신이 아닌 외적 요인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부 간 갈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부부갈등이 있을지라도 자녀 입

장에서 혹은 부부의 조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시연(2011)의 연구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간 문제와 관련된 가족 스트레스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그 영향을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부 간 갈등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미자(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있더라도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가족 안에서 부부간 관계가 중요하며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관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긴 하지만 동시에 그 영향력을 조절할 가능성이 부모-자녀 간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 갈등과 관련된 내면화 문제행동을 호소하는 청소년 상담 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이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알아본 결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환경적 맥락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특히 접근대처와 적응의 관계가 달라지며(Clarke, 2002), 최정아(2011)의 연구에서는 대화지향적 가족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맥락에서는 접근대처 사용에 따른 우울 수준의 변화 정도가 완만해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입증되었으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조절하지는 않았다. 즉,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부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더라도 부모와 개방적으로 소통이 잘되면 자녀에게 내면화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부모 갈등을 인식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영향력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환경적 맥락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함으로 인해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과 상담할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청소년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입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때 청소년의 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트레스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부간 문제가 자녀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달라진다 이는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내면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상담 과정에서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를 객관화하여 볼 수 있도록 돕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부모 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의 영향 중 특히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기는 하나 부모자녀 간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영향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청소년, 특히 부모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로 인해 내면화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부모상담을 진행하여 부모가 자녀의 지지체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서울 및 경기도 인문계 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집단을 포함시켜야 하겠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청소년기라 할지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변인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둘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 중심과 사회적지지 추구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쟁적이고 압박적인 분위기 특성상 완벽주의적 성향이 저변에 있는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높지 않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다른 스트레스 관련 변인과 대상자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홍나미(2013)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자살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통한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집단 중 고1이라는 특정 집단에서만 표집하였고 내면화 문

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 인식의 영향에서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고 1 외에 다른 연령의 청소년 집단에서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Lazarus와 Folkman(1984)이 제안한 스트레스 대처에서는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자동적 사고와 행동은 배제된다. 하지만 실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는 노력이 요구되는 의식적 대처뿐만 아니라 자동적 사고와 행동과 같은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대처반응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 대처에는 의식적 대처와 자동적 대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부부갈등을 지각함에 있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 평가와 대처방식이 존재한다면, 의식적인 노력과 관련된 개방적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에 자동적 사고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새롭게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수자,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21-40.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영옥, &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김동식 (2007). 부모관련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비행행위 예방의 학회지, 40(3), 218-226.
- 김미자 (201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자녀지도의 기본원리. 청소년생활실태연구, 1, 1-93.
- 김유경 (2004).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따른 인지적 특성: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옥 (2011).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과 용서, 문제행동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노윤옥, 전미경 (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1), 1-15.

노정화 (200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승희 (2001). 부부갈등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 (1991). 靑少年 非行 程度와 父母-子女間 意思疏通, 家族의 凝集 및 適應과의 關係.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 (2006). 부모 간 갈등 및 조모/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학령기 아동의 우울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41-50.

민하영, 이영미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민하영, 이윤주, 이영미. (2004).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된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27.

박필남 (2016).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1), 1-10.

보건복지부 (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서울: 질병관리본부.

<https://yhs.cdc.go.kr/new/pages/pds1.asp>에서 검색.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서찬란 (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영미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은하 (2005).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인지-맥락적 평가와 정서 안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14(4), 919-935.

안동현, 정승아, 조재일, 정선녀, 정윤경, 김격숙, 김윤경, 최민정 (2007). 청소년 부교재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 연구. 서울: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안혜원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경자 (2007).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휴노컨설팅.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 중앙적성 출판사
- 오영경,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 2010(7), 194-194.
- 오영재, 백경숙, 조선휘 (2004). 청소년복지론. 서울: 대왕사.
- 우연희, 이종각, 문수백 (201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청소년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 兒童學會誌, 33(2), 185-201.
- 유성경 (2000). 청소년의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유성경 (2013).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불안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09-1226.
- 이선희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연 (2011). 빈곤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9(2), 91-103.
- 이은숙 (2017).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 55-65.
- 장영애, 엄윤경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7(4), 3-16.
- 장은옥 (2010). 탄력성을 매개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201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재임 (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미정, 김민주 (2014). 청소년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 비판사회정책, 45, 267-303.
- 조하나 (200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좌현숙 (2017).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49, 85-119.
- 지선례, 이숙 (2012). 성별에 따른 이혼 한부모 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兒童學會誌, 33(4), 35-50.
-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 기공포의 매개효과 검증-남녀 청소년의 모형 비교 청소년시설 환경, 17(2), 3-15.
- 채유경 (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모갈등, 영적 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가족문화, 17(2), 189-209.
- 최정아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평가, 대처, 가족의사소통, 우울의 관계: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33(-), 197-222.
- 최희욱, 문재우, 박재산 (2005). 가족내 갈등과 학교 부적응간의 관련성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7(-), 79-106.
- 하경은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미애 (2013).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 Carolyn, P. E.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兒童學會誌, 25(2), 121-132.
- 하은혜 (2005).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신뢰도와 타당도 兒童研究, 18(1), 83-104
- 한성애 (2004).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고민 내용과 스트레스 정도.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정훈 (2001). 자의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나미 (201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1(2), 37-58.
- 홍소영 (2010). 지각된 부모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인지과정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ndura, A. (1973). *Aggress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uchanan, C. M., Maccoby, E. E., & Dornbusch, S. M. (1991). Caught between parents: adolescents' experience in divorced homes. *Child Dev*, 62(5), 1008 - 1029.
- Buehler, C, Krishnakumar, A., Anthony, C., Tittsworth, S., & Stone, G. (1994). Hostile interparental conflict and youth maladjustment. *Family Relations*, 43, 409-416.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78-92.
- Carson, D.K., Swanson, D.M., Cooney, M.H., Gillum, B.J. & Cunningham, D. (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ournal*, 22, 273-302.
- Clarke, A. T. (2002). Approach coping and adaptation: A meta-analytic of child and adolescent stress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Cummings, E. M.,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81).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expressions of anger and affection by others in the family. *Child Development*, 52(4), 1274-1282.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The relationship of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 - 136.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mery, R. E., Fincham, F. D , & Cummings, E. M. (1992). Parenting in context: Systemic thinking about parental conflict and its influence o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909-912.
- Emery, R.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28.
- Folkman, S., & Lazarus, R.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1.
- Grych, J. H., Seid, M. and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 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 558 - 572.
- Hayes, A. F.,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924-936.
- Krishnakumar, A., Buehler, C., & Barber, B. K. (2003). Youth perception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youth problem behaviors in European-American and Afric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2), 239-26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azarus, R. S., Folkman, S. (1991).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 역.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大光文化社.
- Moffitt, T. E., & Caspi, A. (2001). Childhood predictors differentiat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among males and fema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2), 355-375.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Stadelmann, S., Perren, S., Groeben, M., & von Klitzing, K. (2010). Parental separ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The impact of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family conflict. *Family process*, 49(1), 92-108.

[원고접수일: 2018. 03. 02. / 수정원고접수일: 2018. 05. 20. / 게재결정일: 2018. 06. 18.]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h, Hye-Lim Lee, Ju-Young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 effect of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on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sing data from 604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PSS Macro were performed to test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ess coping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flict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can be moderating in the effect of parental conflict on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hird, the mediation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is not moderated by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moderated mediating effect.

Key words : *parental conflict, stress coping strategy,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parent-child open communication*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 영향

아영아
신라대학교

김진영[†]
부산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자료(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1차, 3차, 5차년도 2,35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또래애착의 초기값은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의 변화량은 공동체의식의 변화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초기값이 공동체의식의 변화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통제변인 중 가구소득, 부모애정, 체험활동은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의식 변화량에는 성별, 부모애정, 체험활동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또래애착에 대한 상담 개입방법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주요어 : 청소년, 또래애착, 공동체의식, 종단연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진영,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계열
(472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06, Tel: 070-7747-4745, E-mail: mama1125@hanmail.net

서론

인간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대인관계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청소년기는 특히 대상에 대한 관심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친밀감과 대인관계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경애, 이진숙, 2014). 이로 인해 청소년기는 부모에서 또래로 애착대상이 바뀌게 되며 부모와는 또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내면화하게 되며, 또래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해 간다. 그리고 도덕성 형성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행동기준과 가치관 정립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 행동 등을 익히게 된다(홍봉선, 남미애, 2011). 만약 이 시기에 또래로부터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게 되고 사회적 거부와 배척 또는 고립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게다가 일탈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 발현되는 등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청소년의 또래애착정도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심수정, 2003), 자기조절 학습능력(이현주, 권수정, 2004), 학교규칙 준수와 학습태도, 사회성 향상 기술에 영향을 미쳤다(최지은, 신용주, 2003). 또한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종단적 연구(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에 의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칙과 체제를 알아가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시기이다(Guerra & Bradshaw, 2008).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식을 의미한다(McMillan & Chavis, 1986; Cicognani et al., 2008).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민주의식 함양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구성원들 간의 지지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를테면 연대감과 이타성,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심성보, 2008),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며(장소영, 2012), 학습성과 및 학교적응을 증진시킨다(박재숙, 2013). 게다가 집단따돌림(이병희, 2014)과 사이버불링(김진영, 2016)을 감소시키고, 학교폭력과 약물남용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예방시킬 수 있다(Battistich & Hom, 1997; Schaps & Battistich, 2002).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와 학교적응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 학교, 또래 등 사회관계 요인에 주목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원으로서의 개인들이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상호헌신 등 공동체적 생활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Zeldin, Krauss, Kim, Collura, & Abdullah, 2016). 특히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확장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관계를 통해 또래집단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상미, 남진열, 2011; 김선숙, 안재진, 2012; 김종화, 유희철, 2009; 김위정, 2016). 이는 청소년의 생활특성상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또래와 공유하며, 대부분의 사회경험이 또래와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만큼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가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또래관계가 공동체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이처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선행요인임을 밝힌 연구에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청소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시점까지의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성장변화 및 인과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중학교를 시작하는 시기는 이전의 초등학교와는 다른 학교급의 전환으로 학교 및 또래관계에서의 환경변화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 및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는 청소년 시기 중 가장 불안정하고 급격한 신체변화와 함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발달과업에 직면하여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또래관계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Guerra et al., 2008). 또한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공동체의식 발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의 변화를 보이며 그 경향 또한 다르게 관찰되고 있어(박현정 외, 2015; 주계순, 2017), 중1, 중3을 포함하여 고1에 이르기까지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 간의 중단적 관계 및 변화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을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또래관계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공동체의식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또래애착의 변화궤적은 공동체의식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그리고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가구소득, 부모애정, 체험활동 등 기존의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였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은 폭력이나 비행, 사회배제 등과 같이 집단구성원 간의 조화나 통합에 관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다(김진영, 2016). 공동체의식은 자신이 속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친밀감, 동질감 및 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한대동, 오경희, 2013)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공과를 공유하는 의식을 의미한다(박가나, 2009). 따라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다면, 구성원들 서로가 보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생활해가는 공동의 환경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학습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와 학급이라는 공동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학습하고 이를 성숙시켜 간다(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연대감과 이타성,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 그리고 공동체 규범을 준수하는 질서의식 등을 고취시킨다(심성보, 2008). 반면,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배제, 아노미, 외로움, 상호성의 상실 등은 공동체의식의 결핍을 초래한다(Glynn, 1981). 이처럼 공동체의식은 상호협력과 연대성 등 집단가치의 결핍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 결핍은 무질서와 각종 범죄 그리고 부도덕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사회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입시위주의 지식전달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을 위한 또래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또래(peers)란 일반적으로 연령과 성숙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함께할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성별과 학년 수준이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Santrock, 1990). 애착(attachment)이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람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Bowlby, 1982). 따라서 또래애착이란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지는 또래 간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관계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또래관계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또래들과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에게 또래관계란 지지의 근원이자 서로에 대한 가치의 원천이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준거집단인 것이다(주은지, 2011; Nclis & Rae, 2009).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다수의 연구(김선숙 외, 2012; 김위정, 2016; 김종화 외, 2009)에 의하면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또래관계와 유사한 개념인 동료관계를 다룬 일부의 연구(Zaff, Malanchuk, & Eccles, 2008)에 의하면 동료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이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친밀한 동료관계가 타인과 협력하도록 돕고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갈등을 평등하게 해결할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동료와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는 사회관계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또래와의 관계가 민주적일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김원태(200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김상미 외, 2011; 김선숙 외, 2012; 김영춘, 2014; 김종화 외, 2009; 전은경, 2016). 구체적으로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회가 많고 높고 소외가 낮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김상미 외, 2011),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공동체의식도 높게 나타났다(김선숙 외, 2012; 전은경, 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에는 상당한 유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연구들은 단일 시점에서 양변인 간의 인과성 규명 즉 횡단적 연구로 일관되게 이루어짐으로써 해당시점을 벗어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양 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중단연구의 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단연구는 같은 실험대상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령변화에 따른 정보제공에 유의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단연구로 중학생 1학년 1차, 3차, 5차년도 자료로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시간적 궤적을 고려하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시간에 따른 또래애착의 변화와 공동체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이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자료(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사용하였다. KCYPS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표본학교 추출은 16개 광역시·도와 도시규모를 교차하여 추출한 27개 집락별로 확률비례추출법(PPS)에 의거하여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하여 설문지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중1 패널자료인 1차년도(2010년, 중1), 3차년도(2012년, 중3), 5차년도(2014년, 고2)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에 응답한 2,351명의 설문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공동체의식(1w, 3w, 5w)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권혜원(2004)이 사용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잠재변인으로 하위 4문항 각각이 관측변수로 활용되었다. 원자료에서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로 평정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해석하기 위해 전체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등이다.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1차년도 공동체의식의 Cronbach’s α 계수는 .732, 3차년도 .815, 5차년도 .743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또래애착(1w, 3w, 5w)

이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측정은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제작한 또래애착 척도(IPPA)를 재구성한 것이다. 잠재변인인 또래애착의 관측변수는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평정은 4점 리커트(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다고 해석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신뢰의 하위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의사소통의 하위문항은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등이고, 신뢰의 하위문항은 “나는 속마음을 털어 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이며, 소외의 문항은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등이다. 1차년도 또래애착의 Cronbach’s α 계수는 .816, 3차년도 .797, 5차년도 .833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성별(1w), 가구소득(1w), 부모애정(1w), 체험활동(1w)

이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선정한 성별, 가구소득, 부모애정, 체험활동은 1차년도 자료이다. 우선 이들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근거로는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으로 이들 변수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성별(김성훈, 2015; 김혜진, 2014; 박현정 외, 2015), 가구소득(권정미, 박태영, 2014; 김현주, 2015), 부모애정(유난숙, 2015; 홍재화, 2004; Fletcher, Elder, & Mekos, 2000), 체험활동(고관우, 남진열, 2011; 김태균, 2013; 박현정 외, 2015; 한은영, 김미강, 2013)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혹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보고되었다.

각 변수의 측정은 성별의 경우 ‘남자(0)’, ‘여자(1)’로 가변수시켰으며, 가구소득은 1차년도의

연간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해 선형관계로 변환시켜 활용하였다. 부모애정은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등 4문항으로 측정되며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로 평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부모애정의 Cronbach’s α 계수는 .819로 문항의 내적합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체험활동은 건강 및 보건활동, 과학 및 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 및 개척활동, 문화 및 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전활동, 자기개발 등 9문항이며, 각 문항은 ‘있다(1)’, ‘없다(2)’로 평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있다(1)’, ‘없다(0)’으로 재코딩 한 다음 ‘있다’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체험활동이 많다고 해석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빈도분석 하였으며, 주요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함께 정규성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상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의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통해 추정하였다. 가설검증 절차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s)을 통해 연구의 각 변수들이 보이는 발달궤적들 간의 관련성 및 또래애착이 공동체의식의 미치는 중단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자가 1,176명(50%), 여자가 1,175명(50%)로 나타나 남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가구 연소득은 최소 0원에서 최대 30000(만원)이며 이를 4분위로 범주화하여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0원에서 2500만원 미만인 23.8%, 2500~4000만원 미만인 22.6%, 4000~5500만원 미만인 28.1%, 5500만원 이상이 25.5%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의 평균은 4364,24(만원)로 나타났다. 부모애정은 4점 척도에서 평균 3.00(\pm .6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체험활동은 9개 활동에서 평균 2.40개(\pm 1.78)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변수	구분(범위)	명(%)	평균(SD)
성별(w1)	남	1,176(50%)	-
	여	1,175(50%)	-
가구소득(w1)	0~2,500만원 미만	23.8%	4364.24만원(2856.9)
	2,500~4,000만원 미만	22.6%	
	4,000~5,500만원 미만	28.1%	
	5,500만원 이상	25.5%	
부모애정(w1)	1~4(점)	2,350	3.00(.65)
체험활동(w1)	0~9(개)	2,351	2.40(1.78)

주요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의 조사차수에 따른 평균점수를 보면 또래애착의 1차년도의 평균은 2.96(±.49), 3차년도의 평균은 3.03(±.45), 5차년도의 평균은 3.12(±.42)로 나타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1차년도 평균은 2.76(±.60), 3차년도 평균은 2.82(±.59), 5차년도 평균은 2.96(±.50)로 나타나 또래애착과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다변량 통계분석의 기본가정인 주요변수의 정규성 검사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01~- .42, 첨도는 .06~1.04로 나타나 정규성의 일반적 기준(왜도 2 이하, 첨도 7이하, West, Stafford, Farrow & Jacobs, 1995)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규분포성이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조사차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또래애착	중1(w1)	2,349	2.96	.49	-.42	1.04
	중3(w2)	2,259	3.03	.45	-.04	.60
	고1(w3)	2,091	3.12	.42	.17	.06
공동체의식	중1(w1)	2,350	2.76	.60	-.09	.24
	중3(w2)	2,257	2.82	.59	-.16	.50
	고1(w3)	2,091	2.96	.50	.01	.63

아래 표 3은 본 연구에 선정된 변수 중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변수들은 상호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중단 영향

<표 3> 관련변수의 상관분석

	가구소득 w1	부모애정 w1	체험활동 w1	또래애착 w1	또래애착 w3	또래애착 w5	공동체 의식w1	공동체 의식w3
가구소득w1	1							
부모애정w1	.07*	1						
체험활동w1	.10***	.08***	1					
또래애착w1	.08***	.323**	.09***	1				
또래애착w3	.07**	.21***	.07***	.38***	1			
또래애착w5	.08**	.18***	.05*	.31***	.39***	1		
공동체의식w1	.11***	.26***	.17***	.28***	.15***	.14***	1	
공동체의식w3	.10***	.19***	.10***	.21***	.27***	.20***	.34***	1
공동체의식w5	.11***	.11***	.08**	.17***	.20***	.31***	.31***	.39***

** $p < .01$, *** $p < .001$

주요변수의 발달계적 분석

선형모형을 토대로 변수의 초기 값과 변화율을 잠재변인으로 하고 1차, 3차, 5차년도 of 관측변수를 투입하여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1과 표 4는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의 무조건부 모형의 적합도는 CFI 1.00, TLI 1.00, $RMSEA$.02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의 모형 적합도는 CFI .99, TLI .93, $RMSEA$.05로 나타났다. CFI 와 TLI 는 .90이상, $RMSEA$ 는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또래애착 및 공동체의식의 선형모형은 동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고 무조건부 모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의 모형적합도

변수	$\chi^2(df)$	p -value	TLI	CFI	$RMSEA$
또래애착	.71(1)	.399	1.00	1.00	.02
					.00
공동체의식	8.86(1)	.003	.93	.99	.05
					.02
					.09

다음으로 주요변수의 잠재성장모형 추정치는 표 5와 같다. 변수별로 보면 우선 또래애착에서 청소년의 또래애착 초기 값 평균은 2.96($p < .001$), 변량은 .10($p < .001$)로 나타나 또래애착 초

기 값에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또래애착의 변화율 평균은 .07($p<.001$)로 나타나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변화량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매 2년마다 평균 .01($p<.001$)만큼 지속적으로 또래애착 수준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초기 또래애착 수준과 또래애착 변화 기울기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49, p<.001$), 이는 초기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래애착 수준이 느리게 증가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초기 값 평균은 2.75($p<.001$), 변량은 .15($p<.001$)로 나타나 공동체의식 초기 값에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공동체의식의 변화율 평균은 .10($p<.001$)로 나타나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량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매 2년마다 평균 .02($p<.001$)만큼 지속적으로 공동체의식 수준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초기 공동체의식 수준과 공동체의식 변화 기울기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47, p<.001$), 이는 초기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의식 수준이 느리게 증가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5>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계적 추정치

변수	초기값(Intercept)		변화율(Slope)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및 상관계수
	평균	변량	평균	변량	
또래애착	2.96(.01)***	.10(.01)***	.07(.01)***	.01(.01)***	-.02(.01)*** -.49***
공동체의식	2.75(.01)***	.15(.01)***	.10(.01)***	.02(.01)***	-.03(.01)*** -.47***

*** $p<.001$

또래애착이 청소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다변량 잠재성장 인과모형을 활용하여 또래애착이 청소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를 투입한 상황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추정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RMSEA=.04(.03\sim.04)$ 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TLI 와 CFI 또한 .90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또래애착이 공동체의식에 이르는 경로추정치를 살펴보면 통제변수가 통제된 상태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중단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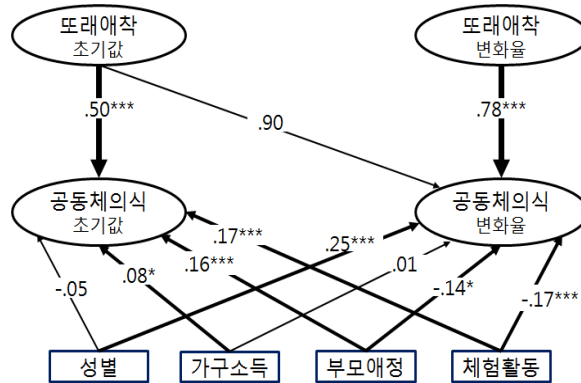
에서 또래애착 초기 값은 공동체의식 초기 값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9.25, p<.001$).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애착 값이 클수록 당해 연도 공동체의식 값이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애착 변화량이 공동체의식 변화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6.37, p<.001$). 이는 또래애착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또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초기 값은 공동체의식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애착 초기값이 크다고 하여 공동체의식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한편, 공동체의식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가구소득($t=2.576, p<.05$), 부모애정($t=4.21, p<.001$), 체험활동($t=5.77, p<.00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1때 가구소득, 부모애정, 체험활동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또한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성별($t=4.63, p<.001$), 부모애정($t=-1.99, p<.05$), 체험활동($t=-3.47, p<.001$)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잠재성장 조건부 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β	C.R.
독립 변수	또래애착 초기값	→	공동체의식 초기값	.56	.06	.50	9.25***
	또래애착 초기값	→	공동체의식 변화량	.04	.04	.09	.98
	또래애착 변화량	→	공동체의식 변화량	.80	.13	.78	6.37***
통제 변수	성별	→	공동체의식 초기값	-.04	.03	-.05	-1.57
	가구소득	→	공동체의식 초기값	.00	.00	.08	2.57*
	부모애정	→	공동체의식 초기값	.10	.03	.16	4.21***
	체험활동	→	공동체의식 초기값	.34	.06	.17	5.77***
	성별	→	공동체의식 변화량	.08	.02	.25	4.63***
	가구소득	→	공동체의식 변화량	.00	.00	.01	.22
	부모애정	→	공동체의식 변화량	-.03	.02	-.14	-1.99*
	체험활동	→	공동체의식 변화량	-.03	.04	-.17	-3.47***
	CMIN=75.33(df=16, p=.00), CFI=.97, TLI=.92, RMSEA=.04(.03~.04)						

* $p<.05$, ** $p<.01$, *** $p<.001$



[그림 1] 잠재성장 조건부 모형 경로계수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통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의 발달 궤적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이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에서 중1 패널자료인 1차년도(2010년, 중1), 3차년도(2012년, 중3), 5차년도(2014년, 고2)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에 응답한 2,351명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에 대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애착 발달 궤적을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 수준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선형모형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초기 또래애착 수준과 변화 기울기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또래애착 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초기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애착 수준은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초기 또래애착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래애착의 종단적 변화를 보고한 선행연구(강인경, 김춘경, 2016; 김은경, 김순규, 2015; 노보람, 박세롬, 이순형, 박혜준, 2016; 이재경,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천장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1차년도에 또래애착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또래애착 수준이 낮았던 청소년에 비해 또래애착이 향상될 여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느리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 발달 궤적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고려할 때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또래애착 증진 프로그램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래 관

계에서 형성되는 안정감과 신뢰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중학교 시기의 또래관계는 학교적응과 함께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기가 지속되면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애착과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또래애착 증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주축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동아리활동, 사회참여활동과 청소년 자치위원회 등의 다양한 활동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또래의 조언을 우선시하고, 또래 간 격려와 상호 모델링하는 특성을 비취볼 때, 또래상담가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해결역량과 대인관계기술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또래관계를 위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정립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궤적에서 개인차가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차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교육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인 개입과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 궤적을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은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초기 공동체의식 수준과 변화 기울기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양상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초기치와 변화율은 부적 상관관계라고 보고한 문수경(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공동체의식의 증가폭은 작게 나타났고, 초기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향후 5년간 공동체의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학교 1학년 때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향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학교 1학년 때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년이 높아지더라도 공동체의식 수준은 미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또한 천장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1차년도(중1)에 이미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의 경우 공동체의식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향상될 여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한 개입이 저학년에 요청된다. 작금의 청소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 성과와 학교적응에 공동체의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김영춘, 2014; 박재숙, 2013; 진성희, 이동주, 2010)와 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년 수련활동 등이 청소년의 욕구와 기대에 부합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변량 잠재성장 인과모형을 활용하여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 초기값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높았지만, 또래애착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변화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같은 시기에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높이는 횡단적 영향력은 있지만, 또래애착 초기값이 높다고 하여 공동체의식의 증가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또래애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의 지속적 증가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재한 관계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렵지만, 횡단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또래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김문수, 2014; 김상미 외, 2011; 김선숙 외, 2012; 김영춘, 2014; 김종화 외, 2009; 송연주 외, 2015; 장소영, 2012)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횡단연구에서 규명하기 어려웠던 본 연구의 종단결과를 보충하면, 청소년 초기 또래관계가 높으면 공동체의식이 높지만, 초기 또래관계가 높다고 하여 공동체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애착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또래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중심의 동아리활동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넷째, 공동체의식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가구소득, 부모애정, 체험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즉 중1때 가구소득, 부모애정, 체험활동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성별, 부모애정, 체험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의 경우 공동체의식 초기값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공동체의식의 변화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1때의 공동체의식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높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공동체의식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 초기값에는 가구소득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공동체의식 변화량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초기 가구소득은 공동체의식의 지속적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는 가구소득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애정과 체험활동은 초기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의식의 변화량을 모두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초기값과 변화량에 미치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정과 체험활동은 공동체의식 초기값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량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정이 높고 체험활동이 많으면 중1때의 공동체의식은 높아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애정과

체험활동이 낮을수록 공동체의식의 증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은 부모애정 및 체험활동에 의한 긍정적 영향을 받지만 중3이상 학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애정이 오히려 간섭이나 통제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으며, 체험활동 또한 부모바람 및 학교의 일방적 제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혹은 또래애착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력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3이상 청소년들 대상에서 공동체의식 증진은 부모 및 체험활동 요인보다 또래요인에 의해 강력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학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개입방법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의 인과관계를 중단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기존의 횡단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였다. 그러나 패널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한 대상의 또래애착 및 공동체의식의 변화양상 및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찾아지는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과 성별, 가구소득, 부모애정, 체험활동이 매우 요긴한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또래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해 변수에서 충분한 질문 문항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들 변수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경, 김춘경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연구. *교육심리연구*, 30(2), 411-428.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권정미, 박태영 (2014). 도농지역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0), 127-154.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문수 (2014). 청소년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36-64.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 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의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김영춘 (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21-330.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위정 (2016).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1), 179-203.
- 김은경, 김순규 (2015).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애착의 변화양상에 관한 중단연구. *학교 사회복지*, 32, 357-384.
- 김종화, 유희철 (2009). 청소년 수영교실 참여자의 또래관계가 공동체의식 및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0), 609-619.
- 김진영 (2016).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공동체의식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균 (2013).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 시설환경*, 11(2), 75-82.
- 김현주 (2015). 중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 분석 : 경기도 교육 중단연구 (GEPS)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진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95-214.
- 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149-177.
- 문수경 (2015).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경애, 이진숙 (2014). ADHD 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부모-자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11), 101-102.
- 박재숙 (2013). 중학교 신입생의 봉사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9), 1-24.

- 박현정, 이진실, 이용석 (2015).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2), 235-257.
- 송연주, 김대현, 이상수 (2015). 전환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2), 207-231.
- 심성보 (2008). 민주화 이후의 공동체교육. 서울: 도서출판 살림터.
- 심수정 (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난숙 (2015). 중산층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3(3), 319-329.
- 이병희 (2014). 초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집단따돌림 관여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이현주, 권수정 (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47-355.
- 장소영 (2012).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의 행복감과 공동체의식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은경 (2016).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또래애착 및 학급 공동체의식의 구조적 관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계순 (2017).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주은지 (20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낭만 애착. 청소년학연구, 18(4), 141-171.
- 진성희, 이동주 (2010).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공동체의식과 토론참여도 및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6(1), 65-87.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세대 간 사회의식 비교 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 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3(0), 95-124.

- 홍봉선, 남미애 (2011).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 홍재화 (2004).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attistich, V., & Hom, A.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ense of Their School as a Community and Their Involvement in Problem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12).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r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97-112.
- Fletcher, A. C., Elder, G. H. J., & Mekos, D. (200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29-48.
-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9-818.
- Guerra, N. G., & Bradshaw, C. P. (2008). Linking the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re competencie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risk preven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0(122), 1-17.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Nclis, S. M.,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 443-447.
- Santrock, J. W. (1990). *Adolescence An International*. Dubuque, Iowa: Wm. C. Brown.
- Schaps, E., & Battistich, V.(2002). *Community in school: Central to character formation and more*. Presented at the Educational Summit at the White House.
- West R. R., Stafford, D. A., Farrow, A., & Jacobs, A. (1995).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exposures and myelodysplasia: a case-control study. *Leuk Res*, 19, 127-139.

- Zaff, J. F., Malanchuk, O., & Eccles, J. S. (2008). Predicting positive citizenship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he effect of a civic context.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2*(1), 38-53.
- Zeldin, S., Krauss, S. E., Kim, T., Collura, J., & Abdullah, H. (2016). Pathways to Youth Empowerment and Community Connectedness: A Study of Youth-Adult Partnership in Malaysian After-School, Co-Curricular Progra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8), 1638-1651.

Longitudinal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Ah, Young-Ah

Silla University

Kim, Jin-Young

Busan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the sense of community change by time and test the longitudinal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a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Using the data of 2,351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acquired from the 1st, 3rd, and 5th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Latent Growth Model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hypothesized mode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er attachment and sense of community from the first-year in middle school to the second-year in high school increased by time. Second, the initial value of peer attachment influenced the sense of community in a significantly positive way. The changes of peer attachment influenced those of sense of community in a significantly positive way. However, the initial value of peer attachment did not influence the changes in the sense of community significantly. Third, among the control variables, household income, parents' affection, and experiential activity influenced the initial value of the sense of community significantly, and sex, parents' affection, and experiential activity influenced the changes of the sense of community significantly. Through discussion of these results, this author provide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s well as interventions with peer attachment to enhance the sense of community.

Key words : adolescents, peer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longitudinal research

내러티브 관점에서 본 성인초기 여성 정체성 연구*

최사랑†

한국성서대학교

이 연구는 일, 관계, 세계관의 영역에서 성인초기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 경험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인초기 여성들을 연구하고자 했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론을 따라 두 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내러티브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김미연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에 도전하였고 결국 그림을 전공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는 김미연의 정체성에 존재감을 더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 위해 시도한 정체성 시험이었다. 이민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욕구까지 알고 채워주려 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본 경험이 없지만, 대학에서 학회 임원에 도전하였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김미연과 이민희는 성인초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경험의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성인초기 여성은 지배 이야기에 묻혀 들리지 않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해 갔으며, 이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임을 조명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이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된 이야기의 역할과 한계를 논하였다.

* 주요어 : 성인초기 여성, 정체성, 일, 관계, 세계관, 목소리, 질적 사례연구, 내러티브 관점

* 이 논문은 최사랑(2017)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사랑, 한국성서대학교 초빙교수,
(01757)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E-mail: csr@bible.ac.kr

서론

‘성인초기’를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다. 후기 청소년기(오찬호, 2010; 조혜영, 2013;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청년기(Keniston, 1965), 성인초기 전환기, 입문기(Levinson & Levinson, 1998), 성인 진입기(Arnett, 2000, 2004) 등 이 발달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는 각양각색이나, 이 시기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할 과업을 요구받는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각 학자들마다 성인초기에 대한 다양한 이름을 붙였지만, 이들은 이때가 직업(일)과 사랑(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많은 것을 탐색해 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미를 형성해 가는 절정기이자 정체성 이슈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Arnett, 2014)라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다. 특별히 Arnett(2007)에 의하면, 성인초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정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했거나 적어도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개인, 즉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과 아직 이를 탐색하고 시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성인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이룬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정체성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rnett(2000)은 성인초기 시기를 18세에서 25세까지로 지칭하였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성인이라면 마땅히 이뤄야할 과업으로 여겨지던 결혼, 일, 자녀양육 등의 성취 시기가 미뤄지고, 유예기간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성인초기의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Arnett의 정의에 따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20대 대학생을 ‘성인초기’라 지칭하고자 한다. 대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대학이라는 특정 문화와 경계 속에서 형성하는 대학생들의 정체성과,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는 성인초기 젊은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이는 대학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자가 상담하면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겪는 보편적 고민이 존재함을 느꼈고, 이러한 주제가 대학이라는 맥락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은 다양한 진로목표와 신념체계, 그리고 생활양식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Luyckx, Schwartz, Goossens, & Pollock, 2008).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광범위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대학에서 성인이므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이 된다. 선택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나가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아직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뚜렷한 주관 없이 주위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는 나 없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

Erikson(1988)도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시기 발달과제를 정체성 확립으로 제시한다. Erikson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 곧 그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확신하게 될 때, 가장 취약해지는 점은 친밀감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성취와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타인을 돌아볼 가능성이 적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와 타인의 정체를 융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분리되고 독립된 자아가 확고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유대와 결합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성취하게 된다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는데,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남성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서, 여성들만의 고유한 발달적 특징을 간과했다는 것이다(Josselson, 1983; Gilligan, 1997). 이 여성학자들에 의하면 여성의 발달은 '친밀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들은 전 생애에 걸쳐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며, 친밀감, 곧 관계성이야말로 여성 발달의 강점이라는 것이다.

박아청(2000)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형성될 때 이 관계성을 이용하는 방식의 정도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인초기 여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의 의미도 사회 변화와 함께 변화해가며, 현대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에는 친밀감뿐 아니라, 직업과 이데올로기, 가치체계의 다양화에서 기인하는 선택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박아청, 2003).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내게 가장 어울리는 분야에서 내가 직업을 갖게될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나라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파트너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이 나에게 부여한 가치는 과연 지금 내가 속한 사회에서 유용한가 등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Arnett, 2000; Schwartz, Zamboanga, Luyckx, Meca, & Ritchie, 2013). 이는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될 때 만족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해온 나의 모습은 나를 둘러싼 세상 속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체감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성인초기 시기 직업(일), 사랑(관계), 그리고 세계관 영역에서의 정체성 탐색은 여성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일과 관계 영역에서의 이중 역할은 성인초기 여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많다(Frisén & Wängqvist, 2011). 여자라면 착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영리해야 하지만 남성보다 똑똑해서는 안된다, 가정에서는 딸로서 역할, 사회에서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수퍼우먼이 되어야 한다(여성을 위한 모임, 1992)는 모순된 지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인초기 여성들은 성취와 관계 모두를 붙잡을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Haydon, 2015). 현대 시대 여성들의 권익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여성들을 향한 이러한 지배이야기는 사실 더욱 강력해졌다. 특히 한국 사회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신체와 예쁜 외모를 중요시하고, 이러한 외모를 개인의 경쟁력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현대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의 이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이는 그들의 정체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오주현, 한광령, 함경수, 2015). 고영순(2010)은 현대 젊은 여성들은 부모 세대의 여성보다 정체성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한다. TV 등 다양한 매체들이 여자다운 것은 날씬하고 섹시한 것이다, 그래야 사랑 받는다, 외모도 능력도 다 갖춘 여성, 그러면서도 착하고 조신하고 고분고분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지배 이야기를 이전 세대보다 더욱 강력하게 주입하고 있으며, 남성의 역할로만 여겨지던 일들을 여성들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현대 여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 때 성인초기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갖는 이러한 세계관이 무엇이나에 따라 자신의 일의 성취와 독립의 정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이 요소들의 긴밀한 상호작용 가운데 균형 있는 개인 삶의 방향을 형성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 이야기에 묻혀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목소리를 넘으로써 성인초기 여성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다. McAdams (1985)는 정체성은 곧 삶의 이야기라고 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때라고 말한다. 이는 정체성과 내러티브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넘으로써 삶에서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얻고, 이를 통해 현재의 나를 발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내가 누구였고, 누구이며, 누가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가게 된다. 김태희와 김종백(2016)의 연구는 이러한 내러티브와 정체성의 관계를 잘 드러낸다. 이들은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과거 경험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경우 현재 전공과 대인관계에 적응적인 것을 발견했다. 특히 자신과 관계의 경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수록 반성적 사고, 자기에 대한 긍정성, 진로목표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은경과 신혜숙(2013)은 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대생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이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며, 미래의 삶을 주도해나가는 정체성 형성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삶에 대한 성찰과 이야기는 이숙정과 유지현(2014)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이들은 여대생들의 성찰적 글쓰기 경험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자기 모습을 직시하며, 자기이해를 돕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자기이해, 자기성찰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과거에 대한 재해석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 내고, 그것들을 재구성, 재해석하는 과정들을 통해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었으며, 긍정적 가치관과 자아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다. Fahlman(2004)도 재능 있는 여성들을 연구한 결과, 타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자신의 재능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재평가 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칠 때, 이들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졌으며, 이 재평가의 과정, 성찰의 과정은 바로 성인초기 시기에 경험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성인초기 여성들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여성들의 정체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맥락 안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한상미, 1997) 명확히 여성들만의 정체성을 구분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Jordan, Surrey, & Kaplan, 1981). 이는 앞서 Erikson에 대한 여성학자들의 비판처럼 성인초기 여성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성인초기 여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이 때 이야기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힘이 되는지 탐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 경험을 드러내고자 한다. 성인초기를 보내는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탐구할 때, 지금의 특정 시기에 겪는 불안정과 혼란을 견뎌내고 수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별히 대학 상담센터에서 성인초기 여성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 형성해가는 정체성의 모습과 과정들을 알아갈 것이다.

방 법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상담사례를 연구텍스트로 활용한 질적 사례연구다. 성인초기 여성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이라는 경계체계 안에서 성인초기 여성의 구체적 삶의 경험을 드러내고,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특정 맥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인초기 여성에게 정체성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Yin, 2011). 이는 대학 상담센터 현장에서 느낀 연구자의 경험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지 개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며, 본 연구 목적과도 일치하는 바다. 연구자는 개인의 정체성과 내러티브는 심리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가정하면서, 성인초기라는 특정 시기에 이루어야할 연구 참여자들의 발달 과업과 대학생으로서 겪는 경험에 대한 서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에 대한 의미를 담지해가고, 무엇을 발견하며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지 설명해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내러티브 분석 및 해석

성인초기 여성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하였고, 사례를 내러티브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내러티브는 모든 장면에서 통하는 기술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이끌어내는 실천과정의 이야기를 창조해낸다”(Polkinghorne, 2010, p.396). 내러티브 분석에서 이야기는 개인적이며, 삶의 경험은 모두 다르다.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가 성인초기 여성의 개별적 삶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 조명하는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내러티브 분석과 연결된다. 나아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이 그가 속한 맥락에서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사한다는 점에서 묻혀있는 성인초기 여성들의 목소리를 표면 위로 드러내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Elbaz-Luwisch(2010)가 소개한 내러티브 분석 절차를 따라 해석하였다. 먼저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그렇게 선택된 텍스트를 다시 읽으며 이 텍스트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고, 그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Schwab & Syed, 2015) 숙고하였고, 이렇게 의미를 담아가는 과정을 인용된 다른 텍스트들과 관련해서 이해하였다.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그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텍스트간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읽어내고자 했다. 전체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범주화하여 제목을 붙였으며, 그 과정에서 텍스트를 다시 반복적으로 읽는 순환의 과정을 지속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앞서 성인초기를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직업을 갖지 않은 20대 대학생(Arnett, 2000)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두 명의 여대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학생들 가운데 학교적응, 진로, 관계 등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호소하였던 학생 두 명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했다. 참여자 모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휴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선택한 전공에 대한 확신 없음, 친구, 가족과의 갈등은 이들이 호소하는 공통된 주제였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갈등이 참여자들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민감하게 느꼈다. 한상미(1997)는 성인초기 여성들이 진로와 가족갈등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체성 문제를 표현한다고 했다. 연구자는 두 참여자의 표면상의 문제 뒤에도 역시 자신에 대한 이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그 안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상호작용 속에서 발견하는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깊은 욕구가 있음을 느꼈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이들을 선정하였다.

김미연(가명)은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기 상담을 진행하였고, 휴학을 하면서 상담은 종결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김미연이 상담센터에 찾아왔고, 김미연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동안 김미연과 상담했던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구했다. 이민희(가명)는 2016년 3월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기를 희망하였고 6월까지 총 7회기의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했다. 개강 후 이민희는 다시 상담을 요청했고, 12월까지 총 13회기의 자기분석을 진행했다. 다시 이민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이민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이민희와 상담한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두 연구 참여자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매회기 평균 1시간~1시간 30분에 걸친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한 내용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전사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가명)	연령	학력	형제순위	상담횟수
김미연	21	대학생	1남 1녀 중 둘째	15회기
이민희	21	대학생	1남 2녀 중 첫째	20회기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자가 대학 상담현장에서 상담한 텍스트를 내러티브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러티브 연구가 연구 참여자와 상호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상담 역시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동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상담 사례를 연구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이러한 연구의 경계에 대해 알렸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렸다. 김미연의 경우 상담이 모두 진행된 이후 상담한 텍스트를 연구 자료로써 활용했다. 김미연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전의 상담사례를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익명성 보장과 비밀유지에 대하여 확인했다. 김미연이라는 가명을 쓰는 것에 대하여도 허락을 받았다. 이민희의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자기분석을 시작했다. 이민희와 자기분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자는 연구와 상담의 경계에 대해 알렸다. 이민희는 자신을 알고 싶은 욕구가 크기에 연구에 더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이민희에게도 익명성 보장과 비밀유지에 대해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대학 상담센터에서 일한다는 배경이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자의 선이해를 괄

호치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민희가 상담에서 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기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자와 이민희가 서로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김미연도 이메일로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 과

김미연 이야기

들리지 않는 목소리 - 일, 관계, 세계관의 영역에서

김미연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학업과 진로를 둘러싼 갈등을 빚어왔다. 아버지는 자신이 대학을 나오지 못한 아쉬움을 자녀들이 되풀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딸에게 공부에 충실할 것과 소위 일류 대학에 다닐 것에 대한 기대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김미연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김미연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공부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미술학원을 그만두어야 했음을 회상한다. 중학교 때도 꿈을 버리지 못해 특성화고로 진학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대학을 가야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마음을 접었다. 하지만 꿈을 접은 건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김미연은 말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한 것 같지만, 막상 그 길을 가겠느냐는 질문에 김미연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여했다.

나는.. 그렇게 해야되나? 내 하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면서? (그런데)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지금 당장 아빠가 마음이 바뀐다고 했을 때 해나갈 수 있을까.

이후 수능을 보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아버지는 김미연이 취업이 잘 되는 00학과에 가기를 권유했고, 김미연은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접었는데 아무렴 언제 하는 심정으로 그 결정에 따른다. 처음 시작한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다. 전공의 특성상 학업이나 실습 등 모든 수업 과정에서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고, 엄격한 규율과 규칙, 그리고 제약이 많았다. 대학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큰 노력 없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쉽게 얻어내는 친구들을 보는 것이 불편하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는 예쁜 외모도 속해 있었다.

애들을 볼 때 마르고 다리가 이쁘고 길더라 재는 진짜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 라든지 다른 친구들하고 할 때 단순한 얘기잖아요. 진짜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얘기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친구랑 할 때나 들을 때나? 좋은 감정이 안 드는거 같아요. 그.. 대화 중에서 물론 얘기

를 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부러..운게 좀.. 오래 가는거 같아요. 되게 예쁘고 말라서 좋겠다 라든지 나도 저렇게까진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진 살을 빼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날씬한 동기들을 보면서 김미연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자신을 볼 때 위축되는 것을 느낀다.

음. 저는 약간.. 항상 저 자신을 생각할 때는 팀장보다는 비서 이런 쪽이 더 그런 체질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내가 나서서 지휘하고 그러기에는 내가 능력이 없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중간역할 해주는건.. 다만 음.. (눈물)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김미연은 자신도 리더가 되어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자신은 그러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서글펐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고, 다른 사람을 뒷받침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을 칭찬하는 자리에 처하면 당황하고 민망해하는 김미연이었고, 이는 김미연을 주눅 들게 하는 부분이자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김미연은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나 자신을 좀 믿고.. 좀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믿음이 생기고 확실한 그런게 생겼으면 좋겠다.

독특한 이야기

김미연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이 크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고2 겨울방학 사건을 기억해낸다.

한 번 아빠가 잠깐 얘기를 하세요. (중략) ...얘기하는게 라디오에서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직접 왔대요. 자기가 그림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라디오 진행자가 그 말을 듣더니 만약 부모님이 지지해줄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지 여력을 만들어서 하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 부분부터 얘기하시는게.. 나는 너를 케어해줄 그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거품이 확 꺼지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제 스스로 머리(카락)를 잘랐죠. 파문이 좀 심했죠. (중략) 길이가 안 맞아서 들쭉날쭉해서 거의 솟컷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때 일을 기억하며 김미연은 웃음 지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시도해도 안 될 거라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모습을 기억해낸 것이다. 독특한 이야기를 기억해냄으로써 김미연은 자신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김미연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유쾌한 경험이 되었다.

이야기를 통한 성장과 변화

상담하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미연은 점점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김미연: 내가 기분 좋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던 나쁘던 그게 영향..을 받을 것까진 없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좋다가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저도 기분이 안좋아져요. 공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한테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그 점이.. 거슬려져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신경을 써줘야 되는구나.

김미연: 같이 있어야 되니까.

연구자: 그 사람은 미연이 기분을 생각해 줘요?

김미연: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미연이도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아닌가? 항상 신경써 줘야 되요?

김미연: 그렇..네요. (한참 생각) 약간 내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을 거 나도 챙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보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너가 이해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 같아요. 버려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김미연은 내 주장을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관계를 잘 맺고 싶어서, 친구들, 아버지와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서 애써 참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관계를 망치고 있음을 알았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여겨 왔으며, 이러한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 때문에 그동안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내 목소리를 잃었던 김미연은 그것이 곧 나를 잃었던 것임을 알게된 순간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동안 묻혀 놓았던 자신의 존재,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을.. 제 주장이라든지 챙길 건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그니까 그 생각을 덮는게 지금은 안 필요한 거 같아요. 내가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걸 그게 이기(적)..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연구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김미연은 마음속 깊은 진짜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기 시

작한다. 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있었다.

그것도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뒤흔친다는게. 남들..하고 다른 표면적인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걸 벗어나서 한다는게.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김미연이 생각했을 때 위험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벗어난다는 의미였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될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김미연은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나 들리지 않던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새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오래도록 원했던 미술입시를 준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경험은 김미연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이민희 이야기

사라진 목소리 - 일, 관계, 세계관의 영역에서

이민희에게 대학 입학은 큰 성공경험이었다. 비록 원했던 상담학과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전공을 공부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지만 이민희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말 할머니한테 서운했던건 나 대학교 합격했어요 전화했는데 돌아오는건.. 하.. 돈 걱정. 그 전화기에 대고 취직이나 할 것이지 돈 어떡하라고 합격을 해? 진짜 집 뛰쳐나갈 뻔 했어요. 아빠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집은 돈도 없으니까 니가 잘할 맘 없으면 가지마. 대졸 것도 아니면서.

자신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내게 기쁜 일이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민희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웠다. 가족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모두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꼈다. 이민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사랑 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했다. 연구자가 특히 누구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지 물었을 때, 이민희는 할머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되게 감사하지만.. 되게 무거워요. 뭔가.. 할머니가 여지껏 키워주셨잖아요. (중략) 학교 다닐 때도 뭔가 여기서 잘못하면 안돼. 그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중략) 할머니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인생에 대한? 못할 때마다 좀 할머니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겁다는 느낌. 무겁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껏 키워주신 할머니에게 무겁다는 감정을 갖는 스스로를 보면서 이민희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민희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갈등요소다. 이민희는 자신이 이기적인 이유가 배려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배려 없다는 의미는 남 기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이 원하는 욕구는 이컨데 저는 다른 것을 주거나? 초콜릿 싫어하는 애한테 초콜릿 100개 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은 표정을 봤을 때 금방 알아챌 수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를.. 저는.. 상황에서? 정확히 줄 수 없었던..

이민희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은 특히 같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학창시절에 이쁜 애들은.. 뭔가. (중략) 자존감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애요. 내가 좀 이뻐하면 좀 애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이민희는 자신이 예뻐다면 자신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성인초기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이러한 외모 평가는 여성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김혜란, 2012; 조미경, 최은지, 이지원, 이유나, 채지영, 2013). 다른 사람들이 이민희를 대하는 방식과 평가는 이민희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자존감, 정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김현진, 한종철, 2004; 한기백, 2014), 관계 문제는 늘 이민희의 낮은 자존감과 불안의 이유가 되었다.

밤에 자존감에 대한 강연을 들어봐요. 아.. 내 자신을 사랑하래요. 그래 알지. 거울을 봐요. 하.. 그래 민희야 난 널 사랑해. 우웻. 하하하. 다른 걸 찾아보자. 감사일기를 쓰래요.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게 없어요. 뭐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성취욕구를 늘려보자. 성공욕구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뭐하는 거야. 어떡하지? 또다시 봐요. 다시 덮어요. 허허허 허허허. 어떡하라고요. 이려고 있어요,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강연 듣기, 감사일기 쓰기, 작은 것부터 성공경험 늘리기를 시도해보지만, 모두 원론적인 이야기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민희는 모르겠다고 말한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불안은 사라질 것이고,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어떤 안정을 찾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민희는 모르겠다고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거죠.

라고 말한다.

변화의 계기

고등학교 때는 루저로 살았으니 대학교 때는 위너로 살아보자 다짐도 해보고. 그러면서 바뀌 보고.

이민희는 학생회장도 하고, 친구들을 앞에서 이끌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리더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다. 그런데 대학에서 우연치 않게 학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도 누군가를 이끌어 보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회에 들어갔고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학회일을 하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어려움의 시간과 과정을 잘 넘어오면서 학회를 마치는 시점이 되자 이민희는 자신감을 얻는다. 학회일을 하면서 이민희에 대한 피드백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였다. 노답이었던 자신에게 지금 돌아오는 피드백은 진짜 열심히 했어, 책임감도 있잖아, 포기도 안하고 정말 잘했어, 넌 인재야 라는 말들이다.

새롭게 이야기하기

자존감이 향상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향상된게 아니라 하고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있더라고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고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이민희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내가 시도하고 탐색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다보니’ 나라는 사람도 잘 할 수 있는 존재,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뭔가 이상하고 꿈하고 현실은 괴리감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괴리감이 크다고 해서 난 못해 안될거야 돌아서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거 못해 안될거야 못한다니까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이민희는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괴리가 느껴지지만, 그 간격을 좁혀나가기 보다는,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모두 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 이민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최사랑

이 속에서.. 행.. 즐거움? 을 찾고 그러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쨌든 저쨌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니까.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민희가 자신에 대해 묘사했던 것처럼 진지하고 생각이 많은 질은 느낌의 모습이 열어지는 듯했다. 행복하고 즐겁고 싶은, 무거움을 벗고 가볍게 옷을 입고자 하는 모습은, 특별히 성인초기라는 풋풋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논 의

김미연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기회와 경험이 부족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투쟁하여 쟁취하고 싶은 만큼 자신이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인지,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지금껏 김미연이 막연히 그림을 그리고만 싶었지, 그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왜 중요하며, 그림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설득할만한 포부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림을 그릴 용기도,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자신도 없었다. 김미연이 미술 공부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김미연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도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 내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나에게 어울리는지 내가 선택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정말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김미연은 자신이 직접 부딪쳐서 그 답을 찾고 발견하고 싶었다. 그 시도가 미술 입시 도전이었고, 이는 김미연의 정체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민희는 자신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발견하고 싶어한다. 이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이민희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민희 고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출발을 했다는 의미다. 학회라는 새롭고 낯선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해 보았으며, 그 경험이 이민희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상담을 통해 성찰해 볼 수 있었다. 새로운 관점으로 그 경험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됨으로써 이민희는 사라진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해 갈 수 있었다.

두 성인초기 여성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담은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 그들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했다. 김미연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정체성을 찾아가는 간다. 그림을 전공하게 되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갔다. 그 과정에서 김미연은 고등학교 때 머리카락을 잘랐던 독특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김미연이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권위에 저항하는 상징적 행위였음을 상담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대학이라는 안전한 틀, 취업이 보장된 전공학과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되고 명예 있는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미연은 상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과정을 통해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떠올린 독특한 이야기가 자신의 진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김미연은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 또한 함께 발견하게 되었고, 아버지로 대표되는 지배 이야기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용기와 적극성을 보였다. 이는 김미연이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관계에 대한 이민희의 확고한 정체성은 이야기 전반에 걸쳐 동일한 주제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민희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돌볼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도 있었지만, 이러한 이민희의 갈등은 성인초기 여성들에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며, 어떻게 관계와 욕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성찰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함으로써, 이민희와는 또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상담을 통해 이민희는 자기의심을 갖던 스스로에게 영향력 있는 질문들(Madigan, 2017)을 던진다. ‘내가 나 자신과 나의 관계맺음에 있어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걱정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는가’ ‘삶에서 걱정하도록 한몫을 한 사람들,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나.’ 이민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던진 영향력 있는 질문들을 통해 발견한 관계의 중요성은 이민희 자신에게 어떠한 관계가 건전하고 긍정적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관계가 착취적이며 파괴적인지(Neuger, 2002)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잘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김미연과 이민희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 이는 상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모호함을 건디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해진 답은 없었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고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견뎌냈다. 나아가 자신들의 현재 삶의 고통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더 나은 이야기로 개정해 가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 이는 두 성인초기 여성의 건강한 성품과 정체성 확립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성인초기 여성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힘을 발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 내는 목소리가 전하는 이

야기를 가감 없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두 성인초기 여성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 성인초기 대학생들이 겪는 표면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를 여성들의 정체성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그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체성과 관련된 과제임을 밝혔다.

성인초기 여성들이 정체성 탐색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지배 이야기에 대항하는 힘은 대학 상담센터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힘을 부여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발견하였다. 대학이 성인초기 여성들의 정체성을 시험하고 탐색하는 장이 될 때, 대학에 속한 상담센터는 이야기하는 장으로써 지배 이야기로 인해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학은 피할 수 없이 경쟁 체제 속에 존재하게 되며 그 안에서 성인초기 여성들은 지배 이야기와 부딪치고 싸우고 실패하고 좌절해야 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 없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상담센터는 이러한 대학 분위기 가운데서도 지배 이야기에 저항하는 여성들에게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또 거친 삶에서 지치고 실패할 때마다 그들이 성인초기 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대학 안으로 데려와 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 상담센터가 성인초기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지배 이야기를 주입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을 받는 여성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배 이야기와 동일한 가치를 주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여성이니까 참아야 한다, 여성들은 원래 그렇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이 아닌, 성인초기 여성 개인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들을 발견하고 이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별히 성인초기 여성으로서 갖는 이기심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센터에서 상담자와 그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관계를 시험해 보는 장이 될 수 있다.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인초기 여성들은 아름다워야 경쟁력이 되고,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한다는 지배 이야기를 듣는다. 가정의 교육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없어 힘겨워하는 문제들도 대두될 수 있다. 이 때 상담센터는 성인초기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야기하는 장, 성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배 이야기와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억눌린 목소리들을 상담센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한 울림과 공명을 통해 힘을 부여받는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성인초기 여성들이 부딪치는 여성성의 딜레마 속에서 상호 이해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돕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시기 성인초기 여성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상담이 도움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 관계, 세계관의 영역에서 정체성을 탐색할 때, 상담의 과정 자체가 정체성

형성과정의 모형이 된다. '일'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삶, 진로를 설계하는 일이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상담자가 반영하고 비춰줌으로써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된다. 이 때 떠오르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신과 또 그 평가에 대해 느끼고 해석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아가 상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스며들었던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상담의 과정이다. 이처럼 상담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체성을 발견하고 형성해 가는 것이 가능하며, 성인초기는 정체성을 탐색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는 젊은 시기이므로 상담과 이야기 매개를 통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두 사례에 대한 상담 개입과 과정, 그리고 맥락조건에 대한 뚜렷한 관계를 그려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남긴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성인초기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의 과정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대학 상담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안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성인초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그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성인초기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성인초기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상담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영순 (2010). 여성의 목소리: 변조인가, 변주인가? 목회와 상담, 14, 58-86.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2.
- 김태희, 김종백 (2016).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해 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교육심리연구, 30(1), 1-25.
- 김해란 (2012).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 이미지 및 불만족과 여대생의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4), 225-246.
-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4.
- 박아청 (2000).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5-126.
- 박아청 (2003). 여성의 자아구조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17.

- 여성을 위한 모임 (1992).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여자는 당연히 알고 남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서울: 한경사.
- 오주현, 한광령, 함경수 (2015).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외모관리행동 및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6), 51-61.
- 오찬호 (2010).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2, 214-253.
- 이숙정, 유지현 (2014). 자기 성찰적 글쓰기 경험이 여대생의 셀프 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여성학연구*, 24(2), 69-96.
- 전은경, 신혜숙 (2013). 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자 대학생의 자기성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뇌교육연구*, 11, 78-97.
- 조미경, 최은지, 이지원, 이유나, 채지영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와 취업 스트레스 및 취업불안과의 관계. *간호학의 지평*, 10(2), 141-150.
- 조혜영 (2013). 대학재학 후기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67-393.
- 한기백 (2014).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15-342.
- 한상미 (1997). 한국여대생의 정체성 발달: 독립적 자아와 합류적 자아의 갈등과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Arnett, J. J. (2014). Presidential address: The emergence of emerging adulthood: A personal history. *Emerging Adulthood*, 2(3), 155-162.
- Elbaz-Luwisch, F. (2010). Narrative inquiry: Wakeful engagement with educational experience. *Curriculum Inquiry*, 40(2), 263-280.
- Erikson, E. H. (1988). *Childhood and society*. (윤진, 김연경 역.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Fahlman, S. A. (2004). Perceptions of giftedness among gifted females in emerging adulthood.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4), 285-306.
- Frisén, A., & Wängqvist, M. (2011). Emerging adults in sweden: Identity formation in the

- light of love, work, and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6(2), 200-221.
- Gilligan, C. (1997). *In a different voice*. (허란주 역. 다른 목소리로). 서울: 동녘.
- Haydon, K. C. (2015). Relational contexts of women's stress and competence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2(2), 112-123.
- Jordan, J. V., Surrey, J. L., & Kaplan, A. G. (1981). Women and empathy: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psychotherapy. In J. V. Jordan, A. G.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L. Surrey (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pp. 27-50). New York: Guilford.
- Josselson, R. (1983).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Inc.
- Keniston, K. (1965). *The uncommitted: Alienated youth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Levinson, D. J., & Levinson, J. D. (1998).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김애순 역.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세종연구원.
-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L., & Pollock, S. (2008). Employment, sense of coherence, and identity formation: Contextual and psychological processes on the pathway to sense of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5), 566-591.
- Madigan, S. (2017). *Narrative Therapy*. (정석환, 김선영, 박경은, 현채승 역. 이야기치료 입문). 서울: 시그마프레스.
- McAdams, D. P. (1985).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ies into identity*. Guilford Press.
- Neuger, C. C. (2002).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정석환 역.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이야기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한들 출판사.
- Polkinghorne, D. E. (2010). The practice of narrative. *Narrative Inquiry*, 20(2), 392-396.
- Schwab, J. R., & Syed, M.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emerging adulthood: Meta-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Emerging Adulthood*, 3(6), 388-399.
- Schwartz, S. J., Zamboanga, B. L., Luyckx, K., Meca, A., & Ritchie, R. A. (2013). Identity in emerging adulthood: Reviewing the field and looking forward. *Emerging Adulthood*, 1(2), 96-113.
- Yin, R. K. (2011).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신경식, 서아영 역.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Young Adult Women's Identity from the Narrative Perspective

Choi, Sa-Rang

Korean Bible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young adult women's identity formation, experienced in the realm of work, relationships, and worldview. It revealed how young adult women discovered their own voice through narrative. Specifically, how counseling helped young adult women who were trying to find their own identity was examined. Following the qualitative case research method, two young adult women seeking help in th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were chosen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gathered materials are from June, 2015 to December, 2016. Those case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through the narrative perspective. Kim, Mi Yeon decided to face the challenge of changing her major, which was against her father's wishes. This was the proof of her identity and was the identity trial to take responsibility of her own life. Lee, Min Hee was a young adult woman who was not sure about herself, but she wanted to satisfy everyone else's needs. However, her experience as a University Association leader made her realize that she has her own voice. Kim, Mi Yeon and Lee, Min Hee had a common experience that they couldn't raise their voice just because they are young women. However, by telling their own stories, they could start a journey of finding their own voice and identity. Finally, narrative's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in this process of finding their identity were discussed.

Key words : young adult women, identity, work, relationship, worldview, voice, qualitative case research, narrative perspective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안나
조선대학교

김미정*
꿈세움Wee센터

상담자는 내담자의 외상에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간접적으로 대리외상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교폭력상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리외상을 경험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경험하는 대리외상에 상담자의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IES-R-K)와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TABS)로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학교폭력 상담기관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110부의 설문지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및 상담경력은 대리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직무특성인 도전은 대리외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상담자의 자율성 상실과 상담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고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그들의 대리외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는 대리외상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수퍼바이저와 동료의 지지보다는 가족의 지지가 대리외상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대리외상, 사회적지지, 직무특성, 학교폭력, 학교폭력상담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미정, 꿈세움Wee센터 (Dreaming Up Wee Center), (08274)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0 3층, Tel: 02-2625-9128, E-mail: riversound@nate.com

서론

최근 부산, 강릉, 천안, 울산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된 십대 또래 간 폭력과 피해학생의 자살은 우리 사회에 다시금 큰 충격을 주었다. 학교폭력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만연화된 문제로, 사건 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경험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수요 또한 높아졌다(푸른나무 청예단, 2017). 이와 같은 학교폭력 상담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1990년대 후반에는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전화 및 위기개입 상담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상담실 설치와 상담인력 배치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현재에는 학교폭력SOS지원단, Wee클래스 및 Wee센터, Wee스쿨, 학교폭력 피해자 센터와 가해자 센터, 117센터, 1388 등에서 학교폭력상담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법무부, 2016).

학교폭력과 같은 외상사건에 노출된 내담자들은 심리적 외상(trauma)을 겪게 되고 그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들 역시 그들의 외상경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와 같이 외상사건에 노출된 내담자들을 공감적인 태도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내적 변화를 대리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이라고 한다(McCann & Pearlman, 1990).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무력감 불안감, 절망감, 피로감, 활력 감소와 같은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는 물론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형성하면서 인지적 변화도 경험한다(ACA, 2017). McCann과 Pearlman(1990)은 구조주의적 자기발달이론(Constructivist Self-Development Theory: CSDT)을 통해 대리외상이 개인의 신념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개인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발달된 자신의 인지적 도식을 기반으로 삶의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현실과 지각을 재구성한다(Pearlman & Saakvitne, 1995). 상담자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 이상 자신의 세계관과 신념체계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와 타인, 세상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왜곡될 수 있다(McCann & Pearlman, 1990; Trippany, White Kress, & Wilcoxon, 2004). 상담자가 경험하는 대리외상은 다섯 가지 심리적 영역, 즉 안전, 신뢰, 자존감, 친밀, 통제라는 영역에서의 신념을 왜곡시킨다(McCann & Pearlman, 1990).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외상사건으로 고통 받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경험한 외상사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의도적으로 외상사건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거나, 내담자가 경험한 외상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력감 불안감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인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를 경험한다. 이러한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은 상담자의 전문적인 기능과 수행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내담자와의 효과적인 상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Sexton, 1999; Trippany et al., 2004), 상담자의 지속적인 자기평가, 자기관리, 예방 및 개입이 필요하다(Pearlman & Saakvitne, 1995).

대리외상은 내담자의 외상을 다루는 모든 상담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 상담자의 다양한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일어나는 것으로, CSDT에 의하면 상담자의 개인적 요인, 조직/직무 요인, 지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Pearlman & Saakvitne, 1995). 우선,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상담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상담경력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은 대리외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영, 2008). 또한 상담자의 높은 연령은 대리외상의 수준을 낮추는 보호요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Arvey & Uhlemann, 1996; Bober & Regehr, 2006) 연령이 높을수록 내담자가 경험한 외상사건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민애, 2002). 상담자의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상담자가 낮은 대리외상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지만(Baird & Jenkins, 2003) 교육수준과 대리외상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낸 연구결과도 있다(Ghahramanlou & Brodbeck, 2000). 마지막으로 상담경력으로, 경력이 많은 상담자와 비교해서 초심 상담자의 경우 대리외상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Adams, Matto, & Harrington, 2001; Kadambi & Truscott, 2004).

다음으로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근무기관의 문화, 지지, 환경, 업무정도와 같은 조직/직무 요인은 대리외상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된다(McCann & Pearlman, 1990; Pearlman & Saakvitne, 1995). 상담자의 근무시간이 긴 경우, 그리고 상담업무가 과도한 경우 상담자는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Brady, Guy, Poelstra, & Brokaw, 1999; Kadambi & Truscott, 2008). 직무 요인이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지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Williams, Helm, & Clemens, 2012).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슈퍼바이저, 동료,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요인은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근무기관의 지지 및 자원이 결핍 또는 제한적인 경우 상담자는 높은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dambi & Truscott, 2004). 한편 규칙적인 슈퍼비전을 받고 슈퍼바이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슈퍼바이저의 지지를 받는 경우 상담자의 대리외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ober & Regehr, 2006; Setti & Lourel, 2016; Sommer & Cox, 2005). 하지만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다(권해수, 2011). 또한 동료와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대리외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해수, 2011; Bell, Kulkarni, & Dalton, 2003).

이렇듯 상담자는 외상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대리외상을 경험하고, 따라서 상담자의 대리외상은 개입이 필요한 직업재해(occupational hazard)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Bride, Radney, & Figley, 2007; Trippany et al., 2004). 이에 외상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담자의 대리외상의 위험을 인지하고 상담자를 대리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Bell et al., 2003). 학교

폭력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대리외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국내 상담자의 대리외상 연구는 대부분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교폭력이 소셜네트워크까지 확산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며 관련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수준을 알아보고,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학교 상담기관인 학교폭력SOS지원단,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학교폭력 가해자 전담기관, 117센터, 1388 등에서 학교폭력 파·가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자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안내하고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수락한 기관의 상담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111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1부를 제외한 110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여자가 100명(90.9%), 남자가 10명(9.1%)이었고, 이들 가운데 미혼자는 42명(38.2%), 기혼자는 65명(59.1%), 기타 3명(2.7%)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9.2세이며 연령의 범위는 23세에서 56세였다. 교육수준은 석사 이상의 대학원 교육을 마친 자가 99명으로 전체의 90.0%를 차지하였다. 상담경력은 5년 이상인 자가 52명(47.3%)으로 평균 상담경력 4.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전일제 근무자가 전체 응답자의 85명(77.3%)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62명(56.4%)이 현재 학교폭력상담사례 개인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직무환경 위험요소 척도

학교폭력상담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직무환경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Jayaratne와 Chess(1981)가 개발하고 윤부성(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상담자 업무의 자율성과 능력개발 기회를 평가하는 도전(challenge), 상담기관의 직무수행 요구가 상담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자의 직무요건과 불일치하거나 상반된 둘 이상의 역할수행으로 인한 갈등을 평가하는 역할갈등(role conflict), 상담자의 역할수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량을 평가하는 업무과다(workload)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도전 6문항(예: 나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킬 기회가 있다), 역할갈등 5문항(예: 내 판단과 상반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역할모호성 3문항(예: 직장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업무과다 5 문항(예: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의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10)

구분	속성	빈도	백분율	평균	
성별	남	10	9.1		
	여	100	90.9		
연령	29세 이하	18	16.4	39.2	
	30~39세	43	39.1		
	40~49세	28	25.4		
	50세 이상	21	19.1		
결혼여부	미혼	42	38.2		
	기혼	65	59.1		
	기타	3	2.7		
교육수준	대졸	11	10.0		
	석사졸	87	79.1		
	박사과정 이상	12	10.9		
학교폭력 상담경력	1년 이하	2	1.8	4.4	
	1~3년	36	32.7		
	3~5년	20	18.2		
	5년 이상	52	47.3		
근무형태	전일제	85	77.3		
	시간제	22	20.0		
	기타	3	2.7		
근무기관 직원수	상담직(명)	5명 미만	50	45.5	8.0
		5명 이상	60	54.5	
	행정직(명)	5명 미만	73	66.4	7.4
		5명 이상	37	33.6	
학교폭력 상담	받고 있음	62	56.4		
개인 수퍼비전	받고 있지 않음	48	43.6		

있으며,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에서 '5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척도의 총 점수범위는 19점~95점으로, 도전에서 부정적 진술문인 문항1개(내담자 문제와 그 밖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와 역할갈등, 업무과다의 전체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환경의 위협요소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고, 하위 척도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도전 .80, 역할갈등 .77, 역할모호성 .70, 업무과다 .86이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

학교폭력상담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aplan, Cobb, French, Harrison과 Pinneau(1980)가 개발하고 유성경 등(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슈퍼바이저의 지지 6문항(예: 나의 슈퍼바이저는 내가 더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료의 지지 6문항(예: 나의 직장 동료는 내가 직장에서 힘들 때 의지가 된다), 가족의 지지 4문항(예: 나의 가족들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기꺼이 들어준다)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본 척도의 총 점수범위는 16점~8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고, 하위 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슈퍼바이저의 지지 .88, 동료의 지지 .89, 가족의 지지 .91이었다.

사건충격 척도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중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건충격 척도(The Impact of Event Scale, IES; Horowitz, Wilner, & Alvarez., 1979)를 은헌정 등(2005)이 번안 수정한 척도(IES-R-K)를 사용하였다. DSM-IV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준거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된 사건충격 척도는 불면 분노 폭발, 집중력 감퇴, 놀람 정도를 평가하는 과각성(hyperarousal), 외상사건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도와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회피(avoidance), 그리고 외상사건에 대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이미지를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 평가하는 침입(intrusion)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과각성 6문항(예: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회피 8문항(예: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침입 8문항(예: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의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자주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22점~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리외상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애가 심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5점 미만은 정상 범위를, 25점~39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중간 범위를, 40점~59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함을, 60점 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매우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과각성 .93, 회피 .88, 침입 .92이었다.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 (The 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 TABS)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중 핵심신념의 왜곡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상과 애착 신념 척도(The 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 TABS; Pearlman, 2003)를 김보경(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외상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심리적 영역인 안전(safety), 신뢰(trust), 친밀감(intimacy), 자존감(self-esteem), 그리고 통제(control)에서 나타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의 왜곡 정도를 측정한다. 본 척도는 안전 21문항(예: 그 누구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신뢰 15문항(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자존감 17문항(예: 나는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친밀감 15문항(예: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낀다), 통제 16문항(예: 사람들에게 나의 본 모습을 보일 수 없다)의 총 8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84점~50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리외상 경험으로 인한 핵심 신념의 왜곡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안전 .78, 신뢰 .62, 자존감 .59, 친밀 .65, 통제 .86이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과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무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정도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정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34.9점($SD=13.6$)이며 점수의 범위는 22점에서 105점으로 나타났다. 이차적 외상 스트

레스 점수가 25점 미만은 정상범위, 25점~39점은 중간 범위, 40~59점은 심함, 60점 이상은 매우 심하다고 간주하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18.2%(20명)는 25점 미만으로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정상범위, 60.0%(66명)는 25점~39점으로 중간 범위, 17.3%(19명)는 40점~59점으로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함, 4.5%(5명)는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상과 애착 신념 점수는 평균 253.1점($SD=27.7$)이며 점수의 범위는 200점에서 348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110)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직무환경 위험요소	52.1	10.6
사회적 지지	62.2	8.5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34.9	13.6
외상신념	253.1	27.7

대리외상과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과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담자의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상담경력과 대리외상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직무환경 위험요소는 대리외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도전($r=.46, p<.01$), 역할갈등($r=.34, p<.01$), 역할모호성($r=.29, p<.01$), 업무과다($r=.31, p<.01$)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도전($r=.50, p<.01$), 역할갈등($r=.42, p<.01$), 역할모호성($r=.32, p<.01$), 업무과다($r=.37, p<.01$)는 외상신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대리외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지지($r=-.30, p<.01$), 동료의 지지($r=-.39, p<.01$), 가족의 지지($r=-.40, p<.01$)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수퍼바이저의 지지($r=-.32, p<.01$), 동료의 지지($r=-.41, p<.01$), 가족의 지지($r=-.38, p<.01$)는 외상신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면, 직무환경의 위험요소는 대리외상과 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지지는 대리외상과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1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령	1											
2. 교육수준	-.01	1										
3. 학교폭력상담경력	.30**	.10	1									
4. 도전	-.27**	-.10	-.26**	1								
5. 역할갈등	-.11	-.04	-.16	.63**	1							
6. 역할모호성	-.14	-.19*	-.31**	.46**	.36**	1						
7. 업무과다	-.14	-.05	-.07	.53**	.66**	.22*	1					
8. 수퍼바이저지지	.23*	.02	.25**	-.55**	-.43**	-.20*	-.35**	1				
9. 동료지지	.00	-.05	.07	-.41**	-.48**	-.29**	-.40**	.35**	1			
10. 가족지지	.15	.08	.21*	-.30**	-.24*	-.39**	-.12	.31**	.36**	1		
11. 이차적외상스트레스	-.14	.03	-.08	.46**	.34**	.29**	.31**	-.30**	-.39**	-.40**	1	
12. 외상신념	-.18	-.03	-.13	.50**	.42**	.32**	.37**	-.32**	-.41**	-.38**	.58**	1

* $p < .05$, ** $p < .01$

4.도전, 5.역할갈등, 6.역할모호성, 7.업무과다 변인은 직무환경 위험요소 척도의 하위척도이고 8.수퍼바이저의 지지, 9.동료의 지지, 10.가족의 지지 변인은 사회적 지지 척도의 하위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학교폭력 상담경력 변인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학교폭력 상담경력을 연속변인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고, 교육수준 또한 범주를 나타내는 숫자가 커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순서범주형 변인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직무환경 위험요소인 도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 변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인 수퍼바이저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 변인을 투입하였다. 종속변인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신념이었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1단계에서 연령, 교육수준, 학교폭력 상담경력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2.1% 설명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직무환경 위험요소인 도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

요인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23.6% 설명하였는데, 1단계보다 21.5% 더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전($\beta=.36, p<.01$)이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변인인 슈퍼바이저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 요인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8.8% 더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지지($\beta=-.26, p<.01$)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표 4>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IES-R-K)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110)

예측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연령	-.12	-1.22	-.03	-.29	-.03	-.29
교육수준	.03	.33	.09	.98	.07	.84
학교폭력상담경력	-.05	-.44	.06	.67	.08	.83
도전			.36	2.86**	.30	2.38*
역할갈등			.04	.29	-.03	-.20
역할모호성			.13	1.26	.03	.32
업무과다			.07	.58	.07	.62
슈퍼바이저지지					.00	.03
동료지지					-.15	-1.43
가족지지					-.26	-2.75**
	R2=.021		R2=.236		R2=.323	
			Δ R2=.215		Δ R2=.088	
	F=.762		F=4.491***		F=4.730***	

* $p<.05$, ** $p<.01$, *** $p<.001$

또한 외상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1단계에서 연령, 교육수준, 학교폭력 상담경력은 외상신념을 3.9% 설명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직무환경 위험요소인 도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 요인은 외상신념을 28.9% 설명하였는데, 1단계보다 24.9% 더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전($\beta=.32, p<.01$)이 외상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변인인 슈퍼바이저 지지, 동료 지지, 가족 지지 요인은 외상신념을 추가적으로 6.4% 더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지지($\beta=-.20, p<.05$)가 외상신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표 5> 외상과 애착 신념(TABS)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110)

예측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β	<i>t</i>	β	<i>t</i>	β	<i>t</i>
연령	-.16	-1.56	-.06	-.66	-.07	-.73
교육수준	-.02	-.20	.03	.40	.02	.21
학교폭력 상담경력	-.08	-.83	.03	.29	.03	.36
도전			.32	2.69**	.29	2.29*
역할갈등			.11	.88	.05	.43
역할보호성			.12	1.20	.04	.35
업무과다			.10	.83	.09	.81
수퍼바이저의 지지					.03	.24
동료의 지지					-.16	-1.63
가족의 지지					-.20	-2.15*
	R2=.039		R2=.289		R2=.352	
			△R2=.249		△R2=.064	
	F=1.449		F=5.912***		F=5.385***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상담자가 경험하는 대리외상 정도를 알아보고 상담자의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가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상담자 또한 외상사건에 노출된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와 유사한 수준의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상담인력이 꾸준히 증가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내담자의 학교폭력 외상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떠한 심리적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상담자가 경험하는 대리외상 정도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학교폭력상담자 역시 어느 정도의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60.0%(66명)는 25점~39점으로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범위 17.3%(19명)는 40점~59점으로 심함, 4.5%(5명)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폭력상담자들이 대리외상 경험으로 인해 놀람, 집중력 감퇴, 불면과 같은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고,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만 고통스러운 외상사건을 떠올리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외상신념 수준은 235.05점($SD=27.74$)으로 나타났다. 외

상신념 점수 범위에 대한 해석 지침은 없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외상신념 수준은 175.02점 ($SD=36.97$)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들(Williams et al., 2012)과 222.77점($SD=36.28$)인 강력범죄피해자지원 실무자들(김태경, 2015)의 외상신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폭력상담자도 다른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를 상담하는 상담자와 같이 대리외상으로 인해 자기와 타인, 세상에 대한 신념이 왜곡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상담자의 개인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상담경력은 대리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자의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상담경력과 대리외상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지만(김민애, 2002; 박지영, 2008; Adam et al., 2001; Arvay & Uhlemann, 1996; Baird & Jenkins, 2003; Bober & Regehr, 2006; Ghahramanlou & Brodbeck, 2000; Kadambi & Truscott, 2004) 대부분은 상담자의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상담자의 대리외상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박지영, 2008; Adam et al., 2001; Arvay & Uhlemann, 1996; Baird & Jenkins, 2003; Bober & Regehr, 2006; Kadambi & Truscott, 2004).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담자의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대리외상을 경험한다는 McCann과 Pearlman(1990)의 이론과는 모순되는 결과이다(Dunkley & Whelan, 2006). 따라서 이론적으로 상담자의 연령과 상담경력이 많을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의 외상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대리외상을 경험할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본 연구결과 상담자의 연령과 상담경력은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교육수준 또한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포함해서 선행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상담자의 개인특성과 대리외상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직무특성은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무특성 중 도전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도전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업무의 자율성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평가하는데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도전을 받지 못하거나 자율성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상담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직무에 만족할 수 없다. 연구대상자의 89.9%(98명)가 석사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갖춘 만큼 자신의 역량에 부합하는 자율성과 능력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겠으며 이 같은 욕구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직무만족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상담자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상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황경열, 소혜정, 2006) 상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며 결과적으로 상담자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자기 타인, 세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대리외상에 취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담자 능력에 맞는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상담자의 자율성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무환경이 상담자를 대리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특성,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편 직무특성 중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는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상담기관의 상담자 및 행정직원의 수는 낮은 편인데(유성경, 박성호, 2002), 본 연구대상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상담자와 행정직원의 평균수는 각 8.0명과 7.4명으로 이전에 비해 상담인력 및 행정인력의 수가 증가했고, 따라서 이전에 비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또는 업무과다가 다소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동료 상담자 없이 홀로 일하는 상담자가 36.4%(40명)에 달하고, 행정직원 없이 상담업무와 행정업무를 동시에 병행하는 상담자가 10.9%(12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상담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기관의 상담 및 행정인력 보충을 통해 상담자의 직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폭력상담자가 경험하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신념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슈퍼바이저와 동료의 지지는 대리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슈퍼비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규칙적인 슈퍼비전, 슈퍼바이저와의 긍정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관계는 상담자의 대리외상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ober & Regehr, 2006; Peled-Avram, 2017; Setti & Lourel, 2016; Sommer & Cox, 2005). 본 연구대상자는 기관 내외 슈퍼바이저를 통해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만 43%(47명)는 학교폭력 상담과 관련하여 개인 슈퍼비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56.4%(62명)는 학교폭력 상담과 관련하여 개인 슈퍼비전을 받고는 있지만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이들의 대리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슈퍼비전의 질과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그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만큼의 높은 질을 제공하지 못하거나(권해수, 2011) 슈퍼바이저와의 치료동맹(working alliance)이 긍정적이지 않아서(Williams et al., 2012) 상담자의 대리외상 수준을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있어서 슈퍼바이저의 지지뿐만 아니라 기관 내의 동료 지지도 중요하다. 동료의 지지는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하고 왜곡된 인지 및 신념을 수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지적인 기관의 환경 내에서만 가능하다(Bell et al., 2003). 따라서 지지적인 기관이 아닌 경우 효과적인 동료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학교폭력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대리외상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슈퍼비전의 질적인 성장과 슈퍼바이저의 학교폭력 전문성 향상, 학교폭력 상담기관 내 지지적인 분위기 조성 및 동료 상담자간 의사소통과 슈퍼비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상담기관의 학교폭력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학교폭력상담자들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학교폭력상담자들의 대리외상 정도를 확인하고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해서 그들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

미가 있다. 앞으로 학교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과 관련된 상담자의 대처기술과 같은 다양한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해수 (2011). 성폭력상담자의 대리외상 관련 변인 연구: 상담유형, 외상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415-430.
- 김민애 (200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2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보경 (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 (2015). 강력범죄피해자지원 실무자의 대리외상 및 대책. *피해자학연구*, 23(3), 51-73.
- 박지영 (2008).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관련 요인 연구-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141-164.
- 법무부 (2016).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법무부.
- 유성경, 박성호 (2002). 상담환경의 위험요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89-400.
- 윤부성 (2000). 아내학대 관련기관 상담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영,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혈관외과학회지*, 44(3), 303-310.
- 푸른나무 청예단 (2017). 2016 학교폭력SOS지원단 사업결과보고서. (재)푸른나무 청예단.
- 황경열, 소혜정, (2006). 재할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지*, 47, 107-124.
- Adams, K. B., Matto, H. C., & Harrington, D. (2001). The traumatic stress institute belief scale as a measure of vicarious trauma in a national sample of clinical social workers. *Families in Society*, 82(4), 363-371.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7). Vicarious trauma. Retrieved from <http://www.counseling.org/docs/trauma-disaster/fact-sheet-9---vicarious-trauma.pdf>.
- Arvay, M. J., & Uhlemann, M. R. (1996). Counsellor stress in the field of trauma: A preliminary study.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30(3), 191-210.
- Baird, S., & Jenkins, S. R. (2003). Vicarious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in sexual assault and domestic violence agency staff. *Violence and Victims*,

18(1), 71-86.

- Bell, H., Kulkarni, S., & Dalton, L. (2003). Organizational prevention of vicarious trauma. *Families in Society, 84*(4), 463-470.
- Bober, T., & Regehr, C. (2006). Strategies for reducing secondary or vicarious trauma: Do they work?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6*(1), 1-9.
- Brady, J. L., Guy, J. D., Poelstra, P. L., & Brokaw, B. F. (1999). Vicarious traumatization, spirituality, and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 survivors: A national survey of women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0*(4), 386-393.
- Bride, B., Radney, M., & Figley, C. R. (2007). Measuring compassion fatigu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5*(3), 155-163.
- Caplan, R. D., Cobb, S., French, J. R. P., Van Harrison, R., & Pinneau, S. P. (1980). *Job demands and worker health*.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Dunkley, J., & Whelan, T. A. (2006). Vicarious traumatiz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4*(1), 107-116.
- Ghahramanlou, M., & Brodbeck, C. (2000). Predictors of secondary trauma in sexual assault trauma counsel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2*(4), 229-240.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Jayarathne, S., & Chess, W. A. (1981).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social work. In B. Farber, *Stress and burnout*. NY: Pergamon Press.
- Kadambi, M. A., & Truscott, D. (2004). Vicarious trauma among therapists working with sexual violence, cancer and general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38*(4), 260-276.
- Kadambi, M. A., & Truscott, D. (2008). Traumatizing aspects of providing counselling in community agencies to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A concept map.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42*(3), 192-208.
- McCann, I. L. & Pearlman, L. A. (1990).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31-149.
- Pearlman, L. A. (2003). *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Pearlman, L. A., & Saakvitne, K. W. (1995). *Trauma and the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and*

- vicarious traumatization in psychotherapy with incest survivors*. New York: W. W. Norton.
- Peled-Avram, M. (2017). The role of relational-oriented supervision and personal and work-related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vicarious traumatization.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5(1), 22-32.
- Setti, I., & Lourel, M. (2016). The role of affective commit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protecting emergency workers against burnout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Traumatology*, 22(4), 261-270.
- Sexton, L. (1999). Vicarious traumatization of counselors and effects on their workplac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ing*, 27(3), 393-403.
- Sommer, C. A., & Cox, J. A. (2005). Elements of supervision in sexual violence counselors' narratives: A qualitative analysi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5(2), 119-134.
- Trippany, R. L., White Kress, V. E., & Wilcoxon, S. A. (2004). Preventing vicarious trauma: What counselors should know when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31-37.
- Williams, A., Helm, H., & Clemens, E. (2012). The effect of childhood trauma, personal wellness,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organizational factors on vicarious traumatiz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4(2), 133-153.

Vicarious Traumatization among School Counselors: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Lee, Oan-Na
Chosun University

Kim, Mi-Jung
Dreaming Up Wee Center

Counselors repeatedly working with clients who experienced trauma may experience vicarious traumatization. The primary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on vicarious traumatization among school counselors. The Impact Event Scale-Revised(IES-R-K) and The Trauma and Attachment Belief Scale(TABS) were used to measure vicarious traumatization of school counselors. Using the data from 110 counselors working in school counseling centers in Seoul, the results of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school counselors experienced a significant level of vicarious traumatization. Individual factors did not predict vicarious traumatization. However, organizational factors contributed to significant variance in vicarious traumatization. Specifically, lack of challeng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vicarious traumatization. Finally, social support contributed to significant variance in vicarious traumatization; family suppor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vicarious traumatization. Limit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occupational environment, school counselors, school violence, social support, vicarious traumatization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오은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과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중 중1패널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총 2,044명(남학생 984명, 여학생 1,0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또래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 모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및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또래의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사회적 위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또래의 신뢰는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또래소외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정체감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또래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사회적 위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오은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Tel: 031-248-1318, E-mail: eunhwao@naver.com

서론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부모와 주를 이루었던 관계 범위가 넓어지며 타인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이고,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박성준, 김주일, 2015). 이 시기에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하게 된다(정옥분, 2009).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학원 등이 주된 생활배경이고 청소년들의 생활도 주로 또래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된다.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인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철수되어 갈등을 숨기고 해결할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이처럼 주변사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주눅이 드는 것을 사회적 위축이라 하며(안귀여루, 2010), 이는 사회적 부적응 중 하나이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 기술을 배울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거나, 연습하지 못해서 또래관계에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고, 깊은 친구관계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커 또래관계 질이 낮아지며(Rubin & Burgess, 2001), 이는 삶의 만족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성준, 김주일, 2015).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게 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의 사회적 관계를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면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킨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질적으로 좋은 또래관계가 위축된 청소년에게 사회적 정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Rubin, Root, & Bowker, 2010), 긍정적인 또래애착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지원, 이용남, 2015), 또래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이 높다(박미려, 양은주, 2017).

반면 이러한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심수정, 2003), 외로움을 경험하기 쉬우며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자원을 찾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편지은, 2003 ; Parker & Asher, 1987). 이처럼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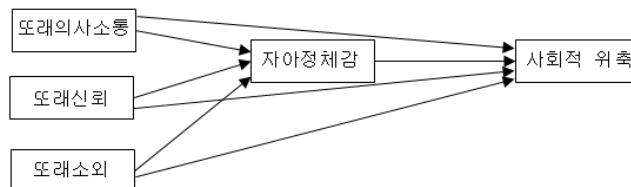
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래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다른 매개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청소년의 적응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또래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아동에 따라 또래 부적응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또래 괴롭힘 등 사회적 경험이 아동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한다(김귀연, 김경연, 2005).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또래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아정체감 또한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하였고(임지원, 이용남, 2015),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고종민, 명향란, 안권순, 2017). 또한 자아정체감 수준과 적응수준은 정적 상관을 이루어 아동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며 학업활동에 대한 흥미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이현림, 천미숙, 2003).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또래관계와 함께 자아정체감 등의 내적 요인 역시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전체를 변인으로 하여 하위요인 중 어느 항목이 적응과 관련 있는지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어떤 영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듯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애착 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로를 모형화하여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내적변인으로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정체감이 모형에 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정체감이 위축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환경과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와 초기 연구 모형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 간 신뢰, 의사소통, 소외는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 간 신뢰, 의사소통, 소외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아정체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초기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

또래애착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정서적인 유대를 말하며 또래 사이의 신뢰감, 친밀감 및 감정이나 생각의 소통이 가능한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이혜주, 정의현, 2016).

인간은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대상인 부모와 애착관계를 만들어 가고 그 이후 주변의 타인과 확장된 관계 형성을 통해 자아를 발달시켜 나간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애착관계가 발달에 핵심적인 맥락이라고 했듯이(Wallin, 2010), 청소년기에는 건강한 타인과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아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을 발달시킨 것처럼 친구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 자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권수정, 박정령, 김정예, 2017).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만큼 또래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이 크다(Armsden & Greenberg, 1987).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은 친구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고, 신뢰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소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없으며 친구와 가까워지려는 욕구가 있음에도 친구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Armsden & Greenberg, 1987; 김지연, 1995).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수용 받는 경험이 청소년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노향희, 200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뢰와 친밀한 의사소통을 한 청소년이 친밀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적인 성취도 높다(임지원, 이용남, 2015). 반면에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낮으면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우울이 높아지게 되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김현순, 2005;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또래관계에서의 거부나 왕따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소속감이나 유능감을 저하시켜 불안하고 소심한 특성을 가진 사회적 위축의 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될 위험이 있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이처럼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위축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Rubin et al, 2010). 아동기의 위축 성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져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Bem, Caspi, & Elder, Jr, 1988), 때로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Katz, Conway, Hammen, Brennam, & Najman, 2011). 그러므로 이런 청소년의 부적응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발달을 돕는 보호요인의 하나로 또래애착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래애착과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한 인간으로서의 행동규준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박아청, 이승국, 1999), 자아정체감이 잘 발달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더라도 자신을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 지각한다(박아청, 2004). 이러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 및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황효진, 이용남, 2012). 그 중 부모의 영향보다 또래관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지은, 2010), 또래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박미려, 양은주, 2017).

자아정체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혼미하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인생의 목표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친밀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지민, 2007). 이는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정체감은 부모 양육 태도와 학업성적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친구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난다(최성열, 2001). 자아정체감은 적응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어(한세영, 2005), 타인의 지지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이는 자신감 획득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반면에 타인에게 수용 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박미석과 조혜진(2002)은 또래친밀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고,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족할 경우 낮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런 부정적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여(황효진, 이용남, 2012), 열등감, 위축, 적대적 행동, 비행 등의 부적응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요인이 되어 부정적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 요인으로 또래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위축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 안에서 다양한 요인이 스

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행동적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부적응의 결과가 문제행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중 청소년들에게는 외면화 문제보다 내재화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재화 문제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동인데 이를 위축행동이라 한다(김수주, 2002). 위축행동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 중 하나로서 임상현장에서는 내면화 장애의 범주에 속하며 신경증적인 행동특성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수미, 이숙, 2000).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이전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두려움이나 신중함 그리고 불안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형성된다(Rubin & Coplan, 2004). 예전에는 위축행동을 아동의 소극적 성향으로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 위축이 장기적으로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전란영, 김희화, 2016).

사회적 위축에는 개인, 학교, 가족환경 관련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윤혜미, 박병금, 2005), 그 중 개인적 요인은 성적이 낮거나 외모를 낮게 지각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낮고 공격적인 행동이 낮을수록 위축행동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수미, 이숙, 2000). 그 외에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비일관성, 과잉통제, 과잉기대, 학대, 방치)이나 또래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기 문제행동 중 내면화 문제인 사회적 위축 행동이 발생한다(이주영, 2009).

이처럼 많은 요인이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대인관계의 문제는 자기 및 타인 표상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인관계 문제가 나타나므로(권석만, 김지영, 2002), 대인관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박성준, 김주일(2015)은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같은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였고, 자아정체감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임지원, 이용남, 2015; 문은식, 2015)처럼 청소년기에 있어 건강한 자기개념은 내적 자원이 되어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하면서 또래관계와 사회적 위축 사이에서 자아정체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은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은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총 7,071명(초 1 2,342명, 초 4 2,378명, 중 1 2,351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초1에서 중1(초1 패널), 초4에서 고1(초4 패널), 중1에서 대1(중1 패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을 파악하였다. 자아정체감의 지위는 연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Meilman, 1979),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 시기와는 유의미하게 다른 정체감 발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박아청, 1996)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가장 높은 중1 패널 6차년도(2015)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결측 자료를 제외한 2,04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정도(IPPA)를 변안·수정한 김지연(1995), 황미경(2010)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은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이다. 신뢰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이다. 소외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이다. 각 문항의 응답 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소외 3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이는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는 의사소통 .792, 신뢰 .832, 소외 .742이다.

2) 자아정체감

송현옥(2008)의 척도를 8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나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뒤의 5개 문항은 역채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는 .714이다.

3) 사회적 위축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는 .886이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18과 Amos 18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규성 검토를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래간 의사소통, 신뢰, 소외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과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 984명(48.1%), 여 1,060명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51.9%)이었다. 가족 구성은 부모+자녀가 1,71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한 부모+자녀 186명(9.1%), (한)조부모+부모+자녀 91명(4.5%),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27명(1.3%), (한)조부모+자녀 22명(1.1%), 기타 8명(0.4%) 순이었다. 또한 청소년이 인식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수준이 1,295명(63.4%)로 가장 많았고, 약간 못 사는 편 263명(12.9%), 약간 잘 사는 편 248명(12.1%), 잘 사는 편 119명(5.8%), 못 사는 편 93명(4.5%), 매우 못 사는 편 15명(0.7%), 매우 잘 사는 편 11명(0.5%)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자	984	48.1
	여자	1,060	51.9
	합 계	2,044	100.0
가족구성	부모+자녀	1,710	83.7
	한 부모+자녀	186	9.1
	(한)조부모+자녀	22	1.1
	(한)조부모+부모+자녀	91	4.5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27	1.3
	기타	8	0.4
	합 계	2,044	100.0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11	0.5
	잘 사는 편	119	5.8
	약간 잘 사는 편	248	12.1
	보통 수준	1,295	63.4
	약간 못 사는 편	263	12.9
	못 사는 편	93	4.5
	매우 못 사는 편	15	0.7
합 계	2,044	100.0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또래애착 중 의사소통은 평균 5.63($SD=1.42$), 신뢰는 평균 5.46($SD=1.59$), 소외는 평균 9.05($SD=1.91$), 자아정체감은 18.6($SD=3.31$), 사회적 위축은 13.6($SD=3.44$)이다.

또래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 그리고 자아정체감, 사회적 위축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주요 변인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먼저 또래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r=.310$, $**p<.01$), 또래 신뢰와 자아정체감도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297$, $**p<.01$), 또래 소외와 자아정체감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r=-.262$, $**p<.01$). 또한 또래 의사소통은 사회적 위축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r=-.237$, $**p<.01$), 또래 신뢰도 사회적 위축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r=-.230$, $**p<.01$). 반면에 또래 소외는 사회적 위축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132$, $**p<.01$). 이 외에도 또래 의사소통과 신뢰의 상관이 정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r=.750$, $**p<.01$),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위축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535$, $**p<.01$).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또래 의사소통	5.63	1.42	-.20	.97
또래 신뢰	5.46	1.59	.20	.69
또래 소외	9.05	1.91	-.47	.31
자아정체감	18.6	3.31	-.29	.36
사회적 위축	13.6	3.44	.13	-.39

<표 3>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1	2	3	4	5
1. 또래 의사소통	1				
2. 또래 신뢰	.750**	1			
3. 또래 소외	-.277**	-.360**	1		
4. 자아정체감	.310**	.297**	-.262**	1	
5. 사회적위축	-.237**	-.230**	.132**	-.53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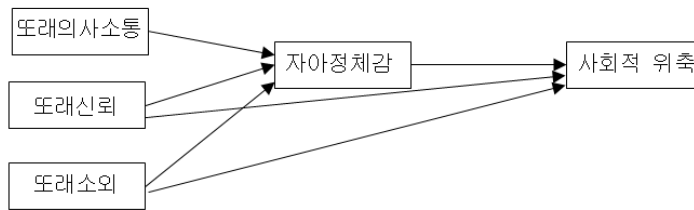
** $p<.01$

3. 연구 모형의 적합성 검증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χ^2 (Chi-square), GFI(Goodness-of-fit-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GFI, CFI, TLI는 .90이상, RMSEA는 0.05~0.08의 범위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가졌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설정한 초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초기모형의 적합도는 GFI 값은 1.00, CFI 값은 1.00, TLI 값은 1.00, RMSEA 값은 .352인 포화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통 신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되, 소외와 자아정체감, 사회적 위축 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위축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경로를 제거하여 그림2와 같이 경로모형을 수정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제외된 변수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위축간의 경로를 제거한 후 다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χ^2 값은 2.63, *GFI* 값은 1.00, *CFI* 값은 1.00, *TLI* 값은 1.00, *RMSEA* 값은 .028로 연구에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위축 간의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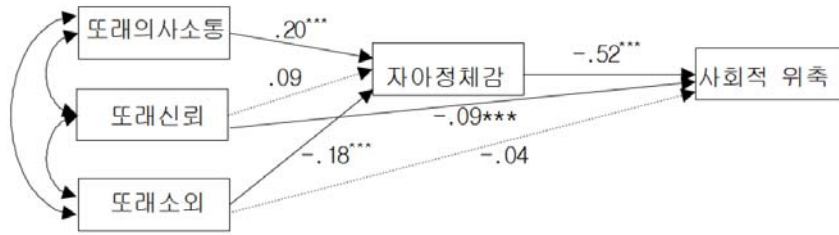
[그림 2] 수정된 연구 모형

<표 4>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i>df</i>	<i>GFI</i>	<i>CFI</i>	<i>TLI</i>	<i>RMSEA</i>
2.63	1	1.00	1.00	1.00	.028

4.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3과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또래의 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eta=.20, p<.001$).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의 신뢰는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래 소외는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eta=-.18, p<.001$).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 소외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eta=-.52, p<.001$). 이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덜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의 신뢰는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beta=-.09, p<.001$), 또래의 소외는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덜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최종 연구 모형

<표 5> 연구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또래 의사소통→자아정체감	.46	.20	.07	6.32***
또래 신뢰→자아정체감	.18	.09	.07	2.66
또래 소외→자아정체감	-.31	-.18	.04	-8.03***
자아정체감→사회적 위축	-.54	-.52	.02	-26.21***
또래 신뢰→사회적 위축	-.19	-.09	.04	-4.34***
또래 소외→사회적 위축	-.06	-.04	.04	-1.76

** $p < .01$, *** $p < .001$

5. 연구 모형의 경로의 효과분해

변인 간 영향력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을 1000번 반복 시행한 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또래의 의사소통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46, p < .05$), 또래의 신뢰($\beta = .18, p < .05$)와 또래의 소외($\beta = -.31, p < .05$)도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eta = -.54, p < .05$). 또래의 신뢰는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0, p < .05$), 또래 소외도 자아정체감을 통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 p < .05$). 위 결과를 볼 때 또래 신뢰와 사회적 위축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두 변인 사이를 부분 매개하였고 또래소외와 사회적 위축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두 변인 사이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신뢰는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의 소외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연구 모형 변수들 간의 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또래 의사소통 → 자아정체감	.46**	-	.46**
또래 신뢰 → 자아정체감	.18**	-	.18**
또래 소외 → 자아정체감	-.31**	-	-.31**
자아정체감 → 사회적 위축	-.54**	-	-.54**
또래 신뢰 → 사회적 위축	-.19**	-.10**	-.29**
또래 소외 → 사회적 위축	-.06	.17**	.10**

** $p < .05$

논 의

본 연구는 또래애착의 하위요인인 또래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또래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탐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 모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및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 신뢰는 사회적 위축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소외는 사회적 위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높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부정적인 또래관계 질과 관련된다는 신선미, 이소연(201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또래 의사소통과 신뢰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위축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덜 위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의사소통의 경우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이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와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임지원과 이용남(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의사소통이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수경(2001)의 연구결과처럼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또래의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신뢰는 사회적 위축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또래경험은 또래관계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더 위축되고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래의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최성열(2001)의 연구와 위축행동을 보이는 또래부적응 아동에게 또래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또래경험이 필요하다는 김귀연과 김경연(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또래애착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은식(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소외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정체감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이는 또래소외가 자아정체감을 통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소외가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초하, 안도희, 2016), 소외를 느낄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다는 지수경(200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또래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이 또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정도가 낮더라도 자아정체감이 높을 경우에는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에게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자아정체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자원이 부적응에 있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대규모 표집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둘째, 또래애착의 하위요인들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가 자아정체감이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구체화하고,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대인관계 기술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과 소외되지 않는 또래관계는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는 위축되지 않는 대인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 내적 특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전국 단위로 수집된 대규모 표본이기는 하나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하는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각 변인의 설문 문항 수를 원 검사 문항보다 적게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변인을 정확하게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자아정체감 사회적 위축 간 경로를 살펴본 것이다.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또래애착과 사회적 위축을 설명하는 데 내적자원인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자아정체감 이외에도 보호요인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또래애착형성에 실패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기는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이 대인관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또래애착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래애착 중 긍정요인으로 의사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므로 또래와의 관계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상황을 겪지 않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룹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활동들이 또래애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요즘의 또래갈등이 표현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꾸준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적응에 자아정체감이 선행조건이라는 것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자아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학교나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청소년 상담 환경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관련된 주제의 개인 또는 집단상담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종민, 명향란, 안권순 (2017).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기술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491-514.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수정, 박정령, 김정예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3(2), 29-51.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이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수미, 이숙 (2000). 아동의 위축행동에 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10, 13-21.
-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 스트레스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 (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향희 (2008).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박미려, 양은주 (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 박미석, 조혜진 (2002).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7, 67-88.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성준, 김주일 (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263-288.
- 박아청 (1996).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68-78.
- 박아청 (2004).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 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201-302.
- 박아청,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송현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선미, 이소연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1), 49-64.
- 심수정 (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적응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99-108.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3-164.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주영 (2009).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07). 아동, 청소년상담 :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593-1603.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이혜주, 정의현 (2016).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유형별 예측모형탐색. *아동교육*, 25(4), 23-38.
- 임지원, 이용남 (2015).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교육연구*, 38, 115-129.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회경*, 14(2), 57-67.
- 정옥분 (2009).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지학사.
- 정초하, 안도희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책무성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411-430.
- 지수경 (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열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10(1), 119-132.
- 최지은 (2010). 가족·친구·교사의 지지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심리학*. 경기: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세영 (200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의 최근 국내연구동향과 전망. *생활과학연구*, 9(1), 31-43.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효진, 이용남 (2012).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35, 25-5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m, D. J., Caspi, A., & Elder, Jr, G. H. (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24-831.
- Katz, S. J., Conway, C. C., Hammen, C. L., Brennan, P. A., & Najman, J. M. (2011). Childhood social withdrawal, interpersonal impairm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 mediational model. *J Abnorm Child Psychol*, 39, 1227-1238.
- Meilman, P. W. (1979). Cross-sectional age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 230-231.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ubin, K. H., & Coplan, R. J. (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 506-534.
- Rubin, K. H., Root, A. K., & Bowker J. (2010) Parents, peers,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 relationship perspectiv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7, 79-94.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407-434.
- Wallin, D. J. (2010).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Impact of Perceived Peer Attachment Perceived on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Oh, Eun-Hwa

Gyeonggi-do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ego-identity play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communication, trust, alien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social withdrawal. For this, data collected from 2,044 students (984 male and 1,060 female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6th year data of 1 panel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First, peer communication, trust, and aliena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social withdrawal and ego-identity of adolescents. Second, peer communication indirectly influenced social withdrawal through ego-identity. Third, peer trust has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withdrawal, and indirectly influences on social withdrawal through ego-identity. Fourth, the effect of peer alienation on social withdrawal was fully mediated by ego-ident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ego-identity in the influence of peer communication, trust, and alienation on social withdrawal was clarified.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peer attachment, ego-identity, social withdrawal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백승아 구본용*

강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고 내면아이 발달이 이러한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와 구조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요인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내면아이 발달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함으로 청소년의 내면아이 발달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와 이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고등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 내면아이, 초기부적응도식,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고, IBM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 내면아이 발달, 초기부적응도식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부적응도식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의 관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초기부적응도식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여 내면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가 초기부적응도식을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 및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 주어어 : 부정적 양육태도, 내면아이 발달, 초기부적응도식, 사회적지지, 조절된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구본용,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Tel: 031-280-3695, E-mail: kbyco@kangnam.ac.kr

서론

분노의 표현방식 중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Kim, 2013).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데이트폭력’이나 ‘자동차 보복운전’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가해자들이 자신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화를 다루지 못하거나, 감정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분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러한 분노범죄는 일상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발적 범죄 비율은 29.7%에서 2014년 33.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범죄도 해마다 15만 건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경찰청, 2017). 최근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분노범죄의 증가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분노관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노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내면아이(Inner Chil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행위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내면아이 발달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감정이 분노이며, 내면아이 발달을 분노범죄의 ‘우발적’ 촉발요인으로 보고 있다(정기태, 1994; 최현주, 1995; 정동섭, 1996). 그렇기 때문에 ‘내면아이’의 상태를 지닌 성인들은 분노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내면아이(Inner child)’는 ‘성인아이(Adult child)’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조상호, 2017).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사회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성인아이’는 ‘내면아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분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인들에게 내재된 ‘내면아이’를 이해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충동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인 심리치료사 Bradshaw(2004)는 Jung의 원형론(Archetype)을 활용하여 내면아이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였다. 즉 긍정적인 아이는 순진하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이지만, 부정적인 아이는 이기적이고 유치하며 감정과 지적인 성장을 거부한다고 보았다. 이런 부정적인 아이를 ‘상처 입은 아이(the wounded child)’라고 보았다. 즉 ‘상처 받은 아이’가 곧 ‘내면아이’를 의미한다. 이런 내면아이 발달은 성장과정에서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한 상처가 인격의 한 부분이 되어서 상처를 품은 상태로 어른이 되는 것이다(이분형, 2011). 내면아이 발달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했던 감정이나 행동들을 기억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특별한 상황에 갑자기 재현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의 정서적 습관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면아이 발달은 친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나치게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항상 다른 사람과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대하거나 과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Woititz, 1983). 결국 내면아이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양육태도는 부모 그리고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Becker, 1964) 자녀의 지적, 정서적, 언어적, 사회적, 성격적 측면을 발달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종임, 2015). 방임, 폐쇄, 통제, 보호 등의 문제가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서미경, 2004)는 자녀들에게 거부, 무관심, 과보호 등을 경험하도록 하고, 비현실적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비현실적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높여 주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나 행동은 자녀들이 비행의 저지를 가능성을 높여 준다(조용문, 1985; 김유자, 2000). 자녀의 비행은 공격성, 자기통제의 어려움과 관련되며, 공격성과 자기통제의 어려움은 일관성이 결여된 부모의 양육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서미경, 2004; Becker, 1964).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위협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얻지 못함으로써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결국 내면아이의 특징인 자기통제의 어려움이나 분노와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내면아이를 지닌 채 성인이 된 사람들은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내재화의 문제와 분노표출로 인한 외현화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런 내면아이는 육체적으로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 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내면아이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성장했을 때 해결되지 못한 분노, 불안, 죄책감 등이 대인관계의 다양한 문제행동들의 원인이 된다(Bruce & Barbara, 2003; 오제은, 2009).

한편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고 성장한 내면아이의 기억들은 특별한 상황에 갑자기 재현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정서적 습관을 대표적으로 반영하여(신차선, 2011),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와 행동사이의 규칙성은 도식으로 설명되는데(Piaget, 1932), 초기부적응도식은 자기-패배적 감정과 사고의 패턴, 자기의 내면을 다루어나가고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의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유형화된 역기능적인 주제와 패턴으로 정의된다(Young, 1990). 이 '중요한 타인'은 부모를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로 사회화에 중요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양육되는 동안 이러한 관계에서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고 심각한 외상이나 고통 등 불행한 경험들로 인해 초기부적응도식이 형성되고, 아동기 때 부모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중요한 타인들과의 핵심적이고 절실한 정서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깊은 수준에서의 역기능적 신념인 초기부적응도식이 형성되고 축진된다(Young, 1990). 이렇게 자리한 도식은 상황에 따라 갑자기 기억되어진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내면아이 발달의 대표적인 정서적 습관을 반영한다(김영신, 2008). Beck의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와 학대 경험이 지속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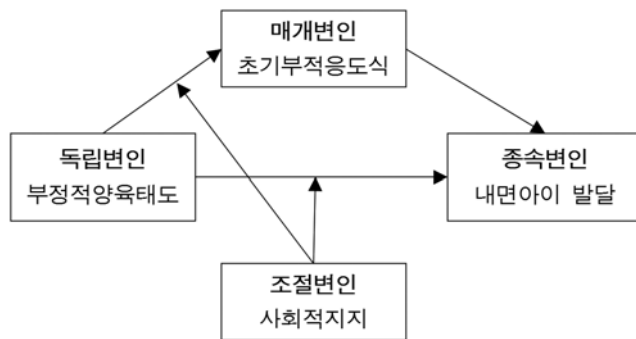
고 변화에 저항적인 자신과 미래에 대한 완고한 일련의 부정적 신념체계들을 발달시키고, 이 핵심신념 체계들, 즉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기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매개한다(Lumley & Harkness, 2007). 이외에도 Harris와 Curtin(2002)의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돌봄과 과보호)와 심리적 증상 간에 결합/수치심, 불충분한 자기통제, 취약성, 무능/열등감도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hah와 Waller(2000)의 연구에서는 취약성도식이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초기부적응도식으로 형성된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발달된 내면아기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치료하는 열쇠이다(박창용, 2014). 청소년은 사회적 욕구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지지는 갈등을 치료하는 열쇠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며,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이며(유성남, 2008), 가족과 친구, 이웃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 받는 모든 긍정적인 영향이다(박유진, 2005). 또한 청소년기에는 주로 가정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도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김명숙, 1995).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는 제2의 가정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삶의 장소이며, 교사는 청소년의 지적 성숙 및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승환, 2001). 또한 교사는 학생의 잠재된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하며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생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Kelly & Corcoran, 2003). 그와 더불어 친구는 개인적인 정보를 함께 나누고, 충고가 받아들여지는 비평가이지만 자신을 이해해 주는 협력자이며 위기상황에서는 정신적 지원자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지를 받음으로, 부정적인 방식에서 적응적인 방식을 경험하게 되면서 상처받은 내면아기가 치유되는 도움을 받는다(유성남, 2008).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분노조절과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Silk, Steinberg, & Morris, 2003)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다. 내면아기 발달에 있어서 분노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감정의 문제라는 사실은 내면아기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최현주, 1995; 정동섭, 1996). 그러나 내면아이는 분노를 느낄 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또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이라는 심리적 긴장을 유발시켜 부정적 자아상 형성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지지가 개입될 경우 위기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정상적인 발달로 이끄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 2008). 불안과 부정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구체적인 전략을 훈련하기 전에 부모 등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일차적으로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김정수, 2008). 청소년들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을 때 삶의 질도 높게 지각하고,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요인의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미경, 안혜영, 송미령, 장미영, 2006). 신현숙(2004)은 청소년 자신이 주위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면에서 더 적응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문은식(2002)은 청소년이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처자원임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 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초기부적응도식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여 그 관계의 강도와 방향성에 심리적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거나, 모와의 관계경험이 자녀가 성장한 후의 대인관계 양상과 심리적인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 Klein(1975)의 주장을 근거해서 모의 양육태도로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 문항인 비밀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의 5개의 하위영역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Grant, Compas, Thurm, McMahon과 Gipson(2004)가 개인의 부적응의 발달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모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과 같은 선행연구의 제안 및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을 매개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인지를 매개된 조절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각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초기대상자는 총 320명으로서 경기지역(Y시, G시, E시)의 3개 고등학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14부를 제외한 30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해당학교의 협조를 받아 지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2017년 9월 1일(금)부터 10월 31일(화)까지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대상자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10명(35.9%), 여자 196명(64.1%)이며, 학년 분포는 1학년 152명(49.6%), 2학년 133명(43.5%), 3학년 21명(6.9%)이었다.

변수의 측정도구

부정적 양육태도척도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하고 조유진(2006)이 수정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 문항인 비일관성(3문항), 과잉간섭(4문항), 과잉기대(4문항), 학대(6문항), 방임(5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의 2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64~.87이었다.

초기부적응도식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anoff, Tian, Cho와 Kwon(2006)의 연구에서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검증한 Young의 단축형 YSQ-SF를 사용하였다. 제1영역의 단절 및 거절 영역의 유기/불안정·불신/학대·정서적 결핍·결함/수치심과 제2영역의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의 실패와 의존/무능감, 제5영역의 과잉경계 및 억제 도식의 정서적 억제 요인의 3개의 하위영역의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점 Likert(1: 전혀 그렇지 않다, 6: 전적으로 그렇다)척도의 문항은 총점수가 높을수록 초기부적응도식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83~.94였다.

사회적지지척도

사회적지지 척도는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1983)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Lemper(1989)와 동료들이 개발한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구성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서초구립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연구 지원팀과 서울대 실천 사회복지연구회 Praxis(2004)가 만든 척도집에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총 2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각 8문항씩으로 5점 Likert(1: 전혀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57~.88이었다.

내면아이척도

청소년의 내면아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김홍운(2000)이 개발한 '성인아이'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불안감(8문항), 인간관계의 어려움(10문항), 감정관리의 어려움(9문항), 과대하거나 과소한 책임감(9문항)의 36문항으로 5점 Likert(1: 전혀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척도에 대한 해석은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아이 발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84~.89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과 내면아이 발달, 사회적지지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측정하였고,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였고,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인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과 초기부적응도식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각 변인의 기초자료분석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내면아이 발달은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적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내면아이 발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수정 측정변인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측정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 값이 3 이내로 나타났고, 첨도의 절대 값도 10 이내로 나타나 Kline의 연구결과(Kline, 2011)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 각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됨이 확인되었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내면아이	사회적지지
부정적 양육태도	1			
초기부적응도식	.54**	1		
내면아이	.60**	.87**	1	
사회적지지	-.40**	-.48**	-.50**	1
M	1.97	3.05	1.91	3.35
SD	.53	.72	.64	.50
왜도	.61	.63	.70	.08
첨도	-.23	-.12	-.02	.05

** $p < .01$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양육태도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내면아이 발달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내면아이 발달의 회귀모형은 F통계 값이 유의확률은 .000에서 43.03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내면아이 발달 총 변화량의 41.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40.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 내면아이 발달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잉간섭($t=4.97, p=.000$)과 방임($t=6.33, p=.000$)이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하여 과잉간섭과 방임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비교한 결과 과잉간섭($\beta=.31$), 방임($\beta=.37$)으로 나타나 방임이 과잉간섭보다 내면아이 발달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p
		B	SD			
내면아이	(상수)	.50	.11		4.56	.000
	비일관성	.09	.06	.10	1.50	.134
	과잉간섭	.27	.06	.31	4.97	.000
	과잉기대	-.00	.05	-.00	-.04	.971
	학대	-.03	.06	-.03	-.47	.638
	방임	.40	.06	.37	6.33	.000

$F=43.03, p=.000, R^2=.418, \text{adj. } R^2=.408$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기부적응도식의 일곱 개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내면아이 발달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초기부적응도식의 하위요인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p
		B	SD			
내면아이	(상수)	-.45	.08		-5.48	.000
	정서적 결핍	.15	.03	.20	4.92	.000
	유기/불안정	.06	.03	.10	2.54	.012
	불신/학대	.13	.03	.18	4.58	.000
	결함/수치심	.14	.04	.20	3.92	.000
	실패	.04	.03	.07	1.51	.132
	의존/무능감	.03	.03	.03	.78	.435
	정서적 억제	.24	.03	.30	7.39	.000

$F=151.40, p=.000, R^2=.781, \text{adj. } R^2=.775$

내면아이 발달의 회귀모형은 F통계 값이 유의확률은 .000에서 151.40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내면아이 발달 총 변화량의 78.1%(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77.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초기부적응도식의 하위요인과 내면아이 발달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결핍($t=4.92, p=.000$), 유기/불안정($t=2.54, p=.012$), 불신/학대($t=4.58, p=.000$), 결합/수치심($t=3.92, p=.000$), 정서적억제($t=7.39, p=.000$)가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결핍($\beta=.20$), 유기/불안정($\beta=.10$), 불신/학대($\beta=.18$), 결합/수치심($\beta=.20$), 정서적억제($\beta=.30$)로 나타나 하위요인 중 정서적억제가 내면아이 발달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 간에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정적 양육태도를 독립변수, 초기부적응도식을 매개변수, 내면아이 발달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을 살펴본 결과, VIF값이 1.000~1.40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1단계에서 부정적 양육태도($\beta=.60$)는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5.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2단계에서 부정적 양육태도($\beta=.54$)는 초기부적응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기부적응도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9.0%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beta=.18$)는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인 초기부적응도식($\beta=.77$) 또한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 중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검증

단 계		B	β	t	R2
1단계	부정적양육태도 → 내면아이 발달	.72	.60	12.99***	.357
2단계	부정적양육태도 → 초기부적응도식	.73	.54	11.13***	.290
3단계	부정적양육태도 → 내면아이 발달	.22	.18	5.71***	.775
	초기부적응도식	.69	.77	23.75***	

*** $p<.001$

매개변수인 초기부적응도식의 영향력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에 끼치는 영향력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을 확인한 결과, 효과크기가 부정적 양육태도($B=.22$)로 나타나 매개변수인 초기부적응도식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직접효과 크기($B=.73$)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매개변수인 초기부적응도식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을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77.5%이다. 다음,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정¹⁾을 실시한 결과, 내면아이 발달($z=10.11, p<.025$)에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내면아이 발달 $0.50(B=0.73 \times 0.69=0.50)$ 이다.

<표 5>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Sobel 검정

	B	SE	z	p
부정적양육태도 → 초기부적응도식	.73	.07	10.11	<.025
초기부적응도식 → 내면아이 발달	.69	.03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²⁾검증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간에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해 내면아이 발달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접근법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는 상호작용항(부정적 양육태도×사회적지지)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으로, 상호작용항(부정적 양육태도×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b=-.19, p>.05$)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단계는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부정적 양육태도×사회적지지)이 매개변수 초기부적응도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b=.81, p<.05$)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항(부정적 양육태도×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b=-.077,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단계는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부정적 양육태도×사회적지지), 매개변수 사회적지지,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초기부

- 1) Sobel test 방정식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분모의 Sa와 Sb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이일현, 2016).
- 2) Muller, Judd, & Yzerbyt(2005)의 절차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조절효과 상호작용1이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2단계에서는 조절효과 상호작용1 또는 독립변수가 유의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나 상호작용2가 유의해야 한다(이일현, 2016).

적응도식×사회적지지)과 종속변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항(초기부적응도식×사회적지지)과 조절변수 사회적지지($b=.347,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1단계 (내면아이 발달)		2단계 (초기부적응도식)		3단계 (내면아이 발달)	
	<i>b</i>	<i>t</i>	<i>b</i>	<i>t</i>	<i>b</i>	<i>t</i>
	부정적 양육태도	1.19	3.58***	.81	2.06*	.44
사회적지지	-.03	-.13	-.31	-1.24	.35	2.15*
상호작용항1	-.19	-1.87	-.08	-.65	-.07	-1.02
초기부적응도식					.99	5.25***
상호작용항2					-.10	-1.78*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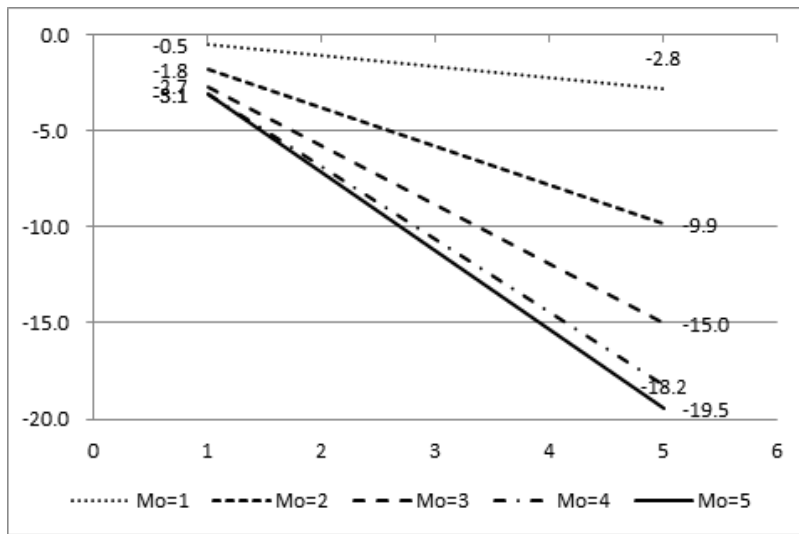
독립변인(부정적 양육태도), 매개변인(초기부적응도식), 종속변인(내면아이 발달), 조절변인(사회적지지), 상호작용항(1:부정적양육태도×사회적지지, 2:초기부적응도식×사회적지지)

본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는 조절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는 초기부적응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부정적 양육태도는 초기부적응도식을 더 활성화시키지만, 사회적 지지는 초기부적응도식을 완화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 초기부적응도식이 종속변수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초기부적응도식이 활성화될수록 내면아이가 더 많이 발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는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수 초기부적응도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이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이 초기부적응도식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내면아이 또한 더 많이 발달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지만,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절효과인 사회적 지지가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결과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 이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하여 최종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다. 2단계와 3단계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내면아이 발달에 대한 최종 방정식을 Excel파일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식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Y=0.81X-0.31Mo-0.08XMo+0.35Mo^2-0.07XMo^2$$

위의 식을 이용하여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Mo)의 조절작용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독립변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낮아지고, 매개변수 초기부적응도식의 값이 작아져서 종속변수 내면아이 발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음(-)으로 강하게 나타나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초기부적응도식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따라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사회적지지(Mo)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래프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고등학생을

3)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절변수의 값이 커질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떤 조절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이일현,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Mo)의 값을 1로 고정한 후의 종속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2,3,4,5,로 증가시킨 후의 종속변수의 값을 확인한다.

대상으로 내면아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사회적 지지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초기부적응도식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을 매개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과잉간섭과 방임으로 나타났고, 방임이 과잉간섭보다 내면아이 발달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결합/수치심, 정서적억제로 나타났고, 정서적억제가 내면아이 발달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정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부적응도식 또한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매개효과 중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따라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시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와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러한 경험을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긍정적 방식보다 부적응적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기부적응도식을 통해 내면아이의 발달에서 부적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부적응적 대처방식은 자신을 자신의 부적응도식 안에 스스로 가두는 역할을 해서 반복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Young, Klosko, & Weishaar, 2003), 내면아이의 경우 부적응적으로 발달되어 치료를 해도 쉽게 반응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반복해서 재발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적응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Sandler, Tein, & West, 1994). 즉, 부모로부터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하여 초기부적응도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처방식의 평가를 통해 내면아이의 발달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면아이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전에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해왔는지, 부적응적 패턴을 유발시키는 요인과 유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내면아이 발달에 관여하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면아이 발달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서의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밝힘으로 치료적 함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내면아이 발달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지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내면아이에 대한 이해에 일조하였다 할 수 있다. 나아가 내면아이는 한 가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요인에 의해 단독으로 발달되지 않으므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 이외의 다른 변인들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Arntz, Dreesen, Schouten, & Weertman, 2004).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분적 부정적 자기개념이나 귀인편향과 같이 개인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두었는데(이훈진, 1997) 내면아이 발달의 형성과 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변인들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되었다(박혜원, 2014).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과의 관계에서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과잉간섭, 방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면아이 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초기부적응도식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결핍,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결함/수치심, 정서적억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간섭과 방임은 정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잉적인 간섭을 하거나 반대로 돌보지 않거나 자녀에게 관여하지 않고 방임을 함으로 내면아이의 발달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결핍과 유기, 불안정이 높아지고 불신과 학대, 결함과 수치심, 정서적 억제가 높아지면 내면아이의 발달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면아이의 하위요인인 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 모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이다. 특히, 과잉간섭, 방임은 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내면아이의 정서적 특징인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죄책감, 분노, 열등감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어린아이 때의 기억이 초기부적응도식 안에 존재하면서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타인에게는 성숙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대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빠른 속도로 내면아이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내면아이는 성장 시기 부모가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밝힌 연구결과(David, 2011) 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면아이의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의 방임과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하다는 선행연구(김재엽, 최권호, 2012; 하수홍, 장문선, 2013; 황은수, 2006; Meston, Heiman, & Trapnell, 1999)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행동문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로부터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내면아이 발달의 수준이 높아짐이 시사되고,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경험으로 형성되어진 초기부적응도식

이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한 Young(199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초기부적응도식은 내면아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태도와 내면아이 발달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부사건과 특정도식의 상호작용에 따라 분노, 우울, 슬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생애초기 몇 년간의 주 양육자와의 역기능적 경험과 타고난 기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하게 된다고 한 Young(1990)의 결과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내면아이 발달 모두 상관이 유의미하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내면아이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은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하는 것으로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실질적인 상황에 적용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한계점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기부적응도식을 통해 내면아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초기부적응도식×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어 매개효과 관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연구가설에서 제시했던 조절된 매개모형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상정한 이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신체 및 심리적인 부정적 효과를 완충시키는 기능(Treiber, Musante, Kapuku, Davis, Litaker, & Davis Harry, 2000)과 신체 및 심리상의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Garner & Power, 1996).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초기부적응도식에 긍정적인 자원으로 조절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초기부적응도식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한다(Weinberger, Tierney, & Hiner, 1990)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연구자에게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인간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이주희, 2009). 이것은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초기부적응도식과 내면아이 발달과 같은 심리요인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시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 간에 정서적 관심,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을 교환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리적 만족과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다(엄덕희, 2012)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요인인 초기부적응도식, 내면아이 발달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작용하여 분노표현 같은 부정적 감정표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고,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지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방향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지역과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내면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연구 변인들의 관계 및 원인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내면아이 발달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초기부적응도식이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내면아이 발달에 이르는 경로는 부정적 양육태도와 초기부적응도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것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면아이의 발달은 부정적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타고난 기질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자녀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질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서 이 또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초기부적응도식, 내면아이와 같은 개념들이 심리적 특성임을 고려하여 보다 타당한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적 접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접근방식으로 질적 연구도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을 하였고, 응답 당시 응답자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왜곡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가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문지 방법 외에 보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측정과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겠고 시간 차이를 둔 종단 연구와 같이 인과관계를 보다 세밀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초기부적응도식이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처럼 이원적으로 보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에 포함시켜야 한다(Fincham, Grych, 1994)고 밝힌 것과 같이 후속연구에서는 양육태도를 세분화하고 부모와 다른 구성원의 조합이 청소년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더 섬세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Saint-Exupéry(1943)의 『어린왕자(The Little Prince)』 속 조종사와 어린왕자, Barrie, J. M.(1911)의 『피터와 웬디(Peter and Wendy)』의 피터 팬은 ‘영원한 아이’이다. 이 영원한 아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영원한 젊은이를 뜻한다(박창용, 2014).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히 ‘피터 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어른으로 성장했음에도 어른이기를 심리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하며 가족과 자기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심리상태로, 피터 팬이 현실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Neverland에 남아 영원한 소년이 된 것에서 명명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아이

는, 내면아이 전문가인 Bradshaw(2004)가 얘기한 내면아이의 긍정적 측면의 순진하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경의로운 내면아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의로운 내면아이'를 위한 후속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7). 경찰범죄통계 2015년. 사이버경찰청.
- 권미경, 안혜영, 송미령, 장미영 (2006).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 12(2), 180-188.
-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자 (2000). 비행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우울성향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내면아이의 상관관계성 및 치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수 (2008).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5(1), 271-299.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홍운 (2000). 성인아이의 분노조절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18.1.31).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는 심리, 뭘까 했더니...
<http://news.donga.com/3/all/20180131/88443251/2>에서 2018년 2월 25일 인출.
- 문은식 (2002). 靑少年의 學校生活 適應行動에 關連되는 社會·心理的 變因들의 構造的 分析.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유진 (2005).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공업고등학교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용 (2014). 상처받은 내면아이에 대한 가족관계 이론적 접근 : 사티어(Satir)의 이론과 이마고(Imago) 이론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2014).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경계선 성격경향자의 대인관계패턴과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을 지닌 대학생을 위한 자기통찰-자기재양육 프로그램의 효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미경 (200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초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연구지원팀·서울대학교실천사회복지연구회 Praxis (2004). 실천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집.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신차선 (2011).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한국형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자기
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현숙 (2004). 가정환경 역경에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 학교적응,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1), 141-161.

엄덕희 (2012).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육군 병사들
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2012(11), 31-61.

연합뉴스 (2018.2.1.). “진로 방해로 화났다” 보복 운전해 2명 다치게 한 30대.

<http://news.zum.com/articles/43006818>에서 2018년 2월 26일 인출.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 일반가족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 학교사회복지, 4, 53-80.

오제은 (2009). 내면아이 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 실존
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오종임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정신건강과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종필 (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유성남 (2008).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분형 (2011). 부모의 ‘내면아이’는 꼭 자라야만 한다. 새가정, 58(633), 14-17.

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2008). 자기불일치가 불안 및 우울을 매개로 부적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183-206.

이일현 (2016).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이주희 (2009). 대학생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13(2), 205-220.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기태 (1994).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정서적 문제 : 분노를 중심으로. 침례신학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동섭 (1996).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 요단출판사.

조상호 (2017).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내면아이의 치료에 미치는 효과.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용문 (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 결손가정과 정상가정을 중심으로. 계명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유진 (2006).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주 (1995). 위장된 분노의 치유. 서울: 규장문화사.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척도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수 (2006). 아동기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toine de Saint-Exupéry. (1943). *The Little Prince*. (어린왕자).
- Arntz, A., Dreessen, L., Schouten, E., & Weertman, A. (2004). Beliefs in personality disorders: a test with the personality disorder belief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10), 1215-1225.
- Baranoff, J., Oei, T. S., Cho, S. M., & Kwon, S. K. (2006). Factor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in K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133-140.
- Barrie, J. M. (1911). *Peter and Wendy*. (피터와 웬디).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Hoffman, M. L. & Hoffman, L. W.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Russeoo Sage Foundation.
- Bradshaw, J. (2004). Home 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오제은 역,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서울: 학지사.
- Bruce, T., & Barbara, T. (2003). *Walls of My Heart*. (정소영 역, 내 마음의 벽). 서울: 예수전도단.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avid, A. S. (2011).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송현복 역,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서원.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Fincham, F. D., & Grych, J. D.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 Grant, K. E., Compas, B. E., Thurm, A. E., McMahon, S. D., & Gipson, P. Y. (2004).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easurement issues and prospective effec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2), 412-425.
- Harris, A. E. & Curtin, L. (2002). Parental perception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405-416.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 Kelly, P., & Corcoran, C. A. (2003). The classroom teacher's role in preventing school failure. *Kappa Delta Pi Record*, 39(2), 84-87.
- Kim, E. J. (2013). A case study of anger-bursting child: An application of anger control program. [Master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lein, M. (1975). Mourning and its relation to manic-depressive states. *The writings of Melanie Klein*, 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The Press.
- Lemper, H. (1989). U.S. Patent No. 4,799,53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Lumley, M. N., & Harkness, K. L. (2007). Specificity in the relations among childhood adversity,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ymptom profiles in adolescent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 639-657.
- Meston, C. M., Heiman, J. R., & Trapnell, P. D. (1999). The relation between early abuse and adult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36, 385-395.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852-863.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1997 edition). New York, NY: Free Press.
- Saint-Exupéry, A. (1943). *Airman's odyssey*. Houghton Mifflin Harcourt.
- Sandler, I. N., Tein, J-Y., & West, S. G. (1994). Coping, stress, and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children of divorce: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6), 1744-1763.
- Shah, R., Waller, G. (2000). Parental style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 role of core belief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8, 19-25.
- Silk, J. S., Steinberg, L.,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Treiber, F. A., Musante, L., Kapuku, G., Davis, C., Litaker, M., & Davis, H. (2000). Cardiovascular (CV) responsivity and recovery to acute stress and future CV functioning in youth with family histories of CV disease: a 4-year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41(1), 65-74.
- Weinberger, M., Tierney, W. M., Booher, P., & Hiner, S. L. (1990). Social support, stress and functional status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Social Science Medicine*, 30(40), 503-508.
- Woititz, J. G. (1983).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ompano Beach, FL : *Health Communications*, Inc.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2018. 03. 27. / 수정원고접수일: 2018. 06. 11. / 게재결정일: 2018. 06. 18.]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ffects the Development of Inner Child : Analysis of Mediated Effects of Initial Maladaptation Schemes and Social Support

Paeg, Seung-A Khu, Bon-Young
Kangnam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whether par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initial maladjustment schema, and social support had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inner childhood in adolescents, and examined the relation and structure of inner child development with these variabl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olescent 's inner child development, it was assumed that adolescent ' s inner child development is influenced by parent 's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 this process, we tried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es on the development of inner child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d the social support intervening in this process.. For the study, 306 high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and their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IBM SPSS 22.0 and Amo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inner child development, and early maladjustment schemes,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Seco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ffect internal child development, and initial maladaptation schem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internal child development.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initial maladjustment schem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inner child development showed that social support has a significant interaction with the initial maladaptation scheme respectively. Thus, in the path where the initial maladaptation schem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ner child development, the mediated mediating effect of controlling the initial maladjustment schemes of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bsequent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ner child, initial maladjustment schema, social support, adjustable parameter effect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문은주[†]

경북대학교

본 연구는 메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성과연구 62편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산출된 122개의 전체 평균효과크기는 0.514로 중간정도의 크기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참여자 특성(연령),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구성내용에서는 독서치료를 이용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인원수는 11~20명, 총 회기 수는 9~10회기, 운영기간은 9주 이상, 종속변인은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실시할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메타분석,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효과크기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교육학 박사,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1번길,
Tel: 010-2701-3474, E-mail: kikiki-2@daum.net

서론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와 과도한 업무 및 학업,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삶의 일부로 보게 되었다. 스트레스는 라틴어 'Stringer (팽팽하게 죄다)'에서 유래하였으며, 14세기에는 고통, 곤란, 역경의 의미로, 17세기에는 신체적 압박이나 긴장의 의미로, 18~19세기에는 주로 격렬한 노력, 압박, 긴장 등의 의미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것,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요인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신체부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Mandler와 Watson(1966)은 개인의 행동계획이 방해받는 것, 생활의 요구에 대한 개인의 무력감의 지각으로, Lazarus(1993)는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으로, 이부영(2010)은 환경과 교류하는 가운데 환경의 요구가 자신의 자원의 양을 넘어섰을 때 겪게 되는 위협적인 경험으로 정의한다.

스트레스는 삶 그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트레스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Selye, 1974).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게 되지만, 스트레스는 생존에 도움이 되고 적응적인 측면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유기체가 전투 체계를 갖춰서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데에 적합해지며, 일시적인 긴장감이나 심리적 압박감은 각성수준을 상승시켜 정신적 활동이 오히려 활발해지고 생산성이 증진되며(Anderson, 1976),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각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주의력,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증진된다(박혜연, 2015).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지루하고 즐겁지 않는 삶으로(Meichenbaum, 1985), 즉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나 문제해결의 촉매로써의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 등 내면적 갈등을 비롯한 문제행동 및 일탈행동, 자살 충동, 공격적인 행동 및 대인관계에서 말씨가 거칠어지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면 기억력과 주의력 감소(Liston et al., 2006), 흡연 및 음주 행동 증가(Hull & Young, 1983), 행동의 나쁜 습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독의 발병 및 재발 과정에 중요한 위험 요소이다(Koob & Kreek, 2007). 또한 스트레스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포도당 신생 및 간에서의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하게 하며 지속적인 경우 인슐린을 합성·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고갈을 가져오며(Buckingham, 2000), 심장병, 고혈압,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등을 포함한 사망의 주원인과의 관계가 있다(Park, 1998). 스트레스는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다소 기능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으나,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들의 반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Pelletier, 2004)으로써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스트레스 예방과 대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

레스 문제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생각이나 행위(Lazarus & Folkman, 1984)로써, 긴장스러운 경험을 야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기 전에 그러한 경험의 의미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긴 후에 스트레스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스트레스 대처 경험을 통하여 대인관계, 대처기술, 가치, 목표 등에서 성장함으로써(Park, 1998) 성숙된 인격의 도야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생명의 위협을 인식한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스트레스 대처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스트레스 척도 개발 등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인지행동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김나운, 2015),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윤병수, 2014), 인지정서행동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김동원, 2013), 수용전념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전민아, 2014), 웹기반 상담 프로그램(이상희, 2006), 독서치료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심일수, 2011)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염현경, 199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김지혜, 2010),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오윤경, 2005), 대학생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이미숙, 2011),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이남순, 2015), 일반 성인 및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김민화, 2011; 안범현, 2015), 골프선수, 골프경기보조원, 레슬링 선수, 한국스포츠 심판원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박해용, 2000; 김성욱, 2001; 이성보, 2004; 정지혜, 2015), 상담자, 간호사, 공군전투기조종사, 교정직공무원, 보육교사, 경찰공무원, 대학도서관 사서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양안숙, 2008; 이미숙, 2012; 심운경, 2013; 이종윤, 2013; 김용준, 2014; 김영은, 2015; 전은령, 2015; 이현숙, 2017), 지체부자유아 부모, 간이식 수혜자가족,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허정옥, 2007; 김미혜, 2016)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윤정남, 2007), 중학생(손효정, 2010), 고등학생(정경심, 2012), 대학생(윤병수, 2014), 직장인(이상희, 2006), 초등영재(고유민, 2013), 특수학급초등(고경미, 2002), 장애형제 둔 초등(박민희, 2008), 소년소녀가장(이중문, 2003), 알코올중독 자녀(양승희, 2003), 과학고(태은주, 2015), 마이스터고(이충현, 2014), 소방공무원(남춘연, 2011), 미혼모(김만지, 2000), 장애아 어머니(최경례, 2007), 2형 당뇨병환자(박형숙, 박경연, 2008), 신경언어장애자(김나운, 2015), 수지재접합수술환자(윤은진, 2004), 조현병 환자(양승희, 전경선, 2015) 등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활발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이 수행되고 있으나,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계량적이고 통합적 분석 및 정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스트레스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이 청소년(권경인, 조수연, 2013)과 결혼이주여성(함진욱, 2017), 직장인(왕은자, 전민아, 홍희정, 2016)으로 제한되거나,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독립변인)에 대한 효과연구가 아닌 스트레스

감소(중속변인)에 대한 효과연구(박현경, 20014; 남지영, 2016) 이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효과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수 있고, 기존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써 기존 개별연구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정제영, 신인수, 2009). 메타분석은 수많은 연구를 단순히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여 일관성 있게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는 계량적, 수량적 접근 방법으로(황성동, 2014), 개별연구결과의 효과크기(Effect Size)를 구하고 그것의 평균을 산출한다. 효과크기는 각 연구의 표준점수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많은 연구결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하고 평균을 내는 등의 통계분석이 가능하다(김계현, 2002). 특히 상담 영역에서는 누적된 개별 상담프로그램들의 총체적인 효과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크기를 지수로 사용하여 서로 다른 치료접근법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김계현, 2000). 이 때문에 상담분야에서도 메타분석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좀 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중재변인별로 효과를 비교하고자 했다. 집단상담의 효과 관련 변인으로 학자에 따라 연령, 신체적 특성, 교육수준, 지능, 사회경제적 수준(이장호, 김정희, 1992)을 제시하거나, 집단목적의 명료성, 집단의 크기, 집단회기의 길이, 집단모임 장소, 모임 빈도, 모임 시간, 집단참여 동기(강진영, 2011)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여자 특성, 집단크기, 총 진행 회기 수, 프로그램 실시기간, 회기 당 시간, 주당 회기 수를 포함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중재변인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참여자 특성으로는 연령을 포함했고, 프로그램 진행방식에는 참여인원수, 총 회기 수, 운영기간, 1회기 시간, 주당 회기 수 등을 포함했다. 프로그램 구성내용은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론에 근거하여 인지행동, 마음챙김, 인지정서행동, ACT(수용전념), 웹기반, 독서치료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내용(인지행동/마음챙김/인지정서행동/ACT(수용전념)/웹기반/독서치료)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셋째, 참여자 특성(연령) 및 프로그램 진행방식(참여인원수, 총 회기 수, 운영기간, 1회기 시간, 주당 회기 수)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넷째,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중속변인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스트레스 대처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활성화 된 1990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출판된 논문 중에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효과를 검증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수집을 위해 먼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회도서관에서 주제어와 제목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훈련', '스트레스 대응', '프로그램', '집단상담'이 포함된 자료 중 온라인 원문검색이 가능한 대상을 1차 추출하였다. 그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논문만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①1990부터 2017년 2월까지 국내 학위 및 학술논문 ②온라인으로 연구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논문 ③무처치 통제집단을 설정한 실험연구 ④실험처치에서 독립변인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⑤양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평균과 표준편차, t값, F값, p값 등 제시 ⑥사전-사후검사방식을 채택하고 사전검사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연구 ⑦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25편) 연구방법과 실험결과가 자세하게 제시된 학위 논문을 우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자가 1차 수집한 논문은 학위논문 446편, 정기 간행물 116편으로 총 562편이었다. 수집한 562편의 논문을 앞에서 제시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학위논문 52편(일반대학원 석사논문 10편,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37편, 박사논문 5편), 정기간행물 10편 총 62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한 62편 논문의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번호, 연구자명, 출판연도 등으로 코딩시트를 구성했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논문의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메타분석 가운데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개별연구의 성과를 종합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같이 실험연구 결과를 통합하려는 목적에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메타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오성삼, 2002).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사후검사 실험집단의 평균점수와 사후검사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를 두 집단의 분산을 이용한 평균표준편차로 나눈 Cohen(1988)의 효과지수 'd'값을 구했다. 또한 표준화된 평균차에 의한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표본수가 적을 경우 효과크기가 실제 값보다 크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오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했다(황성동, 2014).

특정 종속변인에 관한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메타분석의 경우, 하나의 연구물에서 두 개 이

상의 효과크기가 도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자료의 독립성 가정여부와 관련한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첫째, 각 자료가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하는 전통적 접근방법 둘째, 효과크기의 평균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 셋째, 총 효과크기는 연구물을 분석단위로 설정하는 분석단위 이동법(Cooper, 2010)이 있다. 반면 개별 하위요인의 분석단위는 효과크기를 따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누적된 특정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전문프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모두 62편의 연구논문에서 총 122개의 효과크기 사례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했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453.730$, $I^2=73.332$, $p=.00$),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질성의 정도는 I^2 값이 25%이면 낮은 수준, 50%이면 중간, 75%이면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한다(Higgins & Green, 2011).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이 아닌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의한 효과크기를 산출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효과크기는 0.514로 나타났고, 이는 효과크기의 해석 기준으로 보면 중간 효과크기(Cohen, 1988)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분포 곡선에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백분위 점수를 50%로 보았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백분위 점수가 69.49%라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19.49%만큼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인지행동/마음챙김/인지정서행동/ACT(수용전념)/웹기반/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별 구성내용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29.769$, $df=5$, $p< 0.5$). 구성내용이 독서치료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일 경우 평균효과크기가 3.187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인지정서행동, 인지행동, 마음챙김, ACT(수용전념), 웹기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평균효과 크기

N	평균효과크기	p	95%신뢰구간	Q	I ²	U3(%)
122	0.514	.00	0.382~0.645	453.730	73.332	69.49

<표 2>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내용별 평균효과 크기

내용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인지행동	95	0.520	0.074	0.375~0.666	69.84	29.769 (5)	0.000
마음챙김	11	0.377	0.128	0.126~0.627	64.43		
인지정서행동	8	0.729	0.436	-0.126~1.583	76.42		
ACT(수용전념)	4	0.370	0.404	-0.421~1.162	64.43		
웹기반	3	-0.029	0.143	-0.310~0.252	50.79		
독서치료	1	3.187	0.661	1.891~4.483	99.93		

본 연구에서 중재변인별로 산출한 효과크기는 다음과 같다. 중재변인별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95%의 신뢰구간을 이용했다. 먼저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특성인 연령별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 구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2.033, df=3, p>.05).

<표 3> 집단참여자 연령별 평균효과크기

연령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초등	37	0.588	0.142	0.309~0.867	71.90	2,033(3)	0.56
청소년	29	0.626	0.146	0.336~0.910	73.23		
성인	42	0.461	0.074	0.316~0.607	67.72		
환자	14	0.271	0.278	-0.273~0.816	60.64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상 특징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 운영상 특징을 몇 개의 유목으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는데, 유목분류의 기준은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나타난 특징의 빈도를 감안하면서 최대한 각 유목 간 사례수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었다. 먼저, 참여인원수별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인원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6.017, df=2, p<.05). 참여인원수가 11~20명일 때 평균효과크기가 0.59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명 이하, 21명 이상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표 4> 참여인원수별 평균효과크기

참여인원수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10명 이하	50	0.557	0.130	0.303~0.812	70.88	6.017(2)	0.049
11~20명	54	0.594	0.104	0.390~0.797	72.24		
21명 이상	18	0.270	0.097	0.079~0.461	60.64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총 회기 수별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의 총 회기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10.544$, $df=3$, $p<.05$). 총 회기 수가 9~10회기일 때 평균효과크기가 0.69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6회기, 7~8회기, 11~12회기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표 5> 총 회기 수별 평균효과크기

총 회기 수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5~6회기	18	0.524	0.181	0.170~0.879	69.84	10.544(3)	0.014
7~8회기	39	0.466	0.117	0.237~0.695	67.72		
9~10회기	47	0.694	0.117	0.465~0.924	75.49		
11~12회기	18	0.166	0.116	-0.062~0.393	56.33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간별로 산출한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6.234$, $df=2$, $p<.05$). 운영기간이 9주 이상일 때 평균효과크기가 0.88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주 이하, 6~8주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표 6> 운영기간별 평균효과크기

운영기간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5주 이하	72	0.599	0.088	0.427~0.770	72.24	6.234(2)	0.044
6주~8주	42	0.305	0.108	0.093~0.516	61.79		
9주 이상	8	0.886	0.297	0.304~1.469	81.05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1회기 시간별로 산출한 평균효과크기를 비교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회기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5.181$, $df=3$, $p>.05$).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표 7> 1회기 시간별 평균효과크기

1회기 시간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50분 이하	37	0.318	0.116	0.091~0.544	62.17	5.181(3)	0.159
51분~100분	51	0.651	0.114	0.427~0.875	74.21		
101분~120분	30	0.464	0.090	0.288~0.640	67.72		
121분 이상	4	1.323	0.875	-0.392~3.039	90.63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주당 회기 수별 평균효과크기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당 회기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Q=1,012$ $df=3$, $p>.05$).

<표 8> 주당 회기 수별 평균효과크기

주당 회기 수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주1회	38	0.463	0.130	0.208~0.718	67.72	1.012(3)	0.798
주2회	67	0.503	0.080	0.347~0.659	69.14		
주3회	11	0.522	0.181	0.167~0.877	69.84		
매일(집중)	6	1.103	0.630	-0.132~2.338	8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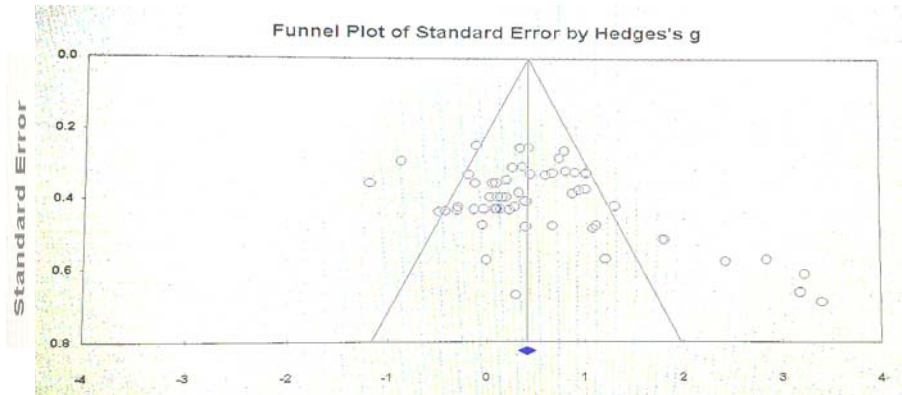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종속변인을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긴장,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으로 구분하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했다. 스트레스는 하나의 현상적인 실체로서 개인의 지각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적·주관적 평가라는 연구(Lazarus & Folkman, 1984)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감소와 스트레스 인식 및 지각과 관련된 변인은 스트레스 감소로, 정서인식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적인 정서 경험에 대해 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연구(Zeider & Matthews, 2000)에 근거하여 정서인식은 스트레스 대처로, 개인이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고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인지적 활동을 스트레스 대처로 보는 연구(Pearlin & Schooler, 1978)에 근거하여 비합리적 신념 감소, 인지적 탈융합(탈중심화)을 스트레스 대처로, 인터넷 사용을 부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구분하는 연구(이진영, 2002)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 감소를 스트레스 대처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기 위한 폭식이 스트레스의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라는 연구(이운정, 2007)에 근거하여 폭식을 스트레스 대처로, 자살이 스트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회피적 대처방식이라는 연구(Endler & Paker, 1994)에 근거하여 자살생각 감소를 스트레스 대처로, 학업장면에서 위기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

를 수 있는 능력이 학업탄력성이라는 연구(Martin & Marsh, 2009)에 근거하여 학업탄력성을 스트레스 대처로, 적극적, 소극적, 문제중심 대처를 포함한 스트레스 대처를 스트레스 대처로, 발표불안, 시험불안, 공격성감소, 불안, 우울, 적대감, 분노를 심리적 긴장으로 표현한 연구(송영숙, 1996;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에 근거하여 발표불안, 시험불안, 공격성감소, 불안, 우울, 적대감, 분노를 심리적 긴장으로,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학교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학교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학교생활적응으로 구분하는 연구(Negru & Baban, 2009)에 근거하여 학업성취도를 학교생활적응으로, 자기결정성은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가 스스로의 선택에 기인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학업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이미봉, 2004)에 근거하여 자기결정성을 학교생활적응으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교학습에 노력을 기울이며, 학습행동통제, 학습지속성과 대인관계나 학교에서 적절하고 조화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외현적 학교생활적응이라는 연구(문은식, 2002)에 근거하여 학습태도, 사회성, 대인관계를 학교생활적응으로, 주의력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소이며, 학습태도 검사도구의 하위요소인 연구(홍경숙, 2001)에 근거하여 주의력을 학교생활적응으로, 삶의 질은 삶에 대한 만족, 자아존중감, 건강상태와 기능 및 사회·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평가라는 연구(George & Bearon, 1980)에 근거하여 삶의 질을 자아존중감으로, 또한 삶의 질은 직무만족과 높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류성봉, 2013)에 근거하여 직무만족을 자아존중감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이운복, 2012)에 근거하여 직무열의를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그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Coopersmith, 1967),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 판단, 감정 및 기대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송정화, 2005)에 근거하여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아실현, 자존감을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당 프로그램의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47.381, df=4, p<.05$). 종속변인은 자아존중감의 평균효과크기가 1.068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긴장, 스트레스 감소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표 9> 종속변인별 평균효과크기

종속변인	N	평균효과크기	표준오차	95%신뢰구간	U3(%)	Q(df)	p
스트레스감소	42	0.039	0.093	-0.144~0.222	51.12		
스트레스대처	28	0.785	0.162	0.467~1.103	78.23		
심리적긴장	17	0.297	0.088	0.124~0.470	61.40	47.381(4)	0.000
자아존중감	23	1.068	0.174	0.727~1.409	85.54		
학교생활적응	12	0.886	0.148	0.596~1.177	81.05		

마지막으로 메타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연구에서 사용한 62편의 논문에 대해 출판편의를 확인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Funnel plot이 비대칭으로 나타나 출판 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Trim & Fill(Duval & Tweedie, 2000) 방법을 사용하여,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하기 위하여 1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1개의 연구가 추가되기 전에는 효과크기가 0.402이고, 1개의 연구가 추가된 후의 효과크기는 0.387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해 보면 효과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은 시각적으로는 편향이 있지만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칠만한 편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Funnel plot

<표 10>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

	추가논문	평균효과크기	95% 신뢰구간	Q-Value
관찰값		0.402	0.308~0.497	210.612
교정값	1	0.387	0.293~0.482	229.95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근 25년 동안 실시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62편의 연구논문에서 산출된 122개의 효과크기를 랜덤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가 0.514로 중간정도의 크기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 중, 고, 대학생, 성인에게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집단상담 프로그램 메타분석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에서 전체 평균 효과크기가 0.902(최신영, 201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에서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12(조중현, 201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에서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0.805(강윤경, 201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에서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0.801(전미영, 201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에서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201(장은미, 2016)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알려주는 것으로써, 상담현장에서 상담자들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독서치료, 인지정서행동, 인지행동, 마음챙김, ACT(수용전념), 웹기반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고용남(2010)과 이은경(2015)은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42와 0.743으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용남(2010)의 독서치료 집단상담에서 중학생(1.56), 초등학생(1.41)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남(2010)의 독서치료 집단상담 연구에서는 중학생(1.56), 초등학생(1.41), 고등학생(1.28) 순으로, 이은경(2015)의 독서치료 집단상담에서는 고등학생(1.092), 중학생(0.815), 초등학생(0.813) 순으로 전반적으로 평균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초등학생, 청소년이 많은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독서치료에 대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초등학생, 성인, 환자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서, 연령이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었고, 전 연령에 걸쳐 필요한 프로그램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이 때 나타나는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며(홍영수, 2004), 주변의 기대에 부흥하면서도 사회적 현실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내적·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김정은, 2009), 생애주기 중에서 다른 발달단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박중기, 1998) 되는 시기이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발달은 청소년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인으로 성장해 감에 있어서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 발달된 대처전략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신현숙, 구본용, 2001).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무게와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연령에 대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추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단 참여인원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1~20명, 10명 이하, 21명 이상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최신영, 2013)에서는 11~20명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나, 의사소통훈련 집단상담(박은혜, 2014)에서는 10명 이하. 자기성장 집단상담(신정민, 2016)에서는 성인의 경우 21명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집단원수는 집단의 유형과 집단원들의 문제와 관심사 및 목적, 집단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reenberg(2003)는 초등학생은 최대 4~5명, 중학생 최대 7명, 고등학생 최대 10명 사이로 제시하고, 강진령(2012)은 구성원의 연령이 어릴수록 참여인원수는 작은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로 다수 차지하고 있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할 때 소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 대한 다른 아동이나 학교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편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급단위로 진행되면서(노인화, 2016), 참여인원수가 보편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최신영, 2013; 천경아, 2015)도 있다. 앞으로 참여인원수가 많은 집단상담을 할 경우 공동지도자를 세우거나, 집단상담 내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9~10회기, 5~6회기, 7~8회기, 11~12회기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의사소통 집단상담(박은혜, 2014)에서는 9~10회기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발표불안 집단상담(허지영, 2017)에서는 8회 이하, 자기성장 집단상담(신정민, 2016)에서는 12회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집단상담의 총 회기 수는 집단원들의 행동 변화 및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지루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을 만큼 짧은 기간이어야 하며(강진령, 2011), 집단의 첫 회기부터 종결까지 꾸준히 참여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총 회기 수를 적절하게 구조화해야 한다. Greenberg(2003)는 8회기가 이상적이며, 경우에 따라서 10회기 정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상담(이경옥, 2012)에서는 11~14회기,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이유미, 2006)에서는

16~20회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집단상담(하지연, 신성만, 2016)에서는 9~12회기, 보호처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이유린, 2016)에서는 15회기 초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집단상담(천경아, 2015)에서는 10~12회기,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상담(최지원, 2013)에서는 8회기 미만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총 회기 수가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과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운영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집단 운영기간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9주 이상, 5주 이하, 6~8주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행복 집단상담(문은주, 2015)에서는 9주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의사소통 집단상담(박은혜, 2014)에서는 집중적, 공감훈련(김윤희, 김진숙, 2015)에서는 4주 이하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행동주의적 치료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8주~11주(홍경자, 1988)라는 결과와 일치하나, 사례수가 적어 추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기간과 효과의 차이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치료집단을 제외하고 가급적 6주에서 8주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진령, 2012). 이는 집단 실시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집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사일정, 직장 업무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집단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박은혜, 2014), 자칫 집단원으로부터 집단상담을 끝까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박탈하게 된다. 아동 대상 긍정심리 집단상담(정일용, 2016)에서는 3~5주, 중학생 진로집단상담(조중현, 2013)에서는 6~8주, 고등학생 진로집단상담(강윤경, 2017)에서는 5~6주, 부부대상 집단상담(정관호, 2016)에서는 갈등부부 2주 이하, 다문화부부 3~5주, 일반부부 6~8주로 실시기간이 대상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과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운영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1회기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21분 이상, 51~100분, 101분~120분, 50분 이하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서, 1회기 시간은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회기 시간은 집단원이 집단 활동에 참여할 충분한 시간으로써, 집단의 역동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집단 회기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집단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집단 역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집단의 1회기 시간은 집단원이 자신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를 언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장선철과 문승태(2003), 조봉환과 임경희(2013), 강진령(2012)은 학년별로 요구되는 1회기 시간을 제시하였으며, 이장호(2005)는 학교 집단상담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의 길이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초등학생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최신영, 2013)에서는 60~90분 미만, 중학생 진로집단상담(조중현, 2013)에서는 90분~120분 이하, 고등학생 진로집단상담(강윤경, 2017)에서는 60~90분 미만, 대학생 및 성인 자기성장 집단상담(신정민, 2016)에서는

90분 이상으로 1회기 시간이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과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에 따라 1회기 시간의 구성도 유동적인 운영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1회기 시간에 대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추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주당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일(마라톤), 주3회, 주2회, 주1회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서, 주당 회기 수는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당 회기 수는 집단의 빈도로써, 일주일을 기준으로 몇 회기가 적당하다는 기준은 없지만, 집단원의 주의집중 시간의 길이에 따라 결정한다(강진령, 2011). 집단상담의 회기를 너무 자주 갖는 경우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회기의 간격이 너무 길면 다시 만났을 때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집단목적에 맞는 주당 회기 수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주당 회기 수는 집단의 유형과 집단원의 연령 및 정신기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일주일에 2~3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는 일주일에 1~2회가 적절하며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강진령, 2012). 초등학생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최신영, 2013)에서는 주2회, 아동 대상 자기성장 집단상담(신정민, 2016)에서 주1회, 청소년 대상 분노조절 집단상담(구슬이, 김진숙, 2017)에서는 주2회, 부부대상 집단상담(정관호, 2016)에서는 갈등부부일 때 주3회, 다문화부부일 때 주2회, 노인 대상 자아존중감, 우울집단상담에서는 주3회 이상(김신향, 2014)으로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주당 회기 수가 다르다. 이는 연구대상과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주당 회기 수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당 회기 수에 대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추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긴장, 스트레스 감소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효과크기가 가장 큰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삶의 질, 직무만족, 직무열의,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아실현, 자존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종속변인별로 제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21(이미현, 2010),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21(노인화, 2016),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0.92(왕은자 외, 2016)로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대처에 효과가 있으므로 본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종속변인에서도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종속변인 중 심리적 긴장의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0.297, 스트레스 감소의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0.039로 불안 감소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20(이안나, 2003),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06(김관우, 2011), 분노조절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0.72(구슬이, 김진숙, 2017), 우울감소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1.70(김수진, 2001),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전체 평균효과크

기가 0.85(박현경, 2014)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집단 참여자의 인지능력(김만지, 2000)과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의 구성에서 스트레스 대처 기술 훈련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김자현, 2017) 인지적, 정서적 효과크기가 낮은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이 비교적 인지·행동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인지·정서적 접근에 대한 균형있는 회기 구성과 심층적인 내용 구성으로 보완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결론을 종합하여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독서치료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을 참여인원수는 11~20명, 총 회기 수는 9~10회기, 운영기간은 9주 이상,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하여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한 122편 중에서 25편을 제외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사후검사만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추후검사는 실시하지 않아 효과의 지속성을 판별하기 어려웠다. 특히 결과변인으로 다룬 변인들에 대해 단기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실제로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사후검사 뿐만 아니라 추후검사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구조화된 집단 및 반구조화 집단의 성과연구들만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비구조화 집단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정적 문제점은 아니다(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조화 혹은 반구조화 집단 이외에 비구조화 집단도 자주 실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비구조화 집단의 성과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구조화 집단의 성과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자료가 축적 되는대로 메타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에서 활용한 메타분석방법은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양적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산출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계적인 수치로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질적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명료한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122편의 연구물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7편(30.3%), 청소년을 대상으로 29편(23.8%), 성인을 대상으로 42편(34.4%), 환자를 대상으로 14편(11.5%)이다. 이 중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으며, 청소년 가운데서도 중학생 9편, 고등학생 20편으로 고등학생에게 편중되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더 축적된 후 추가적인 메타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도서관 및 국립 중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국회도서관 및 국립 중앙도서관, 한국 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은 논문과 학술지, 미간행 연구논문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122편의 선행연구물은 학술지 17편, 석·박사학위논문 105편(학술지 게재 31편)이 분석 대상이 되었으므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가 부족하다. 향후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학술지를 중심으로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분석에서 중재변인 중 연속변수를 범주변수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범주를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분석은 실시하였지만, 측정 도구에 대해서는 차이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각각 실시되었던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제공했고, 향후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윤경 (201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령 (2011). 집단상담의 실제(2판). 서울: 학지사.
- 강진령 (2012). 집단상담과 치료. 서울: 학지사.
- 고경미 (2002). 학교관련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정도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용남 (2010).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2001년~2008년 석·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유민 (2013). 영재아 대상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영재아의 스트레스 인식 및 대처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슬이, 김진숙 (2017). 분노조절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55-77.
- 권경인, 조수연 (2013). 청소년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

- 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41-62.
-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연구. 서울: 학지사.
- 김계현 (2002). 교육상담에서의 효과성 연구와 메타분석. 아시아교육연구, 3(1), 131-155.
-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2002).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3(1), 47-62.
- 김관우 (2011).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김재현,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나운 (2015). 인지행동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이 신경언어장애자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원 (2013). 학업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과 학업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통합한 학업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놀이치료연구, 17(3), 129-149.
- 김만지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 (2016). 장애아 어머니 스트레스 대처자원 척도 개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화 (2011). 해외 여행객의 스트레스 측정 척도 개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욱 (2001). 한국 프로 골프선수의 스트레스 척도 개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1).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효과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향 (2014).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은 (2015). 한국판 역할스트레스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준 (2014).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 효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김진숙 (2015).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1-21.
- 김자현 (2017). 인지 행동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응급실 간호사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기분 상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09). 청소년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10). 초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 (2016).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춘연 (2011). 인지행동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인화 (2016).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성봉 (20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연구: 노후준비 및 직무만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은주 (2015). 감사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111-129.
- 박민희 (2008).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장애형제를 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2014). 의사소통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중기 (1998). 중학생의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용 (2000). 한국 스포츠 심판의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경 (2014).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치료 연구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숙, 박경연 (2008). 인지행동기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 및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5(3), 291-300.
- 박혜연 (2015).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효정 (2010).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숙 (1996). 사무직 여성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중재변인, 심리적 긴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정화 (200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철 (2010). 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정민 (2016).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구본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 189-225.
- 신현심 (2005).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초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운경 (2013).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일수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범현 (2015). 스트레스 탄력 지향성 척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승희 (2003).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를 위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승희, 전경선 (2015).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조현병 환자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23(4), 205-214.
- 양안숙 (2008).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염현경 (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오윤경 (2005). 고등학교 탁구선수의 운동스트레스 척도 개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병수 (2014). 한국형 마음챙김을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주의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 연구, 22(4), 231-240.
- 윤은진 (2004).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수지재접합 수술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남 (2007).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은자, 전민아, 홍희정 (2016).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5), 487-512.
- 이경옥 (2012). 초등학생 대상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순 (2015). 재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봉 (2004). 자기결정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 (2012).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 (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2010).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6).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웹기반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보 (2004). 레슬링 선수들의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 (2010). 스트레스 감소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 (2003). 인지행동 집단상담의 불안감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린 (2016). 보호처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2006).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복 (2012). 노인의 종교성과 삶의 질에 따른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 (2007).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폭식 경향이 있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서적 섭식 및 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15). 독서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200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장호, 김정희 (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 이종운 (2013). 대학도서관 사서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문 (2003).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적 사용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충동성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충현 (2014).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마이스터고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 (2017).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미 (2016). 성인대상 현실치료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철, 문승태 (2003). 상담심리학. 서울: 동문사.
- 전미영 (2013).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민아 (2014). ACT를 기반으로 한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상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은령 (2015).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서울벤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심 (2012).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관호 (2016).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일용 (2016).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15). 범이론적 모형을 적용한 골프 스트레스 척도 개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제영, 신인수 (2009). 미국 차터스쿨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1), 101-122.
- 조봉환, 임경희 (2013). 교사를 위한 생활지도와 학교상담.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조중현 (2013). 중학생 대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경아 (201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례 (2007).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이 통합교육 대상 초등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신영 (2013).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원 (2013).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태은주 (2015). 학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지연, 신성만 (2016).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191-216.
- 함진옥 (2017).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정옥 (2007). 지체부자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척도 개발 및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지영 (2017). 발표불안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경숙 (2001). 주의력 및 만족감 전략수업이 학습장애아동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 (1988). 자기표현 및 주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학생생활연구*, 6, 147-169.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동 (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nderson, C. R. (1976). Coping behaviors as intervening mechanisms in the inverted-U stress-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1), 30-34.
- Buckingham, J. C. (2000). *Encyclopedia of stress*(2). California: Academic pre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oper, H. M. (2010).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A step-by-step approach*. LA: Sage Publication.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Duval, S., & Tweedie, R. (2000). A nonparametric trim and fill method of accoun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5(449), 89-98.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4). Assessment of multidimensional coping: Task, emo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Psychological Assessment*, 6(1), 50-60.
- George, L. K., & Bearon, L. B. (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 NY; Human Sciences Press.
- Greenberg, K. R. (2003). *Group counseling in K-12 schools: A handbook for school counseling*. Boston, MA: Allyn and Bacon.
- Higgins, J., & Green, S. (Eds.) (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the cochrane collaboration*. Retrieved from www.cochrane-handbook.org.
- Hull, J. G., & Young, R. D. (1983).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uccess - failure as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in male social drink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097-1109.
- Koob, G., & Kreek, M. J. (2007). Stress, dysregulation of drug reward pathways, and the transition to drug depend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8), 1149-1159.
-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Liston, C., & Miller, M. M., & Goldwater, D. S., & Radley, J. J., & Rocher, A. B., Hof, P. R., Morrison, J. H., & McEwen, B. S. (2006). Stress-induced alterations in prefrontal cortical dendritic morphology predict selective impairments in perceptual attentional set-shifting. *The Journal of Neuroscience*, 26(30), 7870-7874.
- Mandler, G., & Watson, D. L. (1966). *Anxiety and interruption of behavior*. In C. D.pielberger(Ed), *Anxiety and behavior*. NY: Academic Press.
- Martin, A. J., & Marsh, H. W. (2009). Academic resilience and academic buoyancy: An encompassing multidimensional and hierarchical framing of concepts, causes, correlates, and cognate construct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353-370.

- Meichenbaum, D. (1985). *Stress inoculation training*. NY: Pergamon Press.
- Negru, O., & Baban, A. (2009). Positive development in school settings: School environment influences on perceived school adjustment in a Romanian adolescent sample. *Cognition, Brain, Behavior*, 13(3), 253-268.
- Park, C. L. (1998). Stress-related growth and thriving through coping: the roles of personality and cognitive processes. *Journal of Social Issues*. 54(2), 267-277.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Pelletier, C. L. (2004). The effect of music on decreasing arousal due to str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Music Therapy*, 41(3), 192-214.
- Selye, H. (1974). *The Stress of life*. NY: McGraw-Hill.
- Zeider, M., & Matthews, G. (2000).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In R. J. Stenberg(ed): *Handbook of intellig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Group Counseling Programs

Moon, Eun-J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tress coping group counseling programs in Korea by using meta-analysis. A total of 62 studies published from 1990 to 2017 were sele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total of 122 studies' effect sizes were calculated and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programs was 0.514, indicating a medium effect size. Second, effect sizes were compared in regard to moderator variables including program content, participant characteristics, various parameters of group operation, and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indicates programs were most effective when Bibliotherapy stress group counseling was used with the group members ranging from 11 to 20 persons for 9 to 10 sessions over 9 weeks period, focusing on self-esteem improvement as a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ogram implement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meta-analysis, stress coping group counseling program, effect size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안현진 금명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개인의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과 이 두 변인들 간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4개 고등학교 전체 학년 311명(남성 129명, 여성 182명)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관계공격성을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공격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각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 매개로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상담자들이 따돌림이나 뒷담화, 이간질 등으로 발생한 청소년들의 관계공격성 갈등을 다룰 때에는 그것이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에 기인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발생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내면화된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관계공격성

* 본 논문은 안현진(2017)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금명자, (38453)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850-6361, E-mail: mjkeum@daegu.ac.kr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이러한 특성은 폭력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우려를 가지고 여러 사회 정책과 교육, 심리 상담을 강화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신체·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따돌림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 손상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배제시키거나,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관계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라고 한다(Crick & Grotpeter, 1995).

그러나 관계공격성은 그것이 공격적이라고 해도 명세화 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관계공격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비신체적, 비물리적인 공격성을 의미한다.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고의적으로 절교하기, 이간질하기, 뒷담화하기,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등이 관계공격성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관계공격성을 처음 제안했던 Crick과 Grotpeter(1995)는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남성은 신체적, 언어적 형태로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지만, 여성은 관계를 손상시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관계공격성은 성별과 연령 등 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여성들이 보이는 공격성의 특징이 관계공격성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이경희, 오경자, 1998; Crick, Bigbee, & Howes, 1996), 남자들이 관계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Card, Stucky, Sawalani, & Little, 2008), 성별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이서란, 2013; Loukas, Paulos, & Robinson, 2005)도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공격성은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보고된다(김은진, 2016; 전연안, 2016; 최두환, 2013). 한편 Marsee와 Kimonis와 Frick(2004)은 관계공격성을 주도적 관계공격성과 반응적 관계공격성으로 구분하여 관계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다. 주도적 관계공격성은 관계를 매개로 하는 공격적 행동으로, 예를 들면 친구에게 비밀을 폭로하여 친구를 위협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폭로하거나 대놓고 그 사람을 놀리는 등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특정 관계 목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공격적 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반응적 관계공격성은 특정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고 적대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가 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흠을 보거나 하는 간접적인 공격행동을 의미한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쾌한 또래관계 행동들을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행동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 내면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Mathieson & Crick, 2010), 특히 우울, 불안, 외로움, 고독감(Dahlen, Czar, prather, & Dyess, 2013)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 자기에, 낮은 자존감, 내면화된 수치심(송혜란, 2013; 임정우, 2015; 최지영, 배라영, 2014) 등과 같이 부정적 정서를 촉발할 수 있는 개인적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들 변인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그 욕구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취시키는 행동으로 연결하기 어렵게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은 초등학교, 청소년, 대학생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들에게 나타나는 공격성 혹은 관계공격성을 설명하는 성격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들의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기제 즉 무슨 변인을 매개로 하여 관계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지에 관심을 갖는다.

수치심(Shame)은 덮개를 덮다, 숨기다, 가려두다 라는 뜻으로 독일어 'skem/skam'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수치심을 느끼는 자신을 숨기거나 사라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자신을 숨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Harper & Hoopes, 1990). 일찍이 Freud(1905)는 수치심을 성적인 주의를 끌고자 하는 개인의 노출 본능에 대한 방어로 보았고, 이를 Erickson(1971)은 자신의 심리사회발달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서 생애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지나친 통제를 받게 되면 자율성에 손상을 받게 되어 수치심을 갖는다고 소개하였다. Lewis(1971)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고 수치심을 자기 전체에게 문제가 되는 경험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정서 반응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Gross와 Gillbert와 Allan(1994)은 수치심을 상태 수치심과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상태 수치심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수치심으로서 그 상황이 종료되면 사라지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존재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 열등감과 부족감,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정서로(Cook, 1991) 전반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며, 이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과 자아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방어하기 위해 회피하거나 자신에게 향했던 적대감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Lewis, 1971). Nathanson(1992)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절하, 타인에게 내가 드러나기 전에 도망가야 한다는 충동성,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Harper & Hoopes, 1990), 수치심에 동반되는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 '부끄러운 것은 내가 아닌 너'라는 대치감정을 일으켜 타인에게 공격성을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한다(Nathanson, 1994). 선행연구에 의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회피와 억제, 투사와 수동공격과 같은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이지연, 2008).

그렇다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왜 관계공격성을 보이는가? Harper와 Hoopes(1990)

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수치스러운 자기 결점을 숨기고자 타인을 먼저 공격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Tangney, Miller, Flicker와 Barlow(1996)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직접적인 공격성보다 타인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방어적으로 공격하되, 직접적인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보여 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공격성을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하게 보여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된다(최정훈, 이정윤, 199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벽에 가까운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apee & Heimberg, 1997). 수치심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릴 것으로 여기는 타인평가에 대한 지각과 연결되어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Harder & Zalama, 1990). 이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부족하고 열등한 모습이 타인에게 보여 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김민경, 현명호, 2013).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Gross, Gilbert & Allan, 1994),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김소연, 2015; 이지우, 2017).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Loudin, Loukas와 Robinson(2003)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관계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공격성은 직접 마주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익명성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제3자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의 공격성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Marsee, Weems와 Taylor(2008)도 사회평가 불안이 반응적 관계공격성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한영경과 김은정(2011)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관계공격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김경아(2014)도 부모의 통제로 인한 사회 평가 불안과 관계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투사, 회피, 수동공격과 같은 방어적 공격행동을 보이는데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높으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가 잘 알지 못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공격성을 보일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4개의 고등학교 남·여 고등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들에서 부모동의를 받지 않은 177명의 자료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64부를 제외하고 총 31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11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129명(41.5%), 여학생은 182명(58.5%)이었으며, 1학년은 42.8%, 2학년은 31.8%, 3학년은 25.4%로 여학생과 1학년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16.72(SD=.88)였다.

연구절차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4개의 고등학교의 학교장 및 부장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였고, 학생들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상 학교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Cook(2001)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하였으며, 24개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들은 부적절감, 공허감, 차기처벌 및 실수불안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부적절감 .90, 공허감 .86, 차기처벌 .79, 실수불안 .77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 30문항을 Leary(1983)가 전체 척도 점수와 상관이 .50이상인 문항 12개를

뽑아 단축형으로 재구성한 것을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 척도이며 각 문항들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4개의 역채점 문항이 있으며,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관계공격성 척도

관계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또래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 중 관계공격성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갈등척도는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개발하였고 한영경(2008)이 번안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Marsee 등(2004)의 PCS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명칭을 또래갈등척도로 명명하였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공격성 등 두 개의 하위척도 각각 20문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때때로 그 사람에게 대해 뒷말을 한다.',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등은 반응적 관계공격성에 포함된 문항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을 때, 보통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등은 주도적 관계공격성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관계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한영경(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관계공격성 전체는 .88로 보고되었으며, 주도적 관계공격성은 .76, 반응적 관계공격성은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관계공격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주도적 관계공격성은 .87, 반응적 관계공격성은 .8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 9.4판과 Mplus 6.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와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Mplus 6.1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사용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고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결 과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평균은 1.99, 표준편차는 .6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88, 표준편차는 .76이며, 관계공격성의 평균은 1.56, 표준편차는 .55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공격성은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두 변인들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Curran, West와 Finch(1996)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변인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들이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r=.64, p<.01$), 관계공격성($r=.31, p<.01$)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공격성도 정적상관을 나타냈다($r=.33, p<.01$).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관계공격성
평균	1.99	2.88	1.56
표준편차	.69	.76	.55
최소값	1.00	1.17	1.00
최대값	4.75	4.75	3.85
왜도	.909	.229	1.692
첨도	.706	-.446	2.282
내면화된 수치심	1.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64**	1.00	
관계공격성	.31**	.33**	1.00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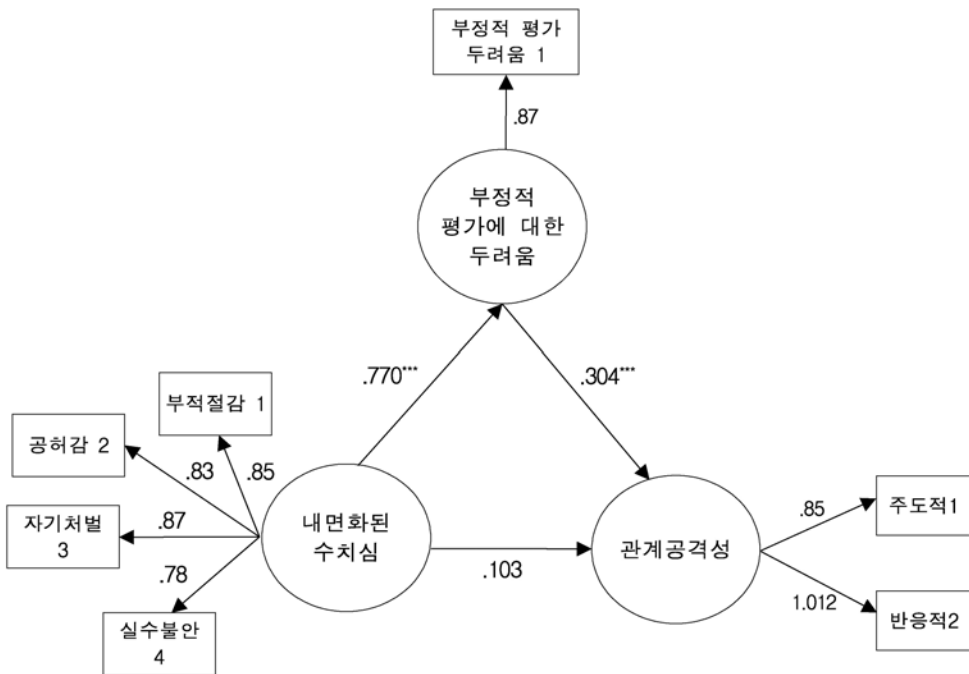
매개효과 검증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매개모형 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

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는 .960, TLI는 .923으로 나타나 .90이상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SRMR이 .08이하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RMSEA는 .131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 지수는 아니나 CFI와 TLI 적합도 값이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어 연구모형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beta=.770,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 매개로 하여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SRMR
연구모형	69.752	11	.960	.923	.131	.036



*** $p<.001$

[그림 1]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모형 : 표준화 경로계수

논 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어 이를 국가에서 관리하고자 관련법이 강화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이 학교 Wee 클래스와 센터,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이나 다양한 관리 방법들이 제시되는 폭력들은 주로 밖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은밀하고 간접적이고 비신체적인 폭력인 관계 공격적 행동들은 학교나 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또한 이들 관계적 폭력은 가해자들이나 피해자들,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들에게도 폭력으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호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친구관계에서의 따돌림, 은따, 나쁜 소식 퍼뜨리기와 같은 관계 문제로 교묘하면서도 비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 폭력 문제가 다수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분명하게 갈등을 조장하지만 관리되기 어려운 관계공격성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공격성에 취약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확인하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같은 성격은 변화하기 어렵겠지만 상담에서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매개변인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기대하였듯이 내면화된 수치심은 관계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1, p < .01$)을 나타내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진, 2017; 송혜란, 2014; 임정우, 2015)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몇몇의 연구들(김성주, 이영순, 2015; 김은진, 2017; 최두환, 2013)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관계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은 생애초기에 형성된 성격특성으로 다른 어떤 성격특성들에 의해 쉽게 형성되거나 유동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공격성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발달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통제나 무관심, 유기, 학대 등이 자신의 부족함에 기인하였다는 잘못된 해석에 의해 생애 초기에서부터 형성된 부정적 정서의 성격이다. 그래서 Cook(1991)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열등감과 부족감, 무가치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방어하기 위해 쉽게 타인에게 투사하거나(Nathanson, 1992) 먼저 공격하기도 한다(Harper & Hoopes, 1990).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은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이나 발표불안의 원인변인(김민경, 현명호, 2013; 이지우, 2017)이나 관계공격성에 대한 원인변인이나 중

재변인(송혜란, 2013)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이 매개하여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수치심에 의한 방어적 공격성은 꼭 관계공격성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유은영, 2012)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공격성은 공격행동을 하는 자신도 공격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적으로 공격행동이라고 평가받지 않는 공격 행동이다. 관계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상대를 공격하는 행동이었지만 자신이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예상할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영경과 김은정(2011)은 사회평가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관계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사회평가불안이 반응적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주도적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관계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공격성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불안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들이 관계공격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며(김소연, 2015; 이지우, 201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공격성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한영경, 김은정, 2011; 한유진, 2015; Loudin, Loukas & Robinson, 2003).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세 변인들의 관계성을 따로 따로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관계공격성 등 이들 세 개의 변인들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관계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정적 감정을 타인을 공격해서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외현적인 공격성을 보였을 때 타인으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의 관계공격성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공격적이기 보다는 내면의 수치심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다시 말해 관계공격성을 보여 친구를 곤경에 빠뜨리는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동기는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 학교의 Wee 센터나 클래스, 지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청소년상담 현장의 전문 상담자에게 상담 접근방법이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성격으로 청소년 내담자가 이를 인식하기까지에는 시간이나 노력이 요구된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가족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수차례 다루어져야 하고, 청소년 내담자에 따라서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수준에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단기상담이 요구되는 청소년 상담기관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평가와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위지원(2014)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보이는 분노표현 방식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한다고 하였는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연구의 일반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하되, 보다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통해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학년에 따른 차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갖는 한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축소, 과장 왜곡 등의 방어적 태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공격성을 비롯한 내면화된 수치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문항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응답의 정확성을 위해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RMSEA가 .08이하 이어야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131로 나타나 미치지 못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비교적 양호하여 본 모형을 수용하였지만 이 부분은 연구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공격성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외에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공격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외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변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매개 혹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아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평가불안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61-176.
- 김성주, 이영순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16(1), 199-216.
- 김소연 (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진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생의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란 (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공격성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증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지원 (2014).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영 (2012).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통제력, 공격성 및 증독가능성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오경자 (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173-187.
- 이서란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 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51-264.
- 이지연 (2008). 상담일반: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이지우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우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매개변인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안 (2016). 성인 초기 여성 직장인의 성역할갈등과 관계공격성 간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두환 (2013).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공격성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훈, 이정운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및 심리치료, 6(1), 21-47.
- 최지영, 배라영 (2014). 관계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3-202.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경, 김은정 (2011). 초기청소년기 관계공격성 하위유형의 특성 탐색: 사회평가불안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985-1002.
- 한유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 M., & Little, T. D. (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nnec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5), 1185-1229.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Cook, D. R. (2001). *International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Bigbee, M. A., & Howes,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How do I hurt thee? Let me count the ways. *Child development*, 67(3), 1003-101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hlen, E. R., Czar, K. A., Prather, E., & Dyess, C. (2013).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2), 140-154.
- Erickson, E. H. (1971). *Autonomy v. shame and doubt*. In H. Morris (Ed.), *Guilt and shame* (pp.155-158).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reud, S. (1905).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Se, 7, 125-243.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729-745.
- Harper, J. M., & Hoopes, M. H. (1990). *Uncovering shame: An approach integrating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systems*. WW Norton & Co.
- Learl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3), 371-375.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 430-439.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measure*.
- Marsee, M. A., Weems, C. F., & Taylor, L. K. (2008).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nxiety in youth: A look at aggressive subtypes, gender,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1), 154-168.
- Mathieson, L. C., & Crick, N. R. (2010). Reactive and proactive subtype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 Links to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39(4), 601-611.
- Nathanson, D. L. (1992). *Shame &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Nathanson, D. L. (1994). *Shame and pride : Affect, sex, and the birth of the self*. New York: Norton & Company.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1269.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The Influence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of You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 Hyun-Jin Keum, Myoung-Ja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the association of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relational aggression. 311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completed 3 scales - Internalized Shame Scale,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Peer Conflict Sca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nternalized sham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al aggress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ach.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al aggression. Lastly the full mediating effect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the influence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the implication for school counseling that reducing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s more useful than dealing with the internalized shame in counseling ses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 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lized sham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Relational aggression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선혜민 조은희 박진희 양정하 최지이 신현주 천성문*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 경남지역 소재 남녀 고등학생 784명을 대상으로 충동성 척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청소년 도박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녀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충동성과 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행동과 충동성 및 비합리적 신념은 남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충동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도 남녀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남자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충동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충동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녀 고등학생은 충동성이 강하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강할수록 도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충동성이 높아도 도박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행동, 청소년, 성차

† 교신저자: 천성문, 부경대학교 평생교육 상담학과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향파관 506 Tel. 051) 629-5511, E-mail. j2009@pknu.ac.kr

서 론

도박중독의 일상적인 의미는 도박행위에 과도하고 지나치게 빠져서 생활의 균형이 깨어질 정도로 탐닉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가족의 안위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져든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나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김교현, 조성겸, 2009).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는 1980년 DSM-III에 처음으로 병적도박을 충동조절장애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며 병적인 도박행동을 정신과적 문제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병적 도박에서 ‘병적’의 용어 문제로 인해 DSM-5(APA, 2013)에서는 물질 사용 및 중독 장애에 포함되면서 도박중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도박중독의 문제는 지금까지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발생되기 어렵다고 보고 성인 중심의 예방과 치료가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이러한 관점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인터넷 도박게임을 알게 모르게 생활 주변에서 접하고 있지만 그 일이 도박인지 놀이인지, 여가활동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이동준, 2007).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10대 및 20대의 문제성 도박자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권순균, 2017). 연구 대상자의 65.3%가 초등학교시기에 도박행동을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나(김현주, 2009), 고등학생의 77.9%, 중·고등학생의 82.3%가 도박경험이 있다(장정연, 2011b)고 하는 등 최근 선행연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도박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박문제센터(2015)에 의하면, 중·고등학생(고3 제외) 가운데 약 3만명(1.1%) 가량이 도박에서의 문제군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도박문제 수준은 심각하여 만2세~만15세 청소년의 문제군 비율이 0.9%인 반면, 만 16세~만18세 청소년은 1.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성인의 도박 경험률인 1.5%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문제성 도박을 하게 되는 성인들의 도박 시작 연령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봤을 때,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는 도박행동이 미래 문제성 도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성을 예기하고 있다 국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문제성 도박을 하는 성인의 연령대가 단순한 사교성 도박을 하는 성인들에 비해서는 더 낮은 연령대이고 청소년기 이전에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Ladouceur, Dube & Bujold, 1994; Gupta & Derevensky, 1997, 1998b; Wynne, Smith, & Jacobs, 1996). 국내의 한 연구(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에서는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대는 15세 이전이라고 하였으며, 20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는 약 69%라고 하였다. 또한 15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한 도박중독자를 성별

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남자가 약21%, 여자가 약7%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5세 이전의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도박성 게임을 더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사교로 시작한 도박이, 문제성 및 병적 도박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성 도박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성인기까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홍영오(2015)는 청소년 시기의 인터넷 도박으로 학교생활의 부적응 뿐 아니라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하여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도박 사건 관련 10대 피의자 수가 2014년에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에 34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도박자금으로 사체를 쓰게 되어 2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출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진달래, 2017.03.30). 이렇듯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비행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아직 신경생물학적으로 성숙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자제력을 쉽게 상실하게 되어 중독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흥표(2002)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경험은 도박중독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도박행동이 증가할수록 약물남용, 폭력, 무단결석, 비행행동이 증가하고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 시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에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이 고려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독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도박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성격요인은 충동성(심수현, 2014)이었으며, 도박행동의 예측요인으로 청소년 초기의 충동성이 지목되었다(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소영, 2011). 충동성에 대해 Eysenck와 Eysenck(1985)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거나 위협을 무릅쓰는 행동을 하는 성격특질이라고 설명하였다. Patton과 Barratt(1995)은 충동성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빠르고 무계획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라 하였고 Gray(1987)은 위협이나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지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성격차원이라 하는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충동성은 반응시간이 빠르고 행동에 대한 제지를 잘 하지 못하고 미래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능력의 결여를 칭한다고 볼 수 있다(Barratt & Patton, 1983). 국내 선행연구 중 장정연(2011b)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도박게임의 예측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충동성이라고 했으며 이 예측변인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은 문제성 도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청소년

의 도박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남전아, 채규만, 2012), 청소년의 충동성은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행동에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권준근, 2011; 양정남 외, 2011; 연미영, 2006). 즉, 도박충동이 발생할 때 충동성이 높은 수준의 사람은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에 비해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도박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도박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서 중독에 이르는 일이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이홍표, 2003).

또한 도박중독자들은 높은 충동성 등 도박에 취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방식으로 귀인하는 사고패턴을 가지고 있다(Ladouceur & Walker, 1996;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Toneatto, 1999; 이인혜, 2004 재인용).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게임에 있어 인지적 오류를 빈번하게 경험하는데 이는 무선성(randomness)에 대한 잘못된 지각에 기인한다. 도박자들은 과거에 많이 잃었을수록 앞으로는 잃을 경우가 적고 딸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한다. 도박판의 결과가 무선 작동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결과에 따라 다음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Ladouceur & Walker, 1996; 이홍표, 2003 재인용). 이러한 도박자들이 도박과정 혹은 도박 결과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라고 한다(이홍표, 2002).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도박을 하면 할수록 강하게 작용하여 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따라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교성 도박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문제성 도박자나 병적 도박자들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이들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이홍표, 2003).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도박 행동 횟수가 많아지고 문제성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은 점점 비합리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양정남 외, 2011). 장정연(2011b)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도박 신념이 문제성(도박)게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보다 문제성(도박)게임을 할 확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해경, 임동훈과 김혜원(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현재 도박행동은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장래도박 의도와도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면 미래에 실제로 도박을 할 의도를 갖게 되고 이는 곧 도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충동적인 청소년일수록 도박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한다. 김태훈과 노태천(2002)은 인지양식인 사려성과 충동성이 기술적 문제해결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Kagan(1966)의 문제해결 4단계(문제의 이해, 가설의 설정, 가설의 적용, 해결의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여 인지양식(사려성-충동성)에 따라 기술적 문제해결에 있어 문제해결 전략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사려성 인지양식의 사람에 비해 충동성 인지양식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응시간이 짧은 만큼 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Baron과 Gaskins(1986)도 충동적 사고성향이 유추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반응시간 및 오답률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보았으며 교사들에 의해서 충동적이라고 평정된 학생들이 유추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빨리 반응하고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안은아, 2008). 즉,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과 관련하여 무선성에 대한 인지적 오류 등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충동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인지적 과정의 오류를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음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충동성이 도박과 관련된 인지적 오류와 밀접한 상관을 가지면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확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형성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도박중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터넷 도박자의 대다수가 남자이지만 여자 인터넷 도박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Morahan-Martin, 1998), 장정연(2011b)과 이해경 등(2014)은 청소년들의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성별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해경 등(201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 도박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충동성, 스트레스, 장래도박의도, 부애착, 모애착,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과 갖는 관련성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성별이 현재 도박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남자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현재 도박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권준근(2011)도 도박행동에서는 남녀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김영경(2012)의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남녀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를 찾기 어려우나 인터넷 중독, 비합리적 도박신념, 미래도박가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점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도박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인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의 충동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도박행동을 강화시키거나 도박행동으로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부재는 도박행동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치료적 개입방법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충동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도박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도박행동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여 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이 남녀 청소년의 도박중독 문제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와 동시에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경유하여 도박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중독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청소년의 충동성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청소년의 충동성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 소재 남녀 고등학생 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77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52.6%(N=410)는 여학생이었고, 47.4%(N=369)는 남학생이었다.

측정도구

충동성 척도(BIS-11)

이 도구는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ratt(1959)이 개발한 30문항의 Barratt Impulsiveness Scale를 이현수(1994)가 번안·수정한 한국어판 충동성 척도(BIS-11)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어판으로 수정하면서 총 23개 문항으로 축소되었고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검사 계발 시 Cronbach's α 값은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번 문항의 경우 충동성에 대한 설명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이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척도(IBQ)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Steenbergh 등(1998)의 The Gamblers' Beliefs Questionnaire 및 Langer의 통제력 착각척도를 번안하여 이홍표(2002)가 타당화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홍표(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7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행동 척도(SOGs-RA)

이 도구는 청소년 사행성 게임행동의 빈도 및 문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용

SOGS(South Oaks Gambling Screen)를 토대로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거쳐 Winters 등(1993)이 개발한 SOGS-RA 척도를 장정연(2011a)이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게임행동을 선별하는 척도인 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행동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장정연(2011a)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6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 통계, Cronbach's α 값 및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분석단계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분석단계 1단계에서는 예측변인(충동성)이 준거변인(도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충동성)이 매개변인(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해야 한다.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비해 예측변인과 매개변인을 같은 방정식에 투입되었을 때의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감소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 매개변인을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사이에 투입한 후,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부분매개를, 완전히 유의성이 사라진다면 완전매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자 고등학생의 도박행동은 충동성($r=.14, p<.01$)과 비합리적 신념($r=.2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충동성은 비합리적 도박신념($r=.1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의 도박행동도 충동성($r=.19, p<.001$)과 비합리적 도박신념($r=.1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충동성은 비합리적 도박신념($r=.10,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남학생 N=369, 여학생 N=410)

변인	1	2	3
1. 충동성	-	.10*	.19***
2. 비합리적 도박신념	.18**	-	.16**
3. 도박행동	.14**	.29***	-
M	48.75 (49.72)	62.24 (51.85)	.77 (.21)
SD	8.27 (8.42)	29.70 (22.06)	2.05 (.79)

주 1. 대각선 아래 남자 고등학생, 대각선 위: 여자 고등학생

2. M, SD에서 여자 고등학생의 수치는 괄호로 제시

*** $p < .001$, ** $p < .01$, * $p < .05$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검증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분석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충동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도박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도박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충동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도박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충동성에서 도박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모든 단계의 검증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를 성별에 따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 고등학생의 충동성은 비합리적 도박신념($F=12.28, p<.01$) 및 도박행동($F=7.26,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남자 고등학생의 도박행동($\beta=.28, t=5.59,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통제했을 때, 충동성($\beta=.09, t=1.18, ns$)은 1단계에서의 충동성($\beta=.14, t=2.69, p<.01$)보다 도박행동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전체 설명력은 8%가 증가하였다.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기존 매개효과에 따르게 될 수 있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충동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거쳐 도박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0126, 95\% \text{ Bias-corrected CI}=.0046\sim.026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통제되었을 때 남자 고등학생의 충동성의 효과크기($\beta=.09,$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t=1.18$, ns)가 현저히 감소하여 도박행동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행동의 중다회귀분석

성별	단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R2	F	B	SE	β	t	
남	1	도박행동	충동성	.02	7.26**	.03	.01	.14	2.69**	
	2	비합리적 도박신념	충동성	.03	12.28**	.65	.18	.18	3.50**	
	3	도박행동	충동성	.10	19.54***	.02	.01	.09	1.18	
			비합리적 도박신념			.02	.00	.28	5.59***	
	$\Delta R2 = .08$									
	여	1	도박행동	충동성	.04	15.00***	.02	.01	.19	3.87***
2		비합리적 도박신념	충동성	.01	3.95*	.26	.13	.10	1.99*	
3		도박행동	충동성	.06	11.90***	.02	.01	.17	3.59***	
			비합리적 도박신념			.01	.00	.14	2.92*	
$\Delta R2 = .02$										

*** $p<.001$, ** $p<.01$, * $p<.05$

<표 3> 남자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 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부트스트래핑 분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	상한
			충동성 → 비합리적 도박신념 → 도박행동	.0126

여자 고등학생의 충동성은 비합리적 도박신념($F=3.95$, $p<.05$) 및 도박행동($F=15.00$,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여자 고등학생의 도박행동($\beta=.14$, $t=2.92$, $p<.05$)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통제했을 때 충동성($\beta=.17$, $t=3.59$, $p<.001$)은 1단계에서의 충동성($\beta=.19$, $t=3.87$, $p<.001$)보다 도박행동에 대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전체 설명력은 2%가 증가하였다.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자 고등학생의 충동성이 비합리적 도

박신념을 거쳐 도박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0013$, 95% Bias-corrected CI=.0001~.004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통제되었을 때 여자 고등학생의 충동성($\beta=.17$, $t=3.59$, $p<.001$)이 도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여자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 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부트스트래핑 분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95% Biased-corrected CI)	
			하한	상한
충동성 → 비합리적 도박신념 → 도박행동	.0013	.0010	.0001	.004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충동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는 하지만 여전히 충동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존재하는 부분매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고등학생 모두에서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행동 간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성이 높으면 도박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이는 충동성과 도박행동 간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권준균, 2011; 양정남 외, 2011; 연미영, 2006; 이해경 외, 2014). 또한 충동성은 비합리적 도박신념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비합리적 도박신념도 도박행동과 정적인 상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이 강하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강할수록 도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권준균, 2011; 양정남 외, 2011; 연미영, 2006; 이해경 외, 2014). 이는 도박행동에 있어 충동성,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충동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남녀 고등학생 모두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통제했을 때 충동성의 효과크기가 감소하여 도박행동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완전 매개 효과가 있으며,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부분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도박의 취약한 성격인 높은 충동성과 도박 결과에 대해 갖게 되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나 사고의 도박신념이 있을 때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이인혜, 2004; 이흥표, 2003; Ladouceur & Walker, 1996;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Toneatto, 1999). 또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청소년의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영경, 2012; 이해경 외 2014)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충동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았으나 이들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충동성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통해 도박행동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면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일지라도 도박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여학생의 경우에도 도박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도박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에 비해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의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 충동성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의 주요 설명변인인데 반해 여자 중학생은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모 애착이 주요 설명변인으로 여겨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임동훈, 김혜원, 2012). 이는 여자 고등학생의 도박행동은 충동성이나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외의 다른 변인이 영향을 주고 있음이 시사된다. 즉, 여자 청소년의 도박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자 청소년과는 다른 치료적 개입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의 도박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수정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충동성은 성격적인 측면으로 상담을 통해 쉽게 변화하기 어렵는데 반해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에 노출되면서 가지게 되며(김소희, 서경현, 2016) 도박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및 가족의 도박행동,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양정남 외, 2011; 연미영, 2006).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면 교육이나 상담의 방향을 수립하기 쉬운 것이며 효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도박과 관련되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으로 게임을 경험한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충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도박행동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충동성은 있지만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

고 개입한다면 도박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즉, 남자 고등학생에 관한 상담 개입 전략을 수립할 경우 남자 고등학생의 충동성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도 남자 고등학생들과 유사한 결과로 충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도박행동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강화는 되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도박행동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도박과 관련된 경험이 남학생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도박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외의 물리적 환경이나 애착 등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성장기 도박 노출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한다(김소희, 서경현, 2016). 즉, 청소년이 도박환경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환경의 영향을 줄이는 노력 또는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이 도박에 접할 수 없는 환경(가정, 학교, 정책)을 조성하거나 도박문제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가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바탕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시기의 충동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높은 청소년의 충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가정 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적인 관련성이 높은 도박의 특성상 청소년의 용돈관리 및 돈에 대한 개념을 가정 내에서 잘 훈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박문제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가족의 대처를 확립하고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하여 학교 환경의 변화와 인식 증진이 요구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는 지역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 교육은 일부 지역 또는 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폐쇄적인 학교문화로 인해 도박문제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학생의 책임으로만 덮고 넘기려는 경향이 만연한 편이다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사가 위험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부산 및 경남지역으로 제한되어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도박에 관한 신념의 형성이 성장기에 노출된 환경이나 거주지역에 의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도박에 대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특징에 대한 구체적 설문을 포함

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을 추가하여 도박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의 형성 경로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해 충동성 도박행동, 비합리적 도박신념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문제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7)에서 제시한 청소년 도박문제에서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토대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과정의 매개 및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통계적 자료처리 과정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이 아닌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끝으로, 향후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상담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들을 통해 상담 개입 프로토콜 개발 연구 등이 이루어 지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도박행동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데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는 '성별'에 초점을 두고 남·여로 구분하여 살펴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성별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로 드러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도박행동에 관한 개입 접근에 있어 초점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교라는 학교 현장에 있는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학교 현장에서 도박과 관련되어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군 (2007).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와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19.
- 권순군 (2017).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연구동향 분석.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준근 (2011).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게임 행동과 정책적 제안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조성겸 (2009). 한국 도박중독 유병률 추정의 쟁점과 대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481-495.
- 김소희, 서경현 (2016). 성장기 도박에 대한 노출, BAS/BIS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대학생의 도박중독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3), 439-460.
- 김영경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현재 도박행동과 미래 도박행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75-195.

- 김태훈, 노태천 (2002).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 기술적 문제해결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학 회지, 2(2), 111-125.
- 김현주 (2009). 청소년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남전아, 채규만 (2012). 스트레스와 청소년 도박행동의 관계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모 애착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643-957.
- 심수현 (2014). 도박중독과 성격. 연세상담코칭연구, 2, 37-59.
- 안은아 (2008).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충동성 및 위축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소영 (2011). 청소년의 우울, 충동성,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357-383.
- 연미영 (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14.
- 이동준 (2007). 경주스포츠 참가자의 도박동기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중독성향 및 사회적 응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심리학 회지: 건강, 8(2), 399-414.
- 이인혜 (2004). 카지노게임 선호유형, 성별, 도박심각성과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 회지: 건강, 9(2), 351-378.
- 이해경, 임동훈, 김혜원 (2014). 남녀 청소년들의 도박행동에 대한 충동성 스트레스, 도박신념 및 부모애착의 영향력 차이 청소년복지연구, 16(3), 257-285.
- 이현수 (1994). 충동성의 유형. 인문학연구, 21, 93-104.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이홍표 (2003).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병적 도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415-434.
- 임동훈, 김혜원 (2012). 충동성, 스트레스 정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부모 애착이 남녀 중학생 들의 도박 경험 및 미래 도박 가능성과 갖는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4-184.
- 장정연 (2011a). 청소년 사행성 게임행동에 관한 연구: 선별도구(SOGS-RA) 평가와 영향요인.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정연 (2011b). 청소년 사행성 게임행동의 유형과 영향요인 정신보건 사회사업, 37, 348-381.
- 진달래 (2017.03.30). 온라인 도박 '사다리'에 2000만원 빚진 고교생.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32716265729398&type=1>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 도박문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도박예방 모델 개발 요약보고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홍영오 (2015). 도박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 KIC ISSUE PAPER-한국형사정 책연구원, 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 C. ; U. S. APA.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rd ed.* Washington, D. C. ; U. S. APA.
- Baron, J. B., Badgio, P.C., & Gaskins, I. W. (1986). Cognitive style and its improvement; A normative approach. In R. J. Sternberg(ed.), *Advancer in the psychology of human intelligence*. 3.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ron, R. M., & Kee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ratt, E. S. (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 191-198.
- Barratt, E. S.,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Zuckerman(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New Jersey ; Earlbau.
- Eysenck, S. B. G., Eysenck, H. J., & Barrett, P. (1985). *A revised version of the psychoticism scale Department of Psychology, Institute of Psychiatry, De Crespigny Park, Denmark Hill, London SE58AF, England, UK*
- Gray, J. A. (1987).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pta, R., & Derevensky, J. L. (1997) Familial and social influences in juvenile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3, 179-192.
- Gupta, R., & Derevensky, J. L.(1998b)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A prevalence study and examination of correlates Associated with problem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4(4), 319-345.
- Kagan, J. (1966). Development Studies of Reflection and Analysis. In A. H. Kidd, & J. L.

- Rivore, eds., *Perceptual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douceur, R., Dube, D., & Bujold, A. (1994). Gambling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0(4), 363-370.
- Ladouceur, R., Walker, R. (1996).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M Salkovskis(Ed), *Trend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pp. 89-120). NY : John Wiley & Sons Ltd.
- Morahan-Martin J. (1998). Women and girls last: Females and the interne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et Research and Information for Social Scientist Conference*, University of Bristol, UK.
- National Research Council 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Pathological Gambling. (1999).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Review*. National Academy Science.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 (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 768-77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enbergh, T. A., Meyers, A. W., May, R. K., & Whelan, J. P. (1998). *A Self-report Measure of Gambler's Maladaptive Beliefs : Initial Psychometric Properties*. Poster presented at the 32n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in Washington. DC.
- Toneatto, T. (1999). Cognitive psycho-pathology of problem gambling. *Substance Use and Misuse*, 34, 1593-1604.
- Wynne, H. J., Smith, G. J., & Jacobs, D. F. (1996) Adolescent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in Alberta, Alberta, Canada: 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Gambling Behaviors of High School Boys and Girls.

Sun, Hye-Min Cho, Eun-Hi Park, Jin-Hee Yang, Jeong-Ha Choe, Ji-Yi Sin, Hyon-Ju
Kyungsoong University

Cheon, Seong-Moon
Bukyou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mpulsivity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n gambling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784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and Kyungnam area were surveyed using the impulsiveness scale,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 scale, and the youth gambling behavior scale.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main variables on the basis of the collected data. A median model 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if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gambling behavior. The main result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gambling behaviors, impulsiveness and irrational beliefs were statistically correlated. As were impulsiveness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Secondly,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f high school boys showed a full mediation effect on impulsive gambling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impulsive gambling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igher impulsiveness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can lead to gambling activity. Even if the impulsiveness remains the same, a reduction in irrational gambling beliefs can lead to a reduction in gambling activity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impulsiveness, irrational gambling belief, gambling behavior, adolescence, sexuality

서 론

최근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인해 청소년이 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성인기의 시작이 미루어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기연장과 취업을 통해 성인으로 자립하는 연령이 종전의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이후로 늦추어짐으로써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중간시기를 뜻하는 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준비하는 후기청소년기는 성인이나 청소년과는 다른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Erikson, 1950, 1968). 이 시기 청소년은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흥미와 적성을 개발하고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Arnett, 2000, 2015).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화됨으로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준비하는 과정도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후기청소년은 19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사회적·인지적·정서적 발달 등 인간의 발달적 특성과 공교육 등의 사회제도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을 초기 청소년(9~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소년(19~24세)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기본법의 지원대상인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인데, 이는 기존 청소년정책이 주로 13세에서 18세 연령대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017).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발표된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후기청소년(또는 청년)의 자립 등 후기청소년에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발전적이다.

후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업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전이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발달단계적 과업 수행과 함께 새로운 환경, 학업,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현실적 차원에서의 적응과 대처가 필요하다. 즉, 고등학교 때까지의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정익중 외, 2017). 더욱이 우리나라 후기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력, 흥미, 적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기 많은 발달과업을 유예한 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입학 후에야 비로소 진로문제로 인한 좌절과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갈등과 혼란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후기청소년들은 청소년과 성인 사이 중간에 낀 느낌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탐색하며, 불안정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Arnett, 2015). 결국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으로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됨으로써 성인기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후기청소년기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탄생하기 위해 성인기 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화된 청년 실업, 고용 불안의 문제로 인해 취업스트레스 관련 불안 및 우울 등 부적응 문제로 고통을 받아(전귀연, 이성기,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자아정체성을 위한 탐색의 시간은 미루어진다. 극심한 취업 경쟁 아래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갖고 취업기회와 가능성을 위해 졸업을 늦추기도 하며,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이라는 목표 외에 다른 모든 것들과 단절되는 삶을 선택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88만원 세대’,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삼포 세대’, ‘N포 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후기청소년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생계형 아르바이트, 공부,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은 우울감 및 자살충동을 호소하고(YTN, 2016. 09. 20),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미래관,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스러워 하며, 취업준비생들은 좌절감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일상을 견뎌간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서 미취업 청년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서울신문, 2018. 3. 14). 그러나 후기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심각성에 비해 심리·정서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신문, 2018. 3. 14). 후기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여성가족부, 2017; 통계청, 2016), 지역에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후기청소년이 상담을 받는 비율은 전체 상담이용률의 5%를 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할 때,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정책연구와 사회지원에서 소외되었던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를 담당하는 상담복지센터의 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후기청소년 지원정책

‘19세에서 24세’인 후기청소년은 전체 청소년(9,217,231명) 중에서 44%(4,051,120명)로서(통계청, 2016; 청소년백서, 2017), 청소년의 수가 급감하는데 비해 후기청소년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정책은 주로 초·중기 청소년에 초점화되어 후기청소년은 정책개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후기청소년의 정책적 소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최근 발표된 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에서는 후기청소년(또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후기청소년에 초점화 된 정책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부처에서 후기청소년을 청년정책을 통해 후기청소년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비진학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포함하는 직업훈련과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과 같은 진로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후기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진로 및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 및 창업지원, 비진학 인문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비진학 후기청소년, 특히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 및 상담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업 사관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를 통해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후기청소년의 취업 및 고용,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 번째 한계는 이들 정책이 청년의 고용 및 취업에 주로 초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자기이해가 낮은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직업훈련과정에 등록을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중도탈락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 및 취업과 함께 정신건강을 다루는 지원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또한 이들 정책의 대상이 후기청소년이 포함된 청년 전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점화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는 후기청소년도 정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정작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후기청소년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비율은 전체 상담이용률의 5%에 불과하다(CYS-Net 통계), 후기청소년의 원만한 사회진출과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직업의 유지를 비롯하여 대인관계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 사회적 기술 등 스스로를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배주미 외, 2011). 따라서 후기청소년의 자기이해, 진로탐색, 취업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 고조로 국외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은 학교와 기업연계를 통한 고용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청소년 서포트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니트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실태 및 요구조사, 청소년상담전문가 양성, 방문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문제에 대한 조기대응, 청소년보호자 대상 개별상담·부모상담·지원방법의 협의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

성년자 고용의 안정대책, 청소년을 위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예를 들어 Youth Build는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에게 건설현장에서의 교육, 고용기술, 현실적 일 경험을 배우도록 관련기관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교실에서의 훈련, 건설현장 견습생의 임금, 집을 짓거나 개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청년 고용과 관련된 네트워크 활성화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핀란드는 2013년 이후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공공고용 서비스의 역할 강화, 청년고용 관련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직업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연령 그룹별로 학습장소를 지역적으로 배치하고, 도제 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기업에 훈련 보상금을 월 800 유로로 제공한다. 공공고용 서비스 역할 강화를 위해 청년 대상 진로 상담 기회 확대, Chance Card라는 임금 보조금 지급, 청년 이민자를 위한 언어 교육·직업 훈련·상담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의 청년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를 위해 시 정부 차원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청년 대상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와 워크숍을 확대하였다. 벨기에 플렌더스 지방에서 운영 중인 직장 내 훈련(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ining; Individuele Beroepsopleiding in Ondernemingen, 이하 IBO)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으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작업장별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훈련제도이다. IBO는 일반적으로 1~6개월간 지속되는데, 특정 그룹에게는 최고 12개월까지도 허용된다. IBO로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끝나면 고용을 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소도시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도시에 남은 청년들은 일자리나 나은 교육 기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함에도 이동이 어려워 일자리를 위한 준비를 하기 어렵다. 이에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청년 구직자에게 한 명의 직원이 매칭(matching) 되어 구직자가 원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사회보장 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 및 고용 지원 서비스 등 일체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고용서비스센터 직원은 청년 구직자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규모 취약계층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으로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후기청소년 지원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먼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후기청소년의 생활 근거지인 지역의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나 노르웨이처럼 청소년의 특성이나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 단계에서부터 일대일 서비스나 코칭을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기청소년 지원 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문제의 지원방안

후기청소년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으로 인한 역할변화 및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 부적응 문제를 경험한다(전귀연, 이성기,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최근 최악의 고용절벽으로 인해 후기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립된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2018. 8. 15). 졸업 후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존감 및 긍정적인 미래관이 낮아지고, 무기력과 부정적 감정상태가 높아지면서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니트화되기도 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18세에서 29세의 11.9%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30세 이후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18세에서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함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지경(2018)에 따르면, 2014년 인구 10명당 강박장애 진료환자는 20대에 86.3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2. 10), 20대 공황장애 환자 연령군 증가율(13.3%)과 우울증 환자 연령군 증가율(5.1%)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이 증가율은 2012년대비 각기 65.0%, 2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소하 의원실, 2017. 9. 20). 이는 20대의 정신건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해짐을 보여준다. 또한 2017년 서울시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 4,77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구직 의욕 등을 알아보는 심리·정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충분히 자력으로 구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6%(2653명)이었다. 반면, 나머지 약 44%가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3.2%(630명), 조기정신증 또는 자살 위험이 잠재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10.8%(516명), 자기이해 및 구직준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이 10.7%(512명), 정서적 어려움이 구직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이 9.6%(459명) 이었다(서울신문, 2018. 3. 15). 이는 미취업상태 청년의 45% 가까이는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자기이해,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호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 후기청소년의 유형 및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그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후기청소년은 대학재학생과 졸업생, 취업자와 미취업자, 구직활동자와 비활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유형이 다양하고 그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분화(multi-differentiation)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따라서 그 유형에 따라 심리·정서적 문제가 상이한 바, 그 대처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인데, 매년 1만 5천명 정도 고졸 비진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0%가 비진학 및 미취업상태이며, 고졸 비진학자중 취업자가 68.7%, 진학·취업준비자가 12.9%, 구직포기자가 12.3%, 구직자가 6.1%를 차지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고졸 비진학 청소년은 자존감, 미래관, 사회적지지 등 사회적·심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안선영, 장원섭, 2009). 특히 고졸 비진학 청소년 중 구직포기자, 일명 니트족은 다른 유형 중 가장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전체 후기청소년의 40%가 넘는 150만에 육박하고 있어(통계청, 2015), 우선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니트족의 경우, 다른 집단 유형에 비해 자존감, 미래관,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공감능력, 자기주장, 자기조절력 등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에서 불안이나 불편감이 높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정체감 혼미의 상태로 장래의 계획, 생의 목적, 성, 직업, 친구관계 등에 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이경선, 2015).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능력 증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이로미 외, 2010).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우울감,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으며(YTN, 2016. 09. 20),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각각 12%, 20.5%의 수치를 보이는(미래창조과학부, 2014)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도 심각하다. 2015학년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 대비 0.8%증가하였고 특히 전문대학교 및 지방사립대 등 학업중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학이라는 변화에 신규학기의 시작이라는 또 다른 변화가 더해짐에 따라 다른 학년에 비해 혼란과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박정희, 김홍석, 2009)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국내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신입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상실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30.2%) 문제를 호소하였다. 전문대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낮은 사회적 인식과 대우 등으로 열등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민, 2013). 군체대 복학생의 경우, 복학 이후 소외감 및 관계 부적응을 경험하며 변화된 교과과정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하며(노혜림 외, 2015), 군대 내에서의 폭력이나 사고 목격과 같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복학 이후 우울, 자살사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Hourani, Williams, & Kress, 2006). 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의식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에 따르면, 대학생 중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34.7% 정도이며,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신입생 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노동시장 고용 여건의 악화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하는 졸업유예자의 경우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음에 따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경우 성인도, 청소년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대학입학 후 목표상실로 인해 생애진로 설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대학생 심리·정서적 문제는 대학학생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상담센터 여건이 달라 상당수의 대학생이 적절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최근 심각해짐으로 위기상담 및 개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상담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및 위기를 개입하기 위해 지역단위 위기상담체계가 필요하다.

후기청소년들이 복무하고 있는 군대의 경우, 군대의 특성상 고위험 사고(총기난사, 자살, 탈영, 폭행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병영상담전문관이 군대에서 위기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군대 내 군위험 사고발생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영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또래상담병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입대 기간 내에 제공되는 이러한 위기상담 및 개입뿐만 아니라 군입대 전에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통제된 군생활을 위한 준비 및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군제대 후에는 진로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 유예생 및 졸업 후 구직활동자를 포함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자존감, 긍정적 미래관, 일상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가장 취약성을 보인다. 또한 구직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특히 취업준비생 집단 중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에 대해 자기탐색, 진로탐색과 관련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 취업자 중 특히 고졸비진학 청소년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으나, 낮은 노동권 인지 수준과 대처방법이 미흡하다. 또한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근로조건 불만족, 잦은 이직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직장생활 적응 프로그램, 진로성숙도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후기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실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후기청소년이 상담을 받는 비율은 전체 청소년 이용률 중 4.7%에 불과하다. 이는 후기청소년 인구가 청소년 인구의 4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지원이 얼마나 미흡하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를 근거로 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복지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후기청소년 대상 심리·정서적 지원 내용, 지원 전략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방 법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현장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 하였다. 1차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차는 대학상담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현재 후기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1,2차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이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 도출을 위하여 경험적 기초자료를 얻고자 후기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중심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현장전문가 대상으로 후기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급 8명과 후기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는 대학학생상담센터 및 유관기관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총 4집단을 구성한 후 총 4회(각 120분)에 걸쳐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 소속 등 구체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구분	인원	소속	성별(연령)
시·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4	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30대)
		B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C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40대)
		D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4	E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30대)
		F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30대)
		G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H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후기 청소년 유관기관	4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남(40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여(40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남(40대)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여(40대)
기타	4	한국 폴리텍대학	여(30대)
		병영생활전문관	남(30대)
		한국고용정보원	여(40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40대)

<표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의 소개 및 후기청소년 지원 관련 경험 현재 지원하고 있는 후기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느낌
주요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후기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느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기청소년 대상 서비스 확대 필요성 및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방법 후기청소년 지역사회 내 연계 서비스 방법 후기청소년 유형별 지원에 대한 생각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 강화 방법 후기청소년 유형별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 지원에 대한 생각 대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대학상담센터 연계 방법 군장병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연계방법
마무리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기청소년 지원 및 연계 관련한 제언점 인터뷰 마무리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진행은 3~4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4개 집단(각 120분) 총 8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진행은 교육학전공 박사 1인이 주 진행자로, 교육학 및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 또는 석사 1인이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축어록 형태로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지 살펴보았다(Morgan, 1997). 추출된 개념들을 재검토 하여 연구 문제 중심으로 핵심 주제의 개념들을 찾아나갔다.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자료를 나누는 작업을 하고 그 안에 다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뽑아 본문 그대로 코딩 후 범주화 하였다. 이를 통해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될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출된 범주와 내용은 교육학 박사 2인 및 심리학 석사 1인의 감수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결 과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 CYS-Net 서비스 확대, 사례발굴,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 연계강화로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으로 자아정체성 문제, 정신건강 문제, 사회생활적응 문제, 진로문제, 심리·정서 문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CYS-Net 서비스 확대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연령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사례발굴에서는 홍보 강화 및 유관 기관의 연계강화 대한 방안이 도출되었으며,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후기청소년 전담 인력의 필요성과 인원충원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부처간 연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연계상담을 포함하여 소수계층, 중도탈락 위기 학생, 전문대학생, 폴리텍 대학생, 니트족, 군장병 등 후기청소년 유형별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다음 표 3은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	자아정체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동기 • 자기이해 • 대인관계문제
	정신건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리 • 중독문제 상담 • 좌절감 및 무기력
	사회생활적응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 • 군생활부적응 • 대학 학업중단
	진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불안 • 진로미결정
	심리·정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존성 • 불안정성 • 무기력감
CYS-Net 서비스 확대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 연령확대
	자립 및 진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진로 선택 • 사회성 훈련 • 기업과의 MOU 체결 • 타 기관과의 연계 • 진로상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진단 • 고등학교 3학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 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 비진학 청소년 취업연계 자립 프로그램 •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 소수계층 대학생상담 • 폴리텍대학생심리/성문제/진로 • 니트족 사회적응상담 • 군장병입문교육/군생활적응상담
	심리·정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88 전화상담 확대(위기상담) • 심리상담 • 중독문제 상담 • 대인관계 상담 • 대학생 학교부적응 상담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사례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또래 상담 • 청소년 동반자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과 홍보 협약 • TV 광고 • SNS 홍보 • 이동상담소 • 취업준비생 모임 지원 • 후기청소년 프로그램 집중 홍보 • 연계기관 발굴
	기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텍 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 주민센터 통합사례 관리자 • 노동부 청년카드 연계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	거점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지역 선정
	기존인력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청소년 상담 교육 • 기존인력 활용
	인력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구성 • 전문인력 확보 • 진로전문가 충원
연계강화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 • 기관간 연계 • 1388 전화상담
	정부부처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서비스 지원 플랫폼
	군장병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 지원대상 연령 확대 • 사회복지무요원 대상 상담제공 • 군장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동반자 상담 • 군입대전 군대생활입문교육 • 진로교육 • 위기상담

1) 후기청소년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

현장전문가들에게 후기청소년의 주요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아정체성 문제, 정신건강 문제, 사회생활적응 문제, 진로문제, 심리·정서 문제 다섯 가지 요소

가 추출되었다. 자아정체성 문제는 후기청소년의 주요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자발적 동기, 자기이해, 대인관계문제라고 하였으며, 정신건강문제는 정신병리, 중독문제 상담, 좌절감 및 무기력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사회생활적응문제는 은둔, 군생활 부적응, 대학 학업중단을 보고하였으며, 진로문제에 있어서는 취업불안, 진로미결정을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 문제에 있어서는 의존성, 불안정성을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중에 학교 그만두겠다고 울면서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20살 정도 되면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가능하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 러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취업관련해서.. 취업이 가장 큰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센터, 인력개발센터 이런 곳들에 대한 취업과 관련된 곳이 학교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OO대같은 경우에 가장 큰 고민은 취업문제, 취업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취업하면서 많은 지원들을 요구하고..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CYS-Net 서비스 확대

후기청소년 대상으로 CYS-Net 서비스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대상자 확대, 자립 및 진로지원,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정서적 지원의 4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대상자 확대에 있어서 후기청소년의 연령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며, 자립 및 진로지원에서는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회성 훈련, 기업과의 MOU체결, 타 기관과의 연계, 진로상담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는 유형 진단, 고등학교 3학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비진학 청소년 취업연계 자립 프로그램, 가출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소수계층 대학생상담, 폴리텍대학생심리/성문제/진로, 니트족 사회적응상담, 군장병입문교육/군생활적응상담을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에서는 1388전화상담 확대, 심리상담, 중독문제 상담, 대인관계 상담, 대학생 학교부적응 상담, 대학생 또래 상담, 청소년 동반자를 이야기 하였다.

“2020년대는 청소년 수가 1980년대와 비교해서 절반으로 감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기존에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만 적용하는 것을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하고 있는 아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안타까워요. 애쓰는데 센터는 찾아오는데 센터에서 해 줄만한 것은 없고, 그래서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군대 왜 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진로 불명확하고 가정환경도 너무나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경험하지 않았던 환경, 단체생활, 통제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3) 사례발굴

후기청소년 사례발굴에 있어서 홍보강화와 기관연계 2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홍보강화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홍보 협약, TV광고, SNS홍보, 이동상담소, 취업준비생 모임 지원, 후기청소년 프로그램 집중 홍보, 연계기관 발굴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기관연계는 직업훈련에 특화된 폴리텍 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연계, 주민센터 통합사례 관리자, 노동부 청년카드 연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바몬이나 협약을 맺어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참여해야 그런 사전 프로그램을 돌리면 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후기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구요. 캐쉬 슬라이드 애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데를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공익 광고도 많이 뜨기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띄워서 발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대상자, 집에만 있거나 어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는 유일하게 소통하는 통로가 sns겠죠. 맨날 지식검색 이런 거 찾아보고 페이스북, 도박 사이트, 쇼핑중독 이런 관련된 영역에 왔다 갔다 하고..그 왔다 갔다 한 공간에 상담을 해준다는 홍보가 자꾸 떠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4)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자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거점기관운영, 기존인력활용, 인력충원의 3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거점기관운영은 후기청소년의 분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후기청소년 서비스를 지원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기존인력활용에서는 후기청소년 상담 교육 시 기존인력을 교육시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인력충원은 팀구성과 전문 인력 확보, 진로전문가 충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후기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하나의 팀이 구성될 수 있

도록 스무명 정도 팀을 구성하여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기청소년 서비스 들어갈 때 아주 농촌, 도시 같은 경우는 청년이 되면 보통 도시로 가 니깐.. 더 대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커스를.. 서비스 제공하는 지역에 대 한 포커스를 잘 잡아갔으면 싶구요.”

5) 연계강화

후기청소년 연계강화에 있어서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 정부부처간 연계, 군장병 연계의 3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대학상담센터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위기개입, 기관간 연계, 1388전 화상담,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을 이야기 하였으며, 정부부처간 연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성 공패키지 연계, 서비스 지원 플랫폼을 이야기 하였다. 군장병 연계에서는 MOU체결, 지원대 상 연령 확대, 사회복지무원 대상 상담제공, 군장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동반자 상 담, 군입대전 군대생활입문교육, 진로교육, 위기상담을 이야기 하였다.

“대학이 위기개입에 참 약해요. 사실 저희 쪽 CYS-Net은 긴급구조도 있고, 식사시간대기 도 있고 경찰연계, 119, 병원연계도 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개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들과 연계하고 협력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래상담이 활성화 되려면 대학생들 동아리 활동 많이 하니깐 동아리 공모전을 통해서 동아리 운영을 좀 지원하겠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2단계 사이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훨씬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 아요, 심리,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이런 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 자존감이 낮은 친구도 많고, 대학생에도 많아요..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 어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후기청소년 지원 모형 개발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후기청소년 지원 모형의 활성화 를 위해서는 상담복지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후기청소년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전·중기청소년 중심 상담체제를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 지침상 상담실적이 19세 미만 청소년만 적용하는 것을 24세까지 확대함으

로써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주요대상에 후기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실무자조차 후기청소년이 상담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 바, 후기청소년 상담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자인 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실무자가 후기청소년 대상 상담지원이 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역할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CYS-Net 체계 안에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을 필수 연계기관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요원을 담당하는 병무청을 필수연계기관에 포함시켜 부적응 사회복지요원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다.

둘째, 발굴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특히, 니트족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SNS 홍보, 구직사이트와의 연계, 청소년동반자 활용, 후기청소년 전담 인력 배치 등의 발굴 단계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후기청소년의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체제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별로 특성화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전·중기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후기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후기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자의 배치가 필요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충분한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과의 연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처간 연계 등 상급기관에서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현장의 직접 지원기관간의 연계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각 사업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공유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유관기관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시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관 평가에 연계실적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범부처가 공통적으로 사업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정책수혜자인 후기청소년 입장에서 지원을 받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부처 지원 사업의 명칭을 통일하고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연계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포커스집단 인터뷰 결과에 기반하여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구성하였다.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문헌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도출해낸 심리·정서적 지원의 구성요소를 크게 예방, 발굴, 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사후관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예방단계는 중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위기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진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단계이다.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예방은 향후 후기청소년기에 진입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고3 졸업반 대상으로 새내기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사회진입 이후에도 후기청소년 관련 진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발굴단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후기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단계로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 홍보강화와 기관연계 2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기관연계에는 CYS-Net을 활용한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홍보강화에는 알바몬 및 SNS 등 매체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후기청소년의 발굴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체제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은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3단계의 지원단계로 구조화하였다.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하여 후기청소년의 성장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산이나 탐험 중 고지에 오르기 전에 준비나 휴식을 하는 전진기지이자 근거지라는 개념인 베이스캠프 개념은 취업, 결혼 등 성공적 사회진출이라는 목표 달성 전에 우선되어야 할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기이해, 진로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주요 핵심 내용은 세 번의 Go단계, 즉, '나를 알Go', '적용하Go', '계발하Go'로서, '나를 알Go'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욕구 및 심리적 적응수준 등 평가를 하고, '적용하Go' 단계에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및 위기상담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계발하Go' 단계에서는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및 복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등 학교 시스템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후기청소년의 문제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세 개 부처가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한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해결이 불가하므로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의 후기청소년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후기청소년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 및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해선 CYS-Net 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방, 대상자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발굴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채널 및 기관을

이에 폴리텍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에 청소년동반자 파견 등의 우선적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1388 전화상담 연동 및 1388지원을 통한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강화하고자 한다. 군장병의 경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위기상담 및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군장병 및 사회복지무요원을 대상으로 또래상담과 청소년동반자 상담을 활성화 하여 군장병의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강화하고 군제대 전·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회입문교육을 포함한 자기탐색 및 진로설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전달체계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 상담복지센터의 후기청소년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를 제안한다.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은 후기청소년의 상담 및 진로코칭을 포함한 심리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7개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한 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배치된 후기청소년 업무 전담인력은 위기상담 및 위기개입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니트족, 군장병,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유형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후기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을 하는 전담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기존에는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후기청소년 유형별 상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후기청소년 유형별에 따른 특성과 주호소문제와 상담 기법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설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연수 시 후기청소년 이해 및 진로지도 역량강화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후기청소년 전담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요구된다.

셋째,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전달체계에 있어서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국방부, 대학상담센터협의회간의 협력을 통하여 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연계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 발굴단계에서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전달 체계는 그림 2와 같다.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그림 2]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전달체계

논 의

본 연구는 정책과 사회지원에서 소외되었던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복지를 담당하는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유관기관(대학상담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병영생활전문관 등)의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방, 발굴, 지원(베이스캠프 프로그램), 사후관리 단계가 있다.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의 핵심적인 단계인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은 세 번의 Go단계, 즉, '나를 알Go', '적응하Go', '개발하Go'로서, '나를 알Go'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욕구 및 심리적 적응수준 등 평가를 하고, '적응하Go' 단계에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및 위기상담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Go' 단계에서는 진로설계 등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처럼 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단계가 자기이해를 시작으로 진로설계로 진행된다는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설계가 자기이해 탐색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결과(한국고용정보원,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와 일치한다. 나아가 후기청소년의 진로설계가 라이프코칭을 통한 생애설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경우 단순한 진로설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강점개발, 생애설계를 위한 코칭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천성문, 김미옥, 함경애, 박명숙, 문애경, 2017)를 뒷받침한다.

둘째, 지원 단계는 동일하지만, 지원 내용은 후기청소년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

다. 후기청소년 유형을 무업청소년(니트족), 취업준비생 및 취업자, 대학재학생, 군장병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의 나를 알Go단계에서 후기청소년의 호소문제와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주호소문제 유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의 주호소문제에 따라 심리·정서적 지원과 진로설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후기청소년 유형별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조규필, 2013; 청소년정책연구원, 2015)와 비슷한다.

셋째,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관련부처 및 기관의 역할 및 연계방안,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의 나를 알Go단계에서 후기청소년의 호소문제와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주호소문제 유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후기청소년의 주호소문제에 따라 심리·정서적 지원과 진로설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후기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상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중고생들도 아동이지만 그들이 아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후기청소년들도 청소년이지만 본인들을 청소년이라고 인식할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기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청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CYS-Net 체계 안에 병무청 등 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한 후기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후기청소년 지원,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에 초점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기청소년은 전체청소년 인구의 40%를 차지하며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초중기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한 상태다. 또한 그 지원이 주로 일자리지원,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에 주로 초점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도움으로써 후기청소년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의 역할, 서비스전달체계, 인적 구성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체계적 심리·정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상담복지센터, 지자체가 각기 어떤 역할 및 기능을 해야 하는지, 상담복지센터 인력구성은 어떠한지 등 서비스전달체계 및 사업 운영 방안이 포함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각 부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각 부처간 협력 및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각 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현장성 높은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 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및 후기청소년 인구가 많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후기청소년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 전문가, 즉 대학생 상담복지센터 교수 및 상담자(4년제, 전문대, 폴리텍 대학), 군병영상담전문관, 고용안정센터 연구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후기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단계 및 유형별 지원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서지원에 대한 단계별 및 유형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담복지센터는 물론 관련 기관에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위에서 제시한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마다 후기청소년 인구 및 특성이 다르고 관련 지원 현황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후기청소년의 특성, 기관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에 와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공간을 진로지도나 상담의 장으로 활용하는 관련 프로그램의 실용성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NEET족 등 후기청소년의 경우 오프라인 서비스 보다는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후기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ICT를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 서울: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2016.02.10). 건강해치는 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보도자료 p2 <표 발췌>.
- 김지경(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문제 및 대응방안; 왜 정책개입이 필요한가?. 서울: 2018 청소년 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 노혜림,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 (2015). 군 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6(4), 621-642.
-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 박수민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69-96.
- 서울신문 (2018.03.15). “최악의 고용 절벽시대... 미취업 청년 33.6% 정신건강 위협”,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5012001&wlog_tag3=naver
-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7,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윤소하의원실(2017.09.20).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p2 [표-2.1], 발췌
- 이경선 (2015).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실습기관에서의 수업실연의 어려움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5(3)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그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 전귀연, 이성기 (2006). 부산지역 국민가족생활보장 수급가정 청소년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5, 27-51.
- 정익중, 김대인, 오혜영, 이승연, 전종철 (2017). 대학생과 자살: 상담에서 복지, 법률지원까지. 서울: 박영스토리.
- 천성문, 김미옥, 함경애, 박명숙, 문애경 (2017). 대학생을 위한 진로코칭-전략과 실제-.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15). 2015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통계청 (2016). 2016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 한국고용정보원(2016. 3월호). 이슈분석 1_ 대졸 청년층,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변했는가? 충청북도: 한국고용정보원, 9(2), 18-23.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7). 후기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심리·정서적 지원 중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대학 재학 후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II-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4년제 일반 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7 국제심포지엄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15). *Emerging Adulthoo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ourani, Williams, & Kress. (2006). Stress, mental health, and job performance among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Finding from 2002 department of defence health-related behaviors survey. *Military Med*, 171(9), 849-856.
- Morgan, D. (1997). *The Focus Group Guidebook (Vol. 1)*. Sage publications.
- YTN (2016.09.20.) “희망 안보여... 대학생 절반 이민 고려”,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01229420526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Late-Adolescents

Seo, Mi	Chung, Ick-Joong	Lee, Tae-Young Kim, Ji-He	Yoon, Min-Jee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late-adolescents who have been marginalized in policy research and social support, especially for the counseling and welfare of adolescents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develop an integrative, highly-applicable support plan,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FGI) of 16 leading experts in domestic/oversea public policy, academic research literature, and nationwide late-adolescence counseling (and related) centers. The late-adolescent psychological/emotional support provision is largely composed of prevention, discovery, base camp program, and follow-up services, and the base camp program is structured into three steps. In addition, we propose specific public policy to strengthen psychological support for late-adolescence counseling center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unique desires and characteristics of late-adolescents, we propose a previously overlooked provision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 healthy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of late-adolescents. This work provides integrative and systematic guidelines for the ministry and related centers in policy making such as in service delivery and human resource.

Key words : late-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ounseling and welfare of adolescents in the center, base camp program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간의 관계*

김동심†

한신대학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삶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일반계 A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19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의존은 인터넷 인지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는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스마트폰 의존과 교우관계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결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고등학생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긍정적 사용을 통하여 고등학생의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육과 상담영역에서의 운영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행복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동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E-mail: southpaw61@hs.ac.kr

서론

2008년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현재 전세계 보급률이 44%이며, 2022년에는 59%까지 증가될 전망이다(Wu, 2016).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9.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개개인에게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스마트폰은 학습방법, 개인간의 소통방법 등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서 일자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우리 삶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TV(38.1%)보다 스마트폰(56.4%)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10대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78.8%가 삶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언급하여(정용찬, 김윤화, 김상우, 2017),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끼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은 혼돈과 갈등의 시기를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을 통해 겪고 있으며(Barth, 2015), 특히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모르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하문선, 2014).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기인식 과정에서의 자기탐색 도구, 사회 참여의 도구(Caronia & Caron, 2004), 부모와 언제 어디서나 연락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도구(Devitt & Roker, 2009) 등으로 청소년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이런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과다사용, 중독, 의존,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등의 부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김신아, 방은혜, 한운선, 2015).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적 문제들은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나, 아직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가장 심각한 상태인 중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보다 낮은 의존의 정도가 실제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이 가지고 온 변화 중에 하나가 인지실패(cognitive failures)이다. 인지실패는 일상생활에서의 지각실패, 기억오류와 같은 사소한 실수와 오류로(Wallace, Kass, & Stanny, 2002), 최근 디지털 치매(digital dementia)와 관련되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인지실패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여 인지과정에서 기억력이나 계산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인지실패가 노인을 중심으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되었다면(이아희, 박홍성, 안인숙, 장원혁, 김연희, 2011), 현재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지과정에 있어서의 과도한 사용의 결과로서 사용되고 있다(Hadlingto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인지실패가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변인으로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을 선정하

였다. 먼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 교사 및 친구 중 특히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고등학교는 청소년 발달 과정 중 부모관계보다는 교우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성인의 승인보다는 또래의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특성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김희영, 양미경, 박수란, 2015). 실제로 만족스러운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아인식 수준이 높고 학교적응도 잘 하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은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송영명, 이현철, 2011). 특히 최근에는 교우관계에서 스마트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교우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계기이자(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사이버폭력 등을 통한 교우관계의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Aoyama, Saxon, & Fearon, 2011). 따라서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교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UNICEF 30개국에서 가장 높은 50.5%로 전 세계 평균 33.3%보다 17.2%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미숙, 2015).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 따라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또한 행복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행복수준이 100점 만점에 82점으로 조사대상국 22개국 중 22위이다(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이러한 낮은 행복은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남문희, 김혜옥, 권영채, 2013; Bray & Gunnell, 2006).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생의 자살충동 경험 비율이 17.7% 수준이었으며, 중학생 22.6%, 고등학생은 26.8%로 증가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자살충동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최근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에 대한 스마트폰의 활용과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김경미, 염유식, 2014), 특정 SNS를 기반(Kross, Verduyn, Demiralp, Park, Lee, & Lin, 2013)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활용이 학업 스트레스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청소년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이루어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삶의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보다 긍정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 및 상담에 있어서의 운영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

스마트폰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영속적으로 스마트폰에 접근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의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의존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개념으로 스마트폰 중독과는 다른 개념이다. 스마트폰 의존은 과도한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도 정의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그러나 스마트폰 의존은 기술중독(technological addictions)의 하나로 테크놀로지 그 자체를 즐기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Griffiths, 1995)인 행동 중독의 측면에서 살펴지는 스마트폰 중독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습관적으로 긴 시간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갖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의존에 비해 부정적이고 문제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기술발전 초기의 스마트폰사용에 관한 연구는 부정적 사용에 대한 우려로 스마트폰 중독의 증상(Bian & Leung, 2015)이나 예측 및 영향변인(성준모, 2014; Hawi & Samaha, 2017)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현실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교육과 상담을 위하여 중독과 의존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폰 의존은 중독보다 다소 심각성이 낮은, 이전 단계로서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구로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은 높은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2017년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진단한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0만 2,436명,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중독위험군 청소년은 6만 2,711명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7).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은 뇌기능 및 인지기능을 저하시켜 디지털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문영, 2015). 디지털 치매는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당장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건 아니지만 뇌의 특정 부분의 발달과 기능에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Hadlington, 2015) 특히 뇌의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지적 영역과 스마트폰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Wilmer, Sherman, & Chein,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인지실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실패는 주의산만이나 주의집중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 인터넷이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수록 인지실패는 높아진다(Klois, Segers, & Verhoeven, 2013).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사용은 주의력 결핍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Small, Moody,

Siddarth, & Bookheimer, 2009), 디지털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멀티태스킹은 집중력 저하와 주의력 산만의 원인이 된다(Ophir, Nass, & Wagner, 2009). 이러한 인지실패는 고연령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층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조영주, 김희숙, 김진혁, 2016). 실제로 김태희, 강문설(2014)의 연구에서 국내 대학생의 97.7%가 인지실패 잠재적 위험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6.5%는 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Hadlington (2015)가 21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인지실패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의 높은 오용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지실패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차이는 큰 효과크기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지실패는 스트레스 취약성, 성격 등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외에서는 아직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박창호, 강희양, 2011; Hong, Hwnag, Chang, Tai, Kuo, & Tsai, 2015; Hong, Hwnag, Szeto, Tsai, Kuo, & Hsu, 2016). 특히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인터넷 인지실패는 지능, 인성을 비롯한 전반적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바,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인지실패가 청소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변인으로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을 선정하였다. 이들과 스마트폰 의존 및 인터넷 인지실패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긍정적 청소년의 삶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련 변인들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은 중독까지, 인터넷 인지실패는 인지능력과 관련되어 범위를 확장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친밀한 관계로, 자아인식 형성 및 스트레스 해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송영명, 이현철, 2011). 긍정적 교우관계는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인 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 낸다. 반대로 부정적인 교우관계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좌절을 만들어내 부정적 자아인식을 하게 되어 학교 부적응, 학교 중단, 학업 능력, 비행,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향후 사회에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석진과 조성심(2015)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 43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정도에 따른 사용시간, 충동성, 교우관계, 학교부적응 등을 살펴본 결과, 교우관계가 중독위험군보다 비

중독군에서 유의하게 좋은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교우관계는 사용시간, 학교부적응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여부를 판별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및 이현숙(2013)은 중고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친구와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고등학생일수록 스마트폰을 통한 교우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Wang 외(2017)의 연구에서 중국 청소년 768명의 교우관계, 자존감, 소속감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우관계, 자존감 및 소속감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우관계는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Suki와 Suki(2013)의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 편리성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높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과 교우관계의 관련성은 연구맥락에 따라서 정적이거나 부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지능력과 교우관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승진과 김경근(2015)이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중학교 2학년 2,261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와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우관계는 정적으로,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중,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탈락하지 않고 설문에 응답한 521명을 대상으로 한 박수란(2014)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는 학업성취의 초기값과 변화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지능력과 관련된 학업성취와 교우관계의 관계는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교육자와 상담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인 학업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불면, 자살과 같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박미경과 구자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휴대폰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휴대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김일옥과 신선화(201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스마트폰의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였으며, 자이통제력은 이 두 변인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Thomas(2016)가 태국 대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스트레스가 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지능력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는 경기교육중단연구(GEPS)자료를 사용하여 중학

교 3학년 학생 3,778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3,932명, 전체 7,710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이기혜, 방수민, 이은혜, 2017). Huan, See, Ang과 Har(2008)도 싱가포르나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인지적 능력과 학업스트레스는 정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의 낮은 행복은 학교폭력, 약물오용, 자살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의 수준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된 연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황환, 김영환, 2017). 김경미와 염유식(2014)이 중학생 2,572명과 고등학생 2,64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스마트폰 과사용과 스마트폰 중독이 행복에 부정적 예측력을,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과사용은 정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부정적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신희와 김미량(2016)의 연구에서도 중학생 393명, 고등학생 525명을 대상으로 테크노 스트레스, 문제중심대처방식, 정서중심대처방식, 자아탄력성 및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의 디지털 디톡스는 개인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문제중심대처방식, 자아탄력성, 디지털 디톡스가 정적으로 행복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에서도 Samaha과 Hawi(2016)가 대만의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행복과 관련된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 확률이 높을수록 학업적 성과는 낮아졌지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과 행복과의 관계도 다양한 연구맥락에 따라 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활용과 행복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능력과 행복간의 관계는 명수정과 강승호(2011)가 중학생 748명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학업성취, 낙관성과 행복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우관계는 행복에 영향을 미쳤으나, 학업성취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Quinn과 Duckworth(2007)가 초등학교 5학년 25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행복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인지능력과 행복간의 관계는 연구맥락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주로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의 의존보다는 중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대상별로 그 결과가 부정적 혹은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인지실패에 대해서는 연구초기 단계로서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와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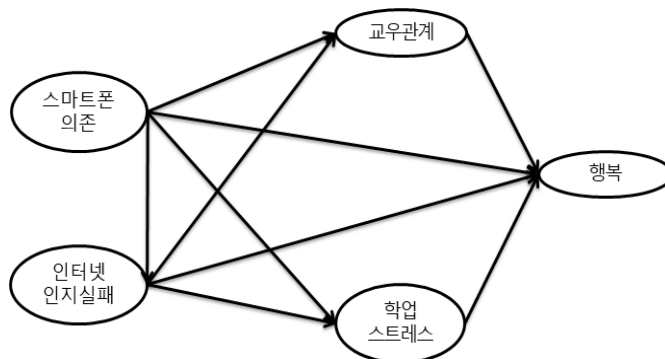
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은 인터넷 인지실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는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는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델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교생활에 적응한 경기도의 인문계 A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전체를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해서 진행되었다. 총 2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27명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으로 195명을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특성은 남성 84명(43.1%), 여성 109명(55.9%), 무응답자 2명(1.0%)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 실패,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을 살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첫째, 스마트폰 의존은 Wang(2001)의 인터넷 의존 도구를 본 연구맥락에 맞게 교육학 전공 교수가 번역하고, 영문학 전공자 2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

로 구성된 문항 중 1문항(나는 지난 4주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3시간 이상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시간이 기술되어 있고 국내 고등학생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총 9문항(예: 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어렵다.)을 사용하였으며, 원 도구의 Cronbach's α 는 .85이며, 본 연구에서는 .84이다.

둘째, 인터넷 인지실패는 Broadbent, Cooper, Fitzgerald과 Parkes(1982)의 인지실패를 인터넷 인지실패로 맥락을 변환한 Hong et al(201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학 전공 교수가 번역하고, 영문학 전공자 2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예: 나는 종종 내가 쓴 글이 인터넷의 어디에 있는지 잊는다.)을 사용하였으며, 원 도구의 Cronbach's α 는 .88이며, 본 연구에서는 .84이다.

셋째, 교우관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정화실(2009)이 재인용한 4문항(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을 사용하였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는 .83이며, 본 연구에서는 .94이다.

넷째, 학업 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는 총 5문항(예: 나는 공부 할 때 항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으로 Van Voorhis, Cullen, Link와 Wolfe(1991)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교육학 전공 교수가 번역하고, 영문학 전공자 2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는 .88이며, 본 연구에서는 .79이다.

다섯째, 행복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행복도구 4문항(예: 나는 무슨 일이든 즐기 고자 하는 행복한 사람이다.)을 교육학 전공 교수가 번역하고, 영문학 전공자 2인을 통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4문항 중 1문항(나는 걱정이 많은 우울한 사람이다.)은 역문항으로 질문 하였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 는 .71이며, 본 연구에서는 .91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적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통계모형을 설정하였으며 5개의 잠재변인이 수학적으로 측정변수를 통해 측정되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와 AMOS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이 단요인으로 판명되었다. 측정모형에 과도한 비중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묶음지표(item parcel)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묶음지표란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일차원적인 측정변수들을 무선적으로 묶어서 총점이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면 각 잠재변인을 측정해주는 지표변수의 수를 줄일 수 있어 추정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개별문항들을 사용할 때에

비해 구조방정식의 가정사항인 다변량정규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Sass & Smith, 2006). 따라서 모든 변인의 문항을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2개의 묶음지표를 생성하였다.

둘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이 가능한 다변량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왜도는 3, 첨도는 10 보다 작아, 다변량정규성이 충족되었다(Kline, 2015). 이와 함께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에 기본적인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타당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추정절차를 적용하여 모형의 TLI, CFI 및 RMSEA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다음 표 1과 같이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2.01에서 최고 3.95,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78에서 최고 1.18이었으며, 왜도는 절대값 최소 .15에서 최대 1.29, 첨도는 절대값 최소 .28에서 최고 1.77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3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10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15),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생변인과 외생변인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Kline, 2015). 부합도 추정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모형의 RMSEA가 .074을 비롯하여 모두가 좋은 부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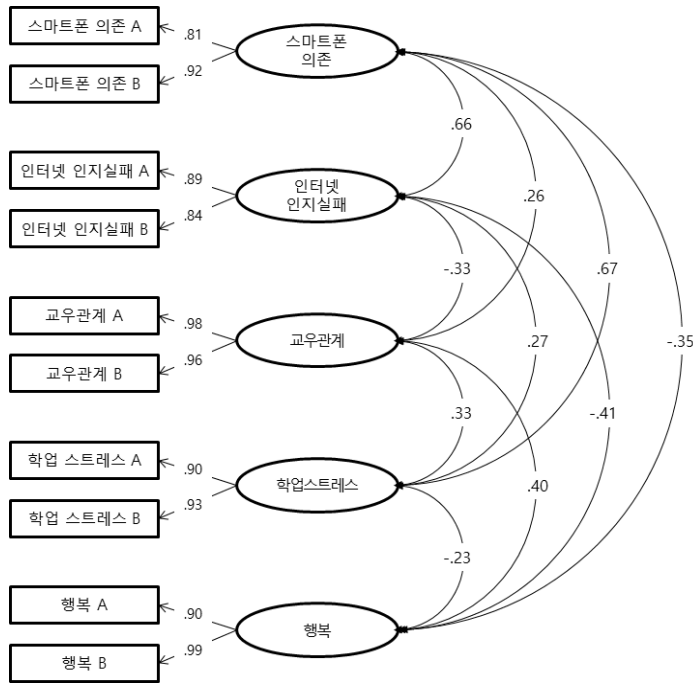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스마트폰 의존 A	-									
2. 스마트폰 의존 B	.75*	-								
3. 인터넷 인지실패 A	.40*	.58*	-							
4. 인터넷 인지실패 B	.31*	.54*	.75*	-						
5. 교우관계 A	.35*	.20*	-.26*	-.29*	-					
6. 교우관계 B	.34*	.15*	-.29*	-.31*	.94*	-				
7. 학업 스트레스 A	.54*	.52*	.20*	.15*	.31*	.33*	-			
8. 학업 스트레스 B	.57*	.57*	.26*	.21*	.26*	.30*	.84*	-		
9. 행복 A	-.21*	-.34*	-.36*	-.33*	.33*	.32*	-.24*	-.24*	-	
10. 행복 B	-.19*	-.36*	-.38*	-.33*	.39*	.38*	-.19*	-.21*	.90*	-
평균	2.58	2.12	2.12	2.01	3.81	3.95	2.78	2.75	3.27	3.27
표준편차	1.05	0.97	0.78	0.87	1.03	1.07	1.10	1.11	1.16	1.18
왜도	0.28	1.22	0.14	0.32	-1.14	-1.29	0.18	0.15	-0.50	-0.40
첨도	-0.28	1.77	-0.70	-0.90	1.29	1.47	-0.28	-0.44	-0.42	-0.44

* $p < .05$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CMIN	p	df	TLI	CFI	RMSEA(90% %)
측정모형	51.26	.00	25	.971	.984	.074(.044-.102)
기준				>.90	>.95	<.08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81~.99에 걸쳐 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이어야 수렴타당도를 확보함에 따라, 본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09). 그리고 측정변수들과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절대값 .23~.67 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수 간의 상관이 .85이하로(문수백, 2009), 변별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을 구조모형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3.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부합도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의 부합도는 $TLI = .973$, $CFI = .985$, $RMSEA = .071$ 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구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CMIN	p	df	TLI	CFI	RMSEA(90%)
구조 모형	51.26	.00	26	.973	.985	.071(.042-.099)
수정 모형	57.26	.00	28	.971	.982	.073(.046-.101)
기준				>.90	>.90	<.08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변인간의 관계 중 인터넷 인지실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3$, $p > .05$)과 학업스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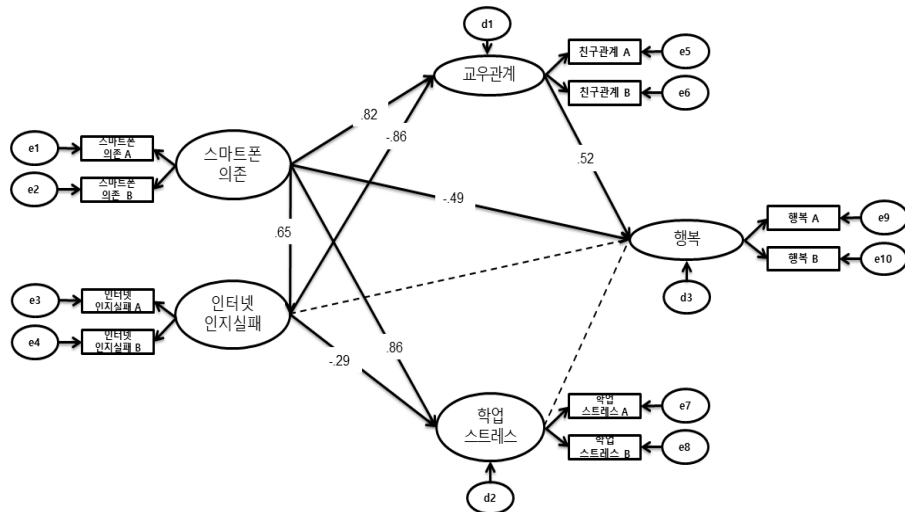
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beta=.09, p>.05$)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인지실패 → 행복, 학업스트레스 → 행복 경로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만들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TLI = .971, CFI = .982, RMSEA = .073$ 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모형 적합도에서 구조모형과 수정모형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결과는 다음 표 4 및 그림 3과 같다. 인터넷 인지실패에는 스마트의존($\beta=.65, p<.05$)이, 교우관계에는 인터넷 인지실패($\beta=-.86, p<.05$), 스마트폰 의존($\beta=.82, p<.05$)순으로, 학업스트레스에는 스마트폰의존($\beta=.86, p<.05$), 인터넷 인지실패($\beta=-.29, p<.05$)순으로, 행복에는 교우관계($\beta=.52, p<.05$), 스마트폰 의존($\beta=-.49,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 수정모형의 요인계수

외생변인	내생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임계치
스마트폰 의존	→ 인터넷인지실패	.53	.06	.65	8.44*
스마트폰 의존	→ 교우관계	.92	.11	.82	8.16*
인터넷 인지실패	→ 교우관계	-1.19	.15	-.86	-8.21*
스마트폰 의존	→ 학업	.96	.11	.86	8.56*
인터넷 인지실패	→ 스트레스	-.40	.13	-.29	-3.18*
스마트폰 의존	→ 행복	-.57	.08	-.49	-6.83*
교우관계	→ 행복	.54	.07	.52	7.57*

* $p<.05$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활발한 고등학생의 생활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행복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의존이 인터넷 인지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정적으로 인터넷 인지실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인지실패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Hadlington, 2015; Ophir, Nass, & Wagner, 2009; Small et al., 2009)와 맥을 같이하며,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도 스마트폰 의존이 인지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정적으로 인터넷 인지실패는 부적으로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교우관계에 연구맥락에 따라 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스마트폰 활용이 엔터테인먼트 34%, 게임 18%, 소셜미디어 15%순이다(임지선, 박근용, 2017). 연구대상의 고등학생 교우관계가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등과 같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 인지실패는 교우관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인지실패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지속될 경우, 장기적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기억장애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이러한 인터넷 인지실패가 고등학생 시기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계인 교우관계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 대상의 인터넷 인지실패와 관련되어 초기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셋째,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정적으로 인터넷 인지실패는 부적으로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스스로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습관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넌 얼마나 쓰니'와 같은 어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 활용 시간 및 내용에 대해 제공하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어, 고등학생 스스로도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동일, 정여주, 이형초, 이윤희, 이슬기, 김나영 그리고 오정수(2013)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매뉴얼을 개발함에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관련된 자기결정성

을, 임창우와 정구철(2016)은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은 앞서 연구결과처럼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긍정적 작용도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기조절적 사용을 부각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인지실패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난 것(이기혜, 방수민, 이은혜, 2017; Huan et al., 2008)과 달리, 부적으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단기적 인지과장인 인터넷 인지실패가 지속되는 경우, 학생 스스로 본인의 인지능력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심리는 낮은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인지 기대심리와 관련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Chiu, 2014), 향후 이들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교우관계 및 학업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의존과 교우관계가 정적으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한 스마트폰 의존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통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청소년기에 교우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동학습은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Jones과 Issroff(2005)는 협동학습에서 인지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서적 효과가 거둘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차원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관계형성 기회 마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의 필요성 강조함과 동시에 실증적으로 상담영역에서 스마트폰 활용과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삶과 관련되어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인지실패와 학업스트레스는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인터넷 인지실패는 높은 수준으로 경험되지 않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청소년의 낮은 행복의 원인을 학업스트레스로 보고 있는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학업외의 다양한 변인에 대한 관심을 갖아야 함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보다 빠르고 복잡한 변화를 견뎌야 하는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주는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교육과 상담에 있어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낮은 국내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발달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라는 특성을 확인하여, 실제 삶과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를 편의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무리가 없으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여 전국의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청소년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스마트폰 의존과 인터넷 인지실패를 사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청소년의 보다 다양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테크노 스트레스, SNS 활용 등 다양한 변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되어 교우관계, 학업스트레스 및 행복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는데 향후, 청소년 생활과 관련되어 학교에서의 만족도나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회복탄력성 등과 스마트폰과 인터넷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 인터넷 인지실패, 학업스트레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도구를 번안한 것을 전문가가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향후에는 대상에 대한 척도 타당화 작업을 통해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보다 변인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자기조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월 1일).
- 곽수란 (2014).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4(2), 1-24.
- 김경미, 염유식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정보사회와 미디어*, 15(3), 31-56.
- 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4), 5-40.
- 김동일, 정여주, 이형초, 이윤희, 이슬기, 김나영, 오정수 (2013).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미숙 (2015).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아, 방은혜, 한운선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8-33.
- 김일옥, 신선화 (2016).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5(3), 262-271.
- 김태희, 강문설 (2014).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후군에 대한 인지정도 및 실태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8(4), 941-948.

- 김희영, 양미경, 박수란 (2015).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1), 407-440.
- 남문희, 김혜옥, 권영채 (2013). 건강행태, 스마트폰중독 및 자살생각지수가 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557-569.
- 명수정, 강승호 (2011).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취 및 낙관성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24(3), 619-643.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미경, 구자경 (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휴대폰중독의 관계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2001-2015.
- 박창호, 강희양 (2011). 한국판 인지실패 질문지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341-355.
- 성준모 (201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5-32.
- 송영명, 이현철 (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1), 91-112.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이아희, 박홍성, 안인숙, 장원혁, 김연희 (2011). 인지적 실패 질문지의 국내적용을 위한 번역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4), 117-129.
- 이기혜, 방수민, 이은혜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학업성취수준 및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7(4), 105-135.
- 이문영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경도인지장애와의 연관성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4), 361-368.
- 이승진, 김경근 (2015). 가정배경, 양육태도, 교우관계, 오락적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21(2), 41-66.
- 이신희, 김미량 (2016).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행복감 인식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2), 295-324.
- 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연구 - 중·고생 이용자의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1), 43-66.
- 임지선, 박근용 (2017).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 아니라 이젠 생활이죠!. 서울: 바른 ICT연구소. <http://barunict.kr/?p=7490>에서 인출
- 임창우, 정구철 (2016).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

- 학회지: 중독, 1(1), 67-84.
- 정용찬, 김윤화, 김상우 (2017).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보고서. 충청북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조영주, 김희숙, 김진혁 (2016). 디지털 치매 예방을 위한 브레인 헬스케어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12), 51-58.
- 주석진, 조성심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충동성, 교우관계, 모의 권위주의형 부모양육태도, 학교부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7(1), 97-118.
- 하문선 (2014).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휴대전화 이용 유형과의 관련성. 청소년학연구, 21(4), 155-179.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환, 김영환 (2017).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학연구, 24(7), 1-28.
- Aoyama, I., Saxon, T. F., & Fearon, D. D. (2011). Internalizing problems among cyberbullying victims and moderator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Multicultural Education & Technology Journal*, 5(2), 92-105.
- Barth, F. D. (2015). Social media and adolescent development: Hazards, pitfalls and opportunities for growth.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3(2), 201-208.
- Bian, M., & Leung, L. (2015). Linking loneliness, shynes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and patterns of smartphone use to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61-79.
- Bray, I., & Gunnell, D. (2006). Suicide rates,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as markers for population mental health.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5), 333-337.
- Broadbent, D. E., Cooper, P. F., FitzGerald, P., & Parkes, K. R. (1982). The cognitive failures questionnaire (CFQ) and its correlat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1-16.
- Caronia, L., & Caron, A. H. (2004). Constructing a specific culture: Young people's use of the mobile phone as a social performance. *Convergence*, 10(2), 28-61.
- Chiu, S. 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n Taiwanese university student: A mediation model of learning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4, 49-57.

- Devitt, K., & Roker, D. (2009). The role of mobile phones in family communication. *Children & Society, 23*(3), 189-202.
- Griffiths, M. (1995).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76*, 14-19.
- Jones, A., & Issroff, K. (2005). Learning technologies: Affective and social issues in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Computers & Education, 44*(4), 395-40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ross, E., Verduyn, P., Demiralp, E., Park, J., Lee, D. S., Lin, N., et al. (2013). Facebook use predicts declin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young adults. *PLoS One, 8*(8), e69841.
- Klois, S. S., Segers, E., & Verhoeven, L. (2013). How hypertext fosters children's knowledge acquisition: The roles of text structure and graphical over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5), 2047-205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Hadlington, L. J. (2015). Cognitive failures in daily life: Exploring the link with Internet addiction and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1*, 75-81.
- Hawi, N. S., & Samaha, M. (2017).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anxiety, and family relation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6*(10), 1046-1052.
- Hong, J. C., Hwang, M. Y., Chang, H. W., Tai, K. H., Kuo, Y. C., & Tsai, Y. H. (2015). Internet cognitive failure and fatigue relevant to learners' self-regulation and learning progress in English vocabulary with a calibration scheme.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31*(5), 450-461
- Hong, J. C., Hwang, M. Y., Szeto, E., Tsai, C. R., Kuo, Y. C., & Hsu, W. Y. (2016). Internet cognitive failure relevant to self-efficacy, learning interest,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media learn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5*, 214-222.
- Huan, V. S., See, Y. L., Ang, R. P., & Har, C. W. (2008). The impact of adolescent concerns on their academic stress. *Educational Review, 60*(2), 169-178.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Ophir, E., Nass, C., & Wagner, A. D. (2009). Cognitive control in media multitasker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6*(37), 15583 - 15587.
- Quinn, P. D., & Duckworth, A. L. (2007). Happi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Evidence for reciprocal causality. I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24*(27), 2007-2013.

- Samaha, M., & Hawi, N. S. (2016).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21-325.
- Sass, D. A., & Smith, P. L. (2006). The effects of parceling unidimensional scales on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4), 566-586.
- Small, G. W., Moody, T. D., Siddarth, P., & Bookheimer, S. Y. (2009). Your brain on Google: Patterns of cerebral activation during internet searching.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17(2), 116 - 126.
- Suki, N., & Suki, N. (2013). Dependency on smartphones: an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Jurnal Teknologi*, 62(1), 49-55.
- Thomas, D. (2016). Cellphone Addiction and Academic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ailand. *International Forum*, 19(2), 80-96.
- Van Voorhis, P., Cullen, F. T., Link, B. G., & Wolfe, N. T. (1991). The impact of race and gender on correctional officers' orientation to the integrated environmen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8(4), 472-500.
- Wallace, J. C., Kass, S. J., & Stanny, C. J. (2002). The cognitive failures questionnaire revisited: dimensions and correlate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29(3), 238-256.
- Wang, W. (2001). Internet dependency and psychosocial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 Computer Studies*, 55, 919 - 938.
- Wang, P., Zhao, M., Wang, X., Xie, X., Wang, Y., & Lei, L. (2017). Peer relationship and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role of the need to belong.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6(4), 708-717.
- Wilmer, H. H., Sherman, L. E., & Chein, J. M. (2017). Smartphones and cognition: A review of research exploring the links between mobile technology habits and cognitive functioning. *Frontiers in Psychology*, 8, 1-16.
- Wu, Y. (2016). *Global smartphone user penetration forecast by 88 countries: 2007-2022*. MA: Strategy Analytic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Dependency, Internet Cognitive Failure, Peer Relationship, Academic Stress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im, Dong-Sim

Hanshin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dependency, internet cognitive failure, peer relationship, academic stress,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195 students attending the same high school in South Korea. A hypothetical model was composed of smartphone dependency and internet cognitive failure as exogenous variables, peer relationship, academic stress, and happiness as endogenous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smartphone dependency significantly affect internet cognitive failure. Second, smartphone dependency and internet cognitive failure significantly affect peer relationship. Third, smartphone dependency and internet cognitive failure significantly affect academic stress. Fourth, smartphone dependency and peer relationship significantly affect happiness. These results imply that smartphone dependency and internet cognitive failure considerably influence high school students' life overall. Based on these finding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 and counselling professionals should develop programs that focus on smartphone dependency and internet cognitive failure. Also, they should provide various educational and counselling strategies to high school students to effectively use smartphone and internet.

Key words : Smartphone Dependency, Internet Cognitive Failure, Peer Relationship, Academic Stress, Happiness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장지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이정화

마음길 심리상담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예측하는 변인이 라고 보고, 그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42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심리적 고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완벽주의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인지적 변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 정서경험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의 정서 표현과 관련된 내적 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전략 수립에 관한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서표현 양가성, 심리적 고통

* 본 논문은 장지현(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의 석사학위논문(2015, 지도교수 이정화)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지현,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원 (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누리관 205호, E-mail: cjh8109@naver.com

서론

청소년기는 집중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성공적 발달은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선행조건이다(박동혁, 2007).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학 진학을 위한 좋은 성적이라는 한 가지만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발달 과업 수행이 늦어지면서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을 보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스트레스를 주기 쉽다 이러한 역기능적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불안과 갈등 가정 내 정서적 친밀감의 상실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 실제로 청소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 응답자의 상당수가 스트레스(40.6%) 및 우울감(29.0%)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우리나라 청소년의 11.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그 이유로 성적 및 진학문제(39.2%), 가정불화(16.9%) 등을 들고 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하정희와 조한익(2006)에 의하면, 실제 상담에서 만난 청소년 내담자들이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실에서 학업성적을 통한 자기평가와 과도한 부모의 기대로 인해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 전형이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고등학생들이 여러 방면에서 유능하고 완벽해질 것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과 기대를 부과한다고 지각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하고 수행에 대해 만족할 수 없게 되는 완벽주의 성향을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완벽주의는 결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일생에 걸친 고통을 예측하는 강력한 독립변인 중 하나이다(Flett & Hewitt, 2002; O'Connor, Rasmussen, & Hawton, 2010 재인용). 초기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1990년대부터는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들이 개발되면서(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로는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와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가 있다.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수행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성향으로 과도하게 비판적인 자기 평가가 수반된다고 정의하고, 완벽주의를 실수에 대한 염려, 개인적 기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를 포함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설명하였다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의 개념에 포함된 대인관계적 측면을 강조하여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와 누구에게서 기인하는가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개념화하였다 이후 FMPS와 HMPS를 이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이 이루어졌으며, 완벽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척도를 통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을 통해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들이 적응적인 특성과 부적응적인 특성으로 구분됨이 밝혀졌다(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Saboonchi & Lundh, 1997; 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특히 Dunkley 등(2000)은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HMPS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포함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FMPS의 개인적 기준,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포함한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제안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달리,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부과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수행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비판적 성향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더 잘 경험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Dunkley et al., 2000). 이러한 특징은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도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Flett, Hewitt, Garshowitz, & Martin, 1997; Rice, Ashby, & Slaney, 1998; 최문선, 유제민, 현명호, 2005), 불안(Flett, Hewitt, & Dyck, 1989; Saboonchi & Lundh, 1997) 등 심리적 고통(James, Verplanken, & Rimes, 2015; 김현정, 손정락, 2007)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정의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직접적 관계에서 나아가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사이를 연결하는 내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매개변인들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ark, Heppner, & Lee, 2010). 매개변인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서영석, 2010), 상담 개입의 목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변인으로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신을 거절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Frost et al., 1990), 사회적, 평가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Hewitt & Flett, 1991), 실수에 대한 염려 및 수행에 대한 의심(Kawamura, Hunt, Frost, & Dibartolo, 1998; 김성주, 이영순, 2013 재인용)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심해지면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Leary, 198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자기존중감과 관계있으며(Kocovski & Endler, 2000),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작은 비난이나 평가적인 말에 대해서 쉽게 우울감 및 의욕저하를 경험

한다(이명신, 2010).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특성불안, 사회불안 및 사회적 회피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희, 2010; 박지연, 양난미, 2014).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김민선, 서영석, 2009b; 김성주, 이영순, 2013; 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과, 불안과 우울은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며(Stein, 200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소극적 대처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이진숙, 현명호, 2012), Williams, Falkum과 Martinsen(2015)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던 결과들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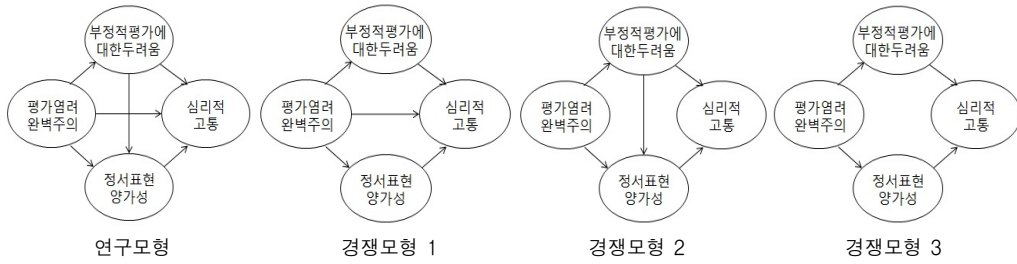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또 다른 과정변인으로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선택하였다. 어리석거나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내적 사고나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출공포를 보이는 완벽주의자들은(Burns, 1980) 정서표현이 적고 정서통제 및 사회적 민감성의 수준이 높다(Flett, Hewitt, & DeRosa, 1996). 따라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를 이미 느끼고 이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이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 것이다. 정서표현이 적은 것 자체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정서를 표현하고 싶는데 정서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King & Emmons, 1990; 최해연, 민경환, 2007). 완벽주의자들의 정서표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지만 Aldea와 Rice(2006)는 정서조절곤란이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혔으며 김정화와 신희천(2013)은 완벽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한다고 하여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고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크게 느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국내의 몇몇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남보라, 2006; 신자은, 2002; 이은아, 2009; 한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표현 양가성은 다시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뿐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Flett 등(1996)은 부정적 평가 및 사회적 거부에 대한 염려가 높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서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관련 태도 변인으로 본 김옥경(2013)의 연구에서는 정서관련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갈등이 높고 정서표현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주연과 이영순(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 자신의 정서 표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현을 억제하고 정서 표현에 갈등을 느끼는 이유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볼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인지적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정서 경험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인지적 요인이지만(이정윤, 최정훈, 1997) 동시에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주연, 이영순, 2014), 심지어 정서적 요인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김옥경, 2013; 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자들의 정서표현 과정에 주목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선행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탐색적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내적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상담 전략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매개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종속변인인 심리적 고통의 관계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매개하는 동시에 두 개의 매개변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으로, 모든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한 포화모형이다. 경쟁모형 1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직접경로가 제외된 부분매개모형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김민선, 서영석, 2009b; 김성주, 이영순, 2013)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 2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직접경로가 제외된 부분매개모형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한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정한지, 2015)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경쟁모형 3은 두 매개변인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직접경로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가? 둘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선행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인가?



[그림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작성자가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한 지면용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응답자는 총 535명이며,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많은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421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233명(55.3%), 여학생이 188명(44.7%)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80명(42.8%), 2학년이 241명(57.2%), 평균 연령은 만 16.48세(SD=.59)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평가염려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특성으로 밝혀진 FMPS의 하위 요인인 '수행에 대한 의심'과 '실수에 대한 염려', 그리고 HMPS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사용하였다. Dunkley 등(2000), Blankstein과 Dunkley(2002), Aldea와 Rice (2006), 김민선과 서영석(2009a; 2009b), 김정화와 신희천(2013), 김성주와 이영순(2013) 등의 연구에서 동일한 하위요인들을 선별하여 사용한 바 있다

FMPS는 정승진(199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는데 총 35문항 6개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은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와 '수행에 대한 의심(4문항)'으로,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정승진(1999)의 연구에서 이들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실수에 대한 염려가 .83, 수행에 대한 의심이 .66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들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가 .85, 수행에 대한 의심이 .64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HMPS는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는데 총 45문항 3개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15문항)로, 7점(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6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한 30문항에서 Leary(1983)가 전체점수와 상관이 높은 문항들로 단축형으로 제작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FNE)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갈등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28문항의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AEQ는 2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이 높으므로(King & Emmons, 1990; 최해연, 민경환, 2007), 본 연구에서는 김정화와 신희천(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사용하였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심리적 고통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Derogatis와 Melisaratos(1983)이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간이증상검사(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의 축약형으로 총 53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울(6문항), 불안(6문항)만을 사용하여 우울과 불안이 하나의 잠재변수(심리적 고통)를 구인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우울 및 불안의 총점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조화진과 서영석(2011), 이지원과 이기혁(2014)의 연구 등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사용하여 심리적 고통(디스트레스)을 구인한 바 있다. 신지은과 이동귀(201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우울이 .80, 불안이 .82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우울이 .86, 불안이 .89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를 사용하여 기초 자료 분석을 하였고 AMOS 22.0을 이용하여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척도, 왜도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둘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변인은 선행된 타당화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각 세 개와 두 개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고 단일요인 척도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 변인의 경우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의견에 따라 각각 세 개의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부터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할당하여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대하여 유사한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채택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뒤,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을 비교하였는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2, 3은 상호포함관계에 있는 모형(nested model)이므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엄격하므로(홍세희, 2000), 모형 간 적합도 지수의 비교를 함께 실시하여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은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과 Sobel 검증 및 다변량 델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 2 , 첨도가 ± 7 을 넘지 않아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481$), 정서표현 양가성($r=.479$), 심리적 고통($r=.582$)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가염려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r=.520$), 심리적 고통($r=.464$)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p<.001$). 정서표현 양가성은 평가염려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 고통($r=.566$)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각 변인 간 상관이 높은 편이므로 다중공선성 진단을 통해 허용오차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서표현 양가성의 측정변인들이 모두 허용오차 .28 이상, VIF 3.6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421)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1. 평가염려 완벽주의	-														
1-1. 실수에 대한 염려	.881	-													
1-2. 수행에 대한 의심	.727	.583	-												
1-3. 사회부과 완벽주의	.864	.566	.483	-											
2.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	.481	.462	.364	.372	-										
2-1. 부정적평가두려움1	.425	.413	.325	.323	.902	-									
2-2. 부정적평가두려움2	.519	.490	.385	.412	.895	.694	-								
2-3. 부정적평가두려움3	.359	.348	.276	.274	.918	.764	.728	-							
3. 정서표현 양가성	.479	.420	.433	.378	.520	.505	.488	.420	-						
3-1. 정서표현양가성1	.451	.398	.399	.358	.433	.438	.413	.353	.931	-					
3-2. 정서표현양가성2	.435	.386	.403	.336	.463	.432	.452	.372	.926	.806	-				
3-3. 정서표현양가성3	.442	.382	.400	.355	.536	.529	.488	.440	.917	.780	.763	-			
4. 심리적 고통	.582	.510	.459	.490	.464	.418	.491	.349	.566	.512	.505	.554	-		
4-1. 우울	.530	.474	.428	.432	.423	.385	.431	.330	.521	.470	.467	.507	.945	-	
4-2. 불안	.569	.489	.439	.493	.454	.405	.496	.330	.549	.496	.488	.539	.945	.785	-
M	2.92	2.94	3.07	3.80	3.18	3.30	2.99	3.24	3.15	3.19	3.11	3.16	2.54	2.64	2.43
SD	.47	.70	.69	.64	.68	.73	.77	.76	.63	.67	.68	.69	.91	.96	.96
왜도	-.04	-.02	-.17	-.04	-.01	-.23	-.03	.00	-.23	-.23	-.18	-.21	.08	-.03	.27
첨도	.02	-.27	-.03	.65	.26	.05	-.06	.18	.58	.28	.38	.50	-.69	-.77	-.66

모든 계수는 $p<.001$ 에서 유의함.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df=38, N=421)=108.245(p<.001)$ 였고, $TLI=.966$, $CFI=.976$, $RMSEA=.066(90\%$ 신뢰구간 .052~.081)으로 적합도가 양호하여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측정변인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β)을 살펴보면,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측정변인들은 .70~.8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변인들은 .84~.86, 정서표현 양가성의 측정변인들은

.87~.90, 심리적 고통의 측정변인들은 .86~.91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11개의 측정변인들로 4개의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421)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08.245***	38	.966	.976	.066 (.052~.081)

*** $p<.001$

3.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결과가 양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2, 3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2, 3 모두 TLI와 CFI에서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 RMSEA의 경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이 <.08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경쟁모형들이 모두 연구모형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을 비교하면 $\Delta\chi^2=34.19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2를 비교하면 $\Delta\chi^2=55.266$ 로,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유의한 차이를 의미하는 값인 3.84보다 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경쟁모형 2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3을 비교하면 $\Delta\chi^2=85.360$ 로 자유도의 차이가 2일 때 유의한 차이를 의미하는 5.99보다 커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χ^2 차이값이 유의하므로 자유도가 작은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동시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봐도 연구모형이 경쟁모형 1, 2, 3에 비하여 적합도 지수가 좀 더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N =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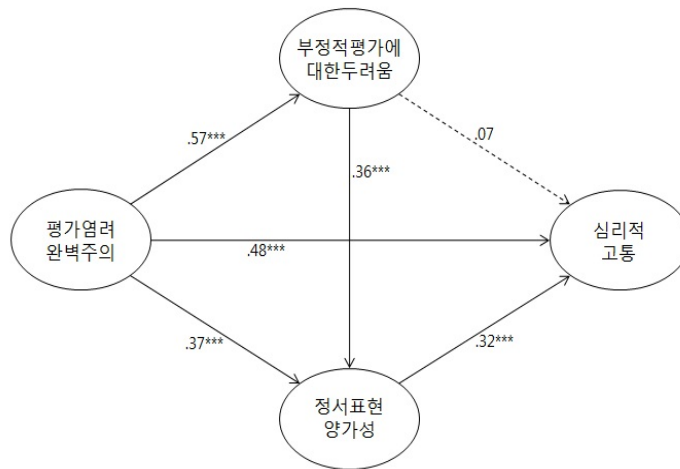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Delta\chi^2$
연구모형	108.245***	38	.966	.976	.066 (.052~.081)	
경쟁모형1	142.441***	39	.951	.965	.079 (.066~.094)	-34.196
경쟁모형2	163.511***	39	.941	.958	.087 (.074~.101)	-55.266
경쟁모형3	193.605***	40	.929	.948	.096 (.082~.109)	-85.360

*** $p<.001$

최종 채택된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추정치를 그림 2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beta=.569, p<.001$), 정서표현 양가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성($\beta=.369, p<.001$), 심리적 고통($\beta=.475, p<.001$)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평가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과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아지며, 심리적 고통 수준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beta=.358, p<.001$),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18, p<.001$). 즉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001$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표 4>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N=421)

	B	S.E.	β
평가염려 완벽주의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191***	.128	.569
평가염려 완벽주의 → 정서표현 양가성	.736***	.129	.369
평가염려 완벽주의 → 심리적 고통	1.303***	.190	.47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정서표현 양가성	.341***	.057	.35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심리적 고통	.087	.076	.066
정서표현 양가성 → 심리적 고통	.438***	.080	.318

*** $p<.001$

4.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최종모형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에 포함된 두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lo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를 거친 최종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원자료(N=421)로부터 무선할당으로 형성된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직접효과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5> 최종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N=421)

	직접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총효과
평가염려 완벽주의 →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	.569***		.569***
평가염려 완벽주의 → 정서표현 양가성	.369***	.204*** (.127~.289)	.573***
평가염려 완벽주의 → 심리적 고통	.475***	.220*** (.145~.305)	.695***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 → 정서표현 양가성	.358***		.358***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 → 심리적 고통	.066	.114*** (.059~.193)	.180**
정서표현 양가성 → 심리적 고통	.318***		.318***

** $p<.01$, *** $p<.0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마지막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별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¹⁾을, 순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확장한 다변량 델타 분석²⁾을 실시하여 z값을 계산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선,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Sobel test(z) = 3.233, $p<.01$),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1) z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2) z = \frac{abc}{\sqrt{b^2 c^2 SE_a^2 + a^2 b^2 SE_c^2 + a^2 c^2 SE_b^2}}$$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Sobel test(z)=3.581, $p<.001$),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 심리적 고통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모형의 개별 간접효과 검증 결과

(N= 421)

	B	S.E.	Sobel test(z)
평가염려 완벽주의 →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 → 정서표현 양가성 → 심리적 고통	.178	.055	3.233**
평가염려 완벽주의 → 정서표현 양가성 → 심리적 고통	.322	.090	3.581***
평가염려 완벽주의 → 부정적평가에대한두려움 → 심리적 고통	.104	.103	1.008

** $p<.01$, ***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심리적 고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및 그 하위차원인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Frost 등(1990), Hewitt과 Flett(1991), Dunkley 등(2000)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의 수준이 높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Aldea와 Rice(2006)의 연구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정서조절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화와 신희찬(2013)의 연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들이 정서표현이 적고 정서통제 수준이 높다는 Flett 등(199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 경로의 직접효과는 상당히 큰 편인 반면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고통 간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이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Hewitt & Flett, 1991, 1993; Kawamura et al., 1998; 김민선, 서영석, 2009b; 김성주, 이영순, 2013)의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유추하였던 선행연구들의 결과(Stein, Jang, & Livesley, 2002; Stein, 2006; Williams, Falkum, & Martinsen, 2015; 원주식, 2006; 이진숙, 현명호, 2012)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우울 및 불안 등을 각각의 개념으로 구인하고 본 연구와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지만 그것만으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제3의 변인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평가 및 사회적 거부에 대한 염려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정서표현 및 높은 정서통제를 보인다는 Flett 등(199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며, 평가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기 때문에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던 김정화와 신희천(2013)의 연구를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만으로 심리적 고통을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크게 느끼게 된다는 내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고등학생들을 상담할 경우 상담 전략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상위권 대학 진학이라는 과도하게 높은 목표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고등학생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이들이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정서 표현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고 정서표현을 적극적으로 억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성향의 고등학생을 상담하는 경우 겉으로는 정서의 표현이 적을지라도 그 내면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 그에 대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완벽주의자들에 대한 치료는 주로 인지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Beck, Rush, Shaw와 Emery(1979)에 따르면 완벽주의에 대한 인지적 치료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부적응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이 낮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Flett & Hewitt, 2002 재인용). 그런데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특성이 높은 기준 자체에 있다기보다 평가적 염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려할 때(김현희, 김창대,

2011), 높은 기준을 낮추는 개입 이전에 이들의 평가적 염려를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고통이나 실수, 불완전함을 상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해 상담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박경진, 조한익, 2014). 따라서 상담자가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내담자가 온전하게 수용받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교정적 정서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행동하도록 조직화한다는 면에서 적응적이며, 정서와 이성이 통합될 때 가장 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Greenberg & Paivio, 2008).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평가적 염려로 인하여 정서표현에 있어 갈등을 느끼고 정서를 적극적으로 억제해온 사람들이므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더라도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정서의 자각과 명료화 및 표현을 도와주는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전한 상담관계 안에서 정서의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들은 보다 적응적으로 변화가능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및 개인기준 완벽주의 모두를 변인을 설정하여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한 결과 매개변인들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그 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직접효과의 크기가 크다는 것으로, 두 변인 간에 다른 매개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매개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완벽주의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기제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고통을 우울 및 불안으로 구인하고 간이 증상검사(BSI) 중 우울과 불안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측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각각의 개념으로 구인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안 간의 관계를 별도로 연구함으로써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여러 가지의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서울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생, 일반 성인, 또는 임상집단 등 연구대상을 다양화하여 본 연구의 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청주: 질병관리본부.
- 김광일, 원호택, 김재환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민선, 서영석 (2009a).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 정서중심 대처와 지각된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27-446.
- 김민선, 서영석 (2009b).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성주, 이영순 (2013).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919-1938.
- 김순희 (2010).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경 (2013). 정서표현에 대한 정서관련태도와 정서표현갈등의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화, 신희천 (2013). 완벽주의가 정서조절 곤란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893-909.
- 김주연, 이영순 (2014).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낙관성, 부정적평가의 두려움 및 정서적 부적응행동의 차이: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표현 양가성의 군집 비교. 상담학연구, 15(1), 145-159
- 김현정, 손정락 (2007).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반복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83-205.
- 김현희, 김창대 (2011). 완벽주의자 하위 유형 분류 연구-평가염려·개인기준 완벽주의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73-391.
- 남보라 (2006). 완벽주의가 정서표현갈등과 갈등관리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진, 조한익 (2014).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9-34.
- 박동혁 (2007). 예방과 촉진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모형의 탐색.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연,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63-386.

고등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 2012년도 서울시청소년위기실태조사 연구자료. [http://
www.teen1318.or.kr/new/index.jsp](http://www.teen1318.or.kr/new/index.jsp)에서 검색.
- 설희정, 이동귀, 배병훈 (2014). 중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대인불안에 이르는 경로 탐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비합리적 신념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
교, 11(2), 335-353.
- 신자은 (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성향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은, 이동귀 (2011).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2), 55-79.
- 원주식 (2006).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
관적 좌절 경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명신 (2010). 자기불일치,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09).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22, 72-106.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
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정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지추구적 정
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정승진 (1999).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정한지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표
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본 심
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최문선, 유계민, 현명호 (2005). 평가 염려 및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5.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 통계. 국가통계포털 온라인간행물. <http://kosis.kr/>에서 검색.
- 하정희, 조한익 (2006).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완벽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73-896.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한정숙, 최승원, 김미리혜 (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의식과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3), 791-812.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dea, M. A., & Rice, K. G. (2006). The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i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98-510.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85-3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edat. *Psychology Today*, 34-51.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 595-605.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3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Hewitt, P. L., & Dyck, D. G. (1989). Self-oriented perfectionism, neuroticism,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731-735.
-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143-150.
- Flett, G. L., Hewitt, P. L., Garshowitz, M., & Martin, T. R. (1997). Personality,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9, 28-37.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8).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이홍표 역.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서울: 학지사.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ment &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James, K., Verplanken, B., & Rimes, K. A. (2015). Self-criticism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healthy perfectionism and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9, 123-128.
- Kawamura, K. Y., Hunt, S. L., Frost, R. O., & Dibartolo, P. (1998). *Perfectionism, anxiety, and depression: Are the relationships independent?*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Washington, D. C.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ocovski, N. L., & Endler, N. S. (2000). Social anxiety, self-regul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347-358.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O'Connor, R. C., Rasmussen, S., & Hawton, K. (2010). Predicting depression, anxiety and self-harm in adolescents: The role of perfectionism and acute life str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 52-59.
- Park, H. J., Heppner, P. P., & Lee, D. G. (2010). Maladaptive coping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Differences*, 48, 469 - 474.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boonchi, F., & Lundh, L.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921-92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ein, M. B. (2006).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 3-8.
- Stein, M. B., Jang, K. L., & Livesley, W. J. (2002). Heritability of social anxiety-related conc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twin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4), 219-224.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illiams, K. C., Falkum, E., & Martinsen, E. W. (2015).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voidance and mental distress among hearing-impaired employees. *Rehabilitation Psychology*, 60(1), 51-58.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Jang, Jee-Hyun

Seoul Women's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Lee, Jeong-Hwa

Maeumgil Counseling Center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s one of the strong predictors to psychological di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For this purpose, a sample of 421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ompleted a questionnaire and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was verified. Results indicated that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distress. Seco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However, the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as not significant. Thir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refor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se research results shed light on the internal process related to emotional expression of evaluative-concerns-perfectionist, whereas previous studies on perfectionism mostly focused on cognitive variables and the studies about emotional experiences of perfectionists were relatively littl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sychological distress*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영애†

계명대학교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1 패널 4차에서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2,264명(남자 1,166명, 여자 1,098명)의 아동들이었다. 연구 목적을 위해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과정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조건부 과정분석 방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우울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낮아지는 우울의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낮아지는 공격성의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우울, 공격성이 높아지는 영향을 감소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간, 높은 수준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을 통해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간, 높은 수준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통해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반 하여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 주요어 : 아동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295)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5114, E-mail: leevivian@hanmail.net

서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애착은 아동들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아동의 피학대경험은 발달 단계에서 애착관계 형성, 자아 발달, 학교적응을 포함하는 발달 과제의 수행에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을 촉진한다(Kim & Cicchetti, 2004). 아동의 학대경험은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고, 그 상처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의 의도적인 행위 및 태만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는데(Kempe, Silverman, Steele, Droegemueller, & Silver, 2013), 이러한 학대 문제는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학대경험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들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적응 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피학대경험 집단은 학대무경험 집단에 비해 그리고 지속적인 피학대경험 아동이 일시적인 피학대경험 아동에 비해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홍영수, 2010; Arata, Langhinrichsen-Rohling, Bowers, & O'Farrill-Swails, 2007; Jaffee & Maikovitch-Fong, 2011; Stirling & Amaya-Jackson, 2008),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적 문제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제철, 최지영, 2011; Stewart, Livingston, & Dennison, 2007).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아동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학대경험으로 인한 여러 부적응적 증상들 중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는 주요한 문제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꼽을 수 있다(김춘경, 조민규, 2014). 또한 아동의 학대경험은 학업 성적과 학업 성취(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김자영, 2014; Kinard, 2001), 학교 내 대인관계(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 또는 학교폭력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정익중, 2008; Grogan-Kaylor & Otis, 2003)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기원, 2014).

아동의 피학대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경향으로 우울 혹은 공격성 등 단일의 변인에 대한 매개효과 혹은 구조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김서현, 임혜림과 정익중(2014)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대경험과 방임이 학교생활 내 대인관계인 교사 관계와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와 신체 학대는 공격성과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임선아, 2015). 또 다른 연구에서 5~12세 아동 중 학대경험 집단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중복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대경험은 우울, 공격성 및 학업적 부적응 수준과 관계가 있었다(Shonk & Cicchetti, 2001). 한편, 국내의 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서적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구조 관계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통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전종철, 2015). 또, 중학생의 정서적 학대경험 수준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정서적 학대경험 수준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영, 2014). 앞서 제시된 연구들은 학대경험의 유무와 유형, 대상자의 연령, 매개 혹은 조절변수의 선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동 학대경험이 우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은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는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과 관련 규범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사회성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권중돈, 2014). 그러므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 단계에 대비하여 대인관계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결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박영준, 성효정, 2014; 조은정, 2012; Rao, Daley, & Hammen, 2000).

아동들이 학대라는 위기적 생활 사건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부적응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학대경험으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들은 부정적인 영향의 궤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적응을 보여주고 있다. Haskett, Nears, Ward와 Mcpherson(2006)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요인, 학대경험과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매개인자, 그리고 학대경험에 따른 아동들의 적응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예측인자를 탐색한 연구 경향을 확인하였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적응적 변화 양상은 보호요인이 작동되지 않았던 경우보다 작동한 경우가 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보호요인은 개인의 취약성이나 환경적 위험 등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Cicchetti, Rogosch, Lynch와 Holt(1993)는 8~13세 아동 중 아동보호기관으로 부터 선별된 학대경험 아동집단과 저소득 계층의 학대 무경험 아동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 통제 및 지능이 학업 수행상의 어려움과 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로 구성된 적응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대경험 아동 집단에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자아 통제가 적응적 기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특히 자아탄력성이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Cicchetti와 Rogosch(1997)의 연구에서는 6~11세의 아동들 중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선별된 학대경험 아동집단과 저소득 계층의 학대무경험 아동집단으로 분류하여 아동들이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아구조가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변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학대경험 아동집단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자아 과통제, 학대무경험 아동집단은 모와의 친밀감, 자아탄력성이 적응적 기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학대경험은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개인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적응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적응적 수준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학대 등의 위기와 어려움으로 부적응의 위협에 처한 아동들의 적응적 기능에 기여하는 여러 특성과 보호요인들을 개인적 특성, 가족, 가족 외 관계 및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개인적 특성에는 인지적 능력, 자아 통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Haskett et al., 2006).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아동의 학대경험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 효능감 등의 개인적 특성,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 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김혜금, 2014; 박경진, 박영준, 2014; 박애리, 2014),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Cicchetti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3, 1997)에 근거하여 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의 하위 영역인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 문제(김수정, 2015),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학교적응(송미령, 이재연, 2011)의 구조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중학생의 피학대경험은 학년이 낮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없을수록 자아탄력성은 증가하였다(이조경, 백순희, 2016). 5~12세 아동의 학대경험으로 인한 적응 과정을 분석한 Shonk와 Cicchetti(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유능성은 학대경험과 행동적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구조 관계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매개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한신애, 문수백, 2011). 이들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자아탄력성은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촉진하여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기를 조절하여(Block & Kremen, 1996)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정서적 적응유연성 측면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문은식, 2003).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탐색한 결과, 학대경험 아동집단은 자아존중감, 교사 지지, 가족 지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조은정, 2012). 일부 연구들에서 8~12세 아동의 학대경험은 자아존중감(Pflieger & Vazsonyi, 2006)을 매개로 학교 부적응, 학업 성취와 관계되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시설 입소 청소년(이승주, 남재성, 2016),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학대 및 방임의 피해경험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철, 최지영, 2011).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 학대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특히 아동의 자기 가치감 및 자신감의 저하와 관계되기 때문에 학대경험과 적응적 행동 간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경향과 연구 결과들이 주는 함의 그리고 제한점들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대경험은 우울, 공격성, 자존감의 저하, 학교 부적응 등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학대경험은 아동에 따라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경험과 적응적 기능의 관계에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학대경험이라는 위협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적응적 기능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우울,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 혹은 자아탄력성 각각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호요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절 및 완화효과를 밝히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우울,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통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아동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나 결과로 작용하는 우울 및 공격성을 완화하는지, 아동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지를 파악해봄으로서 학대 예방 및 개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 학대경험이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 학대경험이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아동 학대경험이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넷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아동 학대경험이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아동 학대경험이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가? 여섯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아동 학대경험이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의 초1 패널 자료 중 4차(2013년)에서 6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하였다. 대상자는 4차에서 6차년도 까지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학대척도 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78명을 제외한 2,264명(남자: 1,166명, 여자: 1098명)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해당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들이다. 이들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 후기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발달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오미숙, 심우찬, 2014). 또, 2016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연령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이 만 10~12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 발달의 전반적인 특성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표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아동 학대경험

아동 학대경험은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대경험 척도는 총 4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 하신다' 등의 정서적 학대, 신체 학대 및 언어폭력의 피해 여부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4차년도 0.82, 5차년도 0.80, 6차년도 0.80 이었다. 학대경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은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경험한 것을 의미하고, 학대 경험이라는 용어는 아동학대, 아동 학대경험 혹은 피학대경험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나. 종속변수: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문선모(1976),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정화실, 1991)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총 20문항이나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계수가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으로 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으로 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4차년도 0.91, 5차년도 0.89, 6차년도 0.89 이었다.

다. 매개 및 조절변수: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척도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척도를 토대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기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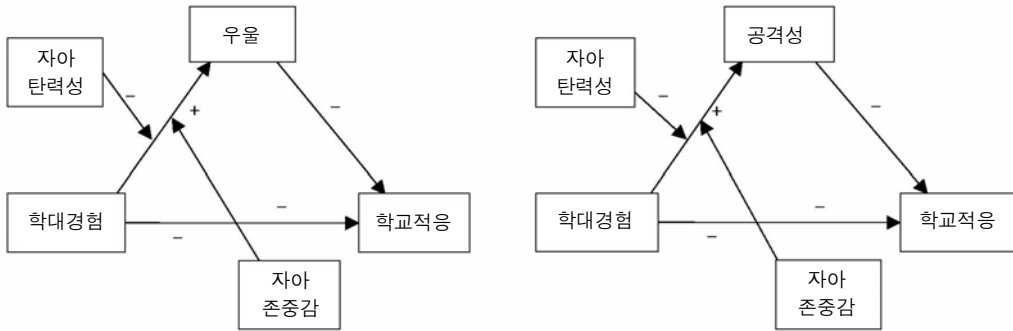
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4차년도 0.89, 6차년도 0.90 이었다. 공격성 척도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하루 종일 화를 낼 때가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4차년도 0.81, 6차년도 0.83 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속 행동과학연구소(2001)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 한다',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5차년도 0.82, 6차년도 0.83 이었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권지은(2003)이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등으로 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4차년도 0.90, 6차년도 0.89 이었다. 앞서 제시한 모든 척도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경험, 학교적응,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라. 통제변수: 성별

패널조사 자료에서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여자는 0, 남자는 1로 재부호화 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과정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Hayes(2013)는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 방법을 통해 조절모형과 매개모형 및 조절된 매개모형 등을 포함한 76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조건부 과정분석의 모형 9번에 매개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는 학대경험, 종속변수는 학교적응, 매개변수는 우울과 공격성, 조절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통제변수는 성별이다. 즉,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학대경험이 우울,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단, +는 정적 영향, -는 부적 영향을 의미)

4. 자료분석

첫째, 모든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와 변수들을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OLS(ordinary least squares)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조건부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조건부 과정분석 방법(이형권, 20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건부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해 나타나고,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들이다. 조건부 간접효과는 특정 값 선택(pick-a-point)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조절변수의 특정 값으로 평균과 평균 $\pm 1SD$ 에서의 조건부 효과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추론에는 부스트랩 신뢰구간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스트랩 표본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다. 조건부 과정분석은 PROCESS macro프로그램과 SPSS 21.0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및 상관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 계수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는 $-0.05 \sim 1.37$ 로 절대 값이 2 미만이었으며, 첨도는 $.01 \sim 2.28$ 로 절대 값이 4 미만으로(배병렬, 2015)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는, 학대경험과 우울($r=.31, p<.01$), 학대와 공격성($r=.30, p<.01$)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고,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r=-.32, p<.01$), 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r=-.10$,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p < .01$), 학대경험과 학교적응($r = -.25, p < .01$)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2. 조건부 과정모형 분석 결과

조건부 과정모형 분석에 사용되는 PROCESS macro는 조절분석과 매개분석을 결합한 다양한 유형의 조건부 과정모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각 모형 내에서 필요한 회귀분석과 조건부 및 비조건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추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산출해 준다. 또, 통제변수는 연속형 변수 혹은 이분형 변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여자 0, 남자 1)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성별을 통제된 경우의 회귀계수이다. 모형의 계수들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들은 비표준화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Hayse, 2013, 이형권, 2015).

가. 우울을 통한 조건부 효과와 조절효과

우울(매개변수)을 통해서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와 조절효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면, 성별을 통제된 경우에 학대경험은 우울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Coeff = 3.415, p < .001$), 우울은 학교적응에 음의 영향($Coeff = -.229, p < .01$)을 나타내었다. 즉, 학대경험은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음의 방향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과 우울($Coeff = -1.696, p < .001$), 학교적응($Coeff = -4.858, p < .001$)의 회귀계수는 음수로 나타났는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 우울과 학교적응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학대경험×자아존중감($Coeff = -.038, p < .001$), 학대경험×자아탄력성($Coeff = -.008, p < .001$)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학대경험의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우울,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추정은 $X \rightarrow M$ 의 효과와 $M \rightarrow Y$ 의 효과의 곱셈 항으로 추정되고, 직접효과는 M 을 통제된 상태에서 $X \rightarrow Y$ 의 효과를 추정하여 계산된다. X 가 Y 에 미치는 단일한 간접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의 함수이다. 따라서 조건부 간접효과의 추정과 해석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다(Hayse, 2013, 이형권, 2015). 조건부 간접효과는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의 평균과 평균±1SD 세 수준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이다.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간 조건부 간접효과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학대경험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에서 우울의 조건부과정 분석의 회귀계수

선행(Antecedent)	결과(Consequent)					
	우울(매개변수)			학교적응(종속변수)		
	Coeff	SE	p	Coeff	SE	p
학대경험	3.415	.207	.000	.067	.096	.488
우울	-	-	-	-.229	.076	.003
자아존중감	.395	.061	.000	-	-	-
자아탄력성	.127	.036	.000	-	-	-
성별	-1.696	.365	.000	-4.858	1.051	.000
학대경험×자아존중감	-.038	.003	.000	-	-	-
학대경험×자아탄력성	-.008	.002	.000	-	-	-
상수	-12.337	3.677	.001	186.290	2.178	.000
	$R^2=.275, F=131.823(6, 2088) p<.000$			$R^2=.038, F=20.907(4, 2090), p<.001$		

Coeff=회귀계수, * $p<.05$, ** $p<.01$, *** $p<.001$

<표 2>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간 조건부 간접효과

매개변수	조절변수		효과 (effect)	표준오차 (boot SE)	95% 신뢰구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하한값(LLCI)	상한값(ULCI)
우울	51.677	64.493	-.218	.066	-.350	-.089
	51.677	80.722	-.190	.059	-.307	-.078
	51.677	96.951	-.162	.053	-.274	-.066
우울	60.759	64.493	-.139	.043	-.228	-.058
	60.759	80.722	-.111	.034	-.180	-.046
	60.759	96.951	-.083	.028	-.146	-.035
우울	69.841	64.493	-.060	.028	-.137	-.019
	69.841	80.722	-.032	.019	-.086	-.005
	69.841	96.951	-.004	.016	-.041	.024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중간, 높은 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는 음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관한 بوت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간, 높은 수준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을 통해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다. 공격성을 통한 조건부 효과와 조절효과

공격성(매개변수)을 통해서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와 조절효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을 통제한 경우에 학대경험은 공격성(Coeff=1.431, $p<.001$)에 양의 영향을,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399, $p<.001$). 즉, 학대경험은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음의 방향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성별과 공격성(Coeff=-.187, $p>.05$)은 음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격성을 통한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대경험×자아존중감(Coeff=-.011, $p<.001$), 학대경험×자아탄력성(Coeff=-.006, $p<.001$)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학대경험의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학대경험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에서 공격성의 조건부과정 분석의 회귀계수

선행(Antecedent)	결과(Consequent)					
	공격성(매개변수)			학교적응(종속변수)		
	Coeff	SE	p	Coeff	SE	p
학대경험	1.431	.138	.000	.067	.096	.488
공격성	-	-	-	-.399		.001
자아존중감	.103	.041	.012	-	-	-
자아탄력성	.109	.024	.000	-	-	-
성별	-.187	.243	.442	-4.858	1.051	.000
학대경험×자아존중감	-.011	.002	.000	-	-	-
학대경험×자아탄력성	-.006	.001	.000	-	-	-
상수	-.439	2.454	.858	186.290	2.178	.000
			$R^2=.176, F(df)=74.160(6, 2088), p<.000$	$R^2=.038, F(df)=20.907(4, 2090), p<.000$		

Coeff=회귀계수, * $p<.05$, ** $p<.01$, *** $p<.001$

라.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간 조건부 간접효과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간 조건부 간접효과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중간, 높은 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는 음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붓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중간, 높은 수준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통해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

지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공격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간 조건부 간접효과

매개변수	조절변수		효과 (effect)	표준오차 (boot SE)	95% 신뢰구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하한값(LLCI)	상한값(ULCI)
공격성	51.677	64.493	-.206	.064	-.332	-.080
	51.677	80.722	-.170	.053	-.276	-.066
	51.677	96.951	-.133	.045	-.232	-.053
공격성	60.759	64.493	-.168	.053	-.274	-.065
	60.759	80.722	-.131	.041	-.213	-.052
	60.759	96.951	-.094	.032	-.163	-.038
공격성	69.841	64.493	-.130	.046	-.235	-.053
	69.841	80.722	-.093	.033	-.171	-.038
	69.841	96.951	-.056	.024	-.118	-.020

2.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

Hayes(2013)는 조절된 매개모형의 공식적인 검정은 조절된 매개지수를 통한 추론 검정을 권장하고 하고 있다. 학대경험과 우울,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부분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partial moderated mediation)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학대경험과 우울 그리고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بوت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우울, 공격성 간 부분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지수(index)	표준오차(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LLCI)	상한값(ULCI)
자아존중감	우울	.009	.003	.004	.015
자아탄력성		.002	.001	.001	.004
자아존중감	공격성	.004	.002	.001	.009
자아탄력성		.002	.001	.001	.005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3. 직접효과

직접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없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학대경험과 학교적응 간 직접효과(effect=.067, $t=.693$, $p=.488$)이었으며 95% 백분위 بوت스트랩 신뢰구간(하한값~상한값: -.122~.255)은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주요 결과들을 선행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아동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우울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낮아지는 우울의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낮아지는 공격성의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구조 관계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통한 매개효과를 나타낸 결과(김수연, 전종철, 2015)와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아동의 지속적인 학대경험이 일시적인 학대경험보다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적 행동의 외현화 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Ethier, Lemelin, & Lacharite, 2004; Jaffee & Maikovich-Fong, 2011; 김수정, 정익중, 2013), 5~12세의 학대경험 아동이 학대 무경험 아동에 비해 우울, 공격성 등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학업적 부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Shonk & Cicchetti, 2001)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들 결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이 학대경험에 노출되었더라도 학대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공격성의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한다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비행 행동이나 부적응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외현적 공격성 등의 문제로 의뢰된 아동의 경우 반드시 피학대경험을 파악하고 학대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입 계획이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그리고 공격성을 통해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부모에 의한 학대는 자존감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김재철, 최지영, 2011),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은 증가하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감소하였으며(Amir & Gatab, 2011),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 또래 간의 폭력경험 등 다중 폭력 피해자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Soler, Kirchner, Paretilla, & Forns, 2013) 밝힌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와 관련된 환경적 변인보다는 개인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박성혜, 윤종희, 2013)와 본 연구 결과는 일관한다. 한편, 언어·정서적 학대, 신체·물리적 학대, 방임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자존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승주, 남재성, 2016)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학대 유형 별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상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시소 청소년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중학생의 학대경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대상자의 연령과 발달 시기 및 학대 유형의 분류에 의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대경험은 발생 연령, 유형, 심각성 및 지속성 등을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학대경험에 관한 발달적 접근(English, Graham, Litrownik, Everson, & Bangdiwala, 2005)에 의하면 학대경험의 영역에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시기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접근은 학대를 경험한 발달 시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제 수행에 적응 혹은 부적응으로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의 하위 유형 및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시기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Bolger, Patterson과 Kupersmidt(1998)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적용을 통해 긍정적 또래관계가 있는 만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관계가 결핍된 아동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국한된 제한점이 있다. 아동기는 가정에서 학교와 또래관계로 환경적 맥락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긍정적 또래관계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 격려를 제공하고,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친밀한 또래관계는 학대경험으로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대안적 애착을 제공하여 아동 자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 모델을 발달시키는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환경적 맥락인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에 어떻게 작용하여 아동 학대경험으로 인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우울, 공격성을 통해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5세~12세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유능성보다 더 큰 매개효과를 나타내었고(Shonk & Cicchetti, 2001),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경험 아동집단과 학대무경험 아동집단 간 적응 과정에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적응의 예측인자임을 밝힌(Cicchetti et al., 1993; Cicchetti & Rogosch, 1997)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 송진영과 박민자(2015)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본 연구와 상이한 점이 있으나 피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결과와는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 학대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고찰에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적응적 기능에 대한 예측인자로 나타남에 따라 위협과 역경에 처한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아동들의 궁극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확인하였다(Cicchetti & Rogosch, 1997). 다음, 아동의 학대경험은 우울, 공격성의 매개인자에 의해 학교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우울, 공격성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서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개인적 성격체계의 능력으로 아동들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Block & Kremen, 1996). 아동들이 위협과 어려운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촉진하는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기와 타자의 감정 인식과 수용을 촉진하는 공감 훈련을 통해 학교적응을 촉진하고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한 연구의 의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 공격성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통해 매개됨에 따라 학대경험으로 인한 우울,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2차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들 위협요인을 조절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밝힌 점에 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전략의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으며, 그 제한점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 피학대 경험과 학교적응, 우울, 및 공격성의 영향력을 시간 경과에 따라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은 개인내적 요인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와 과정에 대해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포괄적 개념에 해당되는 방임 등의 하위 유형을 포함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대경험의 하위 유형 별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통해 보다 더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대경험 아동과 학대무경험 아동의 적응유연성은 모든 환경적 맥락과 발달 단계에서 동일하게 기능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Cicchetti et al., 1993) 학대경험 아동에게 내재된 높은 수준의 적응을 예측하는 개인내적 특성과 다양한 보호요인이 작용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중돈 (201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론과 실천. 서울: 학지사.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교사 관계와 교우 관계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2, 29-54.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1).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5-33.
- 김세원 (2003). 사회적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연, 전종설 (2015). 아동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4), 387-410.
- 김수정 (2015). 아동학대가 초등학생의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1, 47-76.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자영 (2014). 아동의 정서 학대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3), 286-316.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김춘경, 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 김혜금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환경연구, 52(1), 11-19.
- 문선모 (1976). 학교적응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학생지도연구, 3.
- 문은식 (2003). 청소년의 애착 안정성과 학교생활적응 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3), 349-369.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진, 박영준 (2014). 시설입소 피학대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46, 205-238.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연구, 35(1), 1-15.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애리 (2014). 지각된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97-416.
- 박영준, 성효정 (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서울: 청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한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송미령, 이재연 (2011).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19-244.
- 송진영, 박민자 (2015).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3, 87-112..
- 오미숙, 심우찬 (2014).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37-261.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주, 남재성 (2016).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2(3), 87-112.
- 이조경, 백순희 (2016).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102-115.

- 이형권 (2015). 매개분석 · 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서울: 신영사.
- 임선아 (2015). 아동학대 피해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매개하여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소
 득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85-108.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중학생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
 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29-54.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은정 (2012).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학대경험 아동집단과 학대무경험 아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9,
 138-16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제 1차~4차 조사 데이터 코드북*.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신애,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 분석. *미래유아교
 육학회지*, 18(3), 355-376.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홍영수 (2010). 부모학대가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적지지 효과에 대한 탐
 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225-244.
- Amir, H., & Gatab, T. (2011).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 raising and self-esteem
 among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30,
 2019-2026.
- Arata, C. M., Langhinrichsen-Rohling, J., Bowers, D., & O'Farrill-Swails, L. (2007). Single versus
 multi-type maltreatment: An examination of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1(4), 29-52.
- Block, J., & Krema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Cicchetti, D., Rogosch, F. A. (1997). The role of self-organization in the promotion of resilience in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 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logy*, 9(4), 799-817.
- Cicchetti, D., Rogosch, F. A., Lynch, M., & Holt, K. D.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29-647.
- English, D. J., Graham, J. D., Litrownik, A., Everson, M., & Bangdiwala, S., I. (2005). Defining maltreatment chronicity: Are there differences in chil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9, 575-595.
- Ethier, L., Lemelin, J. P., & Lacharite, C.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on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 Abuse and Neglect*, 28(12), 1265-1278.
- Grogan-Kaylor, A., & Otis, M. D. (2003). The effect of childhood maltreatment on adult criminality: A tobit regression analysis. *Child Maltreatment*, 8(2), 129-137.
- Haskett, M. E., Nears, K., Ward, C. S., & Mcpherson, A. V. (2006). Diversity in adjustment of maltreated children: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t functioning.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6), 796-812.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194.
-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2013). *The battered-child syndrome* (pp. 23-38). NY: Springer Netherlands.
- Kinard, E. (2001). Perceived and actual academic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5, 33-45
- Kim, J., & Cicchetti, D.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 maltreatment,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maltreatment: The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4), 341-354.
- Pflieger, J. C., & Vazsonyi, A. T. (2006). Parenting processes and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low and high ses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ce*, 29, 495-512.
- Rao, U., Daley, S. E., & Hammen, C. (2000).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s in adolescent women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2), 215-222.
- Shonk, S.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Soler, L., Kirchner, T., Paretilla, C., & Forns, M. (2013). Impact of poly-victimization on mental health: The mediator and/or moderator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13), 2695-2712.
- Stewart, A., Livingston, M., & Dennison, S. (2007).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Examining the link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juvenile offending. *Child Abuse & Neglect*, 32, 51-66.
- Stirling, Jr. J., & Amaya-Jackson, L. (2008). Understanding the behavioral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child abuse. *Pediatrics*, 122(3), 667-673.

The Impact of Child Abuse Experience,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School Adjustment in Late 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Lee, Young-Ae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on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experience,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school-aged children. This study utilized the elementary school 1st-grade panel data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wave 4 to wave 6 survey. The subjects consisted of 2,264 children(1,166 boys, 1,098 girls) from 4th grade to 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odel of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by macro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 abuse experience affected depression and aggression positively, whereas depression and aggression affected school adjustment negatively. This finding indicates that child abuse experience may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indirectly through depression and aggression rather than directly. Seco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moderated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child abuse experience. The result implies that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may alleviate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child abuse experience. Third,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showe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the result implies that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may alleviate the negatively indirect effect of child abuse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depression and agg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of this, th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 abuse experience, depression, aggression, self-esteem, ego-resiliency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황순길	이귀숙†	이혜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신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대상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 현장 실무자 대상의 요구조사를 실시한 후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실정에 맞추어 각 회기별 40분씩, 총 2회기로 구성되었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78명이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각 39명)으로 구분되었다.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이 향상되었다. 둘째,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나 어려운 스트레스상황에서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변화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끝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과성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자살, 자살예방 프로그램, 초등학생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내용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귀숙, 고신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E-mail: lgs4305@hanmail.net

서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에 대한 답변에서 초등학생은 17.7%로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22.6%, 고등학생 26.8%로 전년도보다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황순길, 김동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그리고 김지혜(2016)가 전국 초·중·고 학생 83,3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 등 자살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 1.4%, 중학생 1.6%, 인문계 고등학생 1.9%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러한 수치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치에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은 초등학생의 수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 또한 대상 면에서도 이러한 자살 관련 조사들이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보편적이고 범 적용 가능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통계청이 집계한 사망원인통계를 검토해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은 10대에서 2009년 이후 연속 1위였다가 2014년에는 2위를 나타냈고, 2015년에 다시 1위를 나타냈다. 20대에서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9~24세 청소년의 경우 2004년 청소년 사망 원인이 운수사고(7.1), 고의적 자해(6.6), 암(4.1)이었다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의적 자해(자살)이 많아지면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보고된 통계치가 대부분의 경우 과소 추정치임을 고려했을 때(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McWhirter, & R. J. McWhirter, 2003; 이승연, 2007 재인용) 자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며 초등학생들마저도 적지 않은 비율의 수가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황순길 외, 2016) 교육현장에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초등학생용 자살예방교육을 비롯한 예방대책이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자살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관련자료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발달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 위험과 맞물릴 수 있는 발달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초기는 아동기적 특성을 더 많이 보여 부모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에 비해 더 큰 반면, 중기 이후로 갈수록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아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지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정소희, 2016에서 재인용). 발달특성상 의존에서 독립의 이행과정에 있

는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급격하게 발달하는 신체에 비해 심리, 정서, 인지적 발달이 미숙해서 가정 및 학교환경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로 인한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강성욱, 2010).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는 것과 본인의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도 변화하고,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2010). 또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학업 수행 등의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신체적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이 이후의 성격변화와 삶의 만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자기 욕구를 손쉽게 해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했을 때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초등학생 아동은 윗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라왔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며 원하는 정보나 재미도 쉽게 얻어오면서 목적을 위해 인내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뉴시스, 2016.8.8).

이처럼 초등학생들은 주어진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다. 김현순과 김병석(2008)은 청소년들이 발달적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사망으로 바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정말 죽고자 하는 의지가 없더라도 충동적으로 혹은 도움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최병목, 2002), 일시적인 자살충동이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

실제로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청소년 자살행동의 단계를 구분한 Jacobs(1980)는 자살에 이르기까지를 5단계¹⁾로 나누고 있다. 특히 1단계에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랑의 부재가 무기력과 외로움을 발생시키고 2단계에서 이러한 이전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전이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이 유년기부터의 다년간에 걸친 문제로 인한 것이며 초기 청소년, 즉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도 적극적인 생명존중의식의 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은 다양한 각각의 이유로 자살 위기상황에 처했다가 촉진 사건에 의해 시도되어진다.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김기환, 전명희, 2000; 김보영, 2008; 박재연, 2010)와 학

1) 1단계는 유아기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과 외로움 느낌, 2단계는 청소년 이전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전이, 3단계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사회적 고립감을 나타내고, 4단계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5단계는 자살시도에 앞서 자살에 대한 자기합리화(self-justification) 과정을 거친다.

교 적응 및 또래 문제(Kaltiala-Heino, 1999; 이귀숙, 김은영, 장은희, 2015 재인용)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의 갈등문제(박재연, 2010), 대중매체의 영향(김순규, 2008), 경쟁적 구조 속에서 경험하는 왜곡된 관계 및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은 아동·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우며 발달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살시도 경험(김경미, 2013), 우울(박영숙, 2009), 무망감(윤미혜, 2014; 정하나, 김정민, 2010), 충동성 및 공격성(Brent, Johnson, Perper, Connolly, Bridge, & Bartle, 1994; 지승희, 구본용, 배주미, 정익중, 이승연, 김은영, 김태성, 박재연, 허진석, 2007 재인용)등과 함께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인지오류는 청소년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충동적으로 자살할 위험을 높이고, 왜곡된 생각과 기분에 의해 현실을 도피하는 문제해결방식인 자살이 시도될 수 있다(변영주, 1994) 이러한 인지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자살위험의 요인들에게서 그 영향력을 완충하거나 억제하여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문동규, 김영희, 2011), 자아탄력성(박재연, 2010), 가족의 지지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조운숙, 2008; 지추련, 2012, 박진아, 2001),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와 학교에서의 관계(박재연, 2010; 임경희, 2015; 홍영수, 전선영, 2005; Murray & Wright, 2006), 지역사회와의 결속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송영미, 2000) 등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을 설문조사한 황순길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이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교육,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스트레스에 긍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자살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도 자살 예방에 공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이론 중에 인지행동적 접근과 심리교육적 접근이 있다. 먼저 인지행동적 접근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박현주, 배정미, 2013). 이는 1970년대 Ellis(1962), Beck(1979)등에 의해서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여 이를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것으로 재구조화하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와 이를 발전시켜 부적응 행동의 행동분석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DBT)로 이어져왔다. DBT의 기본 원리들은 본래 경계선 성격장애환자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 자살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하여 보급하는 등 자살분야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Jobes, 2000; Miller, 1999; 배주미, 양윤란, 김은영, 2009). 조은경(201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민애(2009)는 자살위험이 있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음악치료를 실시한 결과 자살생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심리교육적 접근은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학생들이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삶의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인성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학교의 생활지도와 상담분야, 자살예방교육에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홍종관, 1999). 심리교육은 치료보다 발달과 예방, 교육을 강조하며, 활동-반영(action-reflection)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현실에서 책임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안에서 생긴 인지적 갈등은 지지적 소집단 활동에서 적절한 반응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다(홍기철, 1999). 자살과 관련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심리교육은 자살의 위험요인이나 경고 사인, 자살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전략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관찰을 통해 정상적이고 예방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임기숙(200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자살과 관련하여 예방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심리교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교육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자살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의 자살예방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자살생각 등 자살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문제이며, 초등학생 대상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발달단계상으로 자살생각의 시작 시점이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주목하고 있으며(Nock, Borges, Bromet, Cha, Kessler, & Lee, 2008), 청소년기 이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자살이 초등학생들에게서도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이선미, 2014) 전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때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의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고, 특히 초등학생용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가 검증된 증거기반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보급하고, 학교에서도 질 높은 자살예방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시점이다. 특히 '자살'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하는 현 상황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그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이는 자칫 형식적인 교육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방법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실제로 초등학생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안에서는 자살예방 내용과 함께, 나 자신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일깨워 주는 인지행동적·심리교육적 접근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죽고 싶을 정도의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할 때는 숙련된 전문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초등학생 자살예방 전문지도자 양성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심리교육적, 발달적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및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초등학생 대상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과 이상희와 최한나(2011)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개발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현장요구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초등학생 자살예방 관련 변인에 대하여 문헌을 고찰하고, 국내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황 및 주요구성내용과 요소, 구체적 진행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5,6학년에 속하여 그 특성을 경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초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초등학생 그룹은 5학년 6명, 6학년 3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학교선생님, 또래, 가정에서의 어려움, 충동조절과 발달적 미성숙함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기존의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에서는 동영상시청이나 좋은 선생님 등의 요소가 기억이 났으나 교육내용은 뚜렷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적 개입을 위하여 재미있고 토론이 있으며 동영상 시청 등이 있는 수업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구성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에게도 FGI를 실시하였다. 질문내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용은 자살을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과 초등학생 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내용과 적절한 실시 방법 및 형태, 그리고 제안점 등 이었다.

<표 1>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개발단계별 주요내용

단계	세부과정	주요 내용
기획 단계	목표수립	•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의 목표 수립
	문헌연구	• 초등학생 자살예방관련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 고찰
	현장요구 분석	• 현장전문가(5명) 및 청소년(9명)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실시 및 분석 • 현장실무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청소년상담사 등, 338명) 대상 요구조사 및 결과 분석
구성 단계	구성원리 도출	• 문헌연구 및 요구분석 기반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원리 추출
	프로그램내용 구성	• 프로그램 요소 조직 및 활동 내용 구성 •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안면 타당도 평가 • 프로그램 초안 개발
실시 및 평가 단계	예비연구	•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2회기, 실험집단 39명, 통제집단 39명)
	평가 및 수정·보완	•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에 따른 수정 및 보완 • 전문가 감수 및 자문에 따른 수정 및 보완
	개발완료	• 최종 프로그램 개발 • 매뉴얼, 워크북, 영상자료 등의 교구재 개발

이에 대한 결과로, 먼저 초등학생들은 주변 아이들의 부정적인 피드백, 학대·폭력 등 역기능적인 가족체계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생명존중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할 때 충격을 크게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자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으며, SNS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한 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자기감정 이해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우관계와 긍정적 사고훈련, 그리고 도움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미와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부모교육과 담임교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청소년상담사 등 33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회기 및 구성 내용 등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와 청소년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상담현장에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청소년 상담분야에서의 실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질문의 주요내용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별 중요도, 추가 내용 및 고려사항, 프로그램 진행과 예상되는 어려움 등이었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에 대해 자살예방 방법과 생명존중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자살예방 방법으로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 도움주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존중의식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소중함 알기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높이 요구하였다. 그리고 환경영역에 관련해서는 교우관계 잘하는 방법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 개인영역에서는 자기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 자아존중감 향상, 긍정적 사고훈련,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에 대한 수치별 분석 결과,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6.59/7), 자신의 소중함 알기(6.5), 생명의 소중함(6.39/7), 교우관계 잘하는 법(6.39/7),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6.34/7), 부모와의 의사소통(6.29/7), 감정조절방법(6.28/7), 도움을 주는 방법(6.26/7), 자기감정이해(6.26/7), 자아존중감 향상(6.20/7), 긍정적 사고 훈련(6.15/7), 스트레스 대처 방안(6.14/7), 자살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6.08/7), 생명경시 행동 알기(6.02/7) 등이 제시되었다. 학교현장에서의 적절한 프로그램 회기수는 2회기(27.86%)와 4회기(28.48%)에 대한 수요가 큰 차이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성

문헌연구와 현장요구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전반적 구성은 평소에 나의 생명을 돌보는 방법(1회기)과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2회기)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평소에 나의 생명을 돌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나 자신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 후에 보다 동기화될 수 있다. 셋째,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혼자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넷째, Tell-WHO는 위기상황에서의 도움추구 행동이 용이하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 기억전략법으로 고안되었다. 다섯째, 초록하트 진저맨과 빨간하트 진저맨은 신호등 체계 가운데 안전한 상황(초록불)과 위기상황(빨간불)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여섯째, 진저맨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투사가 가능한 단순한 이미지이면서도 친근한 동화 속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학급단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 회기는 40씩으로 되어 있다.

방 법

연구 절차 및 연구설계

1차 개발된 프로그램 초안은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현장 적용을 위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 운영은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3일~20일까지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39명)과 통제집단(39명)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생명존중의식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의 연구설계는 표 2와 같다.

<표 2>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집단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3		O4

O1, O3 : 사전검사(실험집단, 통제집단) / 생명존중의식, 스트레스 대처행동

O2 : 사후검사(실험집단) / 생명존중의식, 스트레스 대처행동, 프로그램 만족도

O4 : 사후검사(통제집단) / 생명존중의식, 스트레스 대처행동

X1 : 실험처치 /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2회기×40분)

연구대상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한 구성원은 총 78명이었다. 이들은 실험집단(5학년 1집단 18명, 6학년 1집단 21명, 총 39명)과 통제집단(5학년 1집단 18명, 6학년 1집단 21명, 총 39명)으로 구분되었으며, 실험집단의 구성원에게는 40분씩 2회기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실험집단	통제집단	합계	
		N (%)	N (%)		
학년	5학년	남	10 (25.6)	8 (20.5)	36명
		여	8 (20.5)	10 (25.6)	
	6학년	남	11 (28.2)	11 (28.2)	42명
		여	10 (25.6)	10 (25.6)	
합계		39 (100.0)	39 (100.0)	78명	

측정도구

생명존중의식 척도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의 측정은 이시형, 김이영, 하상훈과 오승근과 이종익(2004)이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설문지를 심민정(2007)이 활용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생명존중의식 총점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707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하고, 이를 신효미, 유미숙과 조유진(2007)가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 대처행동(5문항), 소극/회피적 대처행동(5문항), 공격적 대처행동(5문항),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5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총점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731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적극적 대처행동 .73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541, 공격적 대처행동 .871,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76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통제집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는 동일한 내용의 검사지를, 그리고 실험집단에는 만족도 조사 및 평가의견도 함께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명존중의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전점수에 대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검증을 위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명존중의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참가자의 전반적 만족도 및 소감문, 프로그램 운영진의 운영에 대한 회기별 평가 및 의견 등을 백분위 분석 및 요약하였다.

결 과

생명존중의식에 미치는 영향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본 프로그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생명존중의식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종속변수	집단	<i>N</i>	<i>M</i>	<i>SD</i>	<i>t</i>	<i>p</i>
생명존중의식	실험	39	3.82	.44	-.122	.904
	통제	39	3.85	.50		

프로그램 실시 전에 실험집단($M=3.82$)과 통제집단($M=3.85$) 간 생명존중의식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122, p>.05$).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됨에 따라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검사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및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6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생명존중의식에서는 독립표본 *t*-검증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695, p>.05$). 그러나 표 6에서 보듯이 대응표본 *t*-검증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점수($M=4.06$)가 사전검사 점수($M=3.8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이후 생명존중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t=3.083, p<.01$). 한편 통제집단에서의 경우 사후검사 점수($M=3.89$)와 사전검사 점수($M=3.81$)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154, p>.05$). 즉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생명존중의식이 향상되었으며 무처치를 한 통제집단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본 프로그램은 생명존중의식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 생명존중의식 사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종속변수	집단	N	M	SD	t	p
생명존중의식	실험	39	4.06	.57	-1.695	.014
	통제	39	3.89	.51		

** $p < .01$

<표 6>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생명존중의식	실험	39	3.82	.44	4.06	.57	-3.083	.004**
	통제	39	3.85	.50	3.89	.51	-1.154	.260

** $p < .01$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t	p
			M	SD		
스트레스 대처행동 총점	실험	39	2.37	.29	.495	.622
	통제	39	2.35	.33		
적극적 대처행동	실험	39	2.86	.63	-.687	.494
	통제	39	2.91	.49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실험	39	2.28	.61	1.678	.098
	통제	39	2.17	.51		
공격적 대처행동	실험	39	2.09	.58	.136	.892
	통제	39	2.07	.61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실험	39	2.27	.61	.139	.874
	통제	39	2.26	.62		

* $p < .05$, ** $p < .01$

프로그램 실시 전에 두 집단 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총점($t=-.495, p>.05$), 하위 영역인 적극적 대처행동($t=-.687, p>.05$), 소극/회피적 대처행동($t=1.678, p>.05$), 공격적 대처행동($t=-.136, p>.05$),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t=.139, p>.05$)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총점 및 하위영역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됨에 따라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검사의 평균값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하위요인	집단	N	M	SD	t	p
스트레스 대처행동 총점	실험	39	2.45	.35	.853	.939
	통제	39	2.40	.37		

<표 9>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스트레스 대처행동 총점	실험	39	2.37	.29	2.45	.35	-2.825	.006**
	통제	39	2.35	.33	2.40	.37	-1.706	.098

** $p<.01$

우선 표 8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 총점에서는 독립표본 t -검증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853, p>.05$). 그러나 표 9에서 대응표본 t -검증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검사($M=2.45$)의 평균값이 사전검사의 평균값($M=2.37$)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825, p<.01$).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검사($M=2.40$)는 사전검사($M=2.35$)에 비하여 평균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706, p>.05$).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에 대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표 8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 총점에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대응표본 t -검증만을 통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 스트레스대처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적극적 대처행동	실험	39	2.86	.63	2.93	.58	-1.294	.200
	통제	39	2.91	.49	2.93	.58	-.407	.686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실험	39	2.28	.61	2.34	.55	-1.169	.246
	통제	39	2.17	.51	2.24	.53	-1.156	.255
공격적 대처행동	실험	39	2.09	.58	2.09	.62	.055	.956
	통제	39	2.07	.61	2.03	.65	.993	.32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실험	39	2.27	.61	2.49	.66	-3.570	.001**
	통제	39	2.26	.62	2.45	.69	-1.999	.053

** $p < .01$.

먼저 실험집단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영역 가운데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t = -3.570, p < .01$)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반면, 적극적 대처행동($t = -1.294, p > .05$), 소극/회피적 대처행동($t = -1.169, p > .05$), 공격적 대처행동($t = .055,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 적극적 대처행동($t = -.407, p > .05$), 소극/회피적 대처행동($t = -1.156, p > .05$), 공격적 대처행동($t = .993, p > .05$),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하위영역($t = -1.999, p > .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 영역 가운데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의 변화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평가, 시범운영 참가자의 만족도 및 전문가의 평가, 심층면접, 전문가 감수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가 및 참여소감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되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 둘째, 내가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점, 셋째, 힘들고 죽고 싶을 때 Tell-WHO를 기억해야겠다는 점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상담전문가 및 운영진의 평가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나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지하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점, 생명존중 방법을 익히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눈높이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에 맞춰 제시한 초록하트 진저맨에 대해 흥미를 가진 점, 영상자료를 사용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와 감수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의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개요

회기	회기명	주제	주요내용	주요활동
1	소중한 나를 돌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나의 소중한 • 생명의 소중한 • 생명존중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소개 및 친밀감, 신뢰감 형성 • 모듈별 참여자 인사하기 • 프로그램의 목표 및 진행방법 소개 • 나의 장점을 중심으로 나의 소중함을 돌아보기 • 영상시청 • 생명이 중요한 이유와 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다루기 • 평상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생명존중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법 기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소개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나에게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모듈별 활동 및 발표하기) •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낭독하기 • 영상 시청 → 영상시청 후 (모듈별 활동 및 발표하기) • 강의: 생명존중이 중요한 이유 • 생명존중의 구체적 방법에서 소개하기 • 초록하트 진저맨 돌보기 (모듈별 활동 및 발표하기) • 생명존중의 구체적 방법 정리하기
2	힘들 땀 도와 달라고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한 인지 • 도움요청 방법 [Tell-WHO] • 마무리 및 소감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알기 •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평소 나의 대처방법 알아보기 •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배우기 • : Tell-WHO (Tell-Who, How, Organization) •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 안내 • 도움요청하기 실습 • 마무리 (프로그램 전체내용 요약) • 영상시청 • 소감나누기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록하트 진저맨-빨간하트 진저맨 관계 설명 • 예시 상황별 생각과 대처방법 (모듈별 활동 및 발표하기) • 빨간하트 진저맨 돌보기 (모듈별 활동 및 발표하기) • Tell-WHO 구체적 방법 익히기 • 전문기관 안내 및 찾아 적어보기 • 예시 상황을 중심으로 반복 연습하기 • 강의: 프로그램 전체내용 요약·정리하기 • 소감문 쓰기 및 발표

1회기의 제목은 ‘소중한 나를 돌보아요’이다. 1회기에서는 학급 친구들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소개를 통해 소중함, 존중받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급 친구들과 다 함께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낭독한다. 자신에 대하여, 친구들의 존재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정리하면서 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영상시청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상실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공감해 보고 이에 대하여 모든 친구들과 토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며 나아가 평안한 상태의 초록하트 진저맨을 돌보는 활동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론해 보며 다른 친구들의 생명을 돌보는 방식들을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점검한다.

2회기의 제목은 ‘힘들 땐 도와 달라고 말해요’이다. 2회기에서는 ‘죽고 싶을만큼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위기상황의 빨간하트 진저맨을 돌보는 활동을 모둠과 함께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학업에 지친 친구,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대처방식을 확인하여 중요한 타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Tell-WHO는 기존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되어진 ‘높이 날아올라 새롭게’의 선행프로그램의 WHO(Who:누구에게, How: 어떻게, Organization: 어떤 기관에)를 응용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경우에 Tell-WHO를 통하여 도움요청을 떠올리고 이후 중·고등학교에서도 죽음을 떠올릴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WHO에서 의미하는 도움요청을 반복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측면에서는 첫째, 본 연구는 철저한 문헌연구와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들 대상의 현장요구분석을 통하여 초등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경향과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시점에 초기청소년, 즉 초등학교 고학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높이날아올라 새롭게’와 연관성(WHO메시지)을 가지고 학생들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기억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구상한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또한 대상 청소년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학생들이 기대하는 생명존중 교육에 대한 기대와 효과적 방안

들을 추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추출된 요소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인지치료, 심리교육 등의 이론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은 초기청소년인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존중 방법, 위기상황에서 도움요청하는 방법인 Tell-WHO를 연습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기억전략법을 사용하여 1회기에는 나의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 생명존중방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회기에 누구에게나 위기상황이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Tell-WHO를 학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소개도 함께 구성하였다. 자살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삶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적 연습을 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인지적으로 생명존중의식을 향상시켰는지와 죽고싶을만큼 힘들 때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교육이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기위한 스트레스대처행동의 사회적지지 추구 및 그 외 대처행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생명존중의식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대처행동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 분석 결과 5점 만점 중에 4.74의 긍정적인 평가로 보아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한 경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각 회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프로그램이 유익했다는 의견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보아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청소년 위주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초기 청소년, 즉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초등학생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자살'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존중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의 깊이와 긍정적인 삶에 대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적 접근과 심리교육적 접근을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와 운영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40분씩 총 2회기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생

명존중 방법과 도움요청 행동(Tell-WHO)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스트레스관리 및 도움주는 행동, 게이트 키퍼 등의 내용을 반영한 심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하여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용 프로그램 개발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옥 (2010).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지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2013). 한국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위험요인.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민애 (2009).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인지행동적 음악치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200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2010).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 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 초, 중,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197-219.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현순, 김병석 (2008).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01-219.
- 뉴스시스 (2016.8.8) 초등학생까지 자살하는 시대...우울·충동·스트레스 취약.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60805_0014268403에서 발췌(검색일. 2017.6.8).
- 문동규, 김영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상담학연구, 12(3), 945-964.
- 민하영, 유안진 (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영숙 (2009). 청소년 자살사고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우울, 부모관계, 친구관계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 221-251.
- 박재연 (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1), 345-375.
- 박진아 (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배정이 (2013). 메타분석을 이용한 국내 자살예방 중재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 22(4)
- 배주미, 양윤란, 김은영 (2009). 자살위기 청소년 상담개입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변영주 (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미 (2000). 청소년 자살 충동유인과 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286-297.
- 심민정 (2007). 생명 존중 프로그램이 학교 적응곤란 중학생의 생명존중 의식과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미, 유미숙, 조유진 (200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6), 233-247.
- 윤미혜 (2014). 청소년의 이분법적 사고 및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숙, 김은영, 장은희 (2015). 청소년 자살예방 심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선미 (2014).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구조모형.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연 (2007). 청소년 자살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지식과 오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97-117.
- 이승연 (2007). 학교장면에서의 자살 사후중재. 상담학연구, 8(1), 161-180.
- 이시형, 김이영, 하상훈, 오승근, 이종익 (2004). 청소년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 임경희 (2015).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기숙 (2003).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수용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 (2016).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초, 중, 고 발달단계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6), 119-144.
- 정하나, 김정민 (2010).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92-292.

- 조은경 (2010).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피해자학연구*, 18(2), 47-60.
- 조윤숙 (2008).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동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구본용, 배주미, 정익중, 이승연, 김은영, 김태성, 박재연, 허진석 (2007). 청소년자살에 방체제 구축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원*
- 지추련 (201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연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목 (2002). *청소년 자살 예방론*. 서울: 홍익제.
- 홍기철, (1999). 인성교육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논총*, 14 181-212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한국청소년 연구*, 17(2), 241-263.
- 홍영수, 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사회사업*, 19, 125-249.
- 홍종관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건강과 인성발달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교육의 이론과 실천*, 4(2), 163-191.
- 황순길, 김동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Beck, A. T (1979).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Penguin.
- Brent, D. A., Johnson, B. A., Perper, J. A., Connolly, J., Bridge, J., & Bartle, C (1994).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traits, impulsive violence and completed suicide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8), 1080-1086.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 Jacobs, J (1980). *Adolescent suicide*. New York: Irvington.
- Jobes, D. A (2000). Collaborating to prevent suicide: a clinical research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1), 8-17.
- Kaltiala-Heino, R (1999). Methodological issues in measuring coercion in psychiatric treatment.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10, 123-140.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Belmont, CA: Thompson.
- Miller, M. C (1999). Suicide-prevention contracts: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an alternative approach.

- Murray, B. L., & Wright, K (2006). Integration of a suicide risk assesment and intervention approach: the perspective of you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2), 157-164.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Cha, C. B., Kessler, R. C., & Lee, S (2008).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ic reviews*, 30(1), 133-154.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wang, Soon-Gill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Lee, Gui-Suk

Kosin University

Lee, Hey-Jung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develop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program effectiveness. To develop a program,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well as experts in the field, and needs assessments. The program consisted of two sessions, each of 40 minut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participating schools. The subjects were 78 elementary school students. Both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were composed of 39 students each. For the data analysis independent sample and paired sample t-test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respect for life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econd, social support, a subfactor of stress of coping behavior was also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individuals in the experimental group.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ddressed.

Key words : suicide, suicide prevention program, elementary school student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김승천 김동민†

중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반영한 질문지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175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증과 예비조사를 통해 50문항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15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담자 정체감 혼란, 과도한 업무량, 부정적 업무환경, 부모개입 어려움의 4개 요인 15문항의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개발된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에 대한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16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요인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 직무스트레스, 상담자 소진과 정적상관을, 직무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보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주요어 : 직무스트레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 이 논문은 김승천(2017)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383, E-mail: dminkim@cau.ac.kr

서 론

최근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경쟁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을 활용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혜윤, 2002).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Maslach, 1982). 상담자들은 직업특성 상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이타적인 직종이기에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지속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일방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Skovholt & Rønnestad, 1995). 상담과정 속에서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질문과 반응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가 많다. 또한 내담자 개입에 있어 진전이 별로 없거나, 내담자 수가 많을 때, 어려운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가 저항을 심하게 보일 때에도 상담자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Corey & Corey, 2002). 또한, 최근에는 각종 행정업무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 수행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상담자에게 상담능력 외에도 행정처리 및 사업수행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금명자, 정경미, 이미숙, 2009). 상담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결국 업무에 무력감을 느끼거나 내담자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등 효과적인 상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Skovholt, 2001). 이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소진(Burn out)되었다라고 한다(Brill, 1984). 상담자의 소진이란 과중한 직무요구로 인해 상담자가 발휘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피로감, 내담자로부터의 거리감, 무능감, 사생활 악화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태를 의미한다(Lee, Baker, Cho, Hechathorn, Holland, Newgent, 2007). 최근 상담자들의 심리적 소진을 예측하는 주요 스트레스 변인으로 직무환경 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직무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및 직업과 관련된 사람,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Cournoyer, 1988).

다양한 상담기관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통적 의미의 상담업무 수행보다 상담외 업무수행이 많은 직무환경 특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 및 예산 관련 서류작업이 많으며, 상담업무 수행 비중이 대학상담센터나 사설상담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2004; 이임천, 이상희, 2010). 또한, 2005년부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경제적·의료적 지원, 지역자원 연계, 자활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까지 추가적으

로 수행하게 되었다(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차은미, 2015). 소진을 경험하는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상담센터 상담자의 경우 내담자와의 관계, 상담에서의 역전이 등 상담 관계에서 오는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자들은 상담 외 업무, 관료 체계, 상사 및 동료갈등 등 업무환경으로 인한 소진을 뚜렷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상담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보다 상담 외 업무수행, 관료체계,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상담 외적인 업무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더 많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업의 분야에 따라 그 스트레스원이 다르며 그 스트레스원을 지각하는 수준과 경험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탁진국, 2002).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소진되게 하는 대표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중한 업무 및 수행 인력 부족, 정체성 및 역할갈등, 비자발적 내담자와의 상담, 상담역량 관련 요인 등이 연구되었다(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 2011; 차은미, 2015). 첫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구성은 대부분 센터장, 팀장, 선임상담원, 상담원, 행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도 센터의 경우 14명 내외, 시·군·구 센터의 경우 4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0). 그런데 시·군·구 센터의 경우 직원 4명이 앞서 언급한 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인력은 시·군·구센터보다 많지만 열악한 근무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시·도 센터의 경우 시청/도청 소재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 내에 청소년인구수가 시·군·구 센터에 비해 월등히 많다. 또한 시·군·구 센터 운영관리 및 지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인력배치 등 시·군·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는 추가적인 업무도 부여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을 수행하지만 6시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국의 모든 전화를 소화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인원과 에너지가 소모되게 된다.

둘째, 상담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CYS-Net이 정부의 중점사업이 되고 지속적인 확대를 시도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상담지원 중심에서 복지지원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박승곤, 2016).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때문에 상담자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상담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에서의 업무경험은 이러한 상담자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상담자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만든다(양미진 등, 2012 ; 노성덕 등, 2011; 차은미, 2015).

셋째, 비자발적인 청소년 내담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되는 청소년들은 상담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비자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직무요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나 교사 등 타인의 의해 비자발적으로 의뢰된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자와 상담과정에 대해 비협조적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1996). 이 때문에 청소년 상담자들은 이들과의 상담관계 형성 및 상담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호자에 대한 개입도 상담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대부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부모와의 상담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무리한 요구, 업무시간의 연락,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상담자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진 등, 2012).

넷째, 업무환경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많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4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1388 전화상담의 경우 여성상담자를 대상으로 성전화, 성희롱 등이 무수히 이루어져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직무환경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나 연구를 통해 나타난 스트레스 요인들이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의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척도를 통해 양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특수한 직무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환경에 적용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직무환경 스트레스 척도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아니다.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처해진 환경이나 직무상황이 달라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수 있다(양안숙, 2008). 이에 기존 직무스트레스 척도 사용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중요 스트레스원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 척도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외국검사 도구를 사용할 때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정진

주, 조정진, 손미아, 채창호, 김정원, 2005). 즉, 외국척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의 직무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국내 상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미숙, 2011)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직무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CYS-Net 기반의 사업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환경의 중요한 특성을 누락시킬 수 있어 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 대처 및 소진 예방 정책 마련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는 타당한가?

연구 1

연구 1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대상 문헌연구, 개방형설문, 심층면접을 통해 문항을 수집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수집된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나타내는 문항을 선정한 후 전문가 평정을 통해 문항적 절성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50명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 150명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구성요인 및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1. 문항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직무환경 속에서 상담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은미(2015)는 현상학적 방식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공간 속에서 상담자로서 경험하는 소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무환경 내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그로인한 소진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은미(2015)의 질적연구 인터뷰의 핵심문장들을 검토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는 60문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차은미(2015)의 연구가 상담자 4명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보다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016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2주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 중인 30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내용을 문장단위로 분석하여 40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75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여 총 175개의 예비문항을 수집하였다.

2. 문항분석 및 문항적절성 검증

문항수집 과정을 거쳐 수집된 175개의 예비문항들을 청소년상담 전문가 3인(교수 1인, 박사과정 수료 2인)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항을 통합하고 수정, 삭제하여 총 105 개의 예비문항풀을 구성하였다. 이후 문항개발 단계를 통해 도출된 105개의 직무스트레스 문항들이 측정하고자하는 하위요인에 적합한지, 문항내용은 적절한지 등을 현장실무자 및 전문가집단을 통해 3단계로 검증하였다. 평정기준은 문항에 사용된 단어 나 문장이 이해하기 적절하도록 구성되었는가(문항이해도), 문항 내용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문항변별도), 문항 내용이 각 요인의 기본 개념에 부합하는가(요인적합도)를 1점~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정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의 적합/수정/제거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문항 내용의 중복, 수정, 제거가 필요한 문항의 경우 심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검증과정은 우선 상담경력 10년 이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급 상담사 4인에게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적절성을 평가토록 하였다(1단계). 평정 결과 유사하거나 부적절한 문항이라고 판단된 35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문항수정 과정을 거쳐 70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평정 과정을 거친 70개 문항에 대해 박사학위 이상 청소년상담 전문가 3인을 통해 문항적절성을 평정토록 하였다. 그 결과 5개 문항이 제거되고 65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2단계). 이후 선정된 65개의 문항을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자 10명에게 문항이해도와 문항내용의 적절성을 평정토록 하였다(3단계).

3. 예비조사

문항개발 및 적절성 검증을 통해 도출된 65개 문항이 실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잘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고자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1주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5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문항반응이론의 하나인 Andrich(1978)의 평정척도 모형(Rating Scale Model: 이후 RSM)을 통해 문항 양호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RSM은 문항반응이론의 하나인 Rasch 모형에 기초해서 평정척도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이다(Andrich, 1978). RSM 모형을 통해 질문지에 사용된 Likert 5점 평정척도에 대한 범주 적절성 검증, 각 문항별 적합도 검증, 문항난이도 적절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호도 검증결과와 문항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50문항을 선정하고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4.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대상

예비문항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312명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집된 자료를 랜덤하게 나누어 150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 및 질문지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62명의 자료는 질문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검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111명(74%), 남성 39명(26%)이었으며, 연령은 20대 35명(23.3%), 30대 69명(46%), 40대 35명(23.3%), 50대 이상 11명(7.3%)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2년 이하 34명(22.7%), 2년 초과~5년 미만 44명(29.3%), 5년 이상~10년 미만 48명(32%), 10년 이상 24명(16%)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SPSS 23 프로그램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의 기술통계치를 검토하였으며, 문항-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신뢰도 수치, 소진 특성과의 비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에 사용될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KMO(Kaiser Meyer Olkin) 표본 적합도 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주축

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간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의미있는 요인구조를 찾기에 적합한 사각회전(Promax)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파 문항수는 고유값, 스크리도표, 요인부하량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하위요인 및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구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 실시 전 문항분석을 통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제거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문항의 평균값이 극단적인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의 값이 너무 작은 경우 문항 삭제를 고려하였다(탁진국, 2006). 구체적으로 평균 1.5 미만이거나 4.5 이상인 문항, 표준편차가 0.7 이하인 문항에 대해 제거를 고려하였다(Meir & Gati, 1981). 둘째, 첨도와 왜도가 ± 2 의 범위를 넘어서 정규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 제거를 고려하였다. 셋째, 전체 문항내적 일관성을 저하시키는 경우 문항 제거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명백히 소진된 상태를 나타내거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문항은 제거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어려운 내담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문제해결에 쓸 에너지가 없는 것 같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진이 다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와 같은 문항은 명백한 소진증상을 드러내는 문항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50개의 문항 중 16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평균 확인 결과 4.5 이상인 문항은 1개(49번 4.5)였으며, 표준편차가 .75 미만인 문항은 2개(13번 .69, 49번 .64)가 해당되었다. 이 중 13번(사업이 많아서 상담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의 경우 타 문항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49번(하고 있는 일에 비해 복지나 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의 경우 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소진척도에서 사용된 문항과 유사하거나 명백한 소진증상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문항 15개를 제거하였다.

남아있는 34개 문항의 조사결과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KMO=.81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p<.001$). 스크리 도표 분석결과 적절한 요인의 수를 4개로 판단하고 요인수 3개~5개를 지정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요인의 경우 1~2개의 요인에 많은 문항이 포함되거나 문항들이 여러 요인에 섞여서 배치되어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 어려웠다. 또한 5요인의 경우 2개로 구성된 요인이 나타났는데, 문항의 해석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요인분석 과정에서 한 요인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했을 때(성태제, 2014)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4요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과정에서 적재량이 .3 미만인 문항, 요인 간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교차부

하량 .1 미만인 문항 6개를 제거하였다(송보라, 이기학, 2010). 또한 문항 간 의미가 중복되거나 전체적 요인내용의 통일성과 내용 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13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은 4개 요인 총 15문항으로 나타났으며, 4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47.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요인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4개 문항이 유의미한 부하량을 보였으며 전체 변량의 24.2%를 설명하였다. 주요 문항은 '상담 외 다른 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여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 '불필요한 서류업무가 많아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다', '상담자가 할 일이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아 괴리감이 느껴진다' 등으로 구성 되었다. 상담외 사업이나 과도한 서류 업무 등으로 인해 상담자라는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상태로 이 영역의 요인명을 '상담자 정체성 혼란'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4개 문항이 유의미한 부하량을 보였으며 전체 변량의 10.24%를 설명하였다. 주요 문항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정이나 개인 관계에 소홀해졌다', '업무시간에 비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다', '과중한 업무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하기 힘든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치 등으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영역의 요인명을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4개 문항이 유의미한 부하량을 보였으며 전체 변량의 8.2%를 설명하였다. 주요 문항은 '욕설, 폭언, 성희롱 등으로 인해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을 하는 것이 두렵다',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복지나 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1388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 시 나타나는 언어적/성적 폭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처우 부족 등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부정적 업무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은 3개 문항이 유의미한 부하량을 보였으며 전체 변량의 4.53%를 설명하였다. 주요 문항은 '상담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내담자 부모로 인해 상담이 버겁다', '자녀의 상담에 무관심한 부모로 인해 상담이 어렵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상담의 특성 상 청소년 내담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까지 개입해야하며, 보호자들의 경계 없는 연락이나 요구적인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모개입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최종 문항은 표 1에, 요인계수 행렬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구성하는 하위요인 내 문항들이 각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65~.80의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척도 전체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최종 문항

하위요인	문항내용
상담자 정체성 혼란	8. 상담 이외 다른 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여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
	11. 마치 일하는 기계나 실적 채우는 사람이 된 것 같다.
	17. 불필요한 서류업무가 많아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다.
	35. 상담자가 할 일이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아 괴리감이 느껴진다.
과도한 업무량	1.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정이나 개인적 관계에 소홀해졌다.
	5.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된다.
	14. 잦은 야근으로 인해 체력이 고갈된 것 같다.
부정적 업무환경	38. 업무시간에 비해 처리해야할 업무량이 너무 많다.
	29. 상순전화나 불합리한 민원전화에 모두 저자세로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화난다.
	30. 욕설, 폭언, 성희롱 등으로 인해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을 하는 것이 두렵다.
	48. 음란전화, 언어폭력전화, 협박성 민원전화 등을 받고 나면 감정을 회복하기가 힘들다.
부모개입 어려움	49.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복지나 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
	3. 자녀의 상담에 무관심한 부모로 인해 상담이 어렵다.
	12. 상담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내담자 부모로 인해 상담이 버겁다.
	21. 부적절한 시간에도 연락하는 내담자와 부모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다.

<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요인계수 행렬

문항번호	요인			
	1	2	3	4
정체성5	.794			
정체성14	.732			
정체성1	.721			
정체성38	.640			
업무량17		.761		
업무량35		.667		
업무량8		.658		
업무량11		.529		
부정적환경29			.727	
부정적환경30			.591	
부정적환경48			.574	
부정적환경49			.300	
부모개입어려움21				.883
부모개입어려움12				.550
부모개입어려움3				.469
고유치	4.110	2.065	1.708	1.199
분산변량(%)	24.20	10.24	8.20	4.53
누적변량(%)	24.20	34.44	42.63	47.17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개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요인구조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존 상담자 대상 직무스트레스 척도와와의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담자 소진척도(수렴타당도)와 직무만족도 척도(판별타당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소진과 정적 상관, 직무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예상된다(심운경, 천성문, 2016; 이미숙, 2011; 최혜운, 이동혁, 2013).

방 법

1. 연구대상

연구를 위해 수집된 총 312명의 자료 중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된 150명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16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126명(77.8%), 남성 36명(22.2%)이었으며, 연령은 20대 27명(16.7%), 30대 81명(50%), 40대 51명(31.5%), 50대 이상 3명(1.8%)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2년 이하 33명(20.4%), 2년 초과~5년 미만 46명(28.4%), 5년 이상~10년 미만 49명(30.2%), 10년 이상 34명(21%)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모형의 요인 계수를 확인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은 CFI, TLI, RMSEA 지수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준거관련 척도 간의 상관을 SPSS 23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스트레스 질문지

연구 1에서 개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상담의 사업이나 과도한 서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상담자 정체감 혼란 4문항,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 및 건강 이상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량 4문항, 1388 등의 전화/사이버상담

과정 중에 경험하는 언어적/성적폭력이나 처우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업무환경 4문항, 청소년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개입과 과도한 요구와 관련된 부모개입 어려움 3문항 등 4개 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전체 .80, 하위요인별 .65~80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이미숙(2011)이 개발한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조직 내 관계(9문항), 상담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7문항), 부적절한 대우(7문항), 어려운 내담자(8문항), 상담역량 부족(6문항), 업무과다(7문항), 근무환경(4문항)의 7개 요인이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미숙(201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한국형 상담자 소진 척도(K-CBI)

Lee 등(2007)이 개발하고 Yu(2007)가 한국 상담자를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상담자 소진척도(이하 K-CBI)를 사용하였다. K-CBI는 신체적 피로감, 무능감, 부정적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 저하, 사생활 악화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4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5점(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최저 20점~최고 100점까지 총점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u(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척도

박아이린(2005)이 미네소타 직무만족 질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타당화한 K-MSQ를 사용하였다. MSQ는 직무만족을 내적, 외적, 일반만족도의 3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문항 단축형(short-form)을 사용하였다. 내적 만족도는 활동, 독립성, 다양성, 사회적 지위, 도덕적 가치, 안정성, 사회적 봉사, 권한, 능력 활용, 책임, 창의성, 성취 등 12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외적만족도는 인간관계 측면의 감독, 기술적 측면의 감독, 회사정책 실무, 보수, 승진, 인정 등의 6문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일반 만족도는 내적, 외적 척도의 18가지 요소와 함께 직업환경, 동료 2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아이린(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결 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1에서 개발된 4요인 구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χ^2 검증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므로(홍세희, 2000), χ^2 자체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대신 χ^2/df 값을 검증하였다. χ^2/df 값이 5이하이면 바람직하며, 3이하인 경우는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Kline, 2005). 본 모형의 χ^2/df 는 1.5로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인 적합도 지수로는 최근 널리 사용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해석 기준으로는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며(양난미, 2015), RMSEA의 경우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모형 적합도 검증결과 RMSEA .056(90% 신뢰구간 .035~.075), CFI .924, TLI .911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15개 문항, 4요인 모형으로 확정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요인계수와 적합도지수는 각각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2. 타당도 분석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질문지와 일반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상담자 소진 척도와 직무만족도 척도와의 상관 비교를 통하여 각각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측정하였다(표 5 참조).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와 일반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와 일반 상담자 직무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64$, $p<.01$)을 보였으며, 7개의 하위요인들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비교에서도 대부분의 하위요인 간에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과도한 업무량 요인과 일반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어려운 내담자, 상담역량 요인 사이에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지각하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내담자와의 전문적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는 구분되는 스트레스일 수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N=162)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C.R
상담자 정체감 혼란	→ B8	1.000	0.709***		
	→ B17	1.182	0.808***	0.139	8.504
	→ B35	1.189	0.705***	0.152	7.822
	→ B11	0.894	0.583***	0.136	6.577
과도한 업무량	→ B1	1.000	0.678***		
	→ B5	1.241	0.684***	0.185	6.724
	→ B14	1.184	0.665***	0.179	6.609
	→ B38	0.904	0.596***	0.148	6.1
부정적 업무환경	→ B29	1.000	0.582***		
	→ B30	1.488	0.832***	0.235	6.343
	→ B48	1.061	0.592***	0.183	5.787
	→ B49	0.364	0.313***	0.108	3.378
부모개입 어려움	→ B3	1.000	0.597***		
	→ B12	1.371	0.842***	0.233	5.875
	→ B21	0.937	0.496***	0.184	5.079

*** $p < .001$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df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4요인	1.5	.924	.911	.056(.035~.075)

상담자 소진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와 상담자 소진은 유의미한 정적상관($r=.65, p<.01$)을 보였으며 5개의 하위요인들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비교에서도 대부분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과도한 업무량 요인과 상담자 소진의 내담자 가치저하 요인 사이에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이것이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절하하거나 상담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내담자 가치저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44, p<.01$)을 보였으며 2개 하위요인들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비교에서 상담자 정체감혼란 요인이 직

부만족도 요인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r=.51, p<.01$)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상담전문가로서의 정체감혼란이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와 일반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상담자 소진과는 정적상관을, 직무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N=162)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상담자 정체감혼란	과도한 업무량	부정적 업무환경	부모개입 어려움	전체 스트레스
관계	.304**	.504**	.372**	.438**	.611**
기대	.228**	.172*	.325**	.275**	.374**
일반	.536**	.406**	.340**	.142	.559**
상담자	.191*	.126	.352**	.205**	.328**
직무	.346**	.561**	.243**	.207**	.531**
스트레스	.440**	.478**	.445**	.345**	.654**
	.437**	.334**	.133	.157*	.413**
	.259**	.301**	.249**	.209**	.390**
	.453**	.233**	.259**	.189*	.436**
	.165*	.064	.222**	.459**	.319**
상담자	.183*	.137	.296**	.345**	.351**
소진	.553**	.612**	.219**	.068	.582**
	.311**	.253**	.102	.185*	.326**
	.556**	.449**	.327**	.353**	.644**
직무	-.469**	-.211**	-.257**	-.079	-.399**
만족도	-.426**	-.228**	-.238**	-.018	-.363**
	-.507**	-.252**	-.282**	-.074	-.439**

* $p<.05$, ** $p<.01$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하고 소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해보고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일반 직무스트레스 척도, 상담자 소진 척도, 직무만족도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상담자 정체성 혼란, 과도한 업무량, 부정적 업무환경, 부모개입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정체성 혼란 요인의 경우 기존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연구(이미숙, 2011)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요인이다. 기존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상담을 주업무로 하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담자 역할에 대한 갈등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은 '상담 이외 다른 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여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다', '상담자가 할 일이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아 괴리감이 느껴진다'와 같이 전문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혼란감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자 정체감 혼란은 상담자 소진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r=.556, p<.01$)을, 직무만족도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r=-.507, p<.01$)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나 사설상담센터 등 주로 상담을 주업무로 하는 상담자들과는 달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마치 상담자가 아닌 것 같다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되고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개입 부담감 요인은 역시 기존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요인이다. 이 요인은 비자발적 내담자가 많고 이로 인해 보호자와의 상담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적절한 시간에도 연락하는 부모', '자녀의 상담에 무관심한 부모' 등 상담에 대한 경계가 부족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부정적 업무환경 요인은 대부분의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도 다루지고 있는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정적 업무환경 요인은 보수나 복지 부족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과 같은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는 직무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비대면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익명성과 주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면대면 상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음란성(외설), 폭언, 장난·상습전화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구본용, 김병석, 이재규, 1995). 24시간 1388 전화상담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성 상 음란전화, 언어폭력, 각종 민원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들이 상담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업무량 요인 역시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과도한 업무는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Pines & Aronson, 1988)이며, 소진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Raquepaw & Miller, 1989).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행정 보고서나 회계처리 등의 행정성격의 업무가 많고, 상담업무 수행과 더불어 상담관련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타 기관 상담자에 비해 과도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소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이임천, 이상희, 2010; 최윤경, 2004; 최윤미 등, 2002). 과도한 업무량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만이 경험하는 겪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을 소진되게 하는 주요 직무스트레스원인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핵심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도출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대처에 있어 보다 초점화 된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된다. 특히, 상담자 정체성 혼란 요인과 부모개입 어려움 요인은 상담을 주업무로 하며 내담자와의 1:1 방식의 상담을 주로 수행하는 타 상담영역의 상담자들과는 구분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만의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바 향후 상담자 정체성 확립 및 상담전문성 확보, 부모상담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이외에 상담사업 등의 행정업무가 많은 편이나 비자발적 내담자, 보호자 상담, 전화 및 사이버상담 등 비대면 상담까지 수행해야하기에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상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 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이 상담과 복지가 결합된 특수한 환경임을 수련과정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상담외적인 지원 업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환경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 배운 이론과 기대하는 상담자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기에 상담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환경의 변화에 대해 상담자를 양성하는 대학과 상담자가 근무하는 상담기관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전문상담 이론과 실습을 통한 자질 향상 노력과 더불어 실제 상담현장에서의 상담자들의 역할이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업무환경 요인의 경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388 전화상담이나 사이버상담 중에 경험하는 각종 성희롱/언어폭력,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받게 되는 각종 민원 등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상담자들의 심리적 안정 방안과 보호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변인으로 알려진 보상의 적절성, 직장 내 관계, 물리적 환경 요인 등은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더불어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나 상호작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도출을 목적으로 하여 요인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신분노출 우려로 인해 최소한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외 사업수행이 많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성을 고려하여 전일제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 및 시간제 상담자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독특한 직무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 김병석, 이재규 (1995). 전화상담 모형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금명자, 정경미, 이미숙 (2009). 전문상담교사의 상담활동과 직무만족도. 중등교육연구, 57(3), 113-132.
- 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청소년상담자의 직무환경, 자아탄력성,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이 상담자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15(2), 173-194.
- 김혜숙, 공운정, 박한샘 (1996). 청소년상담모형개발 II: 비협조적 내담자의 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노성덕, 배영태, 김호정, 김태성 (201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발전방안 연구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박승곤 (2016).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복합사례연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이린(2005). MSQ 직무만족도 검사의 문항 및 척도 타당성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2014). 현대 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송보라, 이기학 (2010). 한국형 진로신념척도(K-CBI) 개발과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3(2), 1-22.
- 심운경, 천성문 (2016). 간호사 스트레스대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사회과학연구, 40, 219-239.
- 양난미 (2015). 한국판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 41-61.
-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청소년상담사 개인 및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1), 17-35.
- 양안숙 (2008).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아랑, 정남운 (2011). 상담자 소진: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 231-256.
- 이미숙 (2011). 상담자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임천, 이상희 (2010). 청소년동반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효과. *인간이해*, 31(2), 123-139.
- 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정진주, 조정진, 손미아, 채창호, 김정원 (2005).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7, 297-317.
- 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0).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북카페.
- 차은미 (20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소진 체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 (2004). 한국 상담자의 전문업무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7(2), 147-173.
-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상담자 소진 내용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581-598.
- 최혜윤(2002).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윤, 이동혁 (2013). 한국판 상담자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 3217-3236.
- 탁진국 (2002). 직종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원과 직무스트레스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125-141.
- 탁진국 (2006).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ndrich, D. (1978). A rating formulation for ordered response categories. *Psychometrika*, 43, 561-573.
- Brill, P. (1984). The need for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burnout. *Family & Community Health*, 6(4), 12-24.
- Corey, M., & Corey, G. (2002).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ournoyer, B. (1988). Personal and professional distress among social caseworkers. *Social Casework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69(5), 259-264.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 Lee, S., Baker, C., Cho, S., Heckathorn, D., Holland, M., Newgent, R., ... & Yu, K.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s of the counselor burnout inventor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0(3), 142-154.
- Maslach, C. (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New York: Prentice Hall.
- Meir, E., & Gati, I. (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4), 1011-1016.
- Pines, A., & Aronson, E. (1988). *Career burnout: cause and cures*. New York: Free Press.

- Raquepaw, J., & Miller, R. (1989). Psychotherapist burnout: a componential 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1), 32-36.
- Skovholt, T.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therapists, counselor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Skovholt, T., & Rønnestad, M. (1995).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Chichester: Wiley.
- Yu, K. (2007). *A cross-cultural validation study on counselor burnout: a korean samp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Development of Work-Related Stress Questionnaire for Counselors in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s

Kim, Seung-Cheon Kim, Dong-Mi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work-related stress questionnaire for counselors at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s (YCWC). For this purpose, data on work-related stress experienced by the counselors at YCWC from the study 1 were collected and the initial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75 items was constructed. 50 items remained after a series of item evaluations.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e 50 items was administered to 150 counselors at YCWC. Through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4 factors were extracted: counselor identity confusion, excessive workload, negative job environment, and burden of parent intervention. A total of 15 questions were selected from 4 factors to form a final questionnaire for job stress. In study 2,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4 factor structure of this questionnair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questionnaire and the counselor job stress scale, K-CBI, Job satisfaction scale were $-.439 \sim .644$. In all, the new questionnaire was validated and can be used as a work-related stress measurement of counselors at YCWC. Based on these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Job stress, Counselor,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Job Stress Questionnaire

자기자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우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수민 양난미†

경상대학교

본 연구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진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삶의 만족 척도, SCR-90의 우울 척도로 설문 실시하였다.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자료를 제외하고 30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 삶의 만족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은 정적 상관을, 우울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삶의 만족과 우울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과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자기자비를 향상시키는 것은 삶의 만족을 높이고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기자비, 삶의 만족, 우울, 대학생

* 본 논문은 이수민(2017)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난미,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 501 경상대학교 151동 333호, Tel: 055-772-1265, E-mail: behelper@gnu.ac.kr

서론

심리 사회적 독립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발달과업에 대해 숙고해보는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들어 청년세대들이 공감하는 신조어로 ‘대2병’, ‘사망년’이 선정되었다(이재아, 2016.09.29). ‘대2병’은 적성에 대한 고민과 취업 스트레스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방황하는 대학교 2학년 시기를 말하며, ‘사망년’은 대학교 3학년이 취업을 위해 온갖 스펙을 준비하느라 고통을 받아 ‘사망(死亡)’할 것 같은 학년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와 같은 신조어들을 미루어볼 때 삶의 안정과 이를 위한 경쟁이 현 시대 대학생들의 주요 쟁점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경쟁상황과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지고 대학생들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기준점을 높여 잘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주어진 일을 잘 해내고 경쟁에서 성공해야만 취업과 같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결점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일을 가능한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을 강화시킨다(Flett & Hewitt, 2002). 무엇이든 잘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작은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이상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처럼 결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완벽주의라 일컫는데, Hamachek(1978)은 이를 자신과 타인에게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행의 질을 부여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urns(1980)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과 성취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았다(박경진, 2012 재인용). 완벽주의는 이후 Frost와 Marten과 Lahart와 Rosenblate(1990), Hewitt와 Flett(1991) 등을 통해 다차원적 개념으로 더욱 활발히 연구되었다. 다차원적 관점을 통해 완벽주의가 수행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 수행 만족도의 감소와 관련성이 있다(Mor, Day, Flett, & Hewitt, 1995)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완벽주의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인적 기준과 평가염려 완벽주의(Dunkley & Blanksein, 2000),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Rhéaume, Freeston, & Ladouceur, 1995),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Rice, Slaney, 2002) 등으로 구분이 시도되었고, 이처럼 완벽주의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독려할만한 특성이나 부정적인 측면은 개인적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Rice와 Slaney(2002)가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 사이에서 자존감, 우울, 불안,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완벽주의와 부적응간의 연관성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개인적인 심리적 고통, 자기에 대한 평가와 연관됨을(Flett & Hewitt, 2002), 정신의학적 사례 연구에서 다양한 임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완벽주의 성향이 연관됨이 밝혀졌다(Hewitt,

Flett, Donovan, Mikail, 1991). 김현희와 김창대(2011)는 군집분석을 활용한 완벽주의자 하위 유형 분류 연구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이 심리적 부적응을 반영하는 불안,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들은 심리적 적응을 반영하는 생활만족감, 자존감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부정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긍정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완벽주의 특성이 부정적으로 구분된 특성에 한하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 특성에 해당하는 완벽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부정적 특성의 완벽주의는 선행연구(김현희, 김창대, 2011; 임경혜, 심은정, 2015)를 토대로 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는데 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살펴보는 지표로는 크게 삶의 만족과 우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Shin & Johnson, 1978) 인지적, 판단적 과정을 나타내며(Diener, Emmons, Larsen, Griffin, 1985), 개인의 정서와는 간접적 영향을 가진다(김해진, 2010). 삶의 만족을 지각하는 개인적 가치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삶의 만족은 긍정적 발달에 있어서 예측변인, 중재변인, 종속변인으로 활용되는 중요지표이며 삶의 만족이 낮은 사람은 심리적, 사회적 행동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삶의 만족이 높은 사람은 적응적, 긍정적 정신건강과 관련이 되며(김지혜, 2016), 박세란과 이훈진(2013)의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은 적응적 심리기능으로 측정, 연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살펴보는 지표 중 하나로 삶의 만족을 선정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대학생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울은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개인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부적응 증상이다(권석만, 2013). 또한, 우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 인지, 판단, 기억,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상태이다(Beck, 1976). 대학생은 발달과정상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인생의 변화에 대처해야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인생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혼란감을 느끼고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민윤기, 2005). 요즘과 같은 취업난 속에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우울해지며 우울은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주요 변인이다(양수연, 신현균, 2013).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른 세대 대비 20대의 우울증 증가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20대가 취업, 가치관 등 급격한 변화에서 겪는 사회적 기준에 대한 압박감과 좌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최용준, 2018.02.07.).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오래전부터 우울과 일관되게 관련성이 있어왔는데(Flett & Hewitt, 2002),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주 의심하고 부정적 자기평가를 하거나 작은 실수도 내부귀인하여 자신을 탓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과도한 자기 비판적 성향은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등과 관련된다(Enns, Cox, & Clara, 2002; Hewitt & Flett, 1991).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로 삶의 만족과 우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인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자기자비가 있다. 자기자비란 자신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열려있는 것으로, 고통을 피하거나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경감시키고 친절할 태도로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소망을 일으키는 것이다(Neff, 2003a). 자기자비는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 번째 요인인 '자기친절(self-kindness)'은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향한 친절과 이해, 허용심과 온화함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요인인 '마음챙김(mindfulness)'은 고통스런 생각 및 감정들을 억제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균형 있게 지각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Neff, 2003b). 이는 고통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객관적인 시각과 균형감을 유지하는 태도로 자기친절이 자기 동정이나 자기합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다(박세란, 이훈진, 2015). 비판단적 관찰을 위해서는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이 사실이라고 착각하여 생기는 불안과 불편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나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Germer & Siegel, 2012). 세 번째 요인인 '인간보편성(common humanity)'은 개인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혼자만 느끼는 분리되고 고립된 것으로 보기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자비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자기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Neff(2003a)는 심리학에서 각광받았던 자존감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자기자비를 제시하였다. 자존감은 오랜 기간 건강한 심리적 변인으로 연구되어왔는데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자존감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자기자비는 자존감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기자비와 자존감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평가개념이라는 것과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자존감은 성공 경험 후 상승되고 실패 경험 후 감소되는 것처럼 결과에 수반적인 특성을 보이거나 자기자비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기감을 가지게 해준다(이성준, 유연재, 김완석, 2013). 또한, 자기자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통도 명료하게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냉정한 비판보다 따뜻하고 친절할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여 부정적 결과에도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수민, 2016). 더해서 자존감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과

고립을 일으키지만, 자기자비는 자신의 경험을 인간보편적 경험으로 받아들여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한다(Gilbert & Procter, 2006; Neff & Vonk, 2009). 이러한 태도는 타인의 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적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김경의 외, 2008).

이처럼 자기자비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자기자비적 태도는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Neff(2003a)는 자기자비 개념을 제안할 당시 자기자비가 완벽주의와 부적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Barnard & Curry,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기비난, 수치심과 높은 관련을 가지는데(이문선, 이동훈, 2014), 자기자비는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실패감을 느낄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면서 따뜻하고 친절함 마음자세를 가지도록 하여 자기비난과 수치심을 낮추게 한다(Neff, Kirkpatrick, Rude, 2007).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와의 관련성을 더 살펴보면 황수덕(2015)과 윤양은(2017)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가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민주와 이민규(2016)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특성에 해당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스스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글쓰기 처치를 시행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과 비교처치집단에 비하여 자기자비 글쓰기 처치 집단은 자기비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자기 위안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특성으로 자기비난이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몰아붙이는 것이 스스로의 성취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취를 이룬다하더라도 스스로에게 허용적이지 못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큰 범주에서 바라볼 때 자기자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을 보이는 대상들에 도움이 되는 변수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기자비는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웰빙(well-being)과 회복력(resilience)의 예측변수라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Smeets, Neff, Alberts, Peters,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eely, Schallert, Mohammed, Roberts와 Chen(2009)은 자기자비가 낮은 스트레스, 낮은 부적 정서, 높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자기자비의 주요연구자인 Neff와 Germer(2013)는 삶의 만족, 행복, 연결성, 자신감, 긍정성, 호기심, 감사와 같은 심리적 웰빙과 자기자비가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자기자비가 삶의 만족, 사회적 유대감, 행복감 같은 심리적 안녕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전 연구들을 지지한다(김경의 외, 2008). 박세란과 이훈진(2013)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자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 자기자비 처치가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한 달 후 까지 그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Seligman과 Rashid와 Parks(2006)는 긍정심리학을 제안하며 우울에 대한 치료로 부정적 증

상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긍정 정서, 강점, 삶의 의미 등 긍정적 요소를 증진시킴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울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 심리 요소를 증진시키는 개념으로 자기자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때 긍정성만 강조하다보면 부정성에 대해 부정, 회피, 억압하는 방식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자기자비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부정적 내적 경험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도움이 되는 변인일 수 있다. Neff(2003a)는 자기자비가 개인적인 부적절감, 실수, 실패와 고통스런 삶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울과 같은 개인적 고통을 마주할 때 스스로에게 자비적으로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rnard와 Curry(2011)는 자기자비가 우울과 부적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Neff와 Germer(2013)는 심리적 웰빙과 자기자비의 연관성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반추, 완벽주의, 수치심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현주와 현명호(2011)는 자기비판이 우울과 부적정서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가상적 실패상황에서 자기비판적인 사람들의 정서반응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비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 지각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자기자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ehr와 Adams(2016)의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국내 자기자비 개입 프로그램 연구들에서는 개입 처치효과를 확인한 결과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노상선, 조용래, 2013; 박세란, 이훈진,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같은 자기비판적인 사람들이 실패로 인한 고통정서를 인정하고 친절하게 수용하도록 안내하면서 자기자비를 높이도록 훈련하면 우울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자기자비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변인임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기자비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보니 자기자비와 관련된 관계성을 알아본 양적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최근 들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Mehr & Adams, 2016) 관계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국내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를 고려한 양적 연구가 없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지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적응적 측면이나 부적응적 측면 한가지로만 살펴보았는데, 종속변인들을 보다 확장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 소재 3개 대학교 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목적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설문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설문 후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1부를 제외하고 309부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309명의 자료 중 남학생은 121명(39.1%), 여학생은 187명(60.5%), 무응답이 1명(0.3%)이었고, 연령은 평균 21세(SD=2.50)였다. 학년은 1학년 50명(16.2%), 2학년 111명(35.9%), 3학년 38명(12.3%), 4학년 107명(34.6%), 5학년 2명(0.6%), 무응답 1명(0.3%)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전공은 인문·사회과학이 106명(34.3%), 자연과학계열이 84명(27.2%), 예체능계열이 4명(1.3%), 공학계열 34명(11.0%), 농학계열 29명(9.4%), 사범계열 22명(7.1%), 상경계열 24명(7.8%), 기타 및 무응답은 6명(1.9%)이었다.

2. 측정도구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rost-MPS)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Frost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rost-MPS)를 사용하였다. FMPS는 Frost와 동료들(1990)이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하위척도로는 실수에 대한 염려 9문항, 조직화 6문항, 부모의 비난 4문항, 부모의 기대 5문항, 개인적 기준 7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 4문항으로 총 35문항 6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Frost, Heimberg, Holt, Marttia와 Neubauer(1993)는 이를 다시 적응적인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개인적 기준, 조직화는 적응적 차원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희와 김창대(2011)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두 하위요인으로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특성을 측정한 것을 토대로 두 하위척도만 사용하였다. Frost 등(1990)이 개발한 척도의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 범위는 .77~.93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는 .88, 수행에 대한 의심은 .71이었다.

한국판자기자비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SCS)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자기자비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SCS)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자기자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Neff(2003a)가 개발, 타당화한 것을 김경의 등(200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자비는 3가지 하위 개념을 각각 대립되는 요소와 함께 구성한 6요인으로 측정된다. 6개의 요인구조는 자기친절(Self-Kindness) 대 자기 비판(Self-Judgement), 인간보편성(Common Humanity) 대 고립(Isolation), 마음챙김(Mindfulness) 대 과잉동일시(Over-Identification)이다(Neff 2003a).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원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2였고, 하위척도 모두 .75 또는 그 이상이었다(Neff, 2003a).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 하위요인인 자기친절의 신뢰도 계수는 .82, 마음챙김의 신뢰도 계수는 .73, 보편성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iener, Emmom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고, 한국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임규혁(1997)이 재타당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SCL-90-R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등 9개 하위 증상, 9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중 우울을 측정하는 13문항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임규혁(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우울의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다. 연구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 간 상관을 확인한 다음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해 연구변인의 하위요인 점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Bandalos(2002)의 제안에 따라 단일요인인 연구변인은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만들어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측정변수 간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자료의 이상치를 점검하였다.

두 번째로 구조방정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방식에 따라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고,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을 검증하여 자료의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과 모형의 간명성,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GFI, TLI, CFI, RMSEA를 확인하였다. GFI와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적합도가 .90 이상이면 모형이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되며, .95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해석된다(배병렬, 2011; 홍세희, 2001). 반면 RMSEA는 절대적합도지수로서 .050이하이면 좋은 수준, .080이하이면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Brown & Cudeck, 1993).

세 번째로 연구모형에 있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 김진호, 홍세희와 추병대(2007)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원 자료에서 연구자가 지정한 횟수만큼의 무작위 반복 표본 추출을 통해 반복적으로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2와 AMO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모형 검증에 앞서 자료가 구조방정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변인 간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연구 변인 사이에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기자비, 삶의 만족과는 부적상관을,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비는 삶의 만족과는 정적인 상관을,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변 인	1	2	3	4	M	SD
1. 부적응적 완벽주의	1				2.83	.69
2. 자기자비	-.72***	1			3.11	.59
3. 삶의 만족	-.41***	.50***	1		4.04	1.35
4. 우울	.60***	-.65***	-.52***	1	1.14	.81

N=309, *** p <.001

<표 2> 측정변수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왜도, 첨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61***	1									
3	-.59***	-.57***	1								
4	-.61***	-.46***	.61***	1							
5	-.62***	-.43***	.61***	.67***	1						
6	-.36***	-.39***	.48***	.42***	.41***	1					
7	-.28***	-.32***	.37***	.33***	.33***	.73***	1				
8	-.33***	-.34***	.38***	.31***	.32***	.70***	.67***	1			
9	.55***	.56***	-.58***	-.55***	-.47***	-.51***	-.50***	-.47***	1		
10	.49***	.53***	-.56***	-.54***	-.49***	-.38***	-.43***	-.34***	.81***	1	
11	.50***	.45***	-.51***	-.54***	-.49***	-.39***	-.44***	-.38***	.80***	.81***	1
M	2.88	3.04	3.05	2.99	3.31	1.24	1.05	1.10	4.19	4.12	3.54
SD	.77	.73	.70	.66	.68	.90	.82	.88	1.31	1.61	1.92
왜도	-.07	-.13	-.04	-.04	-.28	.67	.76	.79	-.11	-.06	.29
첨도	-.50	-.60	-.40	-.12	-.30	-.20	-.12	.05	-.42	-.90	-1.04

1, 2는 각각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실수염려와 수행의심이며, 3, 4, 5는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마음 챙김, 보편성이다. 6, 7, 8은 삶의 만족을 3개의 문항꾸러미로 만든 것이며, 9, 10, 11은 우울을 3개의 문항꾸러미로 만든 것이다.

N=309, *** p <.001

2. 문항꾸러미

측정도구가 단일차원일 경우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구조방정식의 측정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모형 적합도 지수를 얻을 수 있다는 Bandalos(2002)의 제안에 따라 측정도구에서 하위요인이 없었던 우울과 삶의 만족을 각각 3개의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측정변수로 사용하였

다. 연구변인들의 측정변수 간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 간 상관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 간 상관의 방향은 원래의 연구변인 간 상관의 방향과 동일하였다. 측정변수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왜도는 절대 값이 2을 넘는 것이 없었으며, 첨도는 7을 넘는 것이 없어 측정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est, Finch & Curran, 1995).

3.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94.69^{***}(df=38, N=309)$, $GFI=.944$, $TLI=.964$, $CFI=.975$, $RMSEA=.070$ (90% 신뢰구간 .052~.087)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에서 각 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가 .70이상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가지며, 또한 모든 경로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B	β	표준오차	임계치	SMC
부적응적 완벽					
실수염려	1.00	.85***			.71
수행의심	.81	.72***	.06	12.83	.53
자기자비					
자기 친절	1.00	.80***			.64
마음 챙김	.95	.80***	.06	14.83	.64
보편성	.95	.79***	.06	14.46	.62
삶의 만족					
만족 1	1.00	.90***			.80
만족 2	1.12	.82***	.07	17.01	.67
만족 3	1.29	.78***	.08	16.33	.63
우울					
우울 1	1.00	.90***			.81
우울 2	.92	.91***	.04	23.70	.82
우울 3	.97	.89***	.04	22.89	.79

*** $p<.001$

4.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chi^2=109.54^{***}$ ($df=39$, $N=309$), $GFI=.935$, $TLI=.956$, $CFI=.969$, $RMSEA=.077$ (90% 신뢰구간 .060~.094)이었다. GFI 와 TLI , CFI 는 .90 이상의 적합도를 보였고, $RMSEA$ 는 .080이하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이 연구자료를 적절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정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 사이의 경로($\beta=-.90$, $p<.001$)와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 사이의 경로($\beta=.87$, $p<.001$), 자기자비와 우울 사이의 경로($\beta=-.75$, $p<.001$)가 유의하였고, 부정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사이의 경로($\beta=.29$, $p>.05$)와 부정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사이의 경로($\beta=.02$,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측정모형과 연구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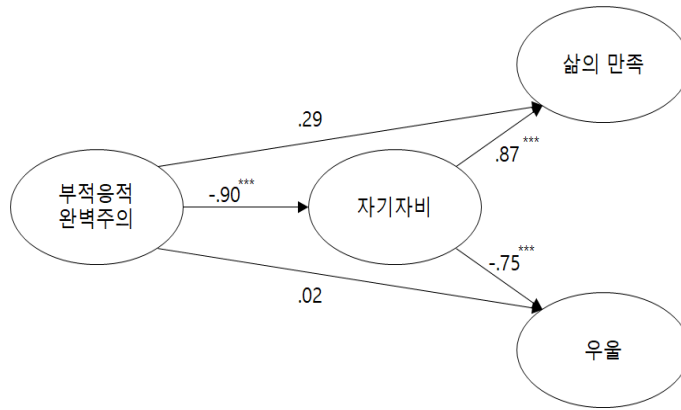
	χ^2	df	χ^2/df	G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94.69***	38	2.49	.944	.964	.975	.070
연구모형	109.54***	39	2.81	.935	.956	.969	.077

*** $p<.001$

5.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에 포함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Bootstrap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부정응적 완벽주의는 자기자비($\beta=-.77$, $p<.001$)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비는 삶의 만족($\beta=1.83$, $p<.05$)과 우울($\beta=-1.09$, $p<.05$)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응적 완벽주의는 삶의 만족($\beta=.52$, $p>.05$)과 우울($\beta=.03$, $p>.05$)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정응적 완벽주의가 자기자비를 통해 삶의 만족($\beta=-1.42$, $p<.05$)과 우울($\beta=.84$, $p<.05$)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자비는 부정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부정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자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우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N=309)

주. 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 값(비표준화 값) *** $p < .001$

<표 5> 직접경로와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95% 신뢰구간)	총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 자기자비	-.90***		-.90***
부적응적 완벽주의 → 삶의 만족	.29	-.78* (-15.45~.57)	-.50**
부적응적 완벽주의 → 우울	.02	.68* (-1.05~10.86)	.70**
자기자비 → 삶의 만족	.87*		.87*
자기자비 → 우울	-.75*		-.75*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입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 및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본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기자비, 삶의 만족, 우울 네 변인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자기자비는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우울과는 부적상관을, 삶의 만족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이 언급하는 방향과 일치하였다(김지혜, 2016; 김현희, 김창대, 2011; 오유경,

김은정, 2014; 임경혜, 심은정, 2015; Gilman, Ashby, Sverkoc, Florelld, Varjasb, 2005). 그 중 완벽주의와 자기자비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기본 개념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신의 수행과 실수에 대한 자기 비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로 자기자비가 자기 비난적 태도를 친절함으로 변화 시키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Neff(2003a), Mehr 등(2016)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자비와 삶의 만족, 우울 간의 유의한 상관 또한 선행연구들이 각 변인들이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세란, 이훈진, 2013; Barnard & Curry, 2011; Neely et al, 2009).

상관분석에 이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각각의 경로 모두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으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도 자기자비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기자비가 삶의 만족과 우울에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제안한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변인 간 관계성을 알아보고 자기자비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자기자비가 도움이 되는 변인일 수 있음에 대한 제안은 있어왔으나(Neff, 2003a)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를 함께 고려한 기존연구는 극히 소수(김민주, 이민규, 2016; 황수덕 2015)이며, 관계성을 살펴본 양적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자비를 활용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치료 과정은 정서와 인지적 측면에서 회피하기보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바라보는 것이 치료적 효과로 제안되는데(오영아, 정남운,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 자기평가에 따른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을 자기자비가 완화시키고 친절한 태도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가지는 부적응적 측면인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Mehr 등(2016)의 국외 연구가 유일하였고 문화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과 자기자비의 심리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 우울 간의 관계성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대상으로 자기자비가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 요인을 증진시키는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해 낮은 삶의 만족을 보이는 대상들에게 자기자비가 도움이 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가지는 부정적인 특성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 변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결과, 자기자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대학생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에 더해 삶의 만족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긍

정적인 면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과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자기자비를 향상시키는 것은 삶의 만족을 높이고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다 친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고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이 스스로에게 불편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나, 높은 기대와 기준 때문에 다시 자신의 완벽주의적 특성을 자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에 집중하여 자신의 성향을 바꾸지 못하는데 고통을 받기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계발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김현희와 김창대(2011)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높은 기준을 세우게 된 배경과 평가에 대한 염려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라 높은 기준을 세우게 된 배경과 실수나 평가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자기자비적 태도로 바라보도록 하는 개입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론에 언급된 대학생들의 사회적, 발달적 특성상 나타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낮은 삶의 만족, 높은 우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심리적 자원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기자비의 하위 개념인 마음챙김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패와 좌절을 비판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 보편성은 자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고립감을 줄여주고, 자기친절을 통해 자신에 대한 냉담한 평가가 아닌 따뜻한 돌봄의 자세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자비적 관점을 통한 내적 자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특정지역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지역 및 학교특성을 달리하여 보다 다양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검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정의, 측정방법이 다양하여 완벽주의의 보다 다양한 특성과 자기자비의 역할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김현희와 김창대(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특성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등과 같은 완벽주의의 또 다른 부적응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관계성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완벽주의 경향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인으로 자기자비의 실제적 개입효과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검증된 모형을 토대로 향후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치료적, 상담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된 만큼 자기자비를 주요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개입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과 우울을 설명하는데 자기자비가 효과적인 매개변인임을 확인한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개입할 때 자기자비적 태도의 필요성과 자기자비와 관련된 활동을 활용한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가지는 적응적 특성을 강화하고 부적응적 특성을 완화시키는데 자기자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지 않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기자비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추수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민주, 이민규 (2016). 자기자비 글쓰기가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가진 대학생의 자기비난 및 정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6-236.
- 김지혜 (201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향유신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경영학 연구, 36(4), 897-023.
- 김현희, 김창대 (2011). 완벽주의자 하위 유형 분류 연구-평가염려·개인이준 완벽주의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73-391.
- 김혜진 (2010). 자기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우유부단을 매개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상선, 조용래 (2013).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를 위한 자기자비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

- 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97-121.
- 민윤기 (2005). 대학생의 자살위험요인 지각과 자살생각 평가. 학생생활연구, 31, 31-52.
- 박경진 (2012).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이훈진 (2013). 자존감, 자기자비와 심리적 부적응 및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23-139.
- 박세란, 이훈진 (2015).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583-611.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양수연, 신현균. (2013). 수용-전념 집단프로그램이 우울한 대학생의 심리적 수용, 심리적 안녕감, 우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4), 761-782.
-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71-691.
- 오유경, 김은정 (2014).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주도적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67-1187.
- 윤양은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완벽주의 성향의 관계 :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선, 이동훈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73-992.
- 이성준, 유연재, 김완석 (2013). 자기연민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19-238.
- 이수민 (2016). 상담에서의 자기자비에 대한 개념정의와 개관. 상담학연구, 17(5), 85-108.
- 이재아 (2016). 2016. 9. 2016. 취업시장 신조어는?...“오스트랄로스펙쿠스·호모인턴스”.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L1LTI55YH>에서 검색.
- 임경혜, 심은정 (2015).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만성피로의 관계: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39-159.
- 임규혁 (1997).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심리측정학적 재조명: 확인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1(1), 157-189.
- 조현주, 현명호 (2011). 자기비판과 우울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자비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49-62.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서울: 집문당.
- 최용준 (2018). 2018.02.07. 20대 우울증 증가, 왜.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2071315385424>에서 검색.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workshop 자료집.
- 황수덕 (2015).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실패상황에서의 자기가치감 보호 성향과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자존감의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 Barnard, L. K., & Curry, J. F. (2011). Self-compassion: Conceptualizations, correlates, & interven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5(4), 289-303.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34-51.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manual: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for SCL-90*. Baltimore;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Clinical Psychometrics Unit.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unkley, D. M., & Bal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713-730.
- Enns, M. W., & Cox, B. J. & Clara, I. (2002).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developmental origins an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ron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6), 921-935.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박현주, 이동귀, 신지은, 차영은, 서해나 공역. 완벽주의 이론, 연구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M.,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r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Germer, K. C., & Siegel, R. D. (2012). *Wisdom and Compassion in Psychotherapy*. Guilford Publications, Inc. (서광스님, 김나연 공역.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 서울: 학지사.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6), 353-379.
- Gilman, R., Ashby, J. S., Sverko, D., Floreld, D., & Varjas,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among Croatian and American you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1), 155-16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Flett, G. L., Donovan, W. T., & Mikail, S. F. (1991).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sam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64-468.
- Mehr, K. E., & Adams, A. C. (2016). Self-compassion as mediator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30(2), 132-145.
- Mor, S., Day, H. I., Flett, G. L., & Hewitt, P. L. (1995). Perfectionism, control, and components of performance anxiety in professional performe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07-225.
- Rh eaume, J.,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5).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construct validity of new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al Cognitive Therapy, Copenhagen, Denmark.
- Rice, K. G., & Slaney, R. B. (2002). Clusters of perfectionists: Two studies of emotion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1), 35-48.
- Seligman, M. E. P.,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4-788.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ets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Neely, M. E, Schallert, D. L., Mohammed, S. S., Roberts, R. M., & Chen, Y J. (2009). Self-kindness when facing stress: The role of self-compassion, goal regulation and support in college students' well-being. *Motivation and Emotion*, 33, 88-97.
- Neff, K. D. (2003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Neff, K. D. (2003b).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2.
- Neff, K. D., Kirkpatrick, K. L., & Rude, S. S.(2007). Self-compassion and adap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1), 139-154.
- Neff, K. D., & Vonk, R. (2009). Self-compassion versus global self-esteem: Two different ways of relating to oneself. *Journal of Personality*, 77(1), 23-50.
- Neff, K. D., & Germer, C. K. (2013). A pilot study a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e mindful self compassion progra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1), 28-44.
- Smeets, E., Neff, K., Alberts, H & Peters, M. (2014). Meeting suffering with kindness: Effects of a Brief Self-Compassion Intervention for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0(9), 794-80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The Effect of Self 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Lee, Su-Min Yang, Nan-M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50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various measurements including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Korean version Self-compassion scal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selected SCR-90 scale for Depression.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maladaptive perfectionism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compassion and life satisfaction whereas a positive correlations appeared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Self-compa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a negative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lso, life satisfac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relation to maladaptive perfectionism,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results showed a full mediation in both paths. This indicate that self compassion is a core variable for helping maladaptive perfectionists, supporting the clinical utility of self compa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aladaptive Perfectionism, Self-Compassion, Life Satisfaction, Depressions*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

송수진 홍정순†

아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생 323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 교사의 자율성 지지 척도, 자기 목적적 성격 척도, 학습 몰입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 몰입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은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와 교사가 자율성을 지지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학습 몰입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목적적 성격을 높임으로써 학습 몰입을 높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 몰입과 관련한 환경적 변인인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개인적 변인인 자기 목적적 성격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에서의 중요한 경험인 학습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어 : 교사의 자율성 지지, 부모의 자율성 지지,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 몰입

* 본 논문은 송수진(2017)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홍정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3293, Email : day012@ajou.ac.kr

서론

통계청(2015)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3~19세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적과 적성을 포함한 공부(49.5%)'로 나타났다. 입시위주의 한국 교육체계에서 성적은 학생으로써의 수행과 적응을 판단하는 지표이자 대학 진학과 맞물려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원지영, 2009)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교육체계에서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시험불안(이유미, 정주리, 2016), 우울(오미향, 천성문, 1994)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조한익(2012)은 정서와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습상황에서의 불안감, 지루함은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즐거움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 과정에서의 즐거움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 최근 학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몰입이다(Coates, 2006; Hu & Kuh, 2002).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드는 집중상태로 그 활동에 빠져드는 최적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1975). 몰입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Csikszentmihalyi, 2003), 몰입하는 상황에 따라 활동몰입, 학습몰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몰입의 상태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학습몰입은 학습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몰두한 상태(Steele & Fullagar, 2009)로, 학습과정에서의 즐거움과 같은 희열을 동반하는 최적의 경험이다(김희정, 송인섭, 2013). 학습 자체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내재적 보상이 되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습 과정 전체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여준다(석임복, 2007). 학습몰입은 학생의 내적 동기를 증진시켜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업성취(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에도 영향을 미친다.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0)는 학습몰입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의욕적이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높은 삶의 질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학습몰입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어떠한 변인들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진아와 황연우(2014)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학습능력, 학습심리, 학습태도, 학습자 특성 등의 내적요인과 가정환경, 교사특성, 학교환경 등의 외적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내적요인이 .399, 외적요인이 .434로 외적요인이 더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학습몰입과 관련한 다양한 외적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적요인 중에서도 가정환경이 .618로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특히 가정의 도전과 지원(.84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도전과 지원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적절히 반응하면서도 자녀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석임복, 2007). 부모가 정서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율성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자율성 지지'와 연결된다. 자율성 지지는 학습자의 선택 확대와 더불어 타인의 간섭을 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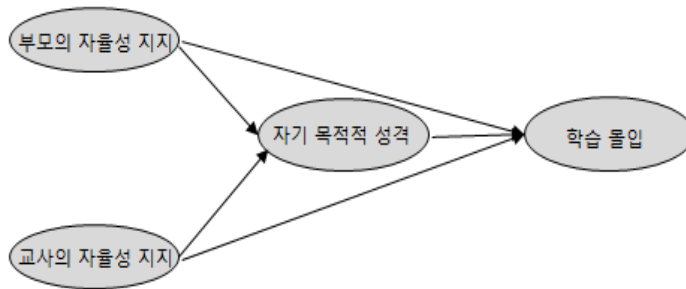
학습자 스스로의 독립적 사고와 언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Assor, Kaplan, & Roth, 2002). 장신혜(2015)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무동기, 자율적 동기를 매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김남희(2012)는 부모의 지지는 자율성 동기를 매개로 학습 몰입을 높이지만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율성 동기를 높여 학습 몰입을 낮춘다고 하였다. 또한 김희중(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가 학습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요인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이다. He(2009)의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에서 보이는 학습자에 대한 자율성 지지가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진희(2016)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지각할수록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되어 학습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Assor, Kaplan와 Roth(2002)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 및 통제행동과 학생들의 학업참여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들의 학업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의 통제 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습몰입에 모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석임복(2007)은 연구를 통해 가정의 도전과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도전과 지원이 모두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차유미와 엄우용(2015) 또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모두 학습몰입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으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선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Nakamura와 Csikszentmihalyi(2002)는 환경적 변인들과 개인적 변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구본용과 이정아(2015)는 부모자녀관계와 학습몰입의 관계는 단순한 직접적 관계가 아니기에 이들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 목적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 경험의 개인차를 야기하는 변인으로 성격에 주목하면서, 몰입은 상황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몰입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성격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러한 성격을 자기 목적적 성격(Autotelic personality)이라 명명하였다. 자기 목적성(autotelic)은 자기를 의미하는 오토(auto)와 목적을 의미하는 텔로스(telos)라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보상, 강화가 없어도 스스로 동기화될 수 있는 성격특성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6). 자기 목적적인 성격의 사람은 끈기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낮은 자기중심성과 능동성, 긍정성,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며, 내적 동기가 높고, 도전을 즐기고, 배움에 열려 있다(박정배, 송병국, 2011). 자기 목적적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의 즐거움과 기술의 증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Csikszentmihalyi(1990). 이화선(2010)은 문헌연구를 통해 자기 목적적 성격이 인간 의식의 질서와 복잡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 목적성'에 의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자기 목적적 성

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메타스킬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정확히 지각하고 실제 도전과 기술 간의 균형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적 요구 수준이 너무 높을 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 환경적 자극이 너무 단순하거나 쉬울 때 새로운 자극이나 어려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 자신의 능력수준이 부족할 때 느껴지는 불안상태를 극복하는 자기 조절능력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성향이다. 자기 목적적인 사람은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목표를 선호하며(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행동의 기회로 받아들인다(Csikszentmihalyi, 1990). 세 번째는 과제집착력으로 집중력과 과제에 대한 인내력(Csikszentmihalyi, 1990)을 의미하며, 네 번째는 내적 동기와 호기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관심을 보이며, 하는 일 자체에 목적을 두고 즐기는 내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Adlai-Gail(1994)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목적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는데, 자기 목적적인 집단은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때 공부, 취미,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집중을 잘하고 자긍심이 높으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ktner(1996) 또한 자기목적성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집중력과 자부심, 미래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Asakawa(2004)는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목적적 성격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자기 목적적 집단이 집중을 좀 더 잘하고, 도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간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도전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 상황에 적절히 적응해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Ishmura와 Kodama(2009) 또한 자기 목적적인 사람은 시간 관리와 목표 지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기 목적적인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도전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를 자신의 기술로 향상시킬 기회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들은 몰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일 수 있다. 몰입은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개인이 가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더 어려운 도전을 찾아내고 더 섬세하게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Csikszentmihalyi, 1990, 2000). 박정배와 송병국(2011)은 청소년의 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이 청소년 활동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한승훈(2013) 또한 자기 목적적 성격이 자전거 라이더의 활동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직접적으로 자기 목적적 성격과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화선(2010)은 자기 목적적 성격이 학습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기 목적적 성격이 몰입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변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목적적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가 중요하다. Csikszentmihalyi(2004)는 가

정환경에서의 경험이 자기 목적적 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athunde(1989)의 연구에서 지지와 화합을 추구하면서도 도전과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개별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보다 자신의 기대에 따라 살고 있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지지적이면서도 자율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Deci와 Ryan(2000)은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율성이 충족되면 스스로 성취하려는 내적 동기가 발휘되어 적응적이고 능동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자기 목적적 성격이 스스로 동기화될 수 있는 성격특성을 의미하기에,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기 목적적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율성지지 또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암묵적으로 학생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은 학습과정에서 자신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Ames & Archer, 1988). 김현광(2009)은 체육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자기조절동기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Jang, Reeve, Ryan과 Kim(2009)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내적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자기 목적적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의 도전이 학습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석임복, 2007)와 가정의 복합적 환경이 학습몰입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이화선, 2010)의 상이한 결과는 가정의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정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김진호(2003)는 학습몰입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Csikszentmihalyi(1993)는 몰입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과 내적상태의 조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적 변인, 학습자 특성 변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다. 학습몰입 관련 연구가 학습자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단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습몰입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구본용, 이정아, 2015),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학습자 특성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환경적 요인, 학습자 특성 요인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학습자가 학습 과정 자체에서 최적의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변인들 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화선(2010)은 복합적 가정환경과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몰입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합적 가정환경이 자기 목적적 성격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습몰입의 과정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학교환경에서의 교사의 역할까지 함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자율성 지지와 학습몰입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 또한 부모 또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많으며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모두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성인으로 학생의 성숙과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혜진, 2006). 부모와 교사가 모두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해보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적 변인인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학습자 내적 특성 변인인 자기 목적적 성격이 학습몰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1.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지각,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간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기도 수원 소재의 3개 중학교 2, 3학년 남·여 중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 11일에서 9월 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중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5부를 제외하고 365부가 수거되었으며,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42부를 제외한 총 323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

및 학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 분포

변인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학생	205	63.5
	여학생	118	36.5
학년	2학년	148	45.8
	3학년	175	54.2
전체		323	100.0

2. 측정도구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

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는 지각된 자율성 지지(perceived autonomy support from parents)로써 Grolnick, Ryan과 Deci(1991)가 개발한 POP(Perception Of Parents Scales)척도를 김소현과 김아영(2012)이 양육행동척도로 개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율성 지지(8문항)', '관여(8문항)', '구조 제공(11문항)'의 3개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자율성지지' 하위척도 8문항만 사용하였다.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시각과 관점을 수용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며, 자녀의 개인적인 가치나 흥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특성을 측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율성 지지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원숙과 배주현(2014)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율성 지지 척도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Williams와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질문지(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를 Jang, Reeve, Ryan과 Kim(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 비판을 받아들이고, 고유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측정하며,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손원숙과 배주현(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자기 목적적 성격 척도

자기 목적적 성격을 기술하고 있는 관련 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이화선(2010)이 개발한 자기 목적적 성격 척도를 사용하였다. 메타스킬, 어려운 과제선호, 과제 집착력, 호기심과 내적 동기의 4개 하위요인,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목적적 성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화선(201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 척도

석임복, 강이철(2007)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습몰입척도를 김희정(2012)이 중, 고등학생용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몰입 15문항, 정의적 몰입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적 몰입이란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사고하며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정의적 몰입이란 외적 보상이나 대가 없이도 학습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희정(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0,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에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측정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하여 검증하였는데,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 몰입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치

변인	부모의 자율성지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몰입
부모의 자율성지지	1			
교사의 자율성지지	.41***	1		
자기 목적적 성격	.37***	.35***	1	
학습몰입	.32***	.26***	.62***	1
M	4.03	3.78	3.42	3.26
SD	.73	.69	.53	.55
왜도	-.59	-.06	.08	.18
첨도	.10	-.36	.06	-.15

*** $p < .001$, ** $p < .01$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상분포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왜도와 첨도의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왜도는 절대값 0.06~0.59, 첨도는 0.06~0.50의 범위에 있어 Hong, Malik과 Lee(2003)가 제시한 정상분포 조건(왜도<2.0, 첨도<7.0)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은 최소 3.01부터 최고 4.03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최소 .53에서 최고 .73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 지각은 평균 4.03($SD=.73$),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은 평균 3.78($SD=.69$)로 청소년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더 높이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 몰입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몰입과 자기 목적적 성격($r=.62, p<.001$), 부모의 자율성지지($r=.32, p<.001$), 교사의 자율성지지($r=.26, p<.001$)순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는 자기 목적적 성격(부모: $r=.37, p<.001$, 교사: $r=.32, p<.001$)과 비슷한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습몰입($r=.32, p<.001$)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 목적적 성격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모형 검증

모형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 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의 질을 먼저 평가하고, 구조 모형검증을 통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았다. 잠재변인의 측정변수는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경우 단일 요인 척도이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문항묶음을 생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내적 일관성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한 문항 묶음에 근거한 것으로, Kishton과 Widaman(1994), Nasser, Takahashi와 Benson (1997)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Wang & Wang, 2012에서 재인용). 측정모형의 적합도, 표준화 계수 및 검증결과는 표 3, 표 4,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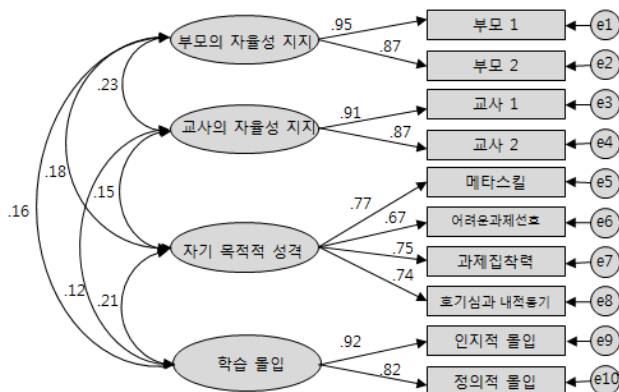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AIC
측정모형	96.69	29	.000	.941	.961	.085	168.69

<표 4> 측정모형의 표준화 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p	CR	AVE
부모의 자율성 지지	⇒ 부모1	1	.95				.84	.90
	⇒ 부모2	.92	.87	.06	14.51	.000		
교사의 자율성 지지	⇒ 교사1	1	.91				.81	.88
	⇒ 교사2	.92	.87	.07	12.42	.000		
자기 목적적 성격	⇒ 메타스킬	.95	.77	.07	12.96	.000	.61	.82
	⇒ 어려운과제선호	.98	.67	.09	11.29	.000		
	⇒ 과제집착력	1	.75					
	⇒ 호기심과 내적동기	.86	.74	.07	12.47	.000		
학습 몰입	⇒ 인지적 몰입	1	.92				.78	.86
	⇒ 정의적 몰입	.88	.82	.06	14.36	.000		

CR=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그림 2] 측정모형 (표준화 계수)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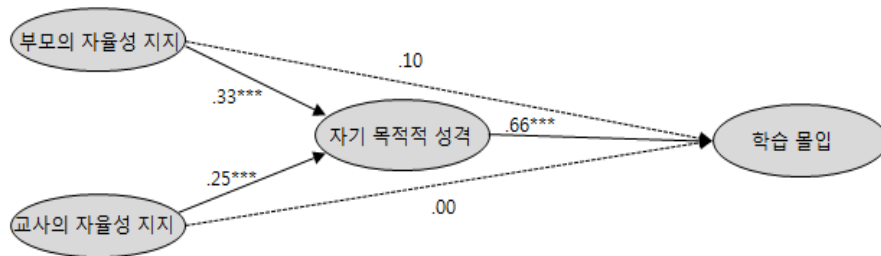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67에서 .95사이로 나타나, 각 측정 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인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홍세희(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을 확인하였다. 이 중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며, RMSEA의 경우 .05이하면 아주 좋은 모형 .08이하면 좋은 모형, .10이하면 보통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chi^2=96.69(df=29)$, $p<.001$, $CFI=.961$, $TLI=.941$, $RMSEA=.085$ 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는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모형이 경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구조모형 검증

변인들 간의 모든 경로가 가정된 연구모형이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표들이 모형 수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6.69$, $p<.001$, $CFI=.96$, $TLI=.94$, $RMSEA=.085$).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검증결과는 표 5, 그림 3과 같다.

<표 5> 연구모형과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Delta \chi^2$	Δdf	p	TLI	CFI	RMSEA	AIC
연구모형	96.69	29			.000	.94	.96	.085	168.69



[그림 3] 연구모형 (표준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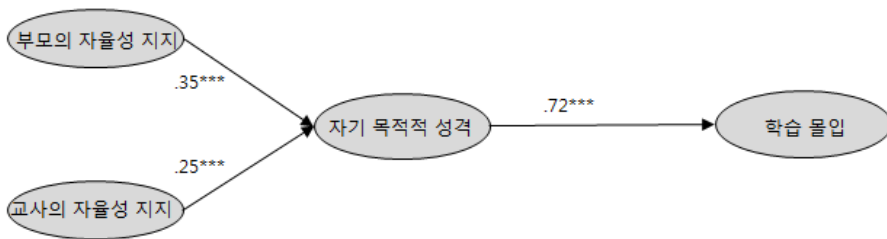
그림 3에 나타난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서 학습 몰입, 교사의 자율성 지지에서 학습 몰입으로 향하는 두 개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비해 간명도가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유의미하지

많은 경로들을 제거한 수정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Delta \chi^2$	Δdf	p	TLI	CFI	RMSEA	AIC
연구모형	96.69	29			.000	.94	.96	.085	168.69
수정모형	99.11	31	2.24	2	.000	.96	.96	.083	147.11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두 모형 모두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전반적으로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연구모형: $\chi^2=96.69$, $p<.001$, $CFI=.96$, $TLI=.96$, $RMSEA=.085$, 수정모형: $\chi^2=99.11$, $p<.001$, $CFI=.96$, $TLI=.96$, $RMSEA=.083$). 모형비교를 위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Delta \chi^2=2.24$, $\Delta df=2$, $p=n.s.$)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AIC지수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해 χ^2 을 변형한 것으로 낮은 값을 가질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배병렬, 2014). 따라서 간명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고, 최종모형의 검증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은 높은 자기 목적적 성격을 예언하고(부모: $\beta=.35$, $p<.001$, 교사: $\beta=.25$, $p<.001$), 높은 자기 목적적 성격은 높은 학습몰입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2$, $p<.001$).



[그림 4] 최종모형 (표준화 계수)

4. 매개효과 검증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 몰입간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홍세희, 2000). 2000개의 bootstrap 표본에 입각하여 산출된 각 간접경로의 추정치와 이 값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이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beta=.25$, $p<.001$, 95% Bias-Corrected CI={.23, .36}),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beta=.18$, $p<.01$, 95% Bias-Corrected CI={.07, .28})는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자기 목적적 성격을 완전매개로 하여 학습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 유의미성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Lower	Upper
부모의 자율성 지지 ⇨ 자기 목적적 성격	.35***	.35***		.23	.48
교사의 자율성 지지 ⇨ 자기 목적적 성격	.25***	.25***		.11	.38
부모의 자율성 지지 ⇨ 학습 몰입	.25***	-	.25***	.23	.36
교사의 자율성 지지 ⇨ 학습 몰입	.18**	-	.18**	.07	.28
자기 목적적 성격 ⇨ 학습 몰입	.72***	.72***		.62	.81

*** $p<.001$, ** $p<.01$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몰입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자율성 지지를 받는 환경적 요인과 자기 목적적 성격의 학생의 성격특성이 어떻게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 및 선행 연구와 관련시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자기 목적적 성격, 학습 몰입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지각은 학습 몰입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 몰입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장신혜(2015)의 연구,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 몰입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윤진희(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교사의 자율성 지지보다 학습몰입과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목적적 성격과 학습 몰입 또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자기 목적적 성격과 학습몰입의 정적상관을 보고한 이화선(2010)의 연구와 청소년의 활동몰입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박정배와 송병국 (201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각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를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직접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 목적적 성격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선(2010)은 복합적 가정환경이 직접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 목적적 성격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남희와 이정운(2013) 또한 부모의 지지가 자율성 동기를 매개로 학습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임선아(2011)은 부모요인과 학생 개인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부모요인은 학생 개인요인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희정(2012) 또한 교사-학생 관계가 성취목표지향성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지원(2011)은 자율성 지지가 개인 내적 특성인 심리적 중재요인 및 동기요인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와 교사의 변인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 내적특성 변인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Jackson(1992)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높은 수준의 몰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Sternberg와 Davidson(1995) 또한 학습몰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과 의욕을 가지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 자신의 다양한 전략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김남희와 이정운(2013)은 학습몰입의 정도는 타인의 영향력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습상황에서 학생의 학습 자체를 목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학습몰입을 추구하는 자기 목적적 성격이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라는 환경적 변인을 학습몰입으로 이끄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자기 목적적 성격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목적적 성격이 중요하며, 자기 목적적 성격은 학습되어질 수 있다는 Csikszentmihalyi(1990)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학생의 자율성을 지지해줌으로써 자기 목적적 성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athunde(1988)는 자기 목적성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자기 목적적 가정환경(*autotelic family context*)'이라 지칭하고 5가지 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학생 스스로 자신의 목표와 기대를 명료하게 지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적, 좋은 대학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재 학생이 하고 있는 일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학생이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다면 규칙을 깨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부모의 보호 아래 충분히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껴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것이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도전과 기술을 끊임없이 조정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헌신해야한다는 것이다. '자기 목

적적 가정환경' 특성 중 학생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도전하도록 헌신하는 것은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자율성 지지는 선택 확대와 더불어 스스로의 독립적 사고와 언행을 허용하는 것으로(Assor, Kaplan, & Roth, 2002), 이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기다려주며 지지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복합적 가정환경, 가정의 도전과 지원 같이 자기 목적적 성격을 높이는 부모와 교사의 중요한 태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교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요한 대상이며, 교사의 태도 및 관계는 청소년의 학습성취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습상황에서 학생의 자율성 및 학습 활동의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Guay & Vallerand, 1997)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은 학습에서 자신이 능동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Ames, 1992).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모두 자기 목적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기 목적적 성격에 미치는 부모($\beta = .35$)와 교사($\beta = .25$)의 자율성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 중 가정환경 및 부모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김진아, 황연우, 2014; Hill & Taylor, 2004)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부모와 교사 변인을 함께 살펴본 선행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내재적 미래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종렬(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Vansteenkiste와 Soenens(2017) 또한 교사나 친구보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또한 단순히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에는 학습몰입과 자기 목적적 성격의 하위 영역에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해보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학습장면이나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목적적 성격은 어떤 활동에 쉽게 몰두하고 활동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성격 특성을 의미하기에, 학습몰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특성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한 놀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도 몰입하여 즐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몰입 경험은 연속체 선상에 존재하며 낮은 수준의 몰입은 높은 수준의 몰입과의 관련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석임복, 2007), 이러한 경험은 개인 특성으로 연결되어 이후의 학습에서도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장면에서는 학생의 학습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난이도의 과제에 도전하기를 격려함

으로써 학습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부모와 교사 교육을 통해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 및 구체적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학습 환경이나 학습방법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결정하여 통보하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선택을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지적 태도로 물어봐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강압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자율성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학생에게 스스로의 독립적 사고와 선택에 자유를 주고, 이러한 선택이 유의미한 긍정적 경험으로 지각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정서적인 반응을 해줌으로써 자기 목적적인 성격을 증진시켜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보면,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감정을 수용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및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목적적 성격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부모와 교사의 기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규칙과 통제에 대해 자주 논쟁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자기 목적적 성격을 높임으로써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학습 몰입과 관련한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본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경기도 지역의 3곳의 중학교 2, 3학년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역으로 표집 대상 범위를 확장시킨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의 검증뿐 아니라, 성별, 학년, 성적 등의 변인에 따른 결과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측정은 자기 보고 방식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지각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별로 응답이 주관적이어서 응답자 간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 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지를 통해 학습 몰입 상태를 측정 하였다는 점이다. 설문지법은 이미 몰입을 경험한 뒤에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며 답하는 방식으로, 경험표집법(ESM)에 비해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경험표집법을 활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목적적 성격의 종속변인으로 학습몰입을 설정하였으나, 자기 목적적 성격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자기 효율성,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지각과 학습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 목적적 성격의 매개효과

회복 탄력성등 정서와 관련된 종속변인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 환경적 요인과 학생의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내·외적 변인의 탐색과 자기 목적적 성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 구분용, 이정아(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역할, 교사의 지도성 유형,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22(6), 355-387.
- 김남희 (2012).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심리학회, 24(1) 39-59.
- 김소현, 김아영. (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과 타당 화 -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6(3), 717-738.
- 김진아, 황연우 (2014). 학습몰입의 내·외적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1(8), 49-78
- 김현광 (2009). 체육수업 상황에서 지각된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자기-조절 동기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지지와 학업성취도 및 교우 관계와의 연관성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12). 교사-학생 관계,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몰입 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155-178.
- 김희정, 송인섭 (2013). 중, 고등학생의 교사-학습관계, 학습동기 변인, 학습몰입 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7(2), 409-429.
- 김희중(2012). 중학생의 긍정심리와 부모양육태도, 학습몰입, 학업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배, 송병국 (2011). 청소년활동몰입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2(4), 187-213.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 석임복 (2007). 학습 몰입의 구조 :척도, 성격, 조건, 관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임복. 강이철 (2007). Csikszentmihalyi의 몰입 요소에 근거한 학습 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

- 화 연구. *교육공학연구*, 23(1) 121-154.
- 손원숙, 배주현 (2014).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53-272.
- 오미향,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변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인간이해*, 15, 63-96.
- 원지영 (200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9), 125-150
- 이유미, 정주리 (2016).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2) 103-126
- 이정아 (2015). 교사의 변혁적 지도행동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화선 (2010). 학습 몰입과정의 증진방안 연구: 관련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과 몰입 채널 탐색을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진희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신혜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실패 능동적 대처행동,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2012). 초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성취정서,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26(4), 1001-1021
- 차유미, 엄우용 (2017).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지지, 자기결정성도억,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5). 2014 청소년 통계.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한승훈 (2013). 자전거 라이더의 자기 목적적 성격이 플로우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국제학술발표대회*. 74(1) 630-64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워크숍 교재. Department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3), 411-423.
- Assor, A., Kaplan, H., Kanat-Maymon, Y., & Roth, G. (2005). Directly controlling teacher behaviors as predictors of poor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anger and anxiety. *Learning and Instruction*, 15, 397-413
- Adlai-Gail, W. (1994). *Exploring the autotelic person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70.
- Asakawa, K. (2004). Flow experience and autotelic personality in Japanese college students: How do they experience challenges in dail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 123-154.
- Coates, H. (2006). *Student engagement in campus-based and online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 & I.S. Csikszentmihalyi (1988).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 Row
- Csikszentmihalyi, M. (1993). *The evolving self*. New York: Harper & Row.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 Csikszentmihalyi, M. (2000)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25th anniversary special edition. (이삼출 역. 2003. 몰입의 기술.) 더블어 책.
- Csikszentmihaly, M., & Schneider, B. (2000). *Becoming adult: How teenagers prepare for the world of work*. (이희재 역. 2003.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서울: 해냄출판사.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268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 Guay, F. & Vallerand, R. J. (1997). Social context, student's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oward a process mod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3). 211-233
- He, Y. C. (2009). *Self-determination among adult Chinese English Language Learners: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intrinsicmotivation, and 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Hu, S., & Kuh, G. D. (2002). Being (dis)engaged in educationally purposeful activities: The influences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3*(5). 555-575.
- Ishumura, I., & kodama, M. (2009). Flow experience of positive affect o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acilitating enjoyment of play, responsible work behavior, and self-control. *Motivation and Emotion, 29*(4), 297-325

- Jackson, S. A. (1992). Athletes in flow: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flow states in elite figure skate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4, 161-180.
- Jang, H., Reeve, J., Ryan, R. M., & Kim, A. (2009). Can self-determination theory explain Task enjoyment and the productive, satisfying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ctivistically oriented korea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 644-661.
-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02). *The Concept of Flow* .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89-105).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athunde, K.(1988). *Optimal experience and the family context*. In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pp. 342-36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ele, J. P. & Fullagar, C. J. (2009). Facilitators and outcomes of student engagement in a college sett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43(1). 5-27.
- Sternberg, R. J. & J. E. Davidson (1995). *The nature of insight*. Cambridge, MA: MIT Press
- Vansteenkiste, M & Soenens, B (2017). *Autonomy in Adolescent Development Towards Comceptual Clarity*. PsychologyPr.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pp38)*, John Wiley & Sons.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logical value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67-779.

Mediation Effects of Autotelic Personal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Learning Flow

Song, Su-Jin Hong, Jung-Soo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n adolescent's autotelic personal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learning flow. For this study, the perceived autonomy support from parents,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Autotelic personality scale and student's learning flow were administered to 323 students from 3 middle schools in the Gyeonggi province area.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18.0 and AMOS 18.0.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adolescent's autotelic personality and learning flow. Secon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s influenced learning flow fully mediated by adolescent's autotelic personality. That is, perceive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s increased the level of adolescent's autotelic personality directly, which could then increase learning flow indirect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utonomy support, learning flow, autotelic personality, mediating effects.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신순정

경기탄벌초등학교

김광수*

서울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T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 중 회복탄력성 동질성이 확보된 두 학급 중 한 학급(35명)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학급(33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10회기의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및 지속성 검증을 위하여 SPSS 22.0의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이용하여 검사지 반응을 분석하였고, 아동 설문지, 회기별 평가 기록, 연구자 관찰 자료를 통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4주 후의 추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과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분석 결과,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구체적인 바람(want)을 인식하고 역경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들은 내적 통제와 바람직한 귀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게 되었으며,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주요어 : 현실치료, 놀이, 놀이활용 현실치료 프로그램, 회복탄력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광수,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137-74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Tel: 02-3475-2537, E-mail: drks419@snu.ac.kr

서론

오늘날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심각한 따돌림과 학교폭력, 성적에 대한 압박, 가정 폭력 등 예측하지 못했던 역경과 위기로 위협에 처한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수의 아동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역경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양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16)가 공동 발표한 ‘2016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9~17세 아동 중 11.2%가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거나 실제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했으며, 최근 몇 년 간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점(OECD, 2016) 등은 아동들의 정신 건강이 위험한 상황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위협에 처한 아동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여러 가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 그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의 배양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역경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지칭하는데 최근 회복탄력성은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고 중재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강창실, 2008; 김주환, 2011).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면을 보이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성된 개념인 회복탄력성(허윤영, 2012)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진 향상성을 ‘회복’하고, 위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튀어 오르는 ‘탄력성’의 의미를 포함한다. 회복탄력성은 주어진 역경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주환, 2011). 여러 가지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다변인 구성개념인 회복탄력성(Sinclair & Wallston, 2004)의 구성요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개는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관련시켜 제시하고 있다(남현우, 2015). 예컨대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외부 환경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이신숙, 2013). 또한 동정적이고 타인을 잘 돌보며,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Block & Kremen, 1986). 그리고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다(Block & Block, 1980). 요컨대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통해 역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자기조절능력,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대인관계능력,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긍정성이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으로 추출되어 제시되고 있다(Reivich & Shatté,

2003; 김주환, 2011; 이신숙, 2013).

회복탄력성은 인간 생애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특히 아동기 회복탄력성의 개발, 증진은 아동기의 적응과 발달뿐 만 아니라, 추후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회복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Reivich & Shatté, 2003), 유연하고 축적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있는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Wicks, 2005)는 아동기부터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해 주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그 자체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될 수 없지만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 발달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면서(Wicks, 2005), 아동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하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소개되고 있는 회복탄력성 프로그램들은 주로 인지행동, 해결중심상담, 긍정심리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을 접목하여 재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지행동접근은 단기간에 사고 패턴을 교정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함으로써(이지원, 2009; 김희연, 2014; 이아라, 2013), 긍정심리학적 접근(김민영, 2013; 남현우, 2015; 오은정, 2016)은 강점 활용을 통한 긍정적 자기상을 형성하도록 도움으로, 해결중심상담은 내외적 자원과 과거 성공경험 발견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진함으로써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혜, 2013; 오은숙, 2014; 서보업, 2011). 또한 예술치료를 접목한 개입은 비언어적 심상을 통해 자신을 표출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기 탐색을 통해 자아성장이 촉진되면서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현숙, 2015; 정유미, 2015; 김희정, 2014).

한편, 회복탄력성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기존의 인지행동, 해결중심상담, 예술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 개입 등의 한계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인지행동치료 접근은 역기능적 사고점점을 통해 비합리적 사고패턴을 교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회복탄력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인지적 신념이나 패턴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박하는 과정이 적개심이 강한 아동이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내담자에게는 효과가 적다는 제한점이 지적된다(김현정, 2004). 해결중심상담은 다양한 질문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성찰, 강점 및 자원, 성공경험 탐색을 통한 역경 극복의 희망을 고취함으로써 회복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되나 단기간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정적인 감정, 생각을 다루어 해소하는 활동이 적다는 제한점이 지적되고 있다(연문희, 2002; 서보업, 2011; 오은숙, 2014). 또한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음악, 미술치료를 비롯한 예술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기표현 활동을 통해 방어를 감소시키며 창조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내담자의 자기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신념체계 변화를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윤서연, 2010).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 적용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재구성한 프로그램들이 전체 회복탄력

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회복탄력성의 특정 하위요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향상이 미약하거나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김나미, 2014; 한현숙,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입방법들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들(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으로 현실치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실치료는 내담자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나 타인 모두에게 피해나 손상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효과적인 행동을 탐색, 선택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돕는 상담교육 방법이다(Glasser, 1984). 현실치료는 그 창시자인 Glasser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비행청소년들의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개입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 상담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며(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4) 인간이 성장과 변화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이며 적대적인 아동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윤서연, 2010). 인간의 현재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기본 욕구(생존, 사랑과 소속, 힘과 성취, 자유, 즐거움의 욕구)와 바람(Want)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인 현실치료는 Glasser(1984)의 내부통제 심리학인 선택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권석만, 2012). 선택이론은 인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으로, 인간을 욕구 충족이라는 내부동기에 의해 행동을 선택하는 존재로 이해하며, 인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김명신, 2012). 현실치료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것과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배운다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서석희, 박애선, 2007).

현실치료는 자신의 욕구와 바람(Want)을 충족하기 위한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고 이를 책임지며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으로써 외적인 자극이나 힘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현실치료 개입이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통제 및 내외통제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은호, 2005; 김유미, 2008; 안혜진, 2010; 허성돈, 2010). 현실치료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에 도움이 되는 사고와 행동을 훈련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 수용하는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을 갖게 하므로 이것은 보다 성숙하고 주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교육적 개입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실치료는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과 방안을 탐색, 선택하여 실천하도록 돕는다. 특히 현실치료는 타인의 행

동 변화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촉진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순업, 2005; 우현주, 2006; 최윤옥, 2008; 김현진, 2013). 그리고 현실치료에서는 전행동(total behaviors, 행동을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반응하기로 이루어진 총체로 봄)을 다루어가는데 있어서 먼저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활동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므로써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우울과 불안 등의 감정을 완화하고 대신 편안함, 즐거움의 감정 느끼기를 선택하면서 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한 반응을 가져오도록 개입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김인자, 2001; Wubbolding, 1997). 이러한 사실은 현실치료가 분노,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성 및 긍정정서,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김홍렬, 2003; 김치원, 2013; 장은미, 2016; 박지영, 2016).

현실치료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RWDEP라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으로 이루어진 치료모델을 사용한다. 먼저 내담자와 좋은 관계(Relationship)를 형성한 이후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Want) 탐색하고, 원하는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선택한 행동(Doing)의 효율성에 대해 평가(Evaluation)하여, 욕구와 바람 충족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Plan)할 수 있도록 돕는다(Wubbolding, 2013). 현실치료의 이러한 RWDEP 상담과정은 타인의 바람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기본 욕구와 바람이 실현된 좋은 장면들을 탐색하고 연상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의 희망과 긍정성을 증진시키고, 일시적인 욕구나 충동 행동을 통제하고 진짜 바라는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자기조절능력의 증진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실치료의 적용에 있어서 현실치료 프로그램 내용에서 선택 이론을 배우게 되는 독특한 점이 있어 인지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그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매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이 부족하여 아동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이정미, 2011; 장은미, 2015). 따라서 현실치료 개입에 있어서 성인이나 일반인 대상 개입과는 달리 아동대상 개입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아동대상 현실치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동의 인지 및 정서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놀이를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한다.

놀이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유발하며 욕구를 발산시키고 스트레스 해소, 정서표출, 자발성 증진, 의사소통의 매개로서 또래관계를 향상시켜주는 등의 치료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Landreth, 2009). 특히 아동에게 놀이는 생활 그 자체이자 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엄미연, 강문희, 2004). 자기표현이 능숙하지 않은 학령기 아동에게 놀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되도록 돕는다(최순옥, 2010). 또한 놀이는 재미와 즐거움, 기쁨, 놀라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아동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놀이는 현실에서 좌절된 다양한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는 매체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킨다(홍은주, 한미현, 이향숙, 2010). 이와 같은 놀이의 다양한 특성들은 자기표현이 아직 미숙한 아동상담에서 아동의 참여와 표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참여를 지속시키는 기여를 하는 중요한 상담의 도구이자 방법으로 기능함으로써(임은미 외, 2013;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4) 회복탄력성 향상에 있어서 기존 현실치료 프로그램의 한계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현실치료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아동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환경가꾸기(R)에서 놀이를 통해 배운 여러 행동들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행동들을 창조해 내고, 이 중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행동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현진, 2013; 손미나, 2015). 바람탐색(W) 단계에서 놀이를 통해 선택이론에서 언급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며 동시에 아동의 바람이 실현된 좋은 세계(Quality World)를 지속적으로 연상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재조직화한 새로운 행동을 행동탐색(D) 및 실행계획(P) 단계에서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함으로써 자기조절력 및 관련 특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즉각적인 충동에 따른 행동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바람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여 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충동통제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인자, 1997). 놀이의 전체 과정에서 자신의 바람, 감정 등을 알아차리고 자기평가(E)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사고나 행동이 문제나 상황 해결에 적합한 생각과 행동인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감정조절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적 귀인을 통하여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원인분석력 향상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다(Glasser, 1998).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실치료는 아동이 자신의 욕구나 문제해결에 더 나은 사고, 판단, 행동 선택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다 건강한 신념체계 형성을 촉진하고, 자신의 현실과 행동을 평가, 수용하면서 주체적 선택과 책임감 형성을 통해 삶에서 경험하는 역경,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 대처와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는 달리 아동들의 경우 구체적 조작과 행동을 통해 사고와 문제해결이 촉진되는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치료의 주요개념이 보다 체험적,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놀이라는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 경기도 T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의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이 확보된 2학급을 선정하였다. 이 중 한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한 학급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별	남	18	18
	여	17	15
계		35	33

연구도구

회복탄력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개발한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척도를 남현우(2015)가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자기조절능력(9문항), 대인관계능력(9문항), 긍정성(9문항) 관련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용 회복탄력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자기조절능력 .82, 대인관계능력 .87, 긍정성 .89로 나타났다.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목표로 재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재구성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아동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목적으로 예방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심각한 수준의 역경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생활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문제예방 및 성공적인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신의 욕구와 감정, 생각, 행동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기법들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현실치료와 관련된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바람 및 행동 선택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자신의 바람의 탐색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기법들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기쓰기,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원하는 긍정적 장면들을 상상하게 하였다. 넷째, 즐거움과 재미,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인 규칙이 있는 게임 놀이 및 협동놀이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각 회기마다 적절한 양의 과제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하루 생활 속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기 평가하고 변화와 성장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성장 일지를 쓰고 행복책에 좋은 세계 장면 등을 그리도록 하였다. 여섯째, 활동의 구조를 개인 활동, 짝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한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집단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의 역동을 느낌으로써 프로그램 개입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함에 있어 선행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김명신, 2012; 박지영, 2015; 윤정훈, 2016), 선행 놀이 및 놀이치료 관련 연구(강지예, 2013; 서준호, 2014; 최희남, 2015; 초등상담나무, 2017), 선행 회복탄력성 관련 연구(최성애, 2014)에서 활용된 개입기법을 추출한 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반영하였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먼저 회복탄력성증진 현실치료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 실태, 구성방향에 대한 아동요구조사(50명)와 교사요구조사(정교사 35명) 결과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요구조사 결과 학생이나 교사 대다수가 선호하는 방식인 놀이나 게임을 적극 활용하되 이야기 듣기, 역할 놀이와 만들기 등의 활동들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교사들도 현실치료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방안과 활동지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및 현장 적합성 검토는 초등상담 박사 2인과 현실치료 기초 실습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춘 3인에게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관한 평가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발송,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초등상담 대학교수 1인에게 검토 및 자문을 받았다. 평가 설문지는 프로그램 전체 구성(5문항)과 회기별 내용(10문항)에 관한 Likert 5점 척도(매우 적합, 적합, 보통, 적합하지 않음, 전혀 적합하지 않음)로 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 사항 관련 개방형 의견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평가 결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놀이를 통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하기와 회기별 RWDEP 현실치료 내용 구성에 대해서, 현장적합성 측면에서는 놀이 공간 및 시간 확보의 필요성, 아동 흥미 유발 가능성 증진 방법, 안전한 도구 활용 및 협력적인 놀이 구성 등에 관하여 피드백을 받아 예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예비 실험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프로그램의 구성에 반영하였다. 즉 놀이 활동 자체로 각 회기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중복되는 활동을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현실치료 상담절차

(RWDEP)에 맞게 순서를 재조정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각 회기 활동시간을 5-10분 정도씩 늘이고 아동의 평가 및 과제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최종 구성된 프로그램은 1회기 당 40~50분씩 총 10회기로 매주 2회씩 총 5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개요는 표 2와 같다.

최종 프로그램은 선행 현실치료 프로그램의 구조를 반영하여 RWDEP 즉 관계형성단계(R), 욕구 및 바람 탐색단계(W), 행동탐색단계(D), 자기평가탐색(E), 행동계획 단계(P)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회기별로 회복탄력성의 하위 변인들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내의 활동들과 질문을 구조화하였다. 특히 아동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은 자신이 원하는 바람을 충족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이 활동과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행동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놀이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진행은 준비(도입)하기, 놀이 활동하기, 소감 나누기, 감사하기, 평가하기, 과제 제시하기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구성된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활동 및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회기는 관계형성 단계(R)로 프로그램의 소개와 함께 회복탄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안녕! 나, 누구?’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집단 놀이를 통해 즐거움, 재미,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규칙을 약속하고 프로그램 참여 태도에 대해 안내한다. 2회기부터 4회기는 욕구 충족 및 바람 탐색 단계(W)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생존, 사랑과 소속, 힘과 성취, 자유, 즐거움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바람을 탐색하고, 욕구가 충족된 좋은 세계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회기 ‘Change! Change!’ 놀이 이후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말함으로써 놀이를 통해 다양한 욕구가 충족됨을 경험하게 한다. 3회기 ‘공룡아 뭐하니’ 말판 놀이를 통해 욕구 실현 장면을 연상함으로써 행복한 상상을 하게 한다. 4회기 ‘두둥실 풍선치기’ 놀이를 통해 바람이 실현된 구체적인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상화한 사진을 제시하여 바람 실현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행복 사진첩 만들기를 통해 욕구 충족 장면을 떠올리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5회기부터 6회기까지는 행동탐색단계(D)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들을 인식하고, 다양한 새로운 행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를 선정한다. ‘스트레스 팡팡’ 놀이(5, 6회기)를 활용하여 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바꾸어 더 나은 행동 선택과 창의적인 행동을 탐색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실전 사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탐색하고 친구들과 나눔으로써 실생활에서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높인다. 7회부터 9회기까지는 자기평가(E) 및 행동 계획 수립 단계(P)이다. 자신의 행동이 바람 실현을 위해 만족스러운지 평가하고, 자신이 잘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소개하고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이를 강점으로 부각하여 실천 의지를 높인다. 7회기 ‘갈등의 사슬을 풀어라’ 놀이 참여 과정

에서 자신과 집단의 바람실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고 바람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평가하게 한다. 8회기 ‘행복하세~호’ 놀이는 종이 비행기의 한 쪽 날개에 행복한 순간, 다른 쪽 날개에 행복 실현을 위한 노력과 행동을 적은 후 ‘행복하세~호’ 비행기 날린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바람 실현을 위해 잘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행동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게 한다. 9회기에는 현재 자신의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바람 경매’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활동하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바람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독려한다. 10회기는 마무리(종결) 단계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이켜보며 서로의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법의 선물’ 놀이를 경험한다. 또한 꾸준히 기록한 행복책을 전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운 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한다.

<표 2>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

회기	단계	제목	활동목표	활동내용	시간	회복탄력성 관련성
1	관계형성 단계 (R)	마음을 열어요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고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및 서약서 쓰기 ‘안녕! 나, 누구?’ 놀이하기 별칭 부르며 인형주고 받기 자기편으로 모셔가기 	50'	대인 관계 능력
2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놀이 이후 기분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충족한 욕구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nge! Change!’ 놀이하기 역할정하고 바꾸기 3번 반복하며 톱스타정하기 놀이를 통해 충족된 다양한 욕구 알아보기 ◆ 과제: 행복 책 만들기 1 :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과 활동 그리기(성장 일기 쓰기) 	50'	대인 관계 능력
3	욕구 인식 및 바람 탐색 단계 (W)	이곳이 천국은	욕구 충족된 장면들을 살펴보며 좋은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룡아 뭐하니 놀이’하기 - 욕구 실현 장면 연상 말판 놀이하기 • 욕구 충족 장면 사진으로 행복사진첩 만들기 ◆ 과제: 행복 책 만들기 2 : 좋은 세계 사진 추가하기(성장 일기 쓰기) 	40'	긍정성
4		바람아 날아라	나의 좋은 세계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정말 원하는 것 1가지 선택하기 • ‘두둥실 풍선치기’ 놀이하기 - 바람 실현 장면 풍선에 쓰고 바람 풍선치기 ◆ 과제: 행복 책 만들기 3 : 나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슬픈지를 알아요.(성장 일기 쓰기) 	50'	긍정성
5	행동탐색 단계 (D)	같은 상황 다른 행동1	스트레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팡팡’ 놀이하기 - 스트레스 해소 방법 체험하기 (신문지 격파, 찢기, 던지기) • 명상 음악 듣고 신체 이완 및 호흡 고르기 	50'	자기 조절 능력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회기	단계	제목	활동목표	활동내용	시간	회복탄력성 관련성
6		같은 상황 다른 행동2	전행동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행동을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행동 탐색을 위한 전행동 이해하기 • 창의적인 행동 탐색하기 • 평소 행동과 새로운 행동 비교하기 ◆ 과제: 행복 책 만들기 4: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책들(성장 일기 쓰기)	40'	자기조절 능력
7	자기평가 단계 (E)	현재의 선택은?	갈등해결을 위해 선택한 행동이 바람 실행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의 사슬을 풀어라' 놀이하기 - 목표를 정하여 꼬여 있는 손의 사슬 풀기 - 평소 내가 주로 하는 행동 알아차리기 - 바람 실행을 위해 도움 되는 행동 찾아보기 ◆ 과제: 행복 책 만들기 5: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성장 일기 쓰기)	50'	자기조절 능력
8	행동계획 및 실행 단계 (P)	잘하고 있어!	바람실행 위한 현재 잘 하고 있는 행동 찾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속 하는 계획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하세~호' 놀이하기 -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자신의 바람과 바람 실행 위해 잘 실천하고 있는 행동 쓰기 -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친구들의 바람과 바람 실행을 위한 행동을 알고 격려의 말 쓰기 ◆ 과제: 행복 책 만들기 6: 좋은 일 지속하기 (성장 일기 쓰기)	50'	대인관계 능력
9		그래, 선택했어!	바람 실행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행동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 경매' 놀이하기 - 경매를 통해 가장 원하는 바람 낙찰받기 - 바람 실행을 위한 새로운 계획 세워보기 ◆ 과제: 행복 책 만들기 7: 내가 바라는 것 이루기(성장 일기 쓰기)	50'	자기조절 능력
10	종결단계	마법의 선물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기 모습 평가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법의 선물' 놀이하기 -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몸으로 표현하기 - 선물 주고받으며, 친구에게 감사 표현하기 • (행복 책) 행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자랑하기 -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부분 전시하기 	50'	긍정성

자료분석

프로그램의 효과 및 지속성 검증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회복탄력성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4주 이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의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이용하여 검사지 반응 분석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아동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각 회기별 아동 평가 소감, 연구자 관찰내용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단, 3회 검사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각 1명의 아동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검사지 반응 분석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 사전검사 차이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회복탄력성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BOX의 M검증과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BOX의 M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회복탄력성 하위변인 평균값들의 Vector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p>.05$), 두 집단의 분산 · 공분산도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 사전검사 차이검증

측정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조절 능력	실험	34	30.08	5.956	.159	.691
	통제	32	30.62	4.890		
대인관계 능력	실험	34	31.58	6.207	.007	.934
	통제	32	31.71	6.325		
긍정성	실험	34	34.17	8.114	.137	.713
	통제	32	34.78	4.577		
전체 회복탄력성	실험	34	95.85	18.003	.112	.739
	통제	32	97.12	12.170		
Hotelling's Trace=.079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효과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 사후 검사 결과에 대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프로그램 처치 이후 실험 집단의 회복탄력성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실험집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p<.01$), 대인관계능력($p<.01$), 긍정성($p<.05$)에서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추후 검사 효과 검증

사후검사에서 확인된 본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실험집단의 전체 회복탄력성은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또한 실험집단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p<.01$), 대인관계능력($p<.05$), 긍정성($p<.05$)에서 모두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 사후검사 효과검증

측정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조절 능력	실험	34	33.97	5.967	9.173	.004
	통제	32	29.96	4.638		
대인관계 능력	실험	34	35.91	5.440	7.738	.007
	통제	32	31.90	6.249		
긍정성	실험	34	36.82	6.538	5.049	.028
	통제	32	33.34	6.008		
전체 회복탄력성	실험	34	106.70	15.152	10.677	.002
	통제	32	95.22	13.273		
Hotelling's Trace=.171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복탄력성 추후검사 효과검증

측정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조절 능력	실험	34	34.91	5.545	12.275	.001
	통제	32	29.93	5.988		
대인관계 능력	실험	34	34.79	6.054	7.461	.008
	통제	32	30.50	6.715		
긍정성	실험	34	35.35	8.689	4.293	.042
	통제	32	31.46	6.262		
전체 회복탄력성	실험	34	105.05	18.023	10.525	.002
	통제	32	91.90	14.614		
Hotelling's Trace=.200						

4) 실험집단 내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사 결과

실험집단 내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사전-추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점수에 대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표 6과 같이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p<.01$)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p<.01$), 대인관계능력($p<.05$)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긍정성($p>.05$)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전-추후 검사 결과는 표 6과 같이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p<.05$)과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능력($p<.01$), 대인관계능력($p<.05$)의 추후검사 점수는 사전검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 중 긍정성($p>.0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실험집단 내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사전-추후검사 효과검증

측정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조절 능력	사전	34	30.08	5.956	사전-사후	7.210	.009
	사후	34	33.97	5.967			
	추후	34	34.91	5.545	사전-추후	11.945	.001
대인관계 능력	사전	34	31.58	6.528	사전-사후	4.887	.031
	사후	34	35.00	6.194			
	추후	34	34.79	6.054	사전-추후	4.408	.040
긍정성	사전	34	34.17	8.115	사전-사후	633	.429
	사후	34	35.71	7.736			
	추후	34	35.35	8.689	사전-추후	.333	.566
전체	사전-사후		Hotelling's Trace=.302			6.232	.009
회복탄력성	사전-추후		Hotelling's Trace=.266			4.440	.039

5) 통제집단 내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사 결과

통제집단 내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사전-추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점수에 대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검사 점수는 회복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p>.05$), 대인관계능력($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후검사결과 긍정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5$).

<표 7> 통제집단 내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사전-추후검사 효과검증

측정요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자기조절 능력	사전	32	30.63	4.891	사전-사후	1.272	.264
	사후	32	31.97	4.638			
	추후	32	29.93	5.988	사전-추후	.253	.617
대인관계 능력	사전	32	31.72	6.207	사전-사후	4.190	.045
	사후	32	34.91	6.249			
	추후	32	30.50	6.715	사전-추후	.568	.454
긍정성	사전	32	34.78	4.577	사전-사후	1.369	.246
	사후	32	36.34	6.009			
	추후	32	31.46	6.262	사전-추후	5.835	.019
전체	사전-사후		Hotelling's Trace=.636			.359	.551
회복탄력성	사전-추후		Hotelling's Trace=.095			2.410	.126

아동의 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통계검증의 한계와 검사지 반응분석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각 회기별 아동 소감 및 진행자의 관찰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본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 88.2%(30명),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조절력 85.3%(29명), 대인관계능력 88.2%(30명), 긍정성 82.4%(28명)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주요 변화로 자기 조절력 향상에 대해 언급한 학생이 41.7%(16명)이었다.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알아차리고, 나 자신과 내가 진짜 바라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32.3%(11명)의 아동들이 긍정성이 높아진 것을 주요 변화로 보고하였다. 긍정성 관련 응답으로 '기쁘고 즐거웠다,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뿌듯하고 행복하다, 재미있고 앞으로 기대된다, 놀이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고맙다, 인생이 늘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20.6%(7명)의 아동들이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대인관계 능력 관련 응답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협력하는 것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친구의 바람과 감정을 알고 느낄 수 있었다' 등이 있었다. 아동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와 주요 변화에 대한 반응은 본 프로그램이 타당하게 구성되었고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소감 및 진행자 관찰내용 분석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소감 및 진행자의 관찰내용을 회복탄력성의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의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하여 전체 회기 평가와 소감에서 아동들은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와 친구를 이해하게 되었다' 등의 소감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알아차리고 더 나은 행동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문을 격파하고 찢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후련했다, 이제 오빠가 또 그러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큰 소리로 욕하기를 해보고 싶다, 화가 났을 때 집 나가기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안하기를 잘 한 것 같다, 집을 나가면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을 것 같다, 사슬 풀기는 첫 번째는 손도 아프고 안 풀려서 짜증났다, 목표를 웃으면서 풀자로 정하고 나서 웃기는 친구들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 못 풀었지만 괜찮았다' 등의 소감을 통해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며,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미리 예상해 보는 태도들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집단에서 놀이의 규칙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짜증나거나 화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충동 통제 능력이 키워지고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놀이 활동 이후 아동들은 ‘재미있다, 즐겁다, 신난다, 기쁘다, 뿌듯하다, 좋다, 행복하다’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긍정적인 정서 경험들이 축적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화, 짜증을 먼저 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기발하게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통해 감정조절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들은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하여 ‘별칭을 통해 친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별칭을 부르며 친구와 더 친해진 것 같다’ 등의 소감을 말하였다. 별칭이나 이름을 불러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인간관계 능력 증진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스타가 되어 보아서 스타의 기분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스타가 이미지 관리하기에 힘든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의 꿈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친해졌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웠다, 나랑 비슷한 모습이 많았다, 친구와 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각자 바라는 것이 다르지만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등의 소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소중함과 동시에 타인의 바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와 친구들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아동이 평소에 자신이 잘 하는 일, 자신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친구들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람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자의 고충과 노력에 대해 공감하는 이러한 태도 역시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은 긍정성과 관련하여 ‘함께 있어주고 짝이 되어주고 재미있게 놀아줘서 고맙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웠다, 목표 정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두 번이나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말해줘서 고맙다’ 등의 소감을 통해 전체 학급 친구들과 각 모둠원들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삶과 주변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서 긍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의 사슬 풀기 활동 이후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행동과 방법이 있다, 해결을 위해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한다’ 등의 소감을 말하였다. 친구들이 알려준 새로운 행동들을 시도해 보면서 결과를 예상해 보고 더 나은 행동 선택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되고 긍정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생이 힘들지만은 않다, 새로운 길을 찾으면 모든 일을 쉽고 빠르게 풀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의 소감도 있었는데 이는 본 프로그램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생활 속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도전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동들은 매 회기 소감 나누기에서 '감사하기' 활동을 통해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낙관성과 감사하기 태도 등의 긍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동들의 프로그램 평가와 참여 소감 및 연구자의 관찰 내용은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써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지지, 보완해 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은 하위요인인 감정조절능력, 충동통제력, 원인 분석력 향상을 내포한다. 본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현재의 바람(Want)의 실현 가능성과 행동의 적합성에 대한 자기 평가(E)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귀인 패턴 형성을 촉진하면서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 하위 요인인 원인 분석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치료가 내담자의 외적통제를 감소시키고, 내적 통제감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이수진, 1994; 우애령, 1994; 이상숙,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이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그 행동이 자신의 바람(Want) 실현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돕고 그 행동을 선택한 결과로 유발되는 감정과 신체 반응까지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충동통제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치료가 비행청소년 집단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안명선(2008)의 연구와 현실치료가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낮추고 충동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박지영(2015), 강민선과 이양희(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회복탄력성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은 하위 요인인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의 증진을 내포한다. 본 프로그램의 놀이 활동이 아동들이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며, 친밀한 관계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이 상호 작용 놀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되고 사회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는 이정숙과 이동궁(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타인에게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

아확장력 증진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규칙이 있는 놀이를 활용한 집단 상담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하게 돕는다는 유지영(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현실치료가 욕구 충족과 바람 탐색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였다는 Sullo(2000)와 Glasser(199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성의 향상은 하위 요인인 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성향의 증진을 내포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좋은 세계의 탐색과 자기 평가과정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도록 하여 낙관성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고 욕구가 충족된 즐거운 모습을 연상함으로써 욕구 좌절이나 갈등 상황에 보다 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긍정적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서석희와 박애선(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 매회기 소감나누기에서 감사할 대상과 이유를 말하는 활동이 자신과 자신의 사소한 일상, 타인의 행동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감사 성향을 증진시킨 데에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치료적 창작 활동에서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상기하고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과 함께 활동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박동순(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추후검사 분석 결과 본 프로그램으로 인한 회복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향상 효과가 4주 동안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에게 본 프로그램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분석해보면 먼저 평소 자신의 행동 패턴을 자각하여 자신의 바람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멈추고,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도록 유도한 것이 그들의 성공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증진시키며 더 나은 행동 선택을 하도록 동기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알아차리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도록 독려했던 것이 자기이해 및 자기통제에 도움이 되어 자신의 생활에서 이를 계속 활용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소 중 긍정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효과 검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실험집단 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Seligman(2002)이 언급한 인간의 부정편향(negativity bias)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고, 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Fredrickson(2009)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율이 3:1 이상이 될 때 부정편향을 극복하고 긍정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긍정성 증진 관련 활동의 강화가 보다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남현우, 2015). 또한 통제집단의 경우 추후 검사 결과에서 긍정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아진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써 이의 원인 분석과 더불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성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거나 개발할 때는 규칙이 있는 게임 놀이에서 아동들이 평상시 경험해 본 놀이의 규칙들과 유사하게 간단한 규칙으로 수정하고, 저학년 아동도 선택이론을 이해하도록 용어 및 개념들(예컨대 '전행동'은 '행동'과 혼동)을 아동의 이해도를 살펴가며 그들에게 적합한 용어로 변환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있어 청소년 대상 회복탄력성 척도를 아동용으로 수정(남현우, 2015)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회복탄력성 연구에서는 외국의 회복탄력성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적용하거나 기존 척도를 아동용으로 재구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회복탄력성 검사를 개발하여 이에 근거한 회복탄력성 효과 검증 및 증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사후검사 및 추후검사 결과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소 중 긍정성이 실험집단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미애(2015), 남현우(2015)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성 증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입 전략 및 긍정성 증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는 후속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놀이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과 놀이를 활용하지 않은 현실치료 프로그램 및 다른 매체나 도구를 활용한 현실치료 프로그램과의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가장 적합한 회기나 크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질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교육현장에서 현실적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기존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효과 크기를 고려하여 10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10회기 프로그램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들이 적절히 향상되도록 자기조절능력 4회기, 대인관계능력 3회기, 긍정성 3회기 정도로 구성하였으나 본 프로그램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들이 모두 고르게 향상된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모든 놀이 활동에서 규칙 및 시간 준수를 통한 자기조절능력(충동통제력), 협력 놀이를 통한 대인관계능력(공감과 의사소통 능력)과 놀이의 즐거움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 함양(긍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추후 프로그램 회기의 구성에 있어 3가지 하위요인이 매회기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되도록 계획하거나, 혹은 각 하위요인의 회기를 늘려 각각의 하위요인이 보다 확실히 향상되도록 구성한 후 비교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

과적인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있어서도 질적 자료의 보다 체계적인 수집과 전사 자료를 토대로 범주화 작업을 통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실용적 유의미성 분석과 관련된 부가적 분석으로 실험집단을 회복탄력성 고집단(평균+1표준편차이상, 8명), 저집단(평균- 1표준편차이하, 5명), 중집단(저집단과 고집단 사이, 22명)으로 구분해서 처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집단($F=1.727, p>.05$)은 처치효과가 잘 안 나오고 중집단($F=4.714, p<.05$)과 저집단($F=5.157, p<.05$)에서 처치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이 대체적으로 낮은 대상에게 실시할 때 효과가 있다는 실용적 시사점을 주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학교현장에서 회복탄력성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와 검증이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참고문헌

- 강민선, 이양희(2014). 현실치료를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현실치료연구. 4(1), 1-11.
- 강지예(2015). 놀이 중심의 정서지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청소년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창실(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12).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나미(2014). 대학생들을 위한 멘탈 휘트니스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1), 241-258.
- 김명신(2012). 시각화 자료를 활용한 현실치료 셀프카운슬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애(2015).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2013). 강점중심집단프로그램이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인식과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엽(2005). 현실요법을 적용한 교사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혜(2013). 해결중심집단프로그램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 탄력성, 이혼지각,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2008).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내적통제성과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1997). 현실요법과 선택이론.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인자(2000). 현실치료와 선택이론 Intensive week 기초자료집.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인자(2001). 현실요법 선택이론 Work Book.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현정(2004). 인지적 행동수정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학교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13). 초등학교 학습부진아를 위한 현실요법 적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렬(2003).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연(2014). 인지-행동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2014).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장기거주 여성노인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우(2015). 마음챙김 활용 성격강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영천, 유순화(2009). 집단상담 : 초등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의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 연구. 10(4), 2055-2073.
- 류은호(2004). 현실요법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빈곤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순(2011). 현실치료를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만성질환 고령노인의 감사성향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2015). 부모교육을 병행한 놀이중심현실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2016). 현실치료기법을 활용한 긍정 정서 언어훈련이 초등학생의 긍정 정서와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업(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석희, 박애선(2007).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1), 107-130.
- 서준호(2014). 교실놀이백과 239 : 감동과 행복을 만드는 교실 놀이. 서울: 지식프레임.
- 손미나(2015).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안명선(2008). 현실요법적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1), 221-236.
- 안혜진(2010).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미연, 강문희(2004). 집단놀이치료가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4(1), 21-40.
- 여성가족부, 통계청(2016). 2016 청소년통계.
- 연문희, 강진령(2002). 학교상담 : 21세기의 학생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오은숙(2014). 해결중심 자기성찰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성찰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정(2016).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애령(1994).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현주(2006). 현실요법을 적용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개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영(2015).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놀이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서연(2010). 현실요법을 활용한 학급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훈(2016).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숙(2002). 현실요법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귀인행동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회. 9(2) 231-247
- 이수진(1994). 자기 통제력을 중심으로 한 현실 요법 효과성 검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아라(2013). 환경의 위험요인 수준에 따른 인지행동 상담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11). 아동·청소년 대상 현실치료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현실치료학회*, 1(1), 1-16.
- 이정숙, 이동궁(2010). 초등학생의 놀이활동과 스트레스 수준 및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3(2), 195~220.
- 이지원(2009). 역할놀이를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강지현, 권혜수, 김광수, 김정희, 김희수, 박승민, 여태철, 윤경희, 이영순, 임진영, 최지영, 최지은, 황매향(2013). *인간발달과 상담*. 학지사.
- 장은미(2016). 성인대상 현실치료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2015). 놀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초등상담나무연구회(2017). *교실놀이 집단상담 자료집*.
- 최성애(2014).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탄력성*. 서울: 해냄.
- 최순옥, 유한규, 이향숙(2010). *치료놀이의 이해*. 서울: 태영출판사.
- 최희남, 이정미(2015). 놀이를 활용한 용서증진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용서, 자아개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9(1), 1-18.
-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2014). *한국형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학지사
- 한현숙(2015).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성돈(2010). 현실요법을 적용한 성장프로그램이 여중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영(2012).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 :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주, 한미현, 이향숙(2010). *놀이치료: 기법과 실제*. 서울: 창지사.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 Kremen, A. M. (1986).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Fredrickson, B. (2009). *Positivity*. (최소영 역. 긍정의 발견). 서울: 21C북스.
- Glasser, W. (1984). *Reality Therapy*. (김인자 역. 현실요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Glasser, W. (1991). *Control Theory*. (김인자 역.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Glasser, W. (1998).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New York: Harper & Row.
-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2005).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Boston: Person.
- Landreth, G.(2009). *Play therapy : the art of the relationship*. (유미숙 역. 놀이치료-치료관계의 기술). 서울: 학지사.
- OECD(2016).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
- Reivich, K., & Shattée,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Broadway.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역. 긍정심리학: 진정한 행복만들기). 서울: 물푸레.
- Sinclair, V. G., & Wallston, K. A. (2004).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rief Resilient Coping Scale. *Assessment*, 11, 94-101.
- Sullo, R. A.(2000). *Teach Them to Be Happy*. (한귀선 역. 아이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세요). 서울: 사람과 사람.
- Wicks, S.(2005). Social Adversity in Childhood and Risk of Developing Psychosis: A National Cohor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9), 1652-1657.
- Wubbolding, R. E. (2013). *Reality Therapy*. (김은진 역. 현실치료의 적용 II).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Wubbolding, R. E. (1997). *Reality therapy with children*. (이양희 역. 현실요법으로 상담하기: 어린이 마음을 여는 기술). 서울: 사람과 사람.

The Effects of Reality Therapy Program using Play on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in, Soon-Jung

Kim, Kwang-Soo

Gyeonggi Tanbeol Elementary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ality therapy program using play on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ut of four classes of 5th grade in T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2 classes that showed homogeneity in resilience were chosen: one as a control group, and the other as an experimental one. The resilience was reviewed by using each screening instrumen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10 sessions of the reality therapy program using play(each session of 40-50minutes) for 5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a post test and 4-week follow-up test were given after the experiment. The effects of the program was determined by performing SPSS 22.0.'s MANOVA and self-report scales, which were administered after the program, children's feedback reports after each session, and the researcher's observation analysi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resilience and its sub-factors(self regul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positivity). Also, the results of the 4-week follow-up test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displayed significant increase in resilience and its sub-factors(self regul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positivity). The self report and the observ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ogram helped children to be aware of their own desires and specific wants and select better behaviors by checking the feasibility of the wants and the suitability of the behavior through self evaluation in various situations of daily life. Through inner control and attribution, they could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various adversities, and improve the self regul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he positivity needed to overcome them.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reality therapy program using play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enhancing children's resilience.

Key words : Reality therapy, Play, Reality therapy program using play, Resilience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조규필

김기현

김수진[†] 윤제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확대, 수료율 및 취업률 제고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관련 선행 연구들을 수집·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국 내일이룸학교 9개교 훈련생 85명, 졸업생 12명, 중도탈락생 8명, 종사자 16명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분석하였다. 셋째, 미국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소재 Job Corps 센터를 현장방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넷째, 내일이룸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미인가 대안학교, 보호처분시설 등을 이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학계, 현장, 정부 전문가 및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요어 :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 이 논문은 여성가족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실시한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7)'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수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Tel: 051-662-3183, E-mail: sujinkim1224@daum.net

서론

3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저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취업이 되더라도 학력별 임금격차에 따른 근로빈곤층(work poor)이 되기 쉽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들(2015년 5월, 8월, 2016년 6월)이 마련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법률(제 15조 3항)이 개정되었으며(2017년 3월), 동법 시행규칙(제 5조 3항) 개정(2017년 10월)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200여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설치·지정되어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두 배 이상 늘어 2018년 1월 현재 137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 받아 9개교로 확대·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해있는 근로 환경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능, 자격, 태도, 동기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전 고용상태에 처하든가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박가열, 김병숙, 김시업, 임영식, 김은영, 정미나, 김수정, 장여경, 정경은, 2007), 근로현장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근로권 침해를 겪기도 한다. 여성가족부(2015)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으로 취업이나 창업,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24.8%였고, 실제로 절반이 넘는 55.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65.2%),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20.1%),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고 초과수당을 받지 못 하는 경우(20.0%)도 많았다. 아르바이트 업종도 대부분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단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근로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다수(64.3%)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직업체험을 해 본 청소년은 1/3에 불과하고, 실제로 직업기술을 배워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5.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취업을 제고를 위해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운영실태 파악 및 발전방

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인성교육, 자기존중감, 대인관계 향상, 구직동기 제고 및 직업관 형성 프로그램, 학력보완 지원, 상담지원, 수료시 혜택 강화, 학교생활 복지 지원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운영개선 측면에서 교사 처우 개선, 다년계약의 실시, 취업이나 자립에 필요한 직종교육 개발, 예비학교 운영, 체계적인 사후관리, 학교운영 컨설팅 실시, 성과지표 개발 등의 제안이 있었다(이영민, 박가열, 손기영, 이영현, 임정연, 이수진, 2012; 이상봉, 2015). 이 가운데 일부 제안들은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에 반영되었으나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정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고, 내일이룸학교도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에 3곳으로 시작해 2017년 9곳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905명이 내일이룸학교를 거쳐갔고, 218명이 재학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 모집률과 수료율, 취업률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내일이룸학교의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선 제안들 가운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법적·정책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유효한지 재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청소년 및 실무자 대상의 실증조사 등을 통해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일이룸학교의 모집체계 및 교육훈련 운영방식, 훈련생의 생활관리, 취업연계 및 사후적응 관리, 지역협력 네트워크 관리, 실무자의 역할, 중앙지원기관의 역할, 인센티브 개발, 평가지표 등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내일이룸학교의 운영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종사자 및 교육훈련생, 졸업생, 중도탈락생과의 심층면접, 그리고 외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된 개선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일이룸학교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한 청소년의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활발한 고용시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둘째,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법무부의 사회정착지원센터(Youth Education Center : YES) 등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외식, 베이커리, 커피 분야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CJ꿈키움 요리아카데미, 파티쉐 등의 8개 직업체험 과정과 소물리에 등 8개 일터학교를 운영하는 언더스탠드 예비뉴, 그리고 프렌치, 이태리, 한식 등의 조리학과와 서비스학과를 운영하는 SK 행복나눔재단의 뉴스쿨 등이 있다.

국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의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내일이룸학교는 지난 수년간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료율, 취업률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적인 모집전략과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 인센티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해외 4개국의 모범사례에서 내일이룸학교의 운영형태와 유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잡콥스센터(Job Corps Center), 독일의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RKEN!), 일본의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영국의 프로젝트관리 훈련(Project Management Training)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해외 관련 프로그램 비교

구분	미국. 잡콥스 (Job Corps)	독일. 청소년을 강하게! (JUGEND STÄRKEN!)	일본.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영국 PM 트레이닝
대상 연령	· 16세 ~ 24세	· 12세 ~ 26세	· 15세 ~ 39세	· 14 ~ 19세
지원 대상 기준	· 저소득층 한정 · 학교 밖 청소년 ·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	· 학교 밖 청소년 ·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 · 이민자	· 학교 및 직장 밖 젊은이 (NEET)	· 중등교육과정 중도탈락 청소년 · 대학 미진학 청소년
지원 규모	· 연간 6만여 명	· 연간 10만여 명	· 연간 2만여 명	· 연간 2,500여 명
모집 및 홍보	· 취업알선회사 연계 · 지역 및 학교 행사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 지역주민 홍보 · 온라인 모집 및 홍보	· 고용센터 연계 · 지역주민 홍보 · 직접 찾아가 발굴	· 온라인 모집 및 홍보 · SNS 활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름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구분	미국. 잡콥스 (Job Corps)	독일. 청소년을 강하게! (JUGEND STÄRKEN!)	일본.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영국 PM 트레이닝
프로 그램 단계	· 1단계: 사전 단계 · 2단계: 예비과정(4주) · 3단계: 직업훈련(3개월) · 4단계: 구직활동/취업	· 4개 지원서비스별로 구분 ① 상담 및 사례관리 ② 취업지원(직업체험/훈련) ③ 학교복귀 ④ 이민자 지원	· 3개 지원서비스별로 구분 ① 상담지원 ② 정착지원 ③ 집중프로그램(최장 6개월): 기초 소양교육, 직장체험, 실습(OJT), 자격 취득 강좌	· 1단계: 도입 프로그램(3~4주) · 2단계: 학습프로그램(6-12개월) · 3단계: 도제제도(1년-4년) · 4단계: 취업
주요 프로 그램	· 직업훈련체계: 잡콥스에서 건설, 자동차 및 장비 등 100여 종 직업훈련 제공 · 일부 고급과정 운영 ·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검정고시나 운전면허 취득 등 확장 프로그램 제공	· 연계시스템: 지역의 고용 기관과 기업, 학교의 연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자기개발(학교,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고용기관, 직업센터, 기업) 제공 및 취업 지원	· 집중프로그램: 합숙 가능, 수강생 1인당 10만 엔까지 지원 · 협동심,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집중훈련에서 출발해 직장체험, 직장실습(OJT포함), 자격취득 강좌 수강, 취직 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 강습 등 지원.	· 홈 워크(Housework): 지자체 소유 2만여 공공주택 관리업무 계약을 통해 매출 · 도제생에게는 건축분야 업무의 현장훈련을, 수습훈련생에게는 직무탐색을 제공 · 숙련시 외부기업 취업, 비숙련시 자체 도제훈련 고용
기관 운영	· 매주 모집/ 연4회 입학 · 과정당 15명 정원 운영 · 상반기/하반기 졸업	· 센터에서 상시 모집 · 세부 프로그램별 연중운영	· 센터 상시 모집 및 발굴 · 집중프로그램 연중 운영	· 센터에서 상시 모집 · 세부 프로그램별 연중 운영
운영 체계	· 6개 지역 사무처 총괄 · 지역 125개 센터	· 지역 800개 젊은이청	· 자립지원중앙센터 총괄 · 지역 160개 센터 운영	· 17개 PM 트레이닝(사회적기업) · 800여 개 기업 연계
상담	· 사전단계에서 진행	· 상담 및 사례관리	· 상담 및 사례관리	· 상담 및 사례관리
지 원 서 비 스	· 100개 유관 사업체 연계 · 3단계 대학 진학 포함 · 기숙사 무료 지원 · 식비 제공(주별로 다름)	· 1,600개 체험/훈련프로그램 · 학교복귀 프로그램 · 주거지원 없음	· 기초, 실습, 체험, 훈련 · 집중프로그램 숙소무료 지원 · 취직자 정착 상시 상담	· 30개 도제 직무 · 6-12개월 학습프로그램 · 주거지원 없음 · 취직자 대상 멘토링 제공
수당 지급	· 8주 훈련수당(25달러) · 9-16주 훈련수당(30달러) · 17-26주 훈련수당(40달러) · 27주부터 훈련수당(50달러)	· 수당 지급 없음	· 수당 지급 없음	· 훈련생 출석수당 지급 · 도제 최저임금(2.68파운드) 지급
인센 티브	· 진학/취업 인센티브	· 별도 인센티브 없음	· 별도 인센티브 없음	· 무료 아침식사, 교통비, 공구세트, 의상, 운전 강습

주. 잡콥스 : 이상봉(2015) / 청소년을 강하게 : 김기현 외(2017: 178)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진미석 외(2012: 308-309) / PM 트레이닝 : 박창남(2015) 각각 참조

우선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잡콥스센터는 미국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비영리기관 외에 대부분 영리기업에 민간위탁으로 전국에 125개 센터가 운영중인데 매년 16~24세 학교 밖 청소년 6만 여 명에게 직업훈련과 학업능력 및 사회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숙박형태로 지원한다(이상봉, 2015). PM 트레이닝은 영국의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시에서 민간회사인 어스파이어 그룹(Aspire Group)의 리어라이즈 재단(Realise Foundation)에 위탁하여 800여 개 기업들과 연계하여 매년 2,500명의 16~19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제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특히 지자체 소유 2만여 공공주택 관리업무 계약을 하여 '홈워크(Homework)'라는 팀단위에서 매출을 올리며 건축분야 업무의 현장훈련 및 직무탐색을 통해 자체 도제훈련이나 외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박창남, 2015).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RKEN!)'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젊은이부(BMFSFJ)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12~26세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상담, 취업지원, 학교복귀, 이민자 복귀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6,000명 가량이 1,6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10%가 취업하고 있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178).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Support Station)의 경우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전국 160개의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니트(NEET)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사회적성 증진, 직장체험 및 실습, 자격 취득 강좌 등의 서비스를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있다(진미석, 손유미, 김도협, 2012: 308-309).

특별히 이 프로그램들에서 주목할 점은 훈련생을 연중 상시모집하고 있다는 점과 운영기관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 교육과정에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체험과 실습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일이룸학교의 경우 훈련생 모집이 연간 1회에 그치고 있어 훈련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위의 프로그램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맞춰 연중 상시 훈련생 모집체계를 갖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속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일이룸학교가 이제 10개소 내외로 운영되고 있어 입교 희망 청소년이 전국 각처에서 지원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프로그램들과 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확대 설치가 요구된다. 내일이룸학교의 직업훈련 이수율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연계 강화가 필수라고 보여진다. 해외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체험과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 분석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하여 수집하였으며, 운영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지난 2011년에 3개소로 시작된 이후 2016년까지 총 905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모집률 101.7%), 67.6%인 612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참여인원의 32.4%에 해당하는 268명이 중도에 탈락하였다. 수료생의 72.9%인 446명이 수료 후 취업을 하였다. 훈련과정은 학교별 1종씩으로 총 31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훈련기간은 평균 9.5개월이었다.

<표 2>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및 훈련실적('11~'16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훈련기관 수		3	4	5	5	6	8	31	
훈련과정 현황	훈련과정 수	3	4	5	5	6	8	31	
	평균훈련기간(개월)	10	10	9	10	9	9	9.5(평균)	
훈련생 현황	배정인원(A)	100	130	150	150	150	210	890	
	모집인원(B)	111	127	152	148	155	212	905	
	수료인원(C)	69	96	106	105	112	124	612	
	계(D)	42	31	46	43	43	88	293	
	중도 탈락	순중도탈락인원(E)	42	29	42	41	39	75	268
	조기취업인원(F)	0	2	4	2	4	13	25	
	수료 후 취업인원(G)	57	74	75	80	83	77	446	
훈련 실적	모집률(B/A)	111.0%	97.7%	101.3%	98.7%	103.3%	101.0%	101.7%	
	중도탈락률(D/B)	37.8%	24.4%	30.3%	29.1%	27.7%	41.5%	32.4%	
	수료율(C/B)	62.2%	75.6%	69.7%	70.9%	72.3%	58.5%	67.6%	
수료 후 취업률(G/C)		82.6%	77.1%	70.8%	76.2%	74.1%	62.1%	72.9%	

이러한 훈련실적 상의 분석 수치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모집률은 겨우 정원을 채우는 수준으로 예비학교 운영을 통해 준비가 안 된 가입교생을 걸러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평균 1/3정도의 훈련생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취업률은 수료생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낮다고 볼 수 없지만 모집인원의 절반가량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고비용이 필요한 내일이룸학교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내일이룸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2017년 운영현황을 보면, 총 9개 내일이룸학교가 7개 시도에서 운영되었다. 훈련과정은 기계가공조립, 특수용접, 간호조무사, 컴퓨터응용 기계설계, 제과제빵 분야 각 1종, 헤어미용 분야 4종이며, 이 가운데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비중이 평균 77.1%이다. 전체 교육과정은 사전에 2~4주간 운영되는 예비학교(7.2% 비중)를 포함하여 직업훈련(73.4%), 인성교육(7.1%), 교양교육(4.5%), 특화프로그램(7.7%)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내일이룸학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이영민 등(2012)과 이상봉(2015)이 실시한 바 있는데 개선 제안사항의 반영여부는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이영민 등(2012)의 연구에서는 2011년 운영 3개교를 중심으로 졸업생 38명과 취업처 관계자 18명 대상 설문조사와 졸업생(5명), 중도탈락생(2명), 실무자(6명), 취업처 담당자(3명) 16명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 기관 수의 확대, 4가지 운영형태(기숙형, 출퇴근·기숙 혼합형, 상담기관 혼합형, 대안학교 혼합형), 단년계약에서 최대 3년 다년계약, 회계처리 지침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운영 단계에서는 교육생 모집과 선발을 위한 홍보 확대 및 선발기준 마련, 예비학교 운영, 교육지원 확대,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후관리비 지원과 운영기관 협의체 구성, 단기 컨설팅 실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봉(2015)의 연구에서는 2015년 운영 6개교를 중심으로 훈련생 3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업훈련과정과 생활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새로운 제안들로는 청년인턴제 이상의 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계, 고용유지금, 취업수당 등의 지원을 통한 보상 강화, 상급학교 진학 등에 대한 성과 인정, 취업에 필요한 기본 인성교육 및 사회적응교육 등 강화, 훈련수당의 기간별 차등 지급, 취업률이 높은 훈련직종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표 3> 기존 연구 제안 개선방안의 2017년 반영 여부

구분	운영 개선 방안	선행연구		반영 여부	비고
		2012	2015		
운영체계	사업기관 수 확대 (권역별, 지자체별)	○		△	- 11년 보다 6개교 확대 - 광역자치단체별 확대는 미반영
	운영형태 다양화	○		△	- 출퇴근·기숙 혼합형은 반영, 상담기관 혼합형과 대안학교 혼합형은 미반영
	실적우수학교 다년 계약	○	○	○	
대상자 모집	부처 간 협력	○	○	○	
	유인물 제작·배포	○	○	○	
	매스컴 홍보		○	○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	○	
	선발 기준 마련	○		△	- 각 학교별 자체적 선발 중이며 객관적 검사 도구 미개발
	선발 인원 제한	○		○	
예비학교	2~4주의 예비학교	○	○	○	
생활관리	기숙사 마련 및 선택적 운영	○		△	- 9개교 중 7개교만 기숙사 마련
	편안한 생활지원		○	△	-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미흡
상담	상담 지원 강화	○		△	- 일부 학교만 전문인력 배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름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구분	운영 개선 방안	선행연구 반영			비고
		2012	2015	여부	
직업훈련	직종 신규 발굴	○	○	△	- 제안 직종 중 건강, 요리 직종은 신설 - 공업, 정보통신, 건설 직종은 미반영
	인성 교육		○	○	
인성·교양 ·특화 프로그램	사회 적응 교육		○	△	- 학교별 상이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 나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 는 한계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		○	△	
	사무처리 능력 교육		○	△	
	직업훈련기관 이상의 교육		○	△	
학업지원	검정고시 등 지원	○	○	△	- 학업이 훈련시수로 미인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		○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시설 활용	○		×	
	상급학교 진학의 성과 인정		○	×	
지역협력	운영기관 협의체 운영	○		△	- 일부 학교는 유관기관과 활발히 연계.
네트워크	연계시스템 구축	○		△	- 일부 학교는 미연계
사후적응 지원	수료생 사후관리		○	△	- 예산에는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 나 지속적 관리 미실시
	사후관리비 지원(예산에 반영)	○		○	
인센티브	청년인턴제 이상의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	○	×	
	고용 유지금, 취업수당		○	×	
	훈련기간별 훈련수당 차등 지급		○	×	
성과지표 개선	성과목표 및 지표	○		×	
	계획대비 성과평가	○		×	
중앙지원 기관의 역할	회계처리 지침 마련	○		○	
	단기 컨설팅 실시	○		○	

반영 여부 :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2017년 내일이름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위의 제안들이 일부 반영되어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학업지원 성과 인정, 노동부의 고용지원 인센티브 연계, 성과지표의 다양화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기관 확대 및 운영형태의 다양화, 구체적인 훈련생 선발기준 마련, 생활편의시설 제공, 학업지원의 훈련시수 인정 등의 제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직 훈련생 모집률, 교육훈련 이수율, 취업률 등의 주요 성과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내일이름학교 사업이 이관되면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200여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중요시 되었고, 다문화 및 미혼모, 가출청소년 등의 특화시설에 대한 개입도 여성가족부 정책의 주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어 사업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의 제안들 가운데 반영된 요소들이 얼마나 실

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반영된 제안들은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일이룸학교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내일이룸학교 종사자 및 훈련생, 일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질적·양적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문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현장연구	심층면접 (201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85명: 남44, 여41) · 내일이룸학교 졸업생 (12명: 남9, 여3) · 내일이룸학교 중도탈락생 (8명: 남4, 여4) · 내일이룸학교 종사자 (9개교, 16명: 남6, 여10) · 미국 잡콕스 센터 종사자 (2개소, 4명: 남3, 여1)
	설문조사 (201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이룸학교 이용경험 및 개선요구도 설문지 2종 개발 (훈련생용, 학교 밖 청소년용)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709명: 남 321, 여 377, 무응답 11) - 내일이룸학교 15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42, 청소년쉼터 89, 미인가대안학교 68, 보호처분시설 51, 무응답 5
자료 분석	질적 자료 분석 (2017. 9)	· 내용 분석 : 축어록 전사, 개방코딩, 개념 명명화 등
	양적 자료 분석 (2017. 9)	· 빈도분석 (분석도구 : SPSS 18.0)
평가/제안	개선방안 제안(기초)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및 현장연구 자료 분석 결과 적용 · 연구진 자체 개선방향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및 고객자문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현장, 정부 등 외부 자문단 구성 및 자문 · 개선방안 기초안에 대해 청소년 의견 청취 · 연구진의 종합 검토
	개선방안 보완(최종) (201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검토 결과 적용 · 최종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 제안

[그림 1] 연구절차

1. 연구대상

1) 심층면접 대상

심층면접은 2016년 7~8월 사이 학교 밖 청소년과 국내외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 선정시 고려한 점은 내일이룸학교 졸업생 및 중도탈락생의 경우 섭외 가능한 전수를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훈련 지속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훈련생의 경우 기관 특성별 상이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기관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운영 중인 전체 내일이룸학교 재학생 가운데 명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청소년의 성별을 고려하여 기관별 10명씩 전체 105명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방법은 훈련생의 경우 연구자 1명이 청소년 4~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고, 졸업생과 중도탈락생은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실무자 심층면접 대상은 전체 내일이룸학교 9개소에서 기관운영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실무자를 기관당 1~2명씩 16명(남6명, 여10명)을 선정하였으며, 평균연령은 만45세, 경력은 7개월에서 20년까지 다양했으며, 주로 관리 및 행정, 교육훈련, 상담 업무를 맡고 있었다. 국외 조사의 경우, 운영체계상 내일이룸학교에 벤치마킹하기 적합하며, 운영성과가 검증된 기관 가운데 연구일정 내에 조사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섭외결과 미국의 잡콥스센터(Job Corps Center) 2개소에 근무하는 실무자 4명(남3명, 여1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2017년 7~8월 사이 이메일을 통해 사전 인터뷰 질문내용을 전달한 후, 연구진이 현지 통역자 1명과 함께 미국의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잡콥스센터 2개소를 각각 방문하여 센터장 및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시설 라운딩 및 훈련생 미팅을 통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2017년 7~8월 사이 전체 내일이룸학교 훈련생과 예비 고객집단에 해당하는 비훈련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세부 인구사회적 특성을 다음의 표 4와 같다. 비훈련생의 경우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5) 대상 기관 중 접근이 용이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미인가 대안학교 등의 기관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섭외결과 조사에 응한 청소년은 9개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154명과 180여개 청소년기관에 속한 비훈련생 555명으로 전체 70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해당 기관에 사전 협조요청 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수합하였다.

<표 4>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영역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지역	서울	136	19.18	울산	12	1.69	전남	42	5.92	
	부산	67	9.45	경기	68	9.59	경북	26	3.67	
	대구	28	3.95	강원	24	3.39	경남	50	7.05	
	인천	34	4.80	충북	19	2.68	제주	11	1.55	
	광주	13	1.83	충남	70	9.87	세종	1	0.14	
	대전	35	4.94	전북	54	7.62	무응답	19	2.68	
성별	남	321	45.28	여	377	53.17	무응답	11	1.55	
소속	내일이룸학교	154	21.72	경제적 수준	하	148	20.87	일반 가정	593	83.64
	꿈드림	342	48.24		중하	176	24.82	북한이탈 가정	3	0.42
	쉽터	89	12.55		중	299	42.17	다문화 가정	42	5.92
	미인가대안학교	68	9.59		중상	58	8.18	중도입국 가정	11	1.55
	보호처분시설	51	7.19		상	10	1.41	기타	45	6.35
	무응답	5	0.71		무응답	18	2.54	무응답	15	2.12
	연령대	만9세~12세	2		0.28	사회보장 형태	기초생활수급 가정		118	16.64
만13세~15세		35	4.94	차상위 가정			43	6.06		
만16세~18세		474	66.85	일반 가정			310	43.72		
만19세 이상		185	26.09	모르겠음			213	30.04		
무응답		13	1.83	무응답			25	3.53		
		계				709명	100%			

2. 연구도구

1) 심층면접 질문지

면접 질문지는 4종으로 청소년용 3종(훈련생, 졸업생, 중도탈락생), 실무자용 1종을 제작하였다. 훈련생용은 8개 영역(모집·선발, 중도탈락, 직업훈련, 학업지원, 직업훈련·학업지원 외의 나머지 교육 프로그램, 생활관리, 취업, 인센티브)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훈련 참여 계기, 직종 선택 이유, 중도탈락 위기, 예비학교의 도움 정도, 훈련 보완 요구사항, 학업지원 현황, 교우관계, 생활규칙의 영향, 상담 유무, 장려금 사용처 등이었다. 졸업생용은 위 질문 외에 취업 후 생활이나 취업처 적응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후적응 영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중도탈락생용은 중도탈락 사유와 중단 후 생활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일부 내용은 제외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지 구성시 외부전문가 2명에게 질문의 명료성, 정확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면접용 질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실무자용 질문지는 11개 영역(사

업 공모, 모집·선발, 중도탈락, 직업훈련, 학업지원, 생활관리, 사후적응, 취업, 인센티브(혜택), 운영체계 개선 발전방안, 인력 관리)에 대해 오픈형으로 구성하였다.

2) 양적조사 설문지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내일이룸학교 개선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훈련생용과 비훈련생용 2종을 개발하였다. 훈련생용의 조사내용은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실태, 내일이룸학교 관련 일반사항, 직업훈련, 예비학교, 학력취득, 상담, 특화프로그램, 생활관리, 혜택제공, 사후적응서비스, 내일이룸학교에 대한 기대 및 참여의사, 중도탈락, 향후 진로, 일반적 특성의 15개 영역, 1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훈련생용은 교육훈련 참여경험과 중도탈락 등 내일이룸학교 입교 경험에 해당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7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5점 척도로 평정 가능한 문항에 한해 측정된 결과, 주요 프로그램 필요도의 경우, 직업훈련 필요도 .91(하위영역 : 이론교육 .81, 현장실습 .90)이었으며, 예비학교 세부프로그램 필요도 .74, 특화프로그램 필요도는 .94(하위영역 : 인성교육 .88, 교양교육 .84, 기타 프로그램 .94)이었다. 나머지는 실태파악을 위한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 검증이 불필요한 문항들이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심층면접 자료는 105명의 청소년들과 20명의 국내외 실무자들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질적연구 분석방법(김영천, 2012; 박성희, 2004)에 따라 방대한 양의 축어록과 현장에서 기록된 메모를 개방코딩 및 범주화, 개념 명명화 작업을 통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연구진 회의를 통해 면접반응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자료는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배제하였다. 같은 면접반응인 경우에는 귀납과 연역의 과정을 오가며 범주의 생성과 정의를 반복하였다. 총 두 차례의 내용분석 회의를 통해 분석결과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빈도분석과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현장연구 분석결과

1) 청소년 심층면접

청소년 심층면접 분석결과, 모집·선발과정 및 중도탈락 원인 중심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선

해야할 영역은 예비학교, 직업훈련, 학업지원, 생활관리,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사후적응, 인센티브 등 모두 10개 영역에서 58가지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핵심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집 확대를 위해 홍보 확대가 필요하며, 홍보 시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집기간은 1달 이상으로 확대하여 입교 신청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4주의 예비학교 기간을 2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직업훈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간을 늘리고, 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의 동기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훈련기간은 줄여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넷째, 학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일대일로 학습멘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실이나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적응 초기에 희망자에 한해서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섯째, 인성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 기획시 사전에 훈련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곱째, 훈련과정 중 취업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를 돕고, 현장 체험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여덟째, 현장실습 비중을 높여 현장의 감을 미리 익힐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아홉째, 자립장려금을 최소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고정하여 특정일에 지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실무자 심층면접

국내 실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의견이 도출되었다. 분석내용은 사업공모 과정의 개선, 운영기관 모집시기의 조정, 예산배분 방식 변경, 모집선발 기간 확대, 중도탈락율 개선, 직업훈련, 직업지원, 생활관리, 사후관리, 취업률 제고, 인센티브, 인력관리 등 13개 영역에서 55가지의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핵심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공모시 정확한 예산편성 지침 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운영매뉴얼도 공모 때 시달되어야 하며, NCS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운영기관 모집 시기는 9~11월 중에 진행되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11월 말에는 선정이 완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예산배분 방식은 대다수가 현재 PF(Project Financing) 방식에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했다. 셋째, 중앙차원에서 필기 면제, 자립장려금 지급 등 내일이룸학교의 주요 장점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중도탈락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훈련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 4주, 통근형 2주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일부 훈련과정에서는 현행 70%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NCS 과정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오히려 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여섯째, 현장 실습, 취업준비,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포함한 취업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일곱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충분한 취업처 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덟째, 예산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장려금을 출결 일수에 따라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홉째, 1년에 1회 이상 사례관리, 동기부여, 소진방지 등의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인력 선발 시 자격 요건 개선과 관리교사, 보조교사, 훈련강사 등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열째, 운영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해외 실무자 심층면접

미국 잡콕스센터 2곳(워싱턴, 필라델피아)의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한 실무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운영측면과 프로그램측면 모두에서 효과적인 개선방안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핵심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 모집·선발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생 모집 횟수를 늘리고 홍보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잡콕스센터에서는 훈련생을 연중 상시적으로 모집하며 한 과정에 일정 인원 이상이 채워지면 분기별 훈련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계된 취업처에 실무자가 함께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직업훈련 직종을 다양화하고 숙련도별 분반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훈련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상담사는 훈련생과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고 수시로 훈련생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검정고시 지원 및 언어교육 등 훈련생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잡콕스센터에서는 졸업생의 90~95%가 고졸 학력을 취득하여 졸업한다. 다섯째, 생활관리 차원에서 규칙 준수 및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와 제재를 하고 있다. 여섯째, 취업 지원시 지역사회 내 취업처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지하철공사인 Metro Track, 기업형 약국인 CVS, 월그린과 연계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훈련과정에 반영하여 교육과 현장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취업가능성을 높인다. 일곱째, 청소년의 성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취업 외에도 상급 훈련과정 입학, 대학 진학, 심지어 군대 입대까지 성과로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실무인력 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잡콕스센터는 훈련생 350명 규모에 150명 정도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대비 실무자가 2:1의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내일이룸학교의 운영인력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좋은 운영기관은 전체 예산의 6~8% 이윤에 추가적으로 3%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4) 청소년 설문조사

양적조사 분석결과 운영측면과 프로그램측면에 대해 내일이름학교 훈련생의 선호경향과 비훈련생 학교 밖 청소년의 기대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내용은 내일이름학교 인지경로, 입교결정 이유, 직업훈련, 예비학교, 학력취득, 상담, 특화 프로그램, 생활관리, 지원희망 혜택, 사후적용 서비스, 내일이름학교에 대한 기대 및 입교의사, 중도탈락, 향후 진로 등 14개 영역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제시된 주요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이름학교 입교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비훈련생 다수가 입교의사가 없는 것은 내일이름학교를 잘 모르고(68.30%), 내일이름학교에 대해서 모르기(27.51%) 때문이라고 답했다. 둘째, 내일이름학교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입교결정 이유에 대해 훈련생은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32.53%), 비훈련생은 기술습득(자격증 취득 포함)이 가능하고(24.92%), 취업할 수 있고(19.29%), 자립장려금(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의 희망에 따라 적당한 훈련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비훈련생은 적당한 훈련기간으로 6개월(48.29%)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제일 많았으며, 1년(31.35%)이 뒤를 이었다. 현재 내일이름학교는 10개월 내외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넷째, 직업훈련시 실습이나 체험 형태의 교육방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훈련생은 이론교육과 교내실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비훈련생은 취업캠프나 직업현장 체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섯째,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훈련 직종 개발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바리스타(11.43%)와 조리(9.69%), 제과제빵(9.05%) 같은 조리 계열의 직종을 선호했지만, 현재 제과제빵 과정만 개설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피부미용/체형관리, 헤어, 네일아트, 경호, 광고디자인, 간호조무, 여행가이드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이 가운데 피부미용/체형관리, 헤어, 간호조무만이 개설되어 있었다. 여섯째, 학력취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훈련생의 절반 이상이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의사가 있는 경우(261명)가 없는 경우(71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일곱째, 상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훈련생은 상담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높게 평가했고, 상담 기회가 늘기를 희망했다. 여덟째, 생활규칙을 정하거나 생활편의 제공시 훈련생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관의 훈련생들은 기숙형인 경우 평일에도 외출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총 152명)고 답했고, 출퇴근형의 경우, 교통비 지원(총 245명)이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아홉째, 청소년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훈련생은 금연·금주 교육, 폭력예방 교육, 성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비훈련생은 직장적용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열째, 다수가 금전적 성격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입교 혜택으로 비훈련생은 장학금을 가장 원했지만 훈련생은 자립장려금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2. 문제진단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1차 분석한 양적·질적 자료들은 마인드맵핑 프로그램 (Thinkwise 2008pro)을 활용해 6개 영역의 운영측면과 8개 영역의 프로그램측면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들을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수차례의 검토 작업을 통해 다음의 요건, 즉 수집된 현장 의견들 가운데 내일이룸학교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희박한 의견을 제외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2차로 선별하여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발전적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문제점 진단은 운영측면 6개 영역과 프로그램측면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운영측면에서는 운영체계, 대상자 모집, 인센티브, 성과평가지표, 실무자의 주요업무, 중앙지원기관의 역할로 나누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프로그램측면에서는 중도탈락, 예비학교, 직업훈련, 특화프로그램, 학업지원, 상담지원, 생활관리, 사후적응으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표 5> 문제점 진단 비교

구분	문헌조사		현장조사	
	개신 분야	심층면접 (재학·졸업·중도탈락생)	심층면접 (실무자)	설문조사 (훈련생·비훈련생)
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불안정(1년 단기계약) · 세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 준 부재 · 실습부족, 집중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횟수 부족: 연 1회 · 훈련 직종의 선택 제한 · 1훈련직종에 한해 1회만 입학 가능 · 중도에 다른 직종으로 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Project Financing)예산방식 부적합 · 사업공모 시 정보제공 불충분 · 운영기관 모집·선정 시기 늦음 ·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안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입교 신청 기회 한번뿐이라 입교결정에 어려움 있었음 (5.29%) · 모집기간을 늘리거나 수시로 신 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률 저조: 접근성 낮음 · 홍보 예산 부족 · 훈련생 세부선발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낮음, 정보부족, 모집기간 짧음 · 과장 광고 불만 · 예) 100% 전액지원→재료비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시기(1월)가 현실과 맞지 않음: 실제 2~3월 모집이 많음. · 모집기간 짧으며 홍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교 반대: 대학전학준비, 단계 생활부담, 쉬고 싶다, 원하는 직 종 없음 순 · 입교 기대: 기술습득, 취업도움, 학력취득, 친구 사귀기 순
실무자의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구직활동수당1), 청년내 일채움공제2) 지원 제외 · 취업혜택 및 고용혜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장려금이 적으며 지급 불규칙 · 80% 미만 출석시 자립장려금 전액 미지급 · 시험 응시료, 주거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공시 현금지원 불가 · 자립장려금 지급 시기가 일정치 않음 · 20% 이상 결석시 출석포기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순서(비입교 청소년): 장학 금, 자립장려금, 필기시험 면제, 포상금, 특별외출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 중도탈락률(수료율) 외 별도 성과목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강사 부족: 훈련생 4~5인당 직 업훈련 강사 1인 필요 · 직업상담사 등 섭외하여 전문적 취 업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이름학교의 정체성 재확립 요구 · 정체성에 따른 성과평가지표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교사 증원 필요(13.33%) · 통근형의 경우, 등·하교 지원 등 생활관리 전담교사 필요(15.19%)
중앙지원 기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b Corps의 ETA3)와 같은 체계적인 중앙기능 미비 · 담당자 수시 교체 · 장기적 컨설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홍보 부족 · 자립장려금 수당 지급 지연 · 학교 연합 여행, 캠프 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 부재 · 총괄지원기관과 소통의 어려움 · 대상자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교 의뢰기관이 특정 기관에 편 중: 입교생이 14종의 기관 중 5종 의 기관에 84.36% 집중, 나머지 기관에 대한 홍보전략 필요

* 주 1. 청년구직활동수당 : '17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에게 추가 지급(30만원×3개월)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1,600만 원의 자산형성 지원(노동부 900만원+중소기업 400만원+본인 300만원)
 3. ETA(Educational Training Administration) : 미국 노동부 산하의 Job Corps Center 중앙지원기관으로서 교육훈련, 시설자산관리, 정보망 관리(실적분석 등), 사업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모집, 정책 제안 및 사업 기획 등을 지원하고 있음(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구분	현장조사		
	개선 분야	문헌조사	설문조사 (훈련생·비훈련생)
중도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 참여 · 운영목표에 맞지 않는 훈련생 · 입학 · 흥미·적성의 확인 과정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 불일치 및 각종 부적합 · 엄격한 규칙(예: 휴대폰 통제 등) · 기숙사 단체생활 부담 · 중도탈락 동료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문제 및 이성친구 문제 · 각종 부적합 · 단체생활 어려움 · 필기시험 불합격 시 중단을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인원 부족으로 선별 효과 미흡 · 적정기간: 2주~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학교기간중 수강, 교통비 지원이 없어 불만 · 분위기 흐리는 아이 퇴소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기간: 3~4주(44.81%), 1~2주(42.86%) · 인원변동이 잦아 분위기 산만함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 수료율 저조 · 저함 훈련과정 발굴 한계 · 훈련 직종이 1종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습득 정도가 제각각 차이가 큼 · 동기부족 훈련생이 분위기 산만 · 훈련강사 부족 · 기능대회 출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뿐인 훈련 직종 아쉬움 · 선호직종 개설 희망 · 훈련 시 어려움: 과정을 해낼 자신 없음, 적성에 맞지 않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교양, 특화 프로그램의 중복 또는 과도한 운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조절훈련, 직장적응, 대인관계 향상(인성교육)/ 돈 관리, 시간 관리, 비전 세우기(교양교육) 희망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 후 절반이상이 취업 지원 희망 · 별도 예산편성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고시, 일대일학습 지원 필요 · 대학교 입학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수업 지원 미흡 · 상급학교 진학정보 따로 없음 · 직업훈련 외 교육은 힘이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층이 섞여 있는 기숙사의 경우 갈등 경험 · 엄격한 생활 규칙이 중도탈락의 요인으로 지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시설열악, 식단부실, 체력단련 실·보건실 없음, 생활품 부족 · 기숙형: 알바 못함, 주말 프로그램 필요 · 통근형: 셔틀버스 운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스마트폰 제한, 반복된 일과 · 기숙형: 외출·외박 부자유, 식단 부실 · 통근형: 기상·취침 등 시간 관리 어려움, 교통비 부담, 환경 유혹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불필요하다는 청소년과 도움이 된다는 청소년으로 나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 도움이 되나 상담인력, 상담기회,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의 연라 두절 · 사업 종료 후 비용 및 인력 한계로 지속 관리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취업처 알선 · 훈련 직종의 취업처 열악 · 인턴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서비스: 취업알선, 주거지원, 취업처 방문격려 및 관계자 면담, 심리·진로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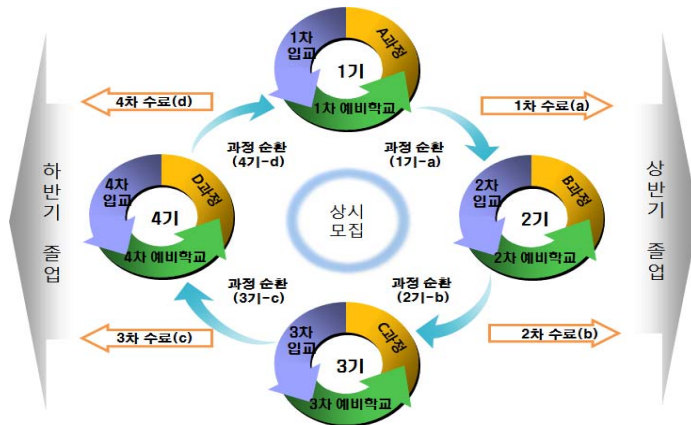
3. 운영 개선방안 도출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은 앞서 진단한 각각의 문제점들과 매칭되는 14가지 영역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운영측면 7가지는 운영체계, 대상자 모집, 협력 네트워크, 인센티브, 성과 지표 개선, 실무자의 주요업무. 중앙지원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프로그램 측면 7가지는 사전단계에서 예비학교 운영, 실행단계에서 직업훈련,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학업지원, 생활관리, 상담, 사후단계에서 사후적응(취업 등) 지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한 복합적인 문제진단 결과 내일이룸학교 전반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측면과 프로그램측면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연구진이 앞서 진단한 여러 문제점 항목들별로 마인드맵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일이 대조하며 선행연구와 현장의견들 가운데 개선안이 제시된 것은 현실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별·반영하였다. 2차로 개선안이 없거나 개선안이 상충되는 문제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수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마련한 기초 개선안에 대해 현장성, 타당성, 정책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외부 전문가 4명(학계, 현장, 사회적 기업, 정부 관계자)과 청소년 고객집단에 해당하는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5명을 선정하여 자문을 듣고 기초 개선안에 대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영역별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측면

① 운영체계 : 내일이룸학교 교육훈련방식 개선의 핵심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입교생 모집, 예비학교,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 등의 운영체계를 분반제 및 순환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림 2] 순환식 교육훈련모형

교육훈련과정은 4종의 세부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분반제) 입교 기수별 3개월씩 A→B→C→D과정을 순환하며(순환제)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각의 세부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계속해서 다음 과정으로 순환하며 수강할 수 있다. 이때,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 수료할 수도 있다. 훈련생의 숙련도에 따라 훈련기간 중에 세부 훈련과정을 1종에서부터 4종까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진도를 따라가지 못 할 경우 기존의 훈련과정에 잔류하여 다음 기수의 훈련생 그룹과 함께 잔여 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진도 차이로 인한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② 대상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연중 수시로 입교신청을 받아 분기별 연 4회 입교생을 선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입교 기회를 늘려야 한다. 기존에는 입교생 모집이 연간 한번 이루어져 입교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학업중단 후 입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모집 방식이었다. 따라서 모집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내일이름학교 투어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홍보, 중앙차원의 홍보 지원, 아웃리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중 상시 모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인센티브 : 내일이름학교 입교 지원자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로는 내일이름학교 졸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소정의 직업훈련시간(1,400시간 중 70% 이수) 이수시 자격증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으로는 자립장려금, 통근형 훈련생에 대한 교통비, 식비, 주거비 지원, 성취수당 및 동기부여 수당 신설 등이 요구된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우수 훈련생 해외연수 포상, 여행 및 캠프 지원, 포상휴가 및 체험휴가 활용, 직업에 유용한 자격취득 지원(운전면허 등)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성과평가지표 : 내일이름학교의 서비스 성과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업률, 수료율 또는 중도탈락률, 이용자 만족도 외에도 직업관련, 학업관련, 적응관련 단·중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직업관련 정량지표 예시로는 취업(조기 취업 포함), 자격증 취득, 도제훈련 참여, 경진대회 입상, 창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고용 지속도 등이 가능하며, 정성지표는 경력개발계획(CDP) 수립, 고용 안정성, 채용업체의 만족도,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직업기술 향상도, 직장 만족도가 있다. 학업관련 정량지표는 검정고시 합격, 학력취득과 상급학교 진학, 정성지표는 학업성취도, 학습능력 향상도 등이 가능하다. 적응 관련 정량지표는 훈련생의 적응도, 사회적응력 향상도, 자립준비도 생활관리 역량,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준 등이 가능할 것이다.

⑤ 실무자의 주요업무 : 운영관리 면에서는 총괄, 훈련생 모집 및 홍보, 기숙사 관리(기숙형), 보건, 영양 및 조리, 행정 및 회계 업무가 필요하다. 생활관리 및 사후적용 면에서는 상담, 생활관리, 사후적용 지원 업무가 요구된다. 교육훈련 면에서는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학업지원,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⑥ 중앙지원기관의 역할 : 내일이룸학교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부 산하의 잡콕스 지원기관인 ETA와 같이 중앙지원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내일이룸학교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운영매뉴얼 개발,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운영 컨설팅, 사업성과 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훈련생 서비스 이력관리, 지역 네트워크 관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밖에 종사자 역량강화 및 고객지원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⑦ 협력 네트워크 : 한편, 입교생 확보, 취업처 발굴,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가 가능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프로그램 측면

① 예비학교 운영 : 예비학교 운영기간은 연 4기수 그룹별 순환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개편할 경우 매분기 2주 과정이 적정하다. 참여인원은 연중 상시 모집체계 운영을 통해 정원의 120%를 충분히 확보하여 입교 전단계에서 적합한 입교생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② 직업훈련 : 직업훈련 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중을 훈련 직종에 따라 30~60%로 축소하고, 취업 시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년의 훈련과정을 3개월 단위로 습득할 수 있는 세부훈련단위로 구분하여 각 세부 훈련과정별 분반제(A~D과정)로 운영하고, 이수 후 다음 세부과정으로 순환하여 수강하는 형태의 순환제 교육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숙련도와 의지에 따라 최소 1종 이상의 세부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훈련기간과 훈련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③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 인성교육, 교양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은 현재 내일이룸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교육방식에 따라 현장에서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시 선호도 조사 등 훈련생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체험이나 실습기회를 확대하며, 훈련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

④ 학업지원 :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내일이룸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학생의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에 내일이룸학교의 교육과정을 포함시켜 검정고시 외의 학력인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내일이룸학교별 학업지원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주간에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방송통신 강의시설 설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력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⑤ 생활관리 : 공동생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진과 훈련생 간의 합의된 생활규칙

마련, 중도탈락 숙려기간 운영, 입교 초기 적응 프로그램 제공, 통근형 훈련생 교통카드 지원 등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기숙시설은 훈련생에게 편의성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환경 및 정기 보수·유지가 필요하며, 체력단련실 설치, 보건실 설치 및 보건인력 배치 등이 시급하다.

⑥ 상담지원 : 훈련생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지도를 위해 공신력 있는 상담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가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담자의 소진예방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수시로 외부의 상담 슈퍼비전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사후적응(취업 등) 지원 : 내일이룸학교 재학중 사전에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lan : CDP)을 세워 졸업시 취업에 대비하도록 하며, 취업에 성공한 선배 서포터즈 활용,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창업교육, 취업처 알선시 정확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된 졸업생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직업준비 상태를 평가하여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이 필요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를 국내외 문헌분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학교 밖 청소년 및 국내외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비롯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일이룸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직업훈련과 생활 관리를 별도의 기관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현재 초기에 한차례 이루어지는 모집 방식도 상시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고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예비학교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생활 관리를 비롯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훈련생의 선호도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적합 직업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훈련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NCS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과정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개선 컨설팅, 훈련생 서비스 이력 정보 관리, 사업운영 및 안전 매뉴얼 개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상의 제안들을 적용한다면, 그동안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난제였던 모집률, 이수율, 취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훈련생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훈련생의 적응과 취업 후 사후적응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내일이룸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취업취약계층인 내일이룸학교 졸업생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고용정책 사업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

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은 2017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 국한해 3개월 간 매월 30만원 씩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취업사관학교)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신설된 수당 지원 대상에 내일이룸학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내일이룸학교 졸업생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수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도 내일이룸학교 졸업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요구된다.

이전의 취업사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면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부처 이관에도 불구하고 공공 혹은 지정 직업훈련시설로 인정되고 이에 기반하여 다른 제도의 공식적인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은 주로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외에도 기업, 대학, 청소년기관 등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일이룸학교의 운영형태도 단지 직업훈련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켜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직업기술 개발 및 사회적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중요한 점은 운영주체가 어떤 기관이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에게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운영기관 형태별 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각 운영형태별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일이룸학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유사기관들과의 차별화된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된 사업(취업사관학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내일이룸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성을 발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에 최적화된 운영 모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발달단계상 단순히 직업기술을 기능적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운영기관과 훈련생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해 자립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적·경험적·발달적 관점에서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는 청소년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 통계청 승인통계를 활용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효과성 검증과 같은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는 작

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내일이룸학교를 운영 중인 개별 기관별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 역시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운영기관별 차이에 주목하여 운영기관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박가열, 김병숙, 김시업, 임영식. 김은영, 정미나, 김수정, 장여경, 정경은 (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잡으로: To the Job) 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박창남 (2015). 비진학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 분석: 영국의 PM Training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215-237.
- 여성가족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취업사관학교 사업 업무매뉴얼.
- 이상봉 (2015). 위기청소년 대상 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영민, 박가열, 손기영, 이영현, 임정연, 이수진 (2012). 위기청소년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발전방안. 고용노동부.
- 조규필, 김기현, 김강호, 김수진, 윤제현 (2017).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진미석, 손유미, 김도협(2012).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교육과 고용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U.S. DEPARTMENT OF LABOR (2017). ETA(Educational Training Administration) 조직도. <https://www.doleta.gov/etainfo>에서 검색.
-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Job Corps (2016). *Policy and requirements handbook*.

A Study 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Naeil Irum School for Out-of-School Youth

Cho, Gyu-Pil

Kim, Ki-Hun

Kim, Su-Jin Yoon, Jae-Hyun

Korea Youth

National Youth Policy

Korea Youth

Counseling&Welfare Institute

Institute

Counseling&Welfare Institut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ays to improve participation rate, completion, and employment rate of out-of-school youths by presenting concrete plan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evaluation of the existing overall operating system and diagnosis of problems in Naeil Irum School(Formerly, Employment Academy). For this purpose, first,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Naeil Irum School's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and suggested implications. Seco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5 trainees, 12 graduates, 8 dropouts, and 16 employees in the nationwide Naeil Irum School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f there is any, and to analyze improvement ideas. Third, we visited the Job Corps Center in Washington, DC and Philadelphia in USA and collected relevant data for benchmarking. Fourth,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709 adolescents using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youth shelter,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 and protective disposal facilities including Naeil Irum School. Lastly, an advisory group composed of academics, field, government experts, and youths has been for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final Naeil Irum School by reflecting their review comments on the first operational improvement plan.

Key words : *Out-of-school youths, Vocational training, Naeil Irum School, Employment Academy*

원고 투고 규정

◆ 원고 투고 일반사항

1. 학술지명

본 학술지의 명칭은 「청소년상담연구(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이다.

2. 발간 회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발간 회수를 늘이거나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 2) 발간 시기는 6월 30일(1호), 11월 30일(2호)이다. ③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되, 1호는 3월 31일, 2호는 8월 31일까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3. 발간 언어

- 1) 본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어로 기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 2)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영문으로 하도록 하고,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요약문을 한글로 하도록 한다.

4. 투고 자격

- 1) 본 학술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청소년상담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관련 상담원(연구원)으로 한다.
- 2) 투고자의 소속이 외국 소재인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5. 투고 원고의 종류

투고 원고의 종류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 논문, 정책 연구, 사례 연구, 조사 연구 등에 한한다.

6. 투고 원고의 내용

- 1) 제출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나 인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 2)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단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7. 투고 편수의 제한

1인의 연구자가 한 호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단독 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단, 공동연구 2편 투고 시 주저자 자격(제1저자, 교신저자) 논문은 1편으로 제한한다.

8. 원고 작성 및 제출

- 1) 원고는 반드시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에서 웹 상으로 접수한다.
- 2)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9. 저자 구분

- 1) 2인 이상이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처음 명기하며, 공동 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 2) 교신 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10. 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의 심사료는 투고자 부담을 원칙으로 논문 투고시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 2) 게재료는 본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투고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 3)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11. 본 규정이나 원고 작성 지침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고 작성 지침

1. 원고 작성

모든 원고는 한글 2002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字로 표시하거나 괄호()속에 원어를 써 넣는다.

2. 논문 투고자의 성명

- 1) 논문 투고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2) 공동저자의 경우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제1저자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그 역할의 중요도를 따라 차례대로 제시한다.

3. 원고 순서

- 1) 원고의 순서는 제목, 한글초록, 서론(문제의 제기, 목적, 필요성 등 포함) 또는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이때 원고의 본문과 영문 초록에는 투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

4. 원고 작성 분량

- 1) 원고 작성의 분량은 아래 원고 편집 규격을 맞추어 B5 용지 15페이지 내외로 하며, 최대 20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 2) 한글 초록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한글의 경우 1000자 내외, 영문의 경우 800 단어 내외로 하며, 하단에 검색을 위한 주요어(key words)를 제시한다.

5. 자료 제시

자료(통계 자료, 행정 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 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6. 각주와 후주

- 1) 후주(endnote)의 사용은 금하고 그 대신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 2) 각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 3) 각주를 표기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뒷편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7. 본문 내의 인용 문헌

-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류관순 (1999)은... 류관순 (1999, p. 25)은...
-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이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예) 한 연구 (류관순, 1999)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 (류관순, 1999; Benning, 1999)에 의하면...
- 3) 누구 등 또는 et al.을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 두 번째 인용될 때부터 한다.
- 4)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처음 인용 때부터 저자의 이름을 모두 쓰지 않고 첫 번째 저자까지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8. 그림과 표 : 그림과 표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 1) 표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줄을 긋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써 넣고,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 넣는다.
예) 그림 1. 실험 I의 자극재료
예) 표 1. 평균화상반응수
- 3)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
예) 그림 1에서... 표 1에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9. 참고문헌 작성

- 1)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2) 참고문헌 작성은 국내와 국외에 따라, 단행본과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에 따라 다음의 원칙과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① 단행본의 경우 :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처 소재지 및 발행처
예) 김준호 (1989).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서울 : 범문사.
예) Airasian, P. W. (1991). Classroom assessment. NY: McGraw-Hill.
 - ②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권(호)수, 쪽수
예) 설기문, 김기주 (1998). 상담에의 현상학적 접근. 대학상담연구, 7, 203-222.

- 예) Brookhart, S. M., & Freeman, D. J. (1992). Characteristic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 37-65.
- ③ 발행기관이 다른데도 정기간행물의 명칭이 같은 경우나 특정 대학에서 발간하는 경우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쪽수, 발행기관.
예) 김성희 (1995). 주장훈련프로그램. 학생지도연구, 16(1), 1-50.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④ 학위논문의 경우 :
예) 백옥현 (1992). 아동의 선택적 주의전략과 금지기제의 발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⑤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 원서발행년도, 원서제목, (번역자 명. 번역서 명). 발행처.
예)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최해림, 장성숙 역. 집단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⑥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한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검색주소.
예)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정보화실태조사결과.
http://www.nic.or.kr/www/press_1.html.에서 검색.
Nua, Inc. (2002). How many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nua.ie/surveys>.
- 3) 영문 참고문헌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쓰도록 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10. 글씨체 및 크기 : 본문, 한글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의 글씨체 및 크기 등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 ① 본문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6, 크기 10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정렬방식 : 양쪽 정렬
용지설정 : 용지종류 188×257(가로×세로), 용지방향 좁게,
여백주기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3, 꼬리말 13, 제본 0
머리말 설정 : 위치 양쪽, 크기 9,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첫줄 보통, 줄간격 170, 짝수 쪽-저자명, 홀수 쪽-논문제목
표 안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 ② 한글초록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장평 95, 자간 -6, 크기 9
문단모양 : 왼쪽 30, 오른쪽 3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주요어 : 문단모양 : 왼쪽 30 오른쪽 30, 보통 줄간격 170
글자모양 : 중고딕체, 크기 8, 장평 95, 자간 -6, 양쪽정렬)

③ 연구지원 사항 및 교신저자

연구지원사항은 논문 제목에서, 교신저자는 저자명에서 각주 처리 (각주모양*)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5, 크기 9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5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양쪽정렬

필수항목 : 이름, 소속, 우편번호, 주소, 근무지, E-mail

④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

논문제목 : 스타일 논문제목,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17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 휴먼명조체, 크기 16, 진하게, 장평 95, 자간 -6

저자명 : 스타일 저자명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보통, 줄간격 200, 편집용지의 줄격자 사용,
정렬방식 가운데

글자모양 : 중고딕체, 크기 10, 장평 100, 자간 -7

저자소속 : 크기 10,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본문 내 제목(예, 방법, 결과) : 크기 11,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본문 내 소제목(예, 연구대상) : 크기 10, HY그래픽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본문 내 소제목 1(예, 검사, 척도) : 크기 10,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표 제목 : 크기 9, 중고딕체, 정렬방식 양쪽정렬

그림 제목 : 크기 9, 중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⑤ 참고문헌

제목 : 크기 11, 진하게, 휴먼명조체, 장평 95, 자간 -6, 정렬방식 가운데

내용 : 크기 10, 휴먼명조체, 위 0, 아래 0, 왼쪽 0, 오른쪽 0, 장평 95, 자간 -6, 내어쓰기 25,
줄간격 170, 정렬방식 양쪽정렬

⑥ 영문초록

제목 : 크기 16, 진하게,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저자명 : 크기 10, 중고딕체, 정렬방식 가운데

저자소속 : 크기 10, 휴먼명조체, 정렬방식 가운데

내용 : 크기 10, 휴먼명조체(단, 주요어는 이탤릭체), 장평 95, 자간 -6,

문단모양 : 왼쪽 0, 오른쪽 0, 위 0, 아래 0 줄간격 180, 보통, 정렬방식 양쪽정렬, 탭위치 40.3

11. 기타

- 1) 이상의 원고 작성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원고의 체제 및 기술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 수정 보완될 수 있다.
-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나 미국심리학회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5th edition)을 참조한다.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June 2018
Volume 26
Number 1

- 1 Effect of the School Ecological System Variables on Ninth Graders' Adjustment
Kim, Hee-Kyung · Kim, Sung-Hoon
- 23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h, Hye-Lim · Lee, Ju-Young
- 47 Longitudinal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Ah, Young-Ah · Kim, Jin-Young
- 67 Young Adult Women's Identity from the Narrative Perspective
Choi, Sa-Rang
- 87 Vicarious Traumatization among School Counselors: Focusing on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Lee, Oan-Na · Kim, Mi-Jung
- 105 Impact of Perceived Peer Attachment Perceived on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Oh, Eun-Hwa
- 125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ffects the Development of Inner Child: Analysis of Mediated Effects of Initial Maladaptation Schemes and Social Support
Paeg, Seung-A · Khu, Bon-Young
- 147 The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Group Counseling Programs
Moon, Eun-Ju
- 173 The Influence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Relational Aggression of You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 Hyun-Jin · Keum, Myoung-Ja
- 189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Gambling Behaviors of High School Boys and Girls.
Sun, Hye-Min · Cho, Eun-Hi · Park, Jin-Hee · Yang, Jeong-Ha · Choe, Ji-Yi · Sin, Hyun-Ju · Cheon, Seong-Moon
- 207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Late-Adolescents
Seo, Mi · Chung, Ick-Joong · Lee, Tae-Young · Kim, Ji-He · Yoon, Min-Jee
- 23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Dependency, Internet Cognitive Failure, Peer Relationship, Academic Stress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im, Dong-Sim
- 255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Jang, Jee-Hyun · Lee, Jeong-Hwa
- 277 The Impact of Child Abuse Experience,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School Adjustment in Late School-aged Childre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Lee, Young-Ae
- 299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wang, Soon-Gill · Lee, Gui-Suk · Lee, Hey-Jung
- 321 Development of Work-Related Stress Questionnaire for Counselors in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s
Kim, Seung-Cheon · Kim, Dong-Min
- 343 The Effect of Self 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Lee, Su-Min · Yang, Nan-Mee
- 365 Mediation Effects of Autotelic Personal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and Learning Flow
Song, Su-Jin · Hong, Jung-Soon
- 387 The Effects of Reality Therapy Program using Play on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in, Soon-Jung · Kim, Kwang-Soo
- 413 A Study 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Naeil Irum School for Out-of-School Youth
Cho, Gyu-Pil · Kim, Ki-Hun · Kim, Su-Jin · Yoon, Jae-Hyun

